

[최종보고서]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areer Education
Curriculum Improvement

2025. 6. 20.

국가교육위원회

제 출 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최종보고서
로 제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 주관연구기관명 : 경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기간 : 2024년 10월 31일 ~

2025년 6월 20일 (8개월)

○ 주관연구책임자 : 경인교육대학교 서우석 교수

○ 참여연구원

· 용인 한숲중학교 박정근 교사

· 가톨릭대학교 홍성표 교수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지은 연구위원

· 서울교육대학교 장현진 교수

· 한국교원대학교 임한려 학술연구교수

· 경인교육대학교 백선희 교수

○ 연구보조원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김기민

·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김예은

※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은 실제 연구에 참여한 기관 및
참여자의 명의로 함

- 이 연구는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연구되었음
- 이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이나, 이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이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를 밝힘

최종보고서 초록

과 제 관리번호	제2024년-16호	총연구기간	8개월
연구과제명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연구		
연구책임자	서우석	참 여 연구원수	9
연구기관명 (소속부서)	경인교육대학교(생활과학교육과)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내외)			면수 : 282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목적 및 방법: 이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교육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토대로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해 실태 조사, 요구조사, 해외 사례 분석, 인터뷰, 워크숍, 세미나 등의 다층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음. • 실태 분석: 진로교육 교육과정 관련 정책 동향, 개발 실태 분석을 통하여 정책 주체의 모호성,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시수의 한계, 초등 진로교육의 구조적 한계, 학교 내·외 간 협력 부족, 정량적 성과 관리 미흡 등을 확인함. • 요구 분석: 미래 사회 변화 및 교육과정 개선 요구를 분석하여, 총론-각론 간 구조적 정합성 제고, 초등 진로교육의 범교과적 접근 강화, ‘진로와 직업’ 교과 의 필수화 및 내실화, 창의적 체험활동의 질적 제고, 진로전담교사의 학업 설계 지도 역할 강화 등의 요구를 수렴함. • 주요국 사례 분석: 영국, 캐나다, 핀란드의 사례 분석을 통해 역량 중심의 교과연계 전략, 학 교급 간 연계 지원, 전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운영 체계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진로교육 개선 방향과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개선 방향: 실태분석, 요구분석 및 외국 사례 등의 결과와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을 통해 도출된 방안을 종합하여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의 기본 방향을 설정함 ◦ 세부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타담론: 진로교육 교육과정 유형에 대한 2×3 매트릭스 분석을 실시하고 ‘체제-편성-방법’ 의 위 계로 구조화하여 진로교육 교육과정 유형별 성격과 위계를 정립하여 통합적 운영의 틀을 제시함. - 교육과정 개선 방안: 총론의 운영 기제와 각론의 실행 영역(교과 및 창체)을 유기적으로 연계하 고, 학교급별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내용 체계의 위계성을 확보하는 구체적 개선안을 제시함. - 교육과정 운영 개선 방안: 진로교육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데이터 기반의 성과 관리 및 환류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내실화 방안을 제시함. - 거버넌스 강화 방안: 국가(범부처 협력 및 역할 정립), 지방자치단체(조례 기반 센터 활성화), 학교(협력적 문화 제도화) 수준의 다층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함. 			
색인어	한글	진로교육 교육과정, 진로연계교육, 진로교육 정책, 교과연계 진로교육, 고교학점제, 진로교육 거버넌스,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영어	Career Education Curriculum, Career-Linked Education, Career Education Policy, Subject-Integrated Career Education, High School Credit System, Career Education Governance, Career Education Curriculum Reform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2
3. 연구방법	4
II. 「진로교육법」 제정 전·후 우리나라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실태 분석 ...	7
1. 진로교육 교육과정 정책 관련 동향 분석	7
2.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실태 분석	14
3.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체계 분석	44
4. 종합 및 시사점	47
III. 사회변화 등을 고려한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 분석	51
1. 미래사회 및 교육 변화 분석	51
2.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분석	55
3. 학교급별 진로교육 내용 체계 및 연계성 분석	97
4. 종합 및 시사점	106
IV. 주요국의 진로교육 정책 및 진로교육 교육과정 분석	112
1. 영국의 진로교육 정책 및 진로교육 교육과정	112
2. 캐나다의 진로교육 정책 및 진로교육 교육과정	118
3. 핀란드의 진로교육 정책 및 진로교육 교육과정	125
4. 종합 및 시사점	137
V.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140
1.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	140
2. 진로교육 교육과정 기본 개선 방향	148
3.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안	150

VI. 요약 및 제언	188
1. 요약	188
2. 제언	190
참고문헌	193
【부록】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분석 인터뷰지	198
【부록 1】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분석 인터뷰지(초중등 진로전담교사)	199
【부록 2】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분석 인터뷰지(초중등 일반교과교사)	219
【부록 3】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분석 인터뷰지(초중등 학교관리자)	239
【부록 4】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분석 인터뷰지(정책담당자 및 학계전문가)	254
【부록 5】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분석 인터뷰지(학부모)	260
【부록 6】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분석 인터뷰지(학생)	271

표 목 차

<표 I -1>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분석 개요	4
<표 I -2> 심층 인터뷰 대상	5
<표 I -3> 심층 인터뷰 개요	5
<표 I -4> 전문가 집단 워크숍 개요	6
<표 I -5> 학술세미나 개요	6
<표 II -1> 우리나라 국가 진로교육 발전단계	7
<표 II -2> 진로교육 관련 주요 법·제도	10
<표 II -3> 진로교육 교육과정 관련 주요 법적 근거	11
<표 II -4> 진로교육 관련 주요 계획	12
<표 II -5> 진로교육 관련 주요 교육과정	13
<표 II -6> 2022 개정 교육과정 진로교육 교육과정 관련 총론 주요 내용	15
<표 II -7> 진로연계교육 관련 주요 내용	16
<표 II -8> 2022 개정 교육과정 중 진로교육 교육과정 관련 주요 내용	17
<표 II -9> 2022 개정 교육과정 중 진로교육 교과에의 주요 내용 비교	19
<표 II -10>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체계	20
<표 II -11> 교과연계 진로교육 실시 여부 및 실시 방식 (2023)	22
<표 II -12> 교과연계 진로교육 실시 주요 교과 (2023)	22
<표 II -13>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시기 연차별 비교 (2021-2023)	25
<표 II -14> 「 ‘진로와 직업’] 선택과목 수업의 운영학기 (2023)	28
<표 II -15>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배당 시수 (2023)	29
<표 II - 16> 중·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및 진로활동 배당 시수 (2023)	30
<표 II -17> 진로심리검사 실시 여부 (2023)	32
<표 II -18> 진로심리검사 결과지 제공 후 추가 활동 진행 여부 및 실시 방식(2023)	33
<표 II -19> 진로체험 행사 실시 여부 (2022년 실적 기준)	34
<표 II -20>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2023)	36
<표 II -21> 진로체험 유형별 도움 정도(2023)	37

<표 II-22> 진로교육 정책 도움 정도(2023)	38
<표 II-23> 자녀의 학교 진로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2023)	41
<표 II-24>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2023)	42
<표 II-25>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활용 현황 및 진로체험 도움 정도(2023)	42
<표 II-26> 「진로교육법」 제정 전·후 우리나라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실태 분석 종합 및 시사점	49
<표 III-1> 미래 사회 변화 및 교육 선행연구 종합	51
<표 III-2> 대상별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 키워드	88
<표 III-3>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의 세부 내용(고등학교)	97
<표 III-4> 2022 학교급별 진로교육 영역 및 목표	98
<표 III-5>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	100
<표 III-6> 교과 내 진로교육 관련 단원, 성취 기준	100
<표 III-7>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진로교육 교육과정	101
<표 III-8> '진로와 나의 이해' 영역 내용 체계 비교	102
<표 III-9> '직업 세계와 진로 탐색' 영역 내용 체계 비교	103
<표 III-10>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교과의 '진로 설계와 실천 영역' 내용 체계 비교	103
<표 III-11> 창의적 체험활동 내 진로활동의 내용 체계 및 연계성	104
<표 III-12> 사회변화 등을 고려한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 분석 종합 및 시사점	108
<표 IV-1> 교육 제공자가 진로지도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법적 지침(2023년 1월 기준)	112
<표 IV-2> 영국 개츠비 벤치마크(Gatsby Benchmarks)	115
<표 IV-3> 샌드바흐 중등·후기중등학교의 STEM 동아리(club)운영 사례	116
<표 IV-4> 영국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방식	116
<표 IV-5> 우드사이드 중등학교(Woodside High School) 사례	117
<표 IV-6> 캐나다 학생 전환 벤치마크(Student Transition Benchmark)	119
<표 IV-7> 캐나다 학생 전환 벤치마크(Student Transition Benchmark) 자체 평가 도구 (Self-Assessment Tool): 예시	120
<표 IV-8> 캐나다 온타리오 주 '교육 및 경력 계획(Education and career/life planning)' 내용	121
<표 IV-9> 캐나다 온타리오 주 '진로 연구 Case Study' 내용	122
<표 IV-10>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 교육과정	123

<표 IV-11>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주 진로관련 교과 핵심 아이디어	124
<표 IV-12> 기본교육법에 따른 초·중학교 기본교육 최소 시간 배분 기준(필수 과목과 시수)	128
<표 IV-13> 핀란드 초·중등 기본교육의 7가지 횡단적 역량(Transversal competences)	129
<표 IV-14> 핀란드 고등학교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과목 및 학점 배당 기준	130
<표 IV-15> 핀란드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수준과 생애주기에 따른 학생 진로교육 방식 체계	131
<표 IV-16> 핀란드 7~9학년 학생(진로)지도상담 교육의 목표 체계	133
<표 IV-17> 주요국의 진로교육 정책 및 진로교육 교육과정 분석 종합 및 시사점	138
<표 V-1> 진로교육 교육과정 발전 방향(안)	141
<표 V-2> 진로교육 교육과정 발전 방향(안)별 워크숍 주요 의견	142
<표 V-3> 워크숍 이후 진로교육 교육과정 발전 방향(안)	145
<표 V-4> 진로교육 교육과정 발전 방향(안)별 학술세미나 주요 의견	147
<표 V-5>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진로교육 교육과정 용어 비교 분석	151
<표 V-6>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이수방법과 학습운영방식에 따른 2x3 매트릭스	152
<표 V-7> 진로교육 교육과정 위계에 따른 분류	153
<표 V-8>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위한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 역할 예시	157
<표 V-9> 중학교 진로교육 시스템화 개선 방안	159

그림 목 차

[그림 I-1] 연구모형	3
[그림 II-1]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비율 연차별 비교 (2021~2023)	25
[그림 II-2] 「 ‘진로와 직업’] 선택과목 채택률 연차별 비교 (2017~2023)	27
[그림 II-3] 진로심리검사 참여율 연차별 비교 (2016~2023)	32
[그림 II-4] 진로체험 참여율 연차별 비교 (2016~2023)	33
[그림 II-5]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추진 체계도	44
[그림 II-6]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의 추진 체제	45
[그림 IV-1] 핀란드의 학제	126
[그림 IV-2] 핀란드 초·중등 기본교육의 7가지 횡단적 역량과 교과목 교육의 관계 ..	12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진로교육 교육과정은 국가 차원에서 학교 진로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다. 진로교육은 특정 시기의 진학지도나 직업정보 제공에 한정되는 활동이 아니라, 학생의 자기이해, 진로탐색, 진로의사결정, 진로계획 및 진로 준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공교육의 책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진로교육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통하여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총론과 각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와 지역사회, 정책과 실행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이러한 진로교육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에서 태동기, 성장기, 발전기를 거치며 변화해왔다(서우석, 2024). 제1차에서 제5차 교육과정에 이르는 태동기에는 독립된 교과 없이 특별활동이나 관련 교과를 통해 분산적으로 진로교육이 운영되었다. 이후 성장기인 제6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진로·직업」(7차 교육과정부터 「진로와 직업」으로 변경) 교과가 신설되었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에서도 「진로와 직업」 교과가 신설되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내에 진로활동이 도입되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발전기에 해당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진로교육법」 제정과 함께 역량 중심 교육과 자유학기제를 통해 진로 탐색이 강조되었다(한상근 외, 2021).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고 진로연계교육 및 고교학점제를 도입하여, 학생이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실질적인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목표로 한다(박나실 외, 2023).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진로교육을 교육과정의 핵심 기제로 설정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진로연계교육의 도입, 고교학점제의 안착 지원 그리고 학교자율시간 운영 등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교육부, 2022). 박나실 외(2023)에 따르면, 2022 개정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은 자기 이해의 출발점을 심리검사가 아닌 학생의 삶과 맥락으로 전환하고, 변동성 높은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유연한 태도와 실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은 분절적이고 비중이 낮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총론 수준에서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실제 학교 운영에서는 진로연계교육의 개념과 운영 범위가 충분히 구조화되지 못하여 학교급 전환기 지원, 학업설계 지원, 교과연계 진로교육 간의 관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 각론 수준에서는 초등학교 진로교육이 실과 일부 내용이나 범교과 활동에 분산되어 체계성이 약하고, 중·고등학교의 「진로와 직업」 교과 또한 학교급과 학교 유형에 따라 편성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입시 중심의 과목 선택 구조 속에서 주변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운영 수준에서도 창의적 체험활동 내 진로활동, 진로심리검사, 진로체험, 상담활동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활동 간 연계성과 후속 지원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채 단발적·행사성 운영으로 귀결될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학교,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역사회, 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가 진로교육에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 간 역할과 책임, 협력 구조, 성과관리 및 환류 체계는 아직 충분히 정교화되지 못한 실정이다(문찬주 외, 2023; 서우석, 2024; 정윤경 외, 2024; 조대연 외, 2020).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진로연계교육, 고교학점제, 학교자율시간 도입 등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교육부, 2022). 그러나 실제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진로연계교육의 경우, 학교급 전환기 학생들의 적응과 진로 설계를 돕는 중요한 기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운영 모델이 부재하여 교사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정책적 위상이 의무 조항에서 '할 수 있다'는 자율 조항으로 완화되면서 실행 동력을 상실하고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윤경 외, 2024). 고교학점제의 경우,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나, 입시 중심의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진로 탐색보다는 대입에 유리한 교과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문찬주 외, 2023). 학교자율시간의 경우, 단위 학교가 지역과 학생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교사의 업무 및 개발 부담으로 인해 그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많은 학교가 학생의 다양한 진로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기보다는, 기존의 정보 교과 시수를 확대하거나 이미 승인된 타 학교의 과목을 수용하거나 모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인 학생 선택권 보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김홍일, 이지은, 2024; 이주연, 2024).

진로교육 관련 교육과정 개발 연구는 2021년에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한상근 외, 2021)과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연구(박나실 외, 2023; 정윤경 외, 2021; 정중희 외, 2020)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주로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기준 수립과 문서 개발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개발된 교육과정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가 수준 교육과정 체계와의 연계, 총론-각론 간 구조적 정합성,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지원 체계의 통합적 분석, 거버넌스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새로운 교육과정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래사회 변화에 적합한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를 통해 차기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구조적 한계와 정책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사회변화와 교육환경의 전환, 현장 요구, 주요국 사례를 반영하여 차기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과 실행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진로교육법」 제정 전·후 우리나라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실태를 분석한다.
- 둘째, 사회변화 등을 고려한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를 분석한다.
- 셋째, 주요국의 진로교육 정책 및 진로교육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넷째,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및 방안을 도출한다.

2. 연구내용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 및 방법에 따른 연구 모형은 [그림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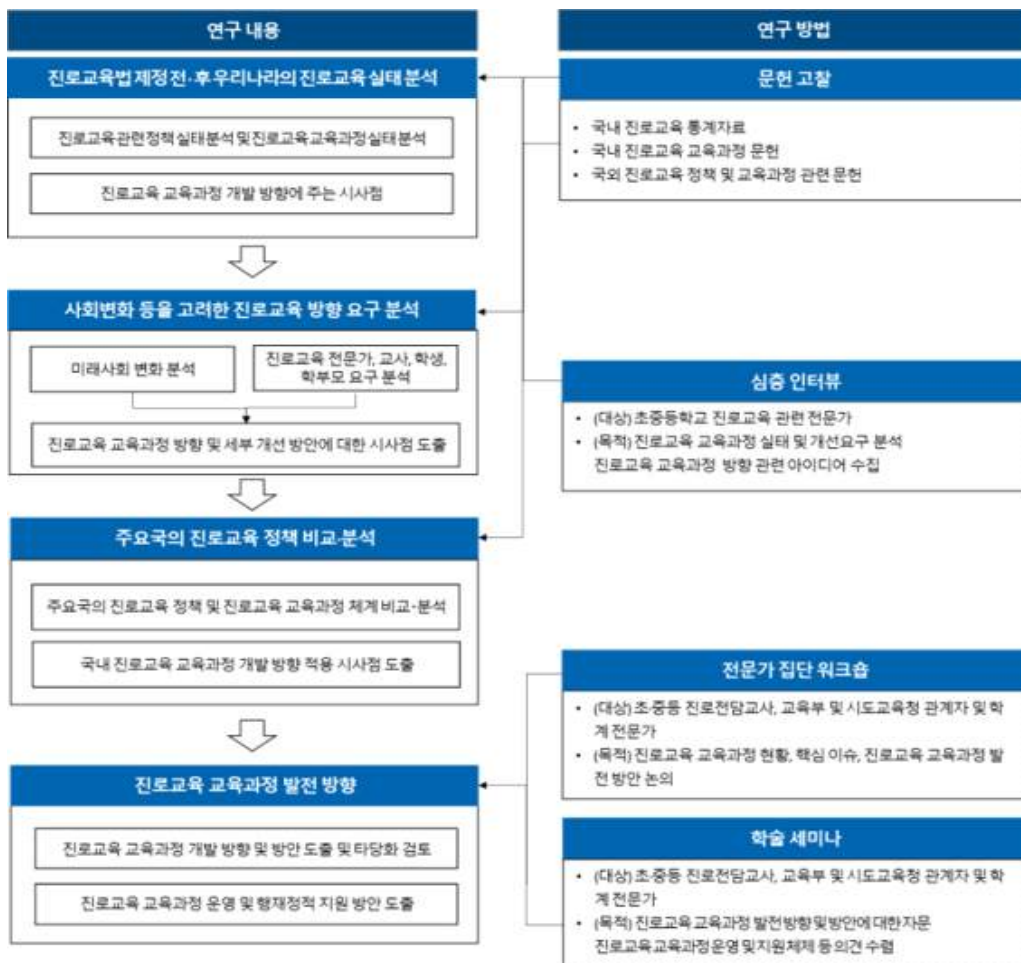
제2장에서는 진로교육법 제정 전후의 변천사를 고찰하고,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현행 시스템의 실태를 진단한다. 우리나라 진로교육 정책의 시기별 발전단계와 진로교육 관련 법·제도, 주요 계획, 2022 개정 교육과정 등을 검토하여 진로교육 정책 분야별 동향을 파악한다. 또한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실태를 분석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와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일반교사, 학교관리자, 학생, 학부모, 진로교육 정책담당자 및 학계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현행 진로교육 교육과정이 안고 있는 법적·제도적·운영적 한계와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

하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존의 교육과정 개발체제를 분석한 후에 추후 적용될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체제를 분석하여 차기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사회변화 등을 고려한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진로교육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사회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진로교육 이해관계자(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요구를 도출한다. 이는 진로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핵심 개선 과제를 선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제4장에서는 영국, 캐나다, 핀란드 등 해외 주요국의 진로교육 정책 및 교육과정을 분석한다. 주요국의 진로교육 정책 및 교육과정 운영 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진로교육의 법적 기반, 교육과정 편성 방식, 학교급 간 연계 모델, 전담 인력의 전문성 확보, 성과 관리 체계, 거버넌스 구조 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의 내재화 방식과 실행력을 담보하는 기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진로교육 정책 및 교육과정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다.

제5장에서는 실태 분석, 요구 분석,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 편성(총론/각론), 운영 방안, 평가 및 환류 체계, 교원 전문성 강화 방안을 포함하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진로교육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동 과제임을 인식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역산업체, 대학 등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한다.



[그림 1-1] 연구모형

3. 연구방법

가. 문헌고찰

문헌 고찰은 국내외 정책보고서와 학술문헌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국내외 정책 보고서, 학술 저널 등을 바탕으로 진로교육 교육과정 실태와 진로교육 방향 및 방안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진로교육 교육과정 정책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연구보고서를 활용하였다(〈표 1-1〉 참조). 또한, 미래 사회 변화가 진로교육 교육과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술연구 및 정책연구 보고서 등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영국, 캐나다, 핀란드의 진로교육 정책 및 교육과정 사례 분석을 위해 각국의 정책 보고서와 국내외 학술 DB 및 주요 학술 저널을 고찰하였다.

〈표 1-1〉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분석 개요

영역	내용
진로교육 교육과정 총론 관련 운영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교육 집중 학년·학기제 운영 여부 진로교육 집중 학년·학기제 운영 시기 교과연계 진로교육 실시 여부
진로교육 교육과정 각론 관련 운영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와 직업’ 과목 선택 여부 ‘진로와 직업’ 과목 운영 시기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서 사용 수업 여부 진로상담/진로심리검사/진로체험 실시 여부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진로교육 활동별 필요성 인식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필요 요소 진로교육 연간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주요 대상 담임교사/학교관리자의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 진로전담교사가 인식한 학교관리자의 진로교육 인식 및 지원 수준 진로전담교사와 담임교사 간의 연계 진로체험지원센터 활용 여부 진로체험지원센터 도움 정도 자녀 진로교육 관련 학부모 연수 운영 여부 자녀 진로교육을 위한 자료 제공 여부 자녀 진로교육을 위한 상담 제공 여부 학교 진로교육협의회 운영 여부
진로교육 운영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 학교 진로활동별 참여 현황 및 만족도, 향후 참여 희망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 현황 및 도움 정도, 향후 참여 희망 진로교육 정책 도움 정도

나. 심층 인터뷰

현장의 생생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2025년 3월 중 진로전담교사, 일반교사, 학교관리자, 초·중등학생 및 대학생, 학부모, 정책담당자, 학계 전문가 등 학교 진로교육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진로교육 교육과정 실태와 관련 요구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심층 인터뷰 진행에 앞서 경인교육대학교 IRB 심의 승인(GINUEIRB-2025-001)을 받았으며, 진로전담교사 12명, 일반교과교사 9명, 학교관리자 8명, 초·중등학생 및 대학생 14명, 학부모 12명, 교육부·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10명 등 총 6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학교급과 학교 유형을 고려하여 표집하였으며, 진로교육 교육과정 관련 연구 및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실제 교육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로 구성하였다.

〈표 1-2〉 심층 인터뷰 대상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직업계고	특수학교	대학생	총 인원
진로전담교사	3	3	3	1	2	-	12
일반교과교사(교육과정부장)	2	2	2	1	2	-	9
학교관리자(학교장)	2	2	3	1	-	-	8
정책담당자/학계전문가	-	-	-	-	-	-	10
학부모	3	3	4	2	-	-	12
학생	3	2	4	2	-	3	14
계							65

심층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개별 면담 형식을 통해 1인당 60분 이내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섭외 및 면담 시작 시 연구 목적, 자료 수집 방법, 녹취 동의 여부,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가 가진 특정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현상과 경험의 패턴을 파악하고 주요 주제를 도출하는 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김인숙, 2016). 주제분석법은 자료에 드러난 생각, 경험, 행동 등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Braun & Clarke, 2012; Kiger & Varpio, 2020), ① 자료 숙지, ② 자료 코딩, ③ 코드에 부합하는 주제 탐색, ④ 도출된 주제 검토, ⑤ 주제 명칭 확정, ⑥ 확정된 주제에 따른 기술(writing)의 단계로 이루어진다(Braun & Clarke, 2006). 이 연구에서는 세부 주제-소주제-대주제 순으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연구진 간 상호 검증을 통해 분석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표 1-3〉 심층 인터뷰 개요

구분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진로교육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진로교육 실태 및 요구 분석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12명 • 일반교과교사 9명 • 학교관리자 8명 • 정책담당자 및 학계 전문가 10명 • 학부모 12명 • 학생 14명
표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 학교 유형(일반고, 직업계고 등)을 고려하여 표집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진로교육 교육과정 영역별 이슈 및 요구 •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 •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 방향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면담 실시 • 인터뷰 대상자 소속 지역에 따라 대면(수도권), 비대면(비수도권)으로 실시

다. 전문가 집단 워크숍

전문가 집단 워크숍은 2025년 4월 30일 실시하였으며, 초청된 전문가는 총 6명이다. 자문단은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정책담당자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진로교육 교육과정 관련 연구 및 업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표 1-4〉 참조). 워크숍의 목적은 각 장별로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구안한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초안의 타당도를 확보하는 데 있었다. 이를 통해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운영, 성과 관리, 거버넌스 등 각 영역별 개발 방향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표 1-4〉 전문가 집단 워크숍 개요

구분	대상자	소속	직급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A	서울용마초등학교	수석교사
	B	신성중학교	진로부장
	C	대전대신고등학교	진로부장
정책담당자	D	교육부	연구사
	E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학계 전문가	F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라. 학술세미나

학술세미나는 2025년 5월 19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집단 워크숍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에는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정책담당자 및 학계 전문가 등 총 6명이 참여하였다(〈표 1-5〉 참조). 참여 전문가들은 사전에 배포된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토론문을 작성하여 발표함으로써 최종 개선안 도출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표 1-5〉 학술세미나 개요

구분	대상자	소속	직급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A	경기불정초등학교	교사
	B	서울장충중학교	진로부장
	C	서울혜성여자고등학교	진로부장
정책담당자	D	경상북도교육청	연구사
학계 전문가	E	아주대학교	교수
	F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II. 「진로교육법」 제정 전·후 우리나라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실태 분석

1. 진로교육 교육과정 정책 관련 동향 분석

가. 우리나라 진로교육 정책의 시기별 발전단계

제2장에서는 「진로교육법」 제정 전후의 진로교육 정책 동향과 시기별 전개 과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진로교육 정책의 발전단계를 시기별로 고찰하고, 그 전개 과정을 분석하였다. 진로교육 정책의 시기별 발전단계에 대해 분석한 서우석(2016, 2018), 조영아(2021), 정철영 외(2023)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발전단계를 도입기, 성장기, 발전기, 성숙기의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표 II-1〉 참조).

〈표 II-1〉 우리나라 국가 진로교육 발전단계

구분		내용				
		1980년대 초반~ 1990년대 초반	1990년대 초반~ 2000년대 후반	2000년대 후반~2014년	2015년~현재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차원 진로교육 도입 진로교육 관련 기초적인 교육 및 연구 수행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교육 연구 기반 마련 ‘진로와 직업’ 신설 등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 확대 커리어넷 워크넷 등 진로교육 인프라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진로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중등 진로진학상담 교사 양성 및 배치 자유학기제 도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교육법」 제정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등 진로 중심 교육과정 운영 확대 관계부처 합동의 진로교육 방안 마련 소외계층 대상 진로교육 방안 마련 	
관련 선행 연구	서우석 (2016, 2018)	진로교육 도입기 (1970년대 후반 또는 1980년대 초반)	-	진로교육 성장기 (1990년대 초반~2000년대 후반)	진로교육 발전기 (2000년대 후반~2014년)	진로교육 성숙기 (2015년~현재)
	조영아 (2021)	-	-	1기 (2010년~2015년)	2기 (2016년~2020년)	
	정철영 외(2023)	진로교육 도입기	진로교육 성장기	진로교육 발전기	진로교육 성숙기	

출처: 서우석. (2016). 초등 진로전담교사의 역할과 과제.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33-58.
 서우석. (2018). 한·일 초등학교 진로교육 비교 연구. 실과교육연구, 24(1), 195-218.
 조영아. (202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진로교육연구」 연구동향 분석: 진로교육정책 주요 시기별 비교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4(3), 43-66.
 정철영 외. (2023). 대학에서의 진로교육 운영에 관한 이슈 탐색 질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5(1), 103-132

우리나라에서 진로교육이 시작된 것은 미국으로부터 진로교육 개념이 도입된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반으로 볼 수 있다. 유니세프(UNICEF)의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40년의 흐름에 따라 국가 진로교육은 일련의 발전단계를 거쳐왔다(서우석, 2016, 2018; 이지연, 2017). 구체적으로 1970년대 말부터 대학에서 진로교육, 생애교육, 진로지도, 진로상담, 직업지도 등의 명칭으로 강의가 개설되었으며, 1980년대 초 유니세프의 후원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진로교

육 연구가 수행되어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를 진로교육 도입기 또는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진로교육 성장기는 19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후반에 해당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경제 호황으로 산업인력 수요가 증가한 반면, 대학입시 과열로 인한 재수생 증가 등으로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는 산업인력 확보의 일환으로 진로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고등학교에 일반선택 과목으로 「진로·직업」 교과가 신설되었고, 1990년대 초부터 각 시도교육청 교육연구원에 진로상담부 또는 진로교육부가 설치되면서 진로교육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진로교육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1993년 한국진로교육학회가 창립되었고, 실천적 연구를 위해 각 시도별로 진로교육연구회가 발족되었다. 이어 커리어넷(1999)과 워크넷(1999)이 개설되고,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내 진로교육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 계획(2006)이 수립되는 등 2000년대 후반까지 진로교육의 양적·질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2000년대 말부터는 진로교육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에 ‘진로와 직업’ 교과가 교양선택 과목으로 신설되어, 중학교 단계에서도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진로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중심으로 교과통합 진로교육(현 교과연계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학교 현장의 실천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2009년 5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내 진로직업교육과(2011년 진로교육정책과로 독립하고, 2022년 기초학력진로교육과로 통합됨)가 진로교육 업무를 전담하게 되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 및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 결실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제1차 진로교육 발전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중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현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된 2000년대 말부터 진로교육법이 제정되기 전인 2014년까지의 시기를 진로교육 발전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15년 「진로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진로교육은 성숙기로 접어들며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진로교육법」은 진로교육의 개인적·사회적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진로체험 및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법 제정과 함께 초·중·고 및 대학생의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었으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이 강화되었다. 또한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진로전담교사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의무도 규정되었다(서우석, 2015).

특히 「진로교육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진로교육협의회, 진로체험지원센터 등의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진로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 2016년에는 초등학교에도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 학교급 간 연계성을 강화하였으며,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으로 중학교 단계에서의 체험 중심 진로교육이 활성화되었다. 더불어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이 수립되어 진로교육의 체계화를 이끌었으며, 최근 발표된 「제3차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은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미래사회 대응 역량 강화, 지역사회 진로교육 지원 역량 강화 및 전 생애 진로교육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진로교육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국가 진로교육 체계가 고도화되는 성숙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우리나라 진로교육 정책의 분야별 동향

1) 진로교육 관련 법·제도

우리나라 진로교육 정책 분야별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을 법·제도, 주요 계획, 진로교육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진로교육 정책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교육부의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진로교육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 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도 합동으로 「제1차 진로교육 발전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중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현 진로전담교사)가 2011년부터 중등학교에 1명 이상의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게 되었다.

2012년에는 국가 수준의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마련하여 초·중등 학교급 및 유형별로 개발하였다. 그리고 중학생의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자유학기제가 2013년에 시범 운영되었고, 2016년에 전면 시행되었다. 2015년에는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어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였다. 2016년에는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진로교육법」에 명시된 집중학년·학기제를 강조함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확대 및 강화하게 되었다.

또한, 2017년에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위탁 운영하는 국가 차원의 진로교육 실행기구인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설치되어 초·중등 학생 중심으로 진로심리검사, 진로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로교육 전달체계로 자리 잡게 되었다. 같은 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자율적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여 자기주도적인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2017년에 도입되어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에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더불어, 진로전담교사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진로·학업 설계 지도 및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한 학교의 책임교육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진로연계교육 도입을 발표하고,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을 통해 진로연계교육 교육과정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였다. 이후 이 방안에 따라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방혜진 외, 2024; 정윤경 외, 2024).

〈표 II -2〉 진로교육 관련 주요 법·제도

법·제도	내용
진로교육과 신설(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에 교육과학기술부 내 진로교육과 신설 - 진로교육과는 2022년 현재 기초학력진로교육과로 개칭되었음.
진로전담교사 배치 시행(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중등학교에 1명 이상의 진로전담교사 배치 - 진로교육의 질적 수준을 신장하는 계기 마련
학교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마련(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수준에서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초·중등 학교급별 및 학교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발
자유학기제 예비 시행(2013) 전면 시행(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생의 진로탐색 기회 확대
「진로교육법」 제정(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6월 제정, 12월 시행(총 4장 23조로 구성)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도입(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 내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실행 발표 - 「진로교육법」 제13조에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규정
국가진로교육센터 설치(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직업능력개발원(現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지정 및 위탁 운영
고교학점제 추진(2017~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대선공약으로 ‘고교학점제로 진로 맞춤형 교육 추진’ 제시 • 2017년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 발표 및 2021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진로연계교육 추진(2022~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진로연계교육 도입 발표 및 시행 • 2023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내 진로연계교육 교육과정 모델 개발 지원 방안 발표

최근 진로교육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진로교육법」뿐만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출범함으로써, 교육과정을 포함한 국가 교육정책 전반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하향식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미래 교육의 비전과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진로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수립 및 개편에 있어서도 법적 주체로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명시적인 법적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표 II -3〉 참조). 「진로교육법」 제8조와 그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수립과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시행하는 권한은 국가교육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진로교육 역시 국가 교육과정 체제 속에서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수립·변경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진로교육법」 제8조와 시행령 제3조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체로 상정하고 있는 반면, 동법 제15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업무 중 하나로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교육과정에 대한 계획 수립 주체(국가교육위원회)와 내용 개발 및 집행 주체(교육부 및 산하기관) 간의 역할 경계가 모호한 구조를 보인다. 이와 같은 이중 구조는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정책 수립과 실행 간 혼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실효성과 교육과정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표 II-3〉 진로교육 교육과정 관련 주요 법적 근거

구분	내용
「진로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학생의 발달 단계 및 학교의 종류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②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이하 “국가진로교육센터”라 한다)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진로교육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같은 영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 제12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사·분석 및 점검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진로교육 관련 주요 계획

진로교육 관련 주요 계획을 살펴보면 <표 II-4>와 같다.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2000년대부터 교육부 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진로교육 관련 주요 계획은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 계획(2007~2011)’, ‘(제1차) 진로교육 종합계획(2009~2013)’,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18~2023)’, ‘(제3차)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 등이 있다.

2006년에 수립된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 계획’은 9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계획안으로 초·중·고 진로교육 활성화, 대학생 노동시장 진입 지원, 학교 밖에서의 진로개발 지원, 여학생 양성평등 진로교육 계획에 대한 방안을 포함하였다. ‘진로교육 종합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이 공동 발표하였으며 체험 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실현,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6년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서는 진로체험이 강조되었으며,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도입, 진로교육 대상 확대(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학생 등), 진로체험 활성화 및 다양화,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18)’은 교

육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계획으로 학생 진로 탐색 지원 강화, 혁신 성장을 위한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생애 단계별 진로개발 지원 확대, 지속 가능한 진로교육 생태계 구축에 대한 방안을 담고 있다.

2018년 관계부처 합동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은 교육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진로교육을 학교 내 활동에 한정하지 않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정책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방안은 학생의 진로탐색 지원 강화, 혁신 성장을 위한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생애 단계별 진로개발 지원 확대, 지속 가능한 진로교육 생태계 구축을 4대 축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학교 단계의 진로체험과 진로탐색을 넘어 청년·성인기의 진로개발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진로교육의 연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전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023년 발표된 제3차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계획으로 학교 진로 교육 내실화, 미래사회 대응 역량 강화, 지역사회 진로교육 역량 강화, 진로교육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처럼 진로교육 관련 주요 계획들은 초기의 교육 기회 제공과 기반 조성 중심에서 출발하여, 점차 맞춤형 진로설계, 체험 중심 교육, 생애 단계별 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으로 다양화되고 내실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표 II-4> 진로교육 관련 주요 계획

계획	내용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 계획 (2007~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9개 부처 공동발표 ① 초·중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② 대학생 노동시장 진입 지원, ③ 학교 밖에서의 진로개발지원, ④ 여학생 양성평등 진로교육 계획
(제1차) 진로교육 종합계획 (2009~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개 부처(교육과학기술부, 복지부, 노동부) 공동발표 ① 체험 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②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실현, ③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 계획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 (2016~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도입, ② 진로교육 대상 확대(사회적배려대상자, 대학생 등), ③ 진로체험 활성화 및 다양화, ④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계획
관계부처 합동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 발표 ① 학생 진로탐색 지원 강화, ② 혁신 성장을 위한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③ 생애 단계별 진로개발 지원 확대, ④ 지속 가능한 진로교육 생태계 구축
(제3차)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② 미래 사회 대응 역량 강화, ③ 지역사회 진로교육 역량 강화, ④ 진로교육 대상 확대

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동향

우리나라 진로교육은 초기에는 특별활동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며 점차 정규 교과 내로 통합되고 체계화되어 왔다(서우석, 2023). 제1차에서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진로교육이 독립된 내용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특별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 제4차 및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중등학교 교육 목표 안에 진로탐색의 중요성이 명시되었으나, 여전히 특별활동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1992년 고시)에서는 고등학교 보통교과 중 실업·가정 교과 내에 처음으로 ‘진로·직업’(제7차 교육과정부터 ‘진로와 직업’으로 명칭 변경)이 정규 교과로 포함되었고, 제7차 교육과정(1997년 고시)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실과, 중학교 실과·사회·도덕 교과에 진로 관련 내용이 도입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과 함께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 ‘진로와 직업’ 교과가 교양 선택 과목으로 신설되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을 통해 비교과 영역에서의 진로 탐색 기회가 제도적으로 확보되었다. 아울러 교과통합 진로교육(현재는 진로연계 진로교육이라는 용어로 통용됨)이 주요 교육 방향으로 강조됨에 따라, 진로교육이 특정 교과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운영되면서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교육부, 2015)이 개정되었으며, 이는 학교 진로교육의 주요 기준으로 기능하였다(한상근 외, 2021). 또한 문·이과 통합 및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 강조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맞춤형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을 통해 교과 내 진로 연계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학교 자율시간과 진로연계교육 운영 등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주도성을 반영한 유연한 진로교육 체계가 마련되었다.

<표 II -5> 진로교육 관련 주요 교육과정

교육과정	내용
제1-3차 교육과정 (1954, 1963, 1973년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운영
제4-5차 교육과정 (1981, 1987년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등학교 교육 목표 내 진로교육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학교) 생활에 유용한 기초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를 탐색하게 하며, 평생교육에 필요한 능력을 가지게 한다. (고등학교)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진로를 탐색, 선택하고, 이에 필요한 학문적, 직업적 기반을 형성하게 한다. 특별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제공
제6차 교육과정 (1992년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보통교과 중 실업·가정과의 선택 과목으로 ‘진로·직업’ 교과 신설
제7차 교육과정 (1997년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5, 6학년 실과 교과 내 진로교육 관련 내용 도입 중학교 실과, 사회, 도덕 교과 일부 단원 내 진로교육 내용 도입 고등학교 ‘진로·직업’ 교과를 ‘진로와 직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양 선택 과목으로 변경함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년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학교에 ‘진로와 직업’ 교과 신설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도입 교과통합 진로교육 등의 진로교육 활성화 시작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년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발표 문·이과 통합 및 창의융합형인재 양성 초점
2022 개정 교육과정 (2022년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맞춤형 정보 역량을 함양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을 통해 진로연계 강화

2.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실태 분석

가. 2022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1) 총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다.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학습자들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의 전환이 요구되었다(교육부, 2021).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기르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미래 사회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지역·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교육 구현,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개정되었다. 특히, 학습자 스스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바탕으로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의 학교급 간 진로연계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안착,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을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급을 아우르는 공통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발달 단계별 특성을 반영하여 초·중·고 교육과정을 차별화하였다. 총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추구하는 인간상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을 포함해 총 4가지로 제시되었다. 또한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학생들의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협력적 소통, 공동체 역량 등 6대 핵심역량 함양이 강조된다.

학교급별 교육목표는 발달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초등학교는 학생의 일상 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며, 중학교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함께 삶의 방향과 진로 탐색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고등학교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교육목표는 범교과 학습주제(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의 전 교과 통합 운영을 통해 실현되며,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서도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연계형 학점제 기반 구조가 마련되었다.

또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서는 학년 간 또는 학교급 간 연계, 진로와 학업의 설계를 강화하기 위한 ‘진로연계교육’의 운영이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초기나 졸업 전 학기에, 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시기에 진로연계교육이 편성되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학업 설계 지도 및 상담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능력 함양을 중심에 두고, 교육 목표, 교과 구성, 학사 운영 전반에 걸쳐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II-6〉 2022 개정 교육과정 진로교육 교육과정 관련 총론 주요 내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추구하는 인간상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핵심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교육목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
법교과 학습주제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보통교과/전문교과) - 보통교과: 공통과목, 선택과목(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창의적 체험활동 -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편성·운영	입학 초기 및 상급 학교(학년)으로 진학하기 전 학기의 일부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급 간 연계 및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진로연계교육을 편성·운영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와 진로연계교육을 편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지도와 연계 지원 학교급 전환 시기에 학교급 간 연계 및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진로연계교육을 편성·운영

출처: 교육부. (202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 교육부.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중 진로교육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진로연계교육이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함에 있어 진로연계교육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진로연계교육 운영(안) 및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자유학기제 등의 관련 지침을 개선하였으며, 진로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에서는 진로연계교육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진로연계교육 모델 개발 계획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23). 진로연계교육은 전환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등 적절한 시기에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하고자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이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의 추진 과제 중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과제로 초·중등학교의 학교급 간 진로연계교육 강화를 명시하였다.

교육부는 학생 성장의 연속선상에서 학교급 간 교과 내용 연계와 진로설계, 학습 방법 및 생활 적응 등을 위해 입학 초기 및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초6, 중3, 고3)의 전환기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연계교육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때 입학 초기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중학교 1학년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말하며, 상급학교 진학 전 시기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수능 이후)를 포함한다. 진로연계교육은 교과 및 교과 외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교과의 경우 학생의 역량 개발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과별 학습 경로, 학습법, 진로 및 이수 경로 등의 내용으로 단원을 구성할 수 있다. 교과 외 활동의 경우, 교과 이수 경로와 연계하여 학습자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 탐색 및 설계 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운영함에 있어 학교 내 모든 교사가 담당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주체는 학교 내 교사 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학교 공동체의 민주적 합의 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교육부, 2022).

〈표 II-7〉 진로연계교육 관련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목적	학생 성장의 연속선상에서 학교급 간 교과 내용 연계와 진로 설계, 학습 방법 및 생활 적응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초6, 중3, 고3)의 전환기 학생 - 입학 초기: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중학교 1학년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 상급학교 진학 전: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수능 이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 - 교과: 학생의 역량 개발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과별 학습 경로, 학습법, 진로 및 이수 경로 등의 내용으로 단원 구성 - 교과 외 활동: 교과 이수 경로와 연계하여 학습자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 탐색 설계 활동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연계교육의 운영 주체: 학교 내 모든 교사는 누구나 담당하여 운영 가능 - 학교 내에서 교사 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학교 공동체의 민주적 합의 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

종합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사항은 〈표 II-8〉과 같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삶과 진로를 중심에 두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며, 학생의 발달 수준과 사회적 변화에 맞춰 진로교육을 보다 유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첫째, 진로교육을 포함한 10개 범교과 학습주제를 유지하되, 이를 관련 교과의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는 진로교육을 단지 활동 중심이 아니라 교과 내 학습 요소로 내재화 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2 개정으로 인해 교육과정 개정 시 교육정책과 사전 협의가 가능해져, 진로교육이 보다 일관성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둘째, 초·중학교 전반에서 학교자율시간이 도입되어, 학기별 1주 수업 시수를 자율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해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기별 1주의 수업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지역과 학교의 여건 또는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 외의 새로운 과목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진로연계교육이 도입되어 학교급(학년) 간 전환기의 학생들이 상급학교의 생활 및 학습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교과의 관련 영역 및 단원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진로활동 영역으로, 학교자율시간의 경우 진로연계교육 관련 과목이나 활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범교과 학습주제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넷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이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3개 영역으로 개선되었으며, 봉사활동은 동아리활동 영역에 편성되어 모든 활동과 연계할 수 있게 되었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총론의 학교자율시간, 진로연계교육, 고교학점제 등의 제도와 관련하여, 각론에 해당하는 진로교육 교과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초등학교에서는 56학년 실과(기술·가정) 과목을 통해 진로교육이 진행되며, 학교자율시간을 통해 3~6학년 대상 교과 운영도 가능하다. 중학교에서는 선택과목으로 ‘진로와 직업’ 과목이 운영되며,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할 경우 관련 교과군 내에서 진로 중심 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기 단위 과목을 운영해야 한다. ‘진로와 직업’이 교양과목으로 운영되며, 선택과목이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과목으로 개선되었다.

<표 II -8> 2022 개정 교육과정 중 진로교육 교육과정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추구하는 인간상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핵심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舊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을 반영하되, 미래사회 변화 대응 및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교급별 목표 진술 			
주요 개정 사항	범교과 학습주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개 범교과 학습 주제로 유지(진로교육 포함) - ‘범교과 학습주제’ 를 관련된 교과(목)의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특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과정 영향을 사전협의하도록 관련 법(제23조의 2) 개정 		
	학교자율시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학교 내 학교자율시간 운영 -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기별 1주의 수업시간 확보(학기 단위 운영 원칙) -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 외의 새로운 과목(초등: 과목 또는 활동)으로 개설 	-	
	진로연계교육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급(학년) 간 전환기의 학생들이 상급학교의 생활·학습 준비에 필요한 교육 지원 교과의 관련 영역 및 단원 등과 연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진로활동’ 영역으로, 학교자율시간의 경우 진로연계교육 관련 과목이나 활동으로 개설하여 운영, 또는 범교과 학습 주제 등과 연계하여 운영 가능 		
	창의적 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개선(3개) -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4개) →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3개) - 봉사활동은 동아리 활동 영역에 편성되어 있으며, 모든 활동과 연계 가능 		
자유학기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 활동 영역, 한 학기 운영 - 주제선택/진로탐색 활동 진로연계교육과 통합 운영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연계 진로교육 제공 진로연계교육과 병행 운영 학교자율시간을 통해 과목 또는 활동 개설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학기제와 연계 가능 진로연계교육과 병행 운영 학교자율시간을 통해 과목 또는 활동 개설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연계 진로교육 제공 진로연계교육과 병행 운영 학교자율시간을 통해 과목 또는 활동 개설 가능 	
진로연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학년 1학기 - 입학 초기 적응활동 지원 6학년 2학기 -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의 진로탐색활동과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학년 - 입학초기 적응활동 지원 3학년 2학기 - 고등학교 생활·진학 준비, 진로탐색, 교과 학습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학년 1학기 수능 이후 	
고교학점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전면 시행에 따른 학점기반 교육과정 운영 - 필수 이수 84학점, 학생의 진로를 고려한 자율 이수 90학점 	
각론	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5-6학년 실과(기술·가정) 운영 학교자율시간의 경우 3-6학년별로 교과 운영 가능 진로연계교육 편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택과목으로 ‘진로와 직업’ 운영 중학교 학교자율시간은 관련 교과(군)로만 편성 교과의 관련 영역 및 단원 등과 진로연계교육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기 단위 과목 운영 (선택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으로 개선하여 맞춤형 교육 제공 교양과목으로 ‘진로와 직업’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자율시간 교과 외 활동 개설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활동을 통해 운영 진로연계교육 편성 가능 -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등과 연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활동을 통해 진로교육 운영 진로연계교육 편성 가능

2) 각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진로교육을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춰 체계적으로 심화·확장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되었다. 특히 초등학교 실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교과는 각각의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에서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단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초등학교의 실과 교과는 ‘인간 발달과 주도적 삶’, ‘생활 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이라는 영역을 중심으로, 인간과 생활환경이라는 교과 주제와 자기주도성 및 지속가능성이라는 총론의 방향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다. 중·고등학교의 ‘진로와 직업’ 교과는 총론에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방향으로 제시한 학습자 주도성 함양, 인공지능·디지털 소양 교육 강화, 민주시민 교육, 생태 전환 교육과 연계하여 구성되었다.

초등학교 실과 교과는 아동기 발달 특성과 실천적 문제 해결 중심의 교수·학습 맥락을 반영하여, 자기 및 타인에 대한 이해, 자립적 생활역량, 기술 진로 탐색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내용 체계 중 ‘인간 발달과 주도적 삶’ 영역에서는 ‘진로발달과 직업’이 핵심 내용 요소로 포함되며, 일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업의 종류를 알고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성취기준이 제시된다. 또한 학생이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긍정적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아동기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실천적 문제 해결 경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는 진로를 독립적인 학습 주제로 다루기보다는 자기이해, 발달과정, 생활환경과 통합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아울러 ‘기술적 문제해결과 혁신’ 영역에서는 기술 진로 탐색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며,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삶의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관심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 및 성취기준에 있어서 초등학교에서는 진로발달과 직업을 주제로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진로 탐색을 강조하였다.

중학교 ‘진로와 직업’ 교과는 선택과목으로 운영되며, ‘진로와 나의 이해’, ‘직업 세계와 진로 탐색’, ‘진로 설계와 실천’의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에는 진로 인식, 탐색, 설계의 흐름이 구체화되어 있다. 학생 스스로 삶의 의미와 사회적 기여를 성찰하는 기반 위에, 진로 인식, 탐색, 설계, 관리의 전 과정을 다루며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하도록 한다. 학생은 폭넓은 진로 탐색을 통해 자신의 관심사와 진로 특성을 발견하고, 이를 기반으로 잠정적인 진로 목표를 수립하고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일과 노동의 가치, 사회적 기여의 의미를 탐색하고, 고등학교 진학과 연계된 실천 중심의 학습 활동을 통해 진로 목표를 정교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에 있어서 중학교는 진로의사결정, 학습 및 진로계획 수립 등 기초적인 진로 설계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성취기준은 총 14개로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진로의사결정의 방법과 고려 사항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 목표를 설정한다는 성취기준은, 중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자아 개념에 기반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계획하는 사고 과정을 요구한다. 또한 ‘직업 세계와 진로 탐색’ 영역에서는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직업 변화, 창업가 정신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습자가 다양한 진로 가능성과 사회적 요구를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교과는 교양과목으로 운영되며, 중학교의 세 영역 구조를 유지하면서 내용의 심층성과 심화된 진로계획 및 실천을 강조한다. 고등학생은 자신이 설정한 진로 목표를 바탕으로 교과 선택, 진학·취업 계획, 진로 로드맵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변화하는 사회와 직업 세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직업 세계의 윤리와 가치, 정보탐색 능력, 지속적인 진로 성찰과 조정 역량까지 포함하여 평생 진로관리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진로경로의 유연성, 정보활용, 윤리성, 실천 전략 등이 포함되어 진로설계의 지속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표 II-9> 2022 개정 교육과정 중 진로교육 교과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명	실과(기술·가정)	‘진로와 직업’	
성격 및 목표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며, 다양한 기술 영역을 학습 및 이해하면서 진로에 대한 인식과 탐색 경험을 제공	폭넓은 진로 탐색을 통해 한 개인이 자신을 이해하고 일과 직업에서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스스로 진로 목표와 계획을 수립 및 실천할 수 있는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하는데 중점	심층적인 진로 탐색을 통해 한 개인이 자신을 이해하고 일과 직업에서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스스로 진로 목표와 계획을 수립 및 실천할 수 있는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하는데 중점
교과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간 발달과 주도적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이해) 아동기 발달과 자기 이해, 진로발달과 직업 등 - (가치·태도) 진로를 주도적으로 탐색하는 태도 등 ②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 ③ 기술적 문제 해결과 혁신 ④ 지속가능한 기술과 융합 ⑤ 디지털 사회와 인공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진로와 나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특성에 대한 이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의 형성, 일하고 싶은 직업인의 긍정적인 특성과 태도 배양 ② 직업 세계와 진로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사회 환경 및 일과 직업 세계의 변화에 대한 이해 ③ 진로 설계와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의사결정의 방법과 고려 사항 이해,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장단기적인 학습 계획 및 진로계획 수립·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진로와 나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 분야 직업인의 삶의 모습과 진로 경로에서 드러나는 진로 특성에 비추어 학생의 흥미, 적성, 가치관 등의 진로 특성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 ② 직업 세계와 진로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사회, 기술,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주도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로 수집 및 활용 ③ 진로 설계와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의사결정의 변화 가능성을 이해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이 계속될 수 있음을 인식
목표	자신의 개성과 소질을 탐색하고 발견하여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본생활 습관과 시민의식을 기름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증진하여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능력을 기름	공동체 의식의 확립을 기반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준비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기름
창의적 체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자치활동: 자율활동,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학술·문화 및 여가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탐색 활동: 자아탐색 활동, 진로이해 활동, 직업이해 활동, 정보탐색 활동 - 진로설계 및 실천 활동: 진로준비 활동, 진로계획 활동, 진로체험 활동 		
편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급별, 학년(군)별, 학기별로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일부 영역과 활동을 선택하여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자율·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의 영역과 영역별 활동의 특성에 따라 각각 운영하거나 각 영역 및 활동을 연계·통합한 활동을 설계할 수 있음. 		

출처: 교육부. (2022). 초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2]). 교육부.
 교육부. (2022). 중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3]). 교육부.
 교육부. (2022). 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4]). 교육부.

나.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실태

이 장에서는 학교급별로 진로전담교사, 학교관리자, 중학교 담임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와 진로교육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일반교과교사, 진로전담교사, 학교관리자, 정책담당자, 학계전문가, 학부모, 학생)를 대상으로 진행한 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의 철학과 방향, 국가 수준에서 제시된 고교학점제, 진로연계교육, 교과연계 진로교육 등 총론의 주요 내용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을 포함한 각론, 운영성과, 거버넌스의 4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표 II-10> 참조).

<표 II-10>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체계

구분		세부 내용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점제 • 진로연계교육 • 교과연계진로교육 • 자유학기제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각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실과 • 중등학교 ‘진로와 직업’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활동 만족도 • 진로교육 정책 도움 정도 •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진로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 • 진로체험센터와의 연계

1) 진로교육 교육과정 총론 관련 운영 실태

가)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과 고교학점제의 시행은 학교 현장, 특히 일반교과교사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학생의 미래역량 함양과 자기주도성, 자기탐색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학생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로교육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진로교육이 특정 교사만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교사의 협력과 지원 체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도 진로 중심 교육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교육과정 내용을 보더라도 일단 학생 주도성이 생겨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요즘에는 이제 미래 역량 개발에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중략) 좀 변해 가야 되는구나. 그래야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흥미나 직업을 탐색해 보고 검색해 보고 찾아보고 또 자문할 수 있는 곳을 찾겠구나.

(일반교과교사 B)

나) 진로연계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진로연계교육을 학생의 발달과업, 학교생활 적응, 학업 설계, 교과 학습 등과의 통합적 연계를 지향하는 핵심 교육활동으로 강조한다. 그러나 교육과정 고시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필수 운영에서 선택 운영(‘할 수 있다’)으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진로연계교육 실행에 대한 동력이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진로연계교육이 포괄하는 개념적 범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교사들 사이에 해석의 차이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진로연계교육이 처음에 좀 세계 들어갔다가 마지막 정말 고시 한 달도 안 남겨두고 ‘진로연계교육을 할 수 있다’로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진로연계교육을 해야 한다’는 문구였어요 그런데 선택조항이 되니까 현장에서는 ‘이건 안 해도 되는 거네’라는 인식으로 받아들인 거죠.

(정책담당자 D)

진로연계교육이라고 하면 교과랑 연결도 해야 하고 생활교육이랑도 연결해야 하고 적응이랑도 관련 있는 개념인데 교사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걸 뭘 하라는 건가요?’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요 결국 해석이 다르고 적용도 다 다르니까 통일된 실행이 어려운 거죠

(정책담당자 D)

학교 적응이 다인 거예요 사실 이 교육은 1학년보다 유치원 아이들한테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정도의 네 유치원 아이들이 오히려 1학년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보는 게 더 진로교육이지 않을까 싶은 정도의 내용들이었어요

(초등 진로교사 C)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모델이나 대표적인 운영 사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무엇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로연계교육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진로연계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미흡하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교육청 등 상위 기관으로부터의 구체적인 운영 지침 및 방향 제시 부족이 지적된다. 이러한 지원 부족은 학교 간 운영 편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진로연계교육의 안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로연계교육은 사실 이게 이제 작년부터 강조하는데 일선에서 구체적인 건 아직 내려온 게 없어요 (중략) 학기 초에 꿈끼 탐색 주간이라고 해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담임 선생님들이 상담하고 또 거기서 필요하다면 진로 선생님 지원하는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고 학기 말에는 이제 캠프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연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전담교사 A)

저희 학교 차원에서 중고 연계 이런 거는 딱히 없어요

(진로전담교사 B)

다) 교과연계 진로교육

학교급별 교과연계 진로교육 실시 여부를 살펴보면, 초·중등학교 모두에서 과반수 이상의 학교가 교과연계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찬주 외(2023)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조사 대상 학교의 94.1%가 진행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78.0%, 고등학교는 65.9%의 비율로 해당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과연계 진로교육의 주요 방식으로는 초등학교의 82.4%, 중학교의 70.3%, 고등학교의 72.3%가 ‘진로교육의 다양한 영역과 교과 연계

활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이어서 초등학교의 82.3%, 중학교의 61.2%, 고등학교의 59.0%가 ‘교과 관련 직업탐색 및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1> 참조).

<표 II-11> 교과연계 진로교육 실시 여부 및 실시 방식 (2023) (단위: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연계 진로교육 실시율		94.1	78.0	65.9
실시 방식	교과 관련 직업 소개	60.9	51.0	48.7
	교과 관련 직업탐색 및 체험활동	82.3	61.2	59.0
	진로교육의 다양한 영역과 교과연계 활동	82.4	70.3	72.3
	기타	1.0	2.7	2.5

주 1) ‘실시 방식’은 교과연계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함.

2) 기타 응답으로는 ‘특강’, ‘진로독서’, ‘직업윤리/미래 유망직업’ 등

3) 비율에 가중치를 적용함.

출처: 문찬주 외. (2023). 초·중·고 진로교육 현황조사(2023) 결과보고서.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pp. 151-153. 재구성.

또한, 교과연계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을 운영하는 주요 교과의 1·2순위 비율을 합산하여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과학’ 교과가 각각 69.2%, 6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고등학교는 ‘사회/도덕’ 교과가 5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표 II-12> 참조).

<표 II-12> 교과연계 진로교육 실시 주요 교과 (2023) (단위: %)

영역	주요 교과					
	1순위		2순위		3순위	
초등학교	과학 (실과 포함)	69.2	예술 (음악, 미술)	57.5	사회/도덕	50.3
중학교	과학	66.8	영어	43.5	예술 (음악, 미술)	35.6
고등학교	사회/도덕	53.7	과학	37.5	국어	22.7

주 1) ‘교과연계 진로교육 실시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함.

2) 1~2순위를 선택하도록 한 값의 총합을 기준으로 최종 순위를 선정하여 제시함.

3) 비율에 가중치를 적용함.

출처: 문찬주 외. (2023). 초·중·고 진로교육 현황조사(2023) 결과보고서.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p.152. 재구성.

이는 고등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의 채택률이 높지 않고, 일반교과교사와 진로 교과 간의 별도 협력에 제한점이 있는 상황에서, 진로교육이 공식적인 교과 간 연계보다는 일반 교사의 수업 중 자연스러운 진로 언급과 정보 제공을 통해 실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교육과정 편성과 교사 간 협력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학교 현장이 택한 실용적 대안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과목 선택과 연계한 진로 정보 제공, 교과와 관련된 전공 분야 또는 직업군 소개, 수행평가와 진로 주제의 결합 등 다양한 형태로 교과연계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교사 개인의 태도나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실천의 수준과 빈도에서 큰 편차를 보이는 한계를 지닌다.

수업에서 진로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게 저는 진로연계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사실 질문을 한다면 선생님들이 아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런 질문도 하는구나. 그래서 적어도 내 교과에 관련된 진로 정도라면 좀 고민을 하셔서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진로전담교사 A)

교과연계진로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과목선택에 대한 정보제공, 각 교과의 과목이 필요한 학과, 각 과목이 쓰이게 될 분야 등을 소개하고 있어요.

(일반교과교사 A)

연계 교육을 하는 선생님의 마인드가 좋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춘다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략)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만약에 관련 내용이 나오면 그쪽 관련해서 이런 저런 직업이 있다고 그리고 화학이면 화학 관련해서 이런저런 거 그 정도는 중간중간에 그냥 소개해 주는 그 정도예요.

(일반교과교사 B)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진로 관련 내용을 각 교과 성취기준에 넣으라고 했대요 그 얘기 듣고 '아, 이게 제일 현실적인 해결책이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진로가 따로 분리된 형태로 존재하면 선생님들도 부담스럽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교과 성취기준 안에 진로 요소를 녹여 넣으면 자연스럽게 진로교육이 가능해지거든요.

(초등 진로교사 A)

또한, 교과연계 진로교육이 권장 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추가적 업무 부담'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일부 진로전담교사는 교과 교사와의 협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로교육이 특정 교사나 부서에 국한된 채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교과연계 진로교육이 교사 간 융합과 협력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로는 개별 교사의 자율성에 의존하고 있어 구조적 지원이나 실행 체계 없이 실현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교과별로 진로와 연계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교사들이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비율은 매우 낮다는 지적도 있다.

이게 이제 의무가 아니잖아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협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사들이 하는 것을 꺼리죠 (중략)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이겠죠 일반 동료 교사도 진짜 진로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인식말이에요.

(진로전담교사 A)

우리 학교도 잘 안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교과연계 진로교육이 대부분이 좀 힘들어하고요 좀 솔직히 제일 힘든 부분이 이거거든요 진로 선생하고 교과 선생하고 이게 융합이 잘하기가 제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진로전담교사 B)

일반 교과의 성취수준을 다 지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과에 진로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는 시도는 현장의 질책을 받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일반교과교사 B)

국어 같은 경우는 교과에 꿈과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조종사 관련된 글이 나왔다면 비행기 조종사 관련해서 직업도 찾아보고 이런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걸로 진로활동을 하긴 하는데, 교과서에 나오지 않으면 굳이 찾아서는 안 한다는 느낌이에요.

(초등 진로교사 A)

동시에 고등학교 교육활동이 입시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적인 현실 속에서, 교과연계 진로교육의 실질적 필요성에 대해 낮게 인식하는 학생들도 존재하였다. 일부 학생은 진로 연계 활동이 기존 수업의 진도나 시험 일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였다.

연계교육을 하면 수업에 집중이 더 잘될 것 같기도 하고, 의사나 선생님이 아니라, 그 분야와 관련해서 정말로 처음 접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A)

왜냐하면 진로라는 게 한 가지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과 연결돼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과학 과목을 배우면 그걸 통해 의사나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국어를 배우면 기자나 작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로 교육이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과목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학생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중학생 A)

연계되면 좋겠어요 과학까진 아니더라도 그나마 연계되면 학생들도 좀 더 진로가 없는 학생들도 그 기회에 자신의 진로를 찾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꿈이 있는 학생들도 그냥 수업할 때보다 자신의 진로와 연관돼 있는 활동을 하면은 좀 더 흥미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요

(고등학생 D)

특성화고든지 일반고든지 다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에 일정을 맞춰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진로까지 연계한다면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또 그 시간표들이 살짝 흐트러질 것 같아요

(고등학생 E)

연계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학교 시수가 정해져 있는데, 진로교육을 같이 제공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뤄질 것 같아요

(학부모 C)

라) 자유학기제

중학교 단계에서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의 전환은 운영의 유연성과 교육 효과성 측면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한 학기 동안 집중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몰입도 향상과 진로 탐색 활동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현장의 평가가 긍정적이다. 자유학기제 운영 시기의 적절성이나 편성 방식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제도 그 자체가 갖는 진로교육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 현장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일부 교사는 진로 역량 강화라는 교육의 본래 목적에 집중하여, 다양한 진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율성과 자기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원래는 자유학년제 했다가 지금 자유학기제로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1년을 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좀 부정적인 면이 있어어요 근데 이제 학기제를 하고 또 1학년 1학기에 한다고 하니까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호응이나 학생들의 반응이 좀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요

(진로전담교사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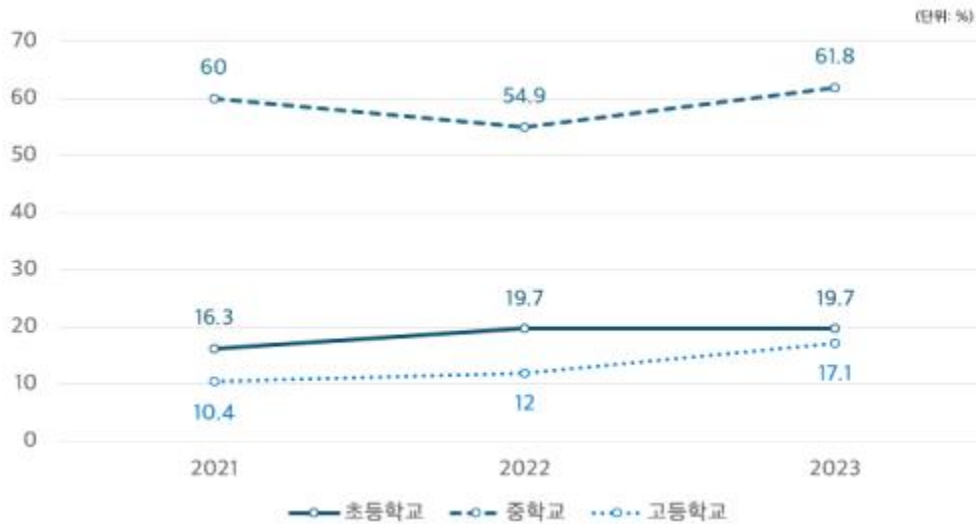
저는 자유학기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애네들한테 저는 정말 온갖 모든 정보와 활동과 아이들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할 정도로 행사도 지원을 해서 많이 했거든요

(중진로전담교사 C)

마)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다 실질적인 진로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진로 전환기를 중심으로 특정 학년 또는 학기 동안 진로교육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교육부, 2016). 이러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의 연도별 운

영 변화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운영 비율은 2021년 16.3%에서 2022년과 2023년 모두 19.7%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비율은 50~6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나, 2022년을 기점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2023년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고등학교는 초·중등 교육기관 중 가장 낮은 운영 비율을 보이나, 2021년 10.4%, 2022년 12.0%, 2023년 17.1%로 운영 학교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그림 II-1] 참조).



[그림 II-1]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비율 연차별 비교 (2021~2023)

출처: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21, 2022, 2023)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연도별 운영 시기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는 상급학교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6학년 2학기, 6학년 1학기, 5학년 2학기에 주로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1학년에 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나, 2023년을 기점으로 1학년 2학기 운영 비중이 감소하고 1학년 1학기가 70.3%를 차지하는 변화를 보였다. 고등학교는 1학년 1학기가 90%대, 1학년 2학기가 35~48%대로 나타났으며, 2학년 1학기의 운영 비율은 2021년 26.2%에서 2022년 급감하여 10%대를 유지하고 있다(<표 II-13> 참조).

<표 II-13>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시기 연차별 비교 (2021~2023)

(단위: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2021	6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1학년	3학년	1학년	1학년	2학년
	2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84.3)	(50.6)	(50.2)	(87.5)	(79.0)	(6.8)	(91.7)	(35.1)	(26.2)
2022	6학년	6학년	5학년	1학년	1학년	3학년	1학년	1학년	2학년
	2학기	1학기	1학기	2학기	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78.3)	(47.6)	(44.8)	(80.0)	(75.2)	(14.9)	(94.9)	(37.8)	(10.3)
2023	6학년	6학년	5학년	1학년	1학년	3학년	1학년	1학년	2학년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77.0)	(51.0)	(35.5)	(70.3)	(45.1)	(24.2)	(90.8)	(48.4)	(13.1)

주 1)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함.

2) 비율에 가중치 적용함.

출처: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21, 2022, 2023)

2) 진로교육 교육과정 각론 관련 운영 실태

가) 실과

초등학교 진로교육은 현재 실과 교과의 일부 단원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실과 교육과정 내 진로 관련 내용은 주로 5학년 수준에서 단기간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학년과 시기에는 진로 관련 수업이 정규 교과 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교과 운영 측면에서도 진로 단원은 의생활, 가사 실습, 메이커 교육 등 체험 중심 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가 낮거나 수업의 비중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초등 진로교육이 단발적인 정보 제공 수준에 머무르게 하며, 교육과정 전반에서 진로 발달을 위한 교육적 흐름을 구성하는 데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과에서 그나마 체계적으로 나와서 5학년 때 딱 한 달 정도만 애들이 진로 공부를 하는 거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거의 못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초등 진로교사 A)

실과에서도 사실 진로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가사 실습 아니면 의생활 아니면 어떤 메이커 교육 이런 것들이 좀 더 주축이 되다 보니까...

(일반교과교사 A)

한편, 초등학교에는 진로교육을 위한 보조 교재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가 독립된 정규 교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 해당 교재가 실제 수업에 활용되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 진로교육이 교육과정상 범교과 학습 주제로 명시되어 있으나, 국어, 사회 등 주지 교과의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을 경우 수업 시간 확보나 자료 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진로교육이 수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은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관련 교과의 성취기준 내에 진로 내용을 포함하여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진로 교재가 있지만 학교에서는 대부분 안 쓰잖아요, 초등은 교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으니깐 안 하게 되는 거죠

(초등 진로교사 A)

지금 범교과 학습 주제 편성 운영 안내라고 해서 매년 내려오는 편성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성교육 몇 시간 이렇게 해서 그 법령에 따른 시간 수들이 정해져 있는데 진로교육은 그냥 의무라고만 되어 있고 시간 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초등 진로교사 C)

교과서에 안 들어가 있으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진로교육은 대부분 범교과로 되어 있고 교과서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수업 시간 확보도 어렵고, 자료 찾기도 어렵고, 그냥 자연스럽게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실현이 안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진로교육 같아요

(초등 진로교사 A)

진로가 따로 분리돼서 존재하면 수업 시간도 없고 교사 입장에서도 막막하거든요 근데 성취기준 안에 진로 내용을 포함시키면 훨씬 자연스럽게 실현 가능해요 국어, 사회, 실과 같은 교과는 진로랑 잘 맞잖아요

(초등 진로교사 A)

진로가 전부는 아니고.. 진로와 연결되는 활동이긴 한데 교과 안에서 ‘진로’ 자체가 교육과정의 핵심으로 다뤄지지 않는 거 같아요

(일반교과교사 B)

이러한 제약 속에서 초등학교 진로교육은 담당 교사의 인식과 자율성에 따라 운영 여부와 질적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실정이다. 범교과 학습 주제로서 진로교육이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시수 기준이나 운영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학교 교육계획상 형식적으로만 반영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 범교과 학습 주제 편성 운영 안내라고 해서 매년 내려오는 편성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성교육 몇 시간 이렇게 해서 그 범령에 따른 시간 수들이 정해져 있는데 진로교육은 그냥 의무라고만 되어 있고 시간 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초등 진로교사 C)

나) ‘진로와 직업’

중·고등학교의 ‘진로와 직업’ 선택과목 채택률 변화를 살펴보면, 중학교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6% 이상의 높은 채택률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 80.5%에서 76.0%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는 78.3%로 다시 반등하였다. 반면 고등학교는 중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44~50%대의 채택률을 보이고 있다. 2020년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기준 50.5%를 기록하였다([그림 II-2] 참조). 다만,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고등학교 전체 시수가 줄어들어서 2025년부터 ‘진로와 직업’ 시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II-2] 「 ‘진로와 직업’] 선택과목 채택률 연차별 비교 (2017~2023)

출처: 교육부 ·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진로와 직업’ 과목을 채택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시기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는 1학년 1학기(65.8%)와 1학년 2학기(63.2%)에 집중되어 있어, 중학교 진입 초기 단계에 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3학년 1학기(46.7%)와 2학기(45.9%)에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고등학교 역시 1학년 1학기(75.3%)와 2학기(75.2%)에 집중적으로 편성·운영되

고 있으며, 3학년의 경우 1·2학기 모두 27.6%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II-14〉 참조). 이는 진로 설계의 기초를 다지는 1학년 시기에 해당 교과가 중점적으로 배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14〉 「 '진로와 직업'] 선택과목 수업의 운영학기 (2023)

(단위: %)

영역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65.8	75.3
1학년 2학기	63.2	75.2
2학년 1학기	34.1	19.3
2학년 2학기	32.4	19.3
3학년 1학기	46.7	27.6
3학년 2학기	45.9	27.6

주 1) ‘ ‘진로와 직업' 과목의 교양선택과목 채택 여부’ 에 ‘예’ 라고 응답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함.

2) 개수 제한이 없는 중복 응답 문항임.

3) 비율에 가중치를 적용함.

출처: 문찬주 외. (2023).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23) 결과보고서.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p.150.

그러나 이러한 수치상 추세와는 별개로, 학교 현장에서는 ‘진로와 직업’ 교과 운영에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심층 인터뷰 결과, 고교학점제의 도입과 입시 중심의 교육 환경 속에서 해당 교과를 편성·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와 직업’ 은 진로선택 과목으로 분류되어 필수 이수 과목이 아니며, 많은 학교가 대학 진학에 필요한 주요 교과 이수 확보를 위해 이 과목의 편성을 축소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대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진로와 직업’ 을 편성하라 하는데 이게 법적 구속력도 없고 교과목 편성한다라는 거는 다른 교과의 수업 시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아요.

(진로전담교사 A)

작년까지는 한 단위로 해서 1, 2학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그게 안 돼서요. 학교에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단위짜리를 개설하게 되면 이제 일부 학교는 교육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교양과목 자체를 1학년에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진로전담교사 C)

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1)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내 진로활동 배당 시수는 고학년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3년 기준 학년별 평균 배당 시수는 6학년이 9.22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5학년(8.80시간), 4학년(7.90시간) 순으로 나타났다(〈표 II-15〉 참조).

〈표 II-15〉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배당 시수 (2023)

(단위: 시수)

구분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배당 시수
초등학교	1학년	7.01(6.46)
	2학년	7.26(5.57)
	3학년	7.69(5.24)
	4학년	7.90(5.20)
	5학년	8.80(5.73)
	6학년	9.22(5.82)
초등학교 전체		7.98(5.22)

주 1) 평균, 표준편차에 가중치를 적용함.

2)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출처: 문찬주 외. (2023).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23) 결과보고서.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p. 154.

이러한 편성은 고학년 중심의 진로교육 강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인터뷰 결과 질적 측면에서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현장 교사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내 진로활동이 시수 편성의 제한과 운영 방식의 편차로 인해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법정 시수 기준에 따라 형식적으로 편성되더라도, 실제 운영은 담임교사의 역량과 관심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4학년 같은 경우는 창체 안에 진로활동 시수가 1년에 4시간밖에 없어요 (중략) 일과 직업 탐색 같은 것도 해보고 싶은데, 솔직히 이 시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등 진로교사 A)

편성과 시수는 누가 봐도 명확하고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법정 시수도 다 들어가 있고 근데 실제로 그걸 운영하시는 것들은 정말 교실마다 다 달라요

(초등 진로교사 B)

진로활동의 적절한 수업 시수는 학기당 4-6차시로 편성되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로교과서를 채택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진로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제공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강제성을 두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관리자 A)

(2)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와 진로활동 배당 시수를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 중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전체 배당 시수는 3학년(89.01시간)이 가장 많았으나, 진로활동 배당 시수는 1학년(19.97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전체 배당 시수(105.28시간)와 진로활동 배당 시수(25.36시간) 모두 2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학교 23.33%, 고등학교 28.84%로 조사되었으며, 학년별로는 중·고등학교 모두 1학년, 3학년, 2학년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표 II-16〉 참조).

〈표 II - 16〉 중·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및 진로활동 배당 시수 (2023)

(단위: 시수, %)

구분		창의적 체험활동 전체 배당 시수(a)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배당 시수(b)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배당 비율 (b/a*100)
중학교	1학년	86.05(43.71)	19.97(15.04)	26.52(20.95)
	2학년	88.39(39.75)	15.66(13.81)	20.82(20.00)
	3학년	89.01(41.41)	15.46(12.21)	21.23(20.34)
중학교 전체		263.45(117.79)	51.09(32.15)	23.33(18.53)
고등학교	1학년	94.56(54.76)	24.28(14.70)	29.70(17.84)
	2학년	105.28(60.57)	25.36(15.46)	27.89(18.54)
	3학년	99.85(57.39)	25.33(17.28)	28.70(19.35)
고등학교 전체		263.45(117.79)	51.09(32.15)	23.33(18.53)

주 1) 평균, 표준편차에 기준치를 적용함.

2) 중고등학교 전체 값은 개별학교의 1학년, 2학년, 3학년 배당 시수의 합으로 계산함.

3) 진로활동 배당 비율은 각 학교의 학년별 비율의 평균값임.

4)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출처: 문찬주 외. (2023).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23) 결과보고서.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p. 154.

그러나 심층 인터뷰 결과,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편성 구조와 시수 배정의 제약으로 인해 창의적 체험활동 내 진로활동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진로활동이 주당 1시간 이하로 배정되거나 타 활동과의 우선순위 경합 과정에서 축소·분산되는 경향이 있어, 전략적이고 유연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학교 역시 창의적 체험활동이 대부분 주당 1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어, 체험 중심의 심도 있는 진로활동을 운영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래서 진로활동이 단순 기록이나 형식적 행사에 그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학교관리자들은 교육과정 문서상의 강조점과 실제 시간 배정 간의 괴리를 지적하며, 정책적 선언과 현장 실행 간의 불일치를 문제로 언급하였다.

진로교육이 어떤 중점이 되는 그런 차시의 수업들은 너무 짧아서 형식적이었고.. 다른 시간에 진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 교과만의 또 성취 기준과 목표가 따로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일반교과교사 A)

교육과정 자체 시수가 줄면서 그러니까 창체를 주당 1시간으로 하기는 힘들고 (중략) 진로가 주당 1시간을 독점할 수가 없어졌어요. 진로활동 시수는 1학년은 제가 지금 짤 게 10시간 안팎이고 2학년은 이제 그만큼 안 돼요 3학년은 더 적고요

(진로전담교사 B)

보통 1시간으로 짜져 있고 2시간으로 기본이 돼야 그래도 뭔가 체험을 하고 할 텐데.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중략) 한 학기당 8시간씩 해서 2시간씩 묶어주면 사실 외부 나가기는 힘들더라도 교내에서 하더라도 체험 활동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로전담교사 D)

근데 그건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 학교에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수업 모아서 지금은 좀 어려울 텐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업 몰아서 하루 종일 뺄 수도 있는 거고요

(진로전담교사 C)

2022 교육과정에서는 내 영역 중의 하나로 엄청나게 비중이 커진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몇 시간 편성이 안 돼 있는 사례가 많아서..; 창체 진로활동 이거를 계속 제시하고 있긴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편성이 잘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몇 시간 배정을 잘 안 하고..

(학교관리자 A)

시수 부족 외에도, 운영의 질과 전문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교과 수업의 보충 시간으로 활용하거나, 「진로와 직업」 교과와 창체 진로활동 간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여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진로전담교사들은 두 영역의 목적과 운영 방식에 따른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저희가 이런 행사가 자주 있는 게 아니고 딱 그때 한 번 있었고요 (중략) 이런 경우가 아니면 교실에서 그냥 학습 영상을 보거나 학습지를 풀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중학생 B)

창체 진로에 수업을 하는 건 그건 전혀 안 맞다고 봐요

(진로전담교사 C)

창체하고 진로 교과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사실 애매한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창체를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모든 학교가 수업 시수가 적은 선생님들이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진로전담교사 A)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수업 시수가 부족한 일반교과교사가 진로활동을 담당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 경우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수업 내용의 깊이나 지도 역량이 제한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진로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교사들은 이러한 배치가 단순한 시수 조정의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진로교육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운영이라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중학교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교과교사가 진로활동을 담당하는 경우 진로전담교사가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간접적 지원체계가 확인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한계가 있는 대안에 불과하며, 진로교육의 본질적 효과를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 역시 진로활동이 전문성을 갖춘 진로전담교사가 아닌 일반 교사에 의해 운영되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하며, 진로활동의 편성 및 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관리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진로활동을 맡는 일반 교사를 위한 연수 및 역량 강화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진로교육의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중요하지 않은 시기에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시간에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목표’에 대하여 지도하기보다 교원 시수 조정용으로 사용된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전면 개방형 교육과정이 편성 운영되며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면서부터 진로시간을 활용하여 ‘직업, 진학, 취업, 학과, 계열, 나에 대한 이해 등’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생각한다.

(일반교과교사 B)

수학 선생님한테 영어 시간에 들어가서 수업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나 일반 교과 선생님들 진로 전혀 전공하지 않은 분들한테 진로 수업하는 거나 사실 별 차이 없거든요 근데 수학쌤한테 영어 수업하라고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일반 선생님들이 진로 수업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중략) 「진로교육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는데 도대체 왜 그걸 제대로 요구하지 않는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로전담교사 C)

창제하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자기가 그 수업을 하려니까 진로 분야를 잘 모르시니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직접 이렇게 드립니다.

(진로전담교사 B)

이 비교과인 진로활동은 진로 전담 교사가 가르치는 게 아닌 경우도 더 많거든요 (중략) 이수 시간 확보도 중요하지만 실제 진로활동이 운영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계전문가 F)

(3) 진로심리검사 활동

진로활동의 일환인 진로심리검사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학교급 간 참여율에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초등학교의 참여율은 중·고등학교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18년 84.1%를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2022년 69.6%까지 하락하였으나, 2023년에는 86.7%로 급등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중학교는 2018년 89.9%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여 2023년 84.6% 중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2016년 이후 꾸준히 80%대의 참여율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II-3] 참조).



[그림 II-3] 진로심리검사 참여율 연차별 비교 (2016~2023)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3년 기준 학교급별 진로심리검사 실시율은 초등학교 86.1%, 중학교 99.5%, 고등학교 99.6%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진로심리검사가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17> 참조).

<표 II-17> 진로심리검사 실시 여부 (2023)

(단위: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실시율	86.1	99.5	99.6

주 1) 비율에 가중치를 적용함.

출처: 문찬주 외. (2023).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23) 결과보고서.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p156.

검사 결과의 활용 실태를 보면, 중학교의 89.3%, 고등학교의 93.3%가 검사 후 추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방식으로는 '검사 결과를 담임교사에게 공유(중 59.7%, 고 60.3%)'가 가장 많

았으며, '개별 진로상담(중 48.0%, 고 45.1%)', '검사 결과에 대한 단체 설명(중 46.0%, 고 44.6%)' 등이 뒤를 이었다(〈표 II-18〉 참조). 이는 진로심리검사가 단순 시행에 그치지 않고 학생 지도 및 상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18〉 진로심리검사 결과지 제공 후 추가 활동 진행 여부 및 실시 방식 (2023) (단위 : %)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검사 결과지 제공 후 추가 활동 진행		89.3	93.3
실시 방식	검사 결과에 대한 단체 설명	46.0	44.6
	검사 결과 관련 진로교육 활동(모둠 또는 단체)	39.2	38.9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개별 진로상담	48.0	45.1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규모 모둠 진로상담	4.3	7.8
	학부모와의 상담	1.8	2.3
	검사 결과를 담임교사에게 공유	59.7	60.3
	기타	1.1	0.9

- 주 1) '진로심리검사 실시 여부' 에 '실시함' 이라고 응답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함.
 - 2) '실시방식' 은 검사 결과지 제공 후 추가 활동을 진행한다고 응답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함.
 - 3) '실시방식' 은 2개 이내로 중복응답으로 선택하도록 한 문항임.
 - 4) 비율에 가중치를 적용함
- 출처: 문찬주 외. (2023).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23) 결과보고서.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pp. 157-158. 재구성.

(4) 진로체험 활동

학교급별 학생의 연도별 진로체험 참여율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뚜렷한 변동을 보였다. 초등학교는 2019년 80.6%에서 2021년 60.8%로 급감하였다가 2023년 73.3%로 회복하는 추세이다. 중학교 역시 2018년 91.4%에서 2022년 75.6%까지 하락한 후 2023년 81.5%로 반등하였다. 고등학교 또한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2021년 57.4%까지 떨어졌다가 2023년 69.4%를 기록하였다 ([그림 II-4] 참조). 이는 대면 활동이 필수적인 진로체험의 특성상 감염병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4] 진로체험 참여율 연차별 비교 (2016~2023)

출처: 교육부 ·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진로체험의 유형을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강연형·대화형'이 주를 이루었다. 이 외에 초등학교는 현장견학형(39.0%)과 직업실무체험형(36.2%)의 비중이 높았고, 중학교는 직업실무체험형(76.2%)과 진로캠프형(75.9%)이 활발히 운영되었다. 고등학교는 학과체험형(77.1%)과 진로탐색형(75.1%)이 높게 나타나, 상급학교 진학 및 전공 탐색에 대한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표 II-19> 참조).

<표 II-19> 진로체험 행사 실시 여부 (2022년 실적 기준)

(단위: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로체험 유형	강연형·대화형	39.2	91.5	92.6
	현장견학형	39.0	64.3	58.9
	직업실무체험형 (모의 직업체험)	36.2	76.2	49.6
	현장직업체험형 (실제 직업체험)	8.8	54.9	40.7
	학과체험형	4.1	65.9	77.1
	진로캠프형	22.9	75.9	75.1
	기타	10.4	-	-

- 주 1) 초등학교는 실시한 진로체험 유형을 중복으로 선택하는 문항이며, 중·고등학교는 진로체험 실시 횟수를 입력하는 문항임
 2) 초등학교는 '실시하지 않음' (9.1%)을 포함하여 계산한 비율임.
 3) 중·고등학교는 각 유형의 진로체험 행사를 실시한 학교의 비율임.
 4) 기타 응답으로는 '강사 초빙 진로체험(방문형), 면담', '진로 관련 체험활동', '진로심리검사' 등이 있음.
 5) 비율에 가중치를 적용함.

출처: 문찬주 외. (2023).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23) 결과보고서.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p.160.

이와 같은 진로체험 유형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장에서는 진로교육의 질적 한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진로교육은 일회성·행사성 중심의 체험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지속적인 진로 탐색과 역량 함양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나타났다. 또한, 외부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단기성 이벤트로 끝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었으며, 이는 학생 중심의 체계적인 진로교육 운영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진로교육이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도 중요한 한계로 언급되었다. 단순한 직업 소개나 체험 위주의 활동만으로는, 학생이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충분히 기르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일회성으로 이제 진로 체험하는 것들이 좀 많이 다른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업체 불러서, 다른 업체 선생님들 들어와서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진로전담교사 B)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역량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아쉬웠습니다.

(진로전담교사 E)

약간 한계가 있다면 이것이 약간의 어떤 지속성 있는 것인가 약간 각 학교별로 보면은 진로교육 주간 또는 진로의 날 이런 운영을 통해서 그냥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도 꽤 있고요

(학교관리자 B)

진로교육이 오히려 사업화되면서 단기 성과 중심으로 가는 면이 있어요 몇 명이 참여했는지, 만족도는 어땠는지 중요하고 아이가 정말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변화했는지는 빠지죠

(정책담당자 D)

지금은 약간 주먹구구식 활동이에요. 예를 들면 명함 만들기, 직업 체험 같은 거죠 활동이 구조화돼 있지 않고 발달 단계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사가 그냥 '진로활동 해야 한다' 고 하니까 행사식으로 진행되기 쉽죠

(학계전문가 D)

더 나아가, 학교의 규모와 지역적 여건에 따라 진로활동 운영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도 확인된다. 특히 소규모 학교나 농어촌 지역 학교의 경우, 진로행사나 외부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인력 및 예산 부족이라는 구조적 제약을 경험하고 있다. 현장 사례에 따르면, 강사 섭외, 프로그램 기획, 운영 인력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동반되며, 이로 인해 행사의 지속성과 진로교육의 일관된 운영이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많은 경우, 진로활동이 정규적·정기적인 수업보다는 일회성 행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담당 교사의 자율적 노력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교육의 체계성과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현장 교원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진로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직접 참여와 외부 자원과의 효과적인 연계가 필수적이지만, 이 또한 시간과 행정 절차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운영에 제약이 많다는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월 2회는 무슨 행사를 하자 해가지고 특강도 실시하고 쪽 해 왔어요 1시간은 그냥 담당 교사들의 자율적인 것들 매시간마다 매주마다 행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형태로 해봤는데요 행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농어촌 학교들은 인력풀도 제한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예산도 제한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어렵고요

(학교관리자 A)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고 전문가가 좀 끌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중략) 문제는 항상 비용이죠

(학교관리자 B)

3)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성과

가) 진로활동 만족도

학교 진로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은 평균 4.10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중학생은 3.71점, 고등학생은 3.54점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진로활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진로체험하기' 활동이 4.24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으며, '창업가정신 배우기' 활동은 3.8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학교 역시 '진로체험' 활동이 3.86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진로와 직업' 수업은 3.7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심리검사' 활동이 3.84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진로동아리' 활동은 3.64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표 II-20〉 참조).

<표 II -20>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2023)

(단위: 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		4.10(0.90)	3.71(0.99)	3.54(1.11)
진로활동별 만족도	수업 중 진로탐색하기	3.94(0.82)	3.71(0.97)	3.76(1.00)
	‘진로와 직업’ 수업	-	3.70(1.00)	3.67(1.02)
	진로심리검사하기	4.02(0.83)	3.83(1.01)	3.84(1.01)
	진로체험하기	4.24(0.91)	3.86(1.00)	3.79(1.03)
	진로상담하기	3.98(0.94)	3.82(1.04)	3.70(1.05)
	진로동아리	-	3.80(1.07)	3.64(1.03)
	창업가정신 배우기	3.87(0.98)	-	-
	창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 교육	-	3.76(1.06)	3.70(1.12)

주 1) 평균, 표준편차에 가중치를 적용함.

2)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3) 만족도는 ‘학교 진로활동별 참여 현황’ 에 ‘예’ 라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함.

출처: 문찬주 외. (2023).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23) 결과보고서.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p.75.

이러한 양적 데이터 결과와 더불어,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진로활동의 운영 방식과 내용이 학생의 발달 단계 및 요구에 적절하게 구성될 경우 교육적 효과와 만족도가 제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체계적인 「진로와 직업」 교과를 경험한 학생들은 학년별로 필요한 진로 정보와 활동이 단계적으로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교육적 유의미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각 학년마다 학습 내용이 달라서요 그때마다 필요한 정보를 각각 제공받을 수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고등학교생 B)

또한, 고등학교 및 중학교 단계에서의 자기주도적 진로활동은 단순한 진로 탐색을 넘어 협업, 의사소통, 창의성과 같은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젝트형 활동은 역할 분담과 팀워크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적 역량과 진로 설계 능력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선생님들이 만든 동아리에 학생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직업이나 진로군이 있다 그러면 관련된 학과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연구를 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은 다음에 같이 동아리 활동을 했거든요 (중략) 진로 수업에서는 다뤄지지 않던 직업군들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게 좀 좋았던 것 같고...

(중학생 A)

저희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수업을 준비해서 친구들한테 저희가 직접 수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저희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확실히 심화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해서 좋았고...

(중학생 B)

협업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이 많이 증가했어요 특히 프로젝트를 할 때 각 팀원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협업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생 B)

한편, 진로체험 유형별 도움 정도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에서는 ‘현장직업체험형’ 이 4.01점으로 가장 높은 도움 정도를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진로캠프형’ (3.96점), ‘학과체험형’ (3.93점), ‘현장견학형’ (3.9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질적인 경험을 수반하는 활동이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높은 효능감을 제공함을 시사한다. 고등학교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었는데, ‘현장직업

체험형'의 도움 정도가 4.08점으로 가장 높았고, '현장견학형'(3.99점), '학과체험형' 및 '진로캠프형'(각 3.94점)이 뒤를 이었다(<표 II-21> 참조).

<표 II-21> 진로체험 유형별 도움 정도(2023)

(단위: 점)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진로체험 유형	강연형·대화형	3.69(0.98)	3.68(0.91)
	현장견학형	3.92(0.95)	3.99(0.89)
	직업실무체험형 (모의 직업체험)	3.91(0.94)	4.02(0.86)
	현장직업체험형 (실제 직업체험)	4.01(0.95)	4.08(0.89)
	학과체험형	3.93(0.97)	3.94(0.90)
	진로캠프형	3.96(0.97)	3.94(0.86)

주 1) 도움 정도는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 현황'에 '예'라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비율, 평균, 표준편차에 가중치를 적용함.

3)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출처: 문찬주 외. (2023).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23) 결과보고서.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pp.82-83. 재구성.

심층 인터뷰에서도 체험 중심 진로활동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선호도와 만족도가 확인되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과 보호자는 직접적인 체험 활동이 진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성과 흥미를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저는 진로체험 활동이 가장 좋았어요 사실 진로 수업에서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직접 체험하면서 배운 게 더 기억에 남고, 실제로 내가 그 직업을 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더 와닿았거든요 특히 항공우주 공학 관련 체험활동에서 로켓 모델을 만들고 발사하는 실험을 했는데, 그때 정말 공학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수업으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흥미로웠습니다.

(고등학생 B)

직업을 체험해 보고 이게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건지 이런 거를 좀 계속 검증할 수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C)

저는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활동에 더 참여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해본 직업 체험이 몇 가지밖에 없어서, 좀 더 많은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보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학생 B)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는 진로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학교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어서 걱정이 되지만, 뭐 의사, 회사원 이런 직업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학부모 B)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진로체험 활동이 특정 직업군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특히 진로가 구체화되어야 할 고등학교 시기에 체험 가능한 직업군이 제한적이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충분히 탐색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다양한 직업군을 다루지 못하고, 특정 직업에만 치우친 경우도 많아서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 깊이 탐구하기 어려웠던 점이 아쉽습니다.

(중학생 B)

나) 진로교육 정책 도움 정도

학교관리자가 인식하는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에 도움이 되는 진로교육 정책'을 분석한 결과, 학교급별로 우선순위에 차이가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는 '진로체험 활성화'가 4.39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교과연계 진로교육 확대'(4.30점), '창의적 체험활동 내 진로활동 강화'(4.28점)가 뒤를 이었다. 중학교에서는 '진로심리검사 활용 및 진로상담 활동 강화'가 4.41점으로 가장 높았고, '진로전담교사 배치'(4.38점), '진로체험 활성화'(4.3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단계에서 심리검사와 상담이 진로 탐색의 핵심 기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전담교사 배치'가 4.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전문적인 진로 지도 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강화'와 '진로체험 활성화'가 각각 4.23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유학기(학년)제 시행' 정책은 초등학교(3.66점)와 고등학교(3.31점) 관리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도움 정도를 보였으며, 중학교관리자는 '창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교육 강화'(4.02점)를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표 II-22〉 참조).

〈표 II-22〉 진로교육 정책 도움 정도(2023)

(단위: 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진로활동 강화	4.28(0.70)	4.28(0.74)	4.16(0.73)
교과연계 진로교육 확대	4.30(0.65)	4.32(0.72)	4.16(0.68)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시행	3.66(0.98)	4.03(0.87)	3.56(0.99)
자유학기(학년)제 시행	3.66(0.98)	4.06(0.88)	3.31(1.00)
진로심리검사 활용 및 진로상담 활동 강화	4.26(0.67)	4.41(0.63)	4.23(0.70)
진로전담교사(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3.68(1.02)	4.38(0.84)	4.33(0.86)
진로체험 활성화	4.39(0.68)	4.37(0.71)	4.23(0.79)
창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교육 강화	3.83(0.94)	4.02(0.83)	3.90(0.90)

주 1) 평균, 표준편차에 가중치를 적용함.

2)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출처: 문찬주 외. (2023).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23) 결과보고서.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p.204.

다)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진로교육 운영 과정상의 여러 과제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은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운영의 방향성 또한 적절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성적 중심의 획일적 진학 지도에서 벗어나,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진학을 앞두고 학과 선택을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하는 모습으로 발현되고 있으며, 이는 진로교육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진로체험 기회의 확대는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직접 접하고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삶 중심'의 진로 인식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개별 활동을 넘어, 학년별 프로젝트, 학교 중점 과제 등으로 확장되어 진로교육이 교육과정의 중심 요소로 기능하는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어느 정도는 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대학은 학과를 정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학교에 와서 좀 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진짜 성적에 맞춰서 갔는데 지금은 이제 대입 전형이 달라지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지금 되는 거잖아요

(진로전담교사 A)

중간 이상의 성과, 즉 중상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로전담교사 D)

본교의 경우에는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본교는 입학부터 1년간을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 '진로와 직업' 과목 이수 등을 통해 진로교육의 목표인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고 목표를 세워 구체적인 정보를 찾고 로드맵을 작성하여 실천하는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교과교사 A)

제가 수학 교사 하면서 아이들한테 막말로 음료수를 얻어먹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진로 교사하고 상담하면서 그 공부에 조금 재능이 없지만 그림 만화 잘 그리는 애들한테 격려해 주고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다양한 길이 있다. 이러면 이제 격려해 주고 했을 때 특성화고를 갔지만 이 아이가 졸업하고 나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와서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됐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진짜 뿌듯한 생각이 들었어요.

(진로전담교사 A)

또한, 진로 체험 기회의 확대는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직접 접하고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 세대와는 다른, 삶 중심의 진로 인식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개별 활동 수준을 넘어,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진로가 통합되는 구조적 변화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학년별 프로젝트, 중점 과제, 특색 과제 등에서 진로를 핵심 주제로 설정하고 운영하는 사례는, 진로교육이 교육과정의 중심 요소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일단 진로 체험의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긍정적인 점이 있고, 요즘 부모님들은 이제 저희 때처럼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것보다 니가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진로 선택에 대한 인식도 많이 중요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일반교과교사 B)

저희가 진로교육을 잘하고 있는 이유는 학년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공공선이거든요 (중략) 저희가 지금 중점 과제와 특색 과제가 대부분 진로 쪽이거든요.

(학교관리자 B)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학교별로 진로체험의 날이 보통 운영이 되고 창의적 체험활동에 진로교육이 편성되어 있어 학교 현장에서 나름의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교관리자 A)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유지되는 한 진로교육이 진학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진로교육이 본질적인 삶의 설계보다는 입시 실적이나 비교과 스펙 확보의 도구로 활용되는 경향이 여전하며, 이는 진로교육의 본래 목표인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제약은 학교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일반고의 경우 입시 중심의 경직된 틀 안에서 진로교육의 자율성과 확장성이 제한되는 반면, 학생 선발권을 가진 자율형 사립고나 특성화고 등은 신입생 단계부터 비교적 명확한 진로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입학하므로 학교의 교육 철학에 기반한 진로 중심 교육과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전제가 입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 수단 정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중략) 궁극적으로 우리가 대학 진학과 진로와 관련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그 일치도가 높지가 않아요

(학교관리자 A)

진로 중심의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려면은 선행돼야 될 것이 저는 대입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교육 과정 속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대입 제도네요

(학교관리자 B)

저는 80% 정도는 도달했다고 봅니다. 근데 일반 고등학교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략) 저희들은 선발 학교예요 배정 학교가 선발 학교이기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벌써 그런 꿈을 가진 아이들이 와요

(학교관리자 B)

대입 전형이 문제인 건데 이게 지금 정시로 애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이 사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이잖아요 정 시에서 수능으로 많이 선발해 버리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야 그냥 그런 고민 안 해도 그냥 수능 정시로 갈 거예요

(진로전담교사 A)

현재까지 고등학교 진로교육은 진로교육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지 못했고, 특히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진로>가 사라지고 <진학>만 남아서 고등학교를 왜곡하고 파행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일반교과교사 C)

한편, 초등학교는 형식적인 진로교육 운영, 시수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진로교육이 추구한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초등 진로교육이 교과 수업과 단절된 채 일회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심화된 자아 이해나 직업 탐색으로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단계의 진로교육과의 연계 부족은 초등 진로교육이 단절된 활동으로 그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진로교육의 지속성과 효과성 확보를 저해하는 주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더불어, 일부 교사들이 진로교육의 목표와 방향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초등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설계되고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그렇지 않다. 교과 수업과 별도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은 명함 만들기, 10년 20년 뒤의 계획을 세우는 1회성 활동으로만 진로교육을 접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로교육이 이어지지 못하고 역량 함양도 어려웠다고 봐요

(초등 진로교사 B)

일단은 가장 충실히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 학교 진로교육 목표가 뭔지 말이에요

(초등 진로교사 C)

4)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

가) 학교 진로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학교급별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학교 진로교육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학교급에 따라 요구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초등학교 학부모는 ‘학생의 적성과 흥미, 꿈을 찾도록 지원하는 진로교육 수업’에 대해 4.52점으로 가장 높은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진로체험 활동’ (4.51점)과 ‘학생 진로심리검사 제공’ (4.50점) 또한 높게 요구하였다. 이는 초등 단계에서는 수업과 체험을 통한 흥미 발견을 중시함을 보여준다. 반면, 중학교 학부모는 ‘학생 진로·진학 등에 관한 상담’ (4.35점)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심리검사(4.30점)와 진로교육 수업(4.29점)이 뒤를 이었다. 고등학교 학부모 역시 ‘학생 진로·진학 등에 관한 상담’ (4.55점)을 최우선으로 인식하였고, 이어 진로심리검사(4.52점), 진로체험활동(4.46점), 진로교육 수업(4.45점) 순으로 나타났다(<표 II-23> 참조). 이러한 결과는 상급 학교로 갈수록 진로 및 진학 결정과 직결된 개별 맞춤형 상담과 객관적 검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을 시사한다.

<표 II-23> 자녀의 학교 진로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2023)

(단위: 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적성과 흥미, 꿈을 찾도록 지원하는 진로교육 수업	4.52(0.53)	4.29(0.72)	4.45(0.70)
학교 수업 시간에 ‘진로와 직업’ 내용을 연계하는 교과연계 수업	4.48(0.55)	4.23(0.72)	4.41(0.72)
다양한 ‘진로와 직업’ 을 탐색할 수 있는 진로체험 활동	4.51(0.54)	4.28(0.72)	4.46(0.74)
학생 진로·진학 등에 관한 상담	4.42(0.56)	4.35(0.72)	4.55(0.61)
학생 진로심리검사(흥미, 적성 등) 제공	4.50(0.54)	4.30(0.71)	4.52(0.69)
학생의 진로동아리 활동	-	4.17(0.75)	4.33(0.71)
학생의 창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 교육	4.43(0.61)	4.02(0.86)	4.09(0.87)

주 1) 평균, 표준편차에 가중치를 적용함.

2)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출처: 문찬주 외. (2023).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23) 결과보고서.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p.219.

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해 진로전담교사와 학교관리자의 인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에서는 진로전담교사(84.0%)와 학교관리자(67.3%) 모두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어 ‘다양한 학생의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한 진로활동’ 과 ‘진로교육 관련 예산 및 환경 지원’ 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높은 인식을 보였다. 다만, ‘교내 교원 대상 진로교육 연수 확대’ 와 ‘진로교육에 대한 학부모 및 사회 인식 개선’ 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진로전담교사는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55.0%)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한 반면, 학교관리자는 ‘다양한 학생의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한 진로활동’ (55.1%)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여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어 중학교 진로전담교사는 ‘학생 특성 고려 활동’, ‘예산 및 환경 지원’,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 순으로 중요도를 두었으나, 관리자는 ‘체험 기회 제공’, ‘전문 인력 확보’, ‘예산 지원’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전담교사와 학교관리자 모두 ‘다양한 학생의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한 진로활동’ (교사 49.3%, 관리자 58.1%)을 가장 필요한 요소로 인식하였으며,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과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 및 역량 제고’ 가 뒤를 이었다(<표 II-24> 참조). 이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생 맞춤형 진로지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표 II -24>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2023)

(단위: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로 전담교사	학교 관리자	진로 전담교사	학교 관리자	진로 전담교사	학교 관리자
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 개선	-	24.2	-	30.2	-	28.5
교육과정 및 수업에서 진로교육 확대	28.4	-	21.3	-	24.8	-
다양한 학생의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한 진로활동	48.3	52.2	46.8	55.1	49.3	58.1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84.0	67.3	63.5	55.0	48.3	43.4
진로교육 자료 및 정보 확충	24.1	13.7	26.1	11.9	24.3	14.6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 및 역량 제고	32.0	32.9	28.0	39.0	38.2	42.9
진로교육 관련 예산 및 환경 지원	34.2	34.4	42.8	34.1	28.6	30.6
디지털 기반 진로교육 확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확보	5.4	5.5	11.3	7.1	14.5	9.4
학교 내부 구성원의 협조	3.5	6.4	11.7	10.5	23.9	15.9
학교 외부 자원(기관, 기업 등)의 협조	18.0	11.8	17.8	13.2	6.9	14.3
시도교육(지원)청의 지원 및 협조	11.5	7.5	10.6	11.4	6.4	9.7
학교관리자 대상의 진로교육 연수 확대	1.0	6.1	6.1	3.3	13.4	2.1
교내 교원 대상의 진로교육 연수 확대	3.3	10.2	3.8	4.9	9.8	12.2
진로교육에 대한 학부모 및 사회 인식 개선	4.5	16.7	9.5	12.3	9.5	17.7
기타	1.8	0.4	0.7	0.3	2.0	0.7

주 1) 비율에 가중치를 적용함.

2) 3순위까지 선택한 비율의 총합을 제시함

출처: 문찬주 외. (2023).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23) 결과보고서.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p.184-213. 재구성.

다) 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활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학교급별로 뚜렷한 격차가 확인되었다. 중학교는 80.2%가 센터를 활용하고 있어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한 활발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고등학교는 50.8%, 초등학교는 31.3%만이 센터를 활용하고 있어, 초등학교의 경우 68.7%가 센터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활용 학교를 대상으로 한 도움 정도 평가에서는 중학교(4.51점), 초등학교(4.39점), 고등학교(4.07점) 순으로 나타나, 고등학교에서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II-25> 참조).

<표 II -25>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활용 현황 및 진로체험 도움 정도(2023)

(단위: %, 점)

구분	활용률	도움 정도
초등학교	31.3	4.39(0.76)
중학교	80.2	4.51(0.68)
고등학교	50.8	4.07(0.87)

주 1) ‘도움 정도’는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활용 현황’에 ‘활용’이라고 응답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함.

2) 평균, 표준편차에 가중치를 적용함.

3)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출처: 문찬주 외. (2023).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23) 결과보고서.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p.147. 재구성.

심층 인터뷰 결과,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교육이 제도적·인식적 한계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진로전담교사들은 센터와의 협력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센터 측의 소극적인 태도,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 인프라의 한계 등을 지적하였다. 학교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나 인적·물적 자원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지역 센터 대신 전국 단위 전문기관이나 대학과의 자체적인 연계 프로젝트(예: 유스 프론티어, 대학 연계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등)를 통해 진로교육을 보완하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관 사람들이 우리 진로 교사를 아니 무슨 자네들이 일 시키는 거 뭐 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더라구요 (중략) 협조가 잘 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 기관에서 그걸 잘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진로전담교사 A)

학교의 자기 관내의 초중고 특히 중고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이런 걸 할 건데 그거를 어떤 프로그램의 지원 운영 지원 강사 지원 예산 지원 이런 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든요

(진로전담교사 F)

아산재단 운영하는 유스 프론티어나 충남대학교나 이런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지역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이런 걸 진행을 합니다. (중략)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연계를 해서 홍보도 하고요

(진로전담교사 C)

진로체험지원센터요 그게 있는데 기대만큼 좀 잘 저희들이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있어서 거기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정말 진로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학교관리자 A)

상대적으로 중학교 단계에서는 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료 프로그램을 통한 예산 보완, 직업체험 기회 확대 등 긍정적인 활용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센터 수 자체가 적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희망 프로그램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거나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현실적 제약도 존재한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체험활동이 단순 견학이나 활동 중심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춘 진로 개념 형성과 흥미 탐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험처의 교육 전문성 강화와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진로 지원 센터가 학기 초에 저번 주에도 이제 다양한 직업 체험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받았어요 이제 무료로 해주는 게 있고 유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없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무료로 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을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지원해 주니까 좋죠 (중략) 체험센터가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너무 적은 거죠

(진로전담교사 A)

솔직히 센터가 있지만 지역 내 학교가 많으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하기가 힘들거든요 이제 그럴 때 좋은 건 진로 선생님들끼리 네트워크가 제일 좋죠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니까 서로 바로바로

(진로전담교사 B)

체험 센터의 사람들도 교육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체험했지, 됐지, 끝,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여전히 학교 단위에서는 사업 목적과 다르게 쓰인다거나 진로교육과 연계해서 좀 진행되지 못하는 편이 많죠

(초등 진로교사 B)

지역사회의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진로교육법」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교육과정의 학교 교육 목표와 인간상, 역량 등 기초적인 총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중략) 해당 지역의 프로그램이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초등 진로교사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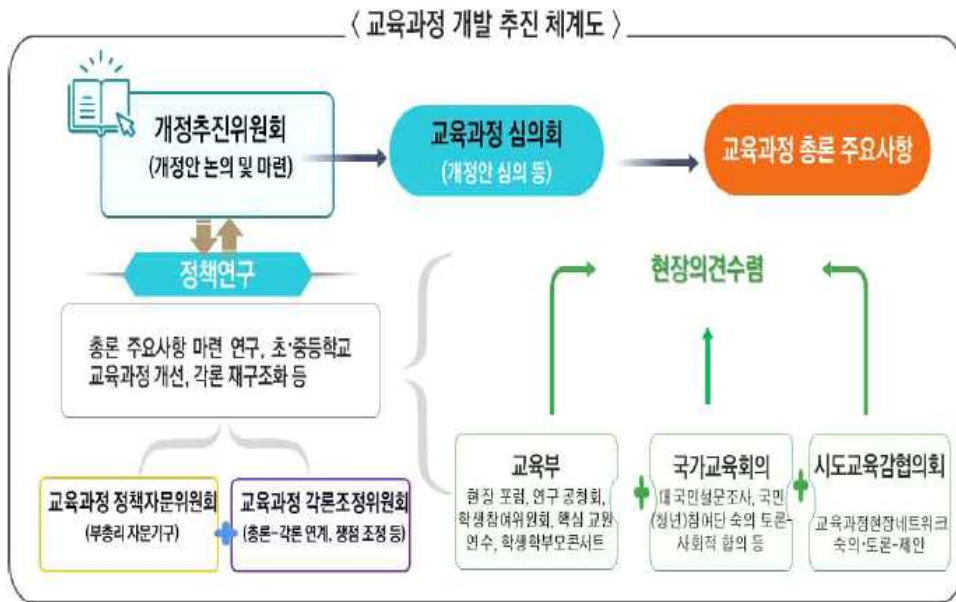
진로체험센터나 외부 강사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예약이 어렵거나 시기적으로 맞추기 힘들 때가 많고요

(일반교과교사 B)

3.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체계 분석

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체계 분석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포용적 교육 기반 마련과 학생 개별 성장 지원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특히 기존 교육과정의 국가 주도적 개발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표방하며 국민과 현장의 참여를 강화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역량 함양을 추구하였다. 구체적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발 추진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는 [그림 II -5]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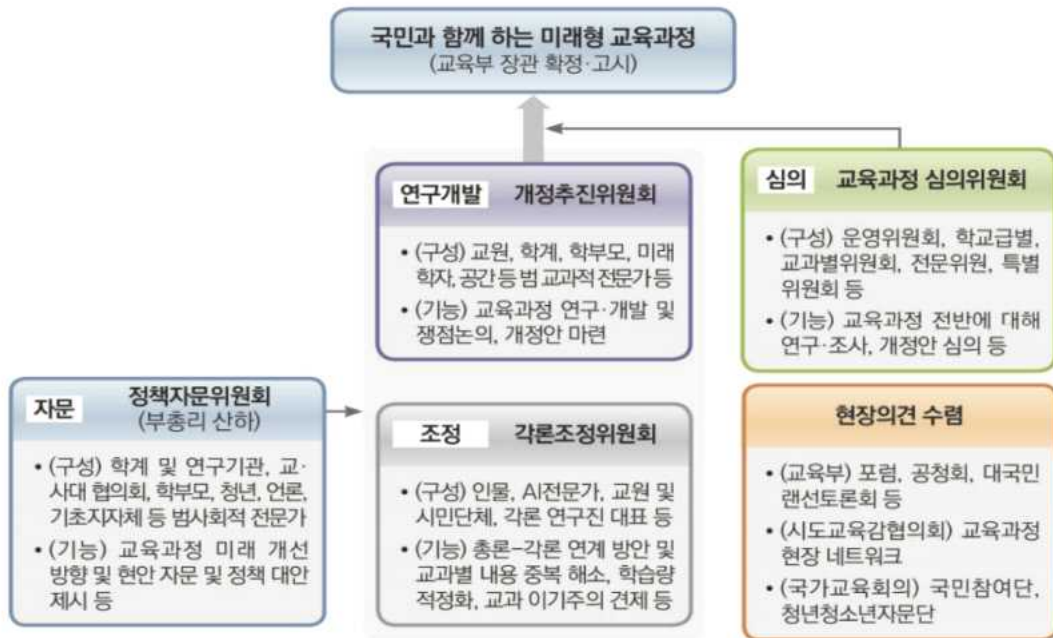
[그림 II -5]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추진 체계도

출처: 교육부(2021b),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노은희(2025)의 연구에 따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과거 소수 전문가 중심의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표방하며 협력적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학생, 학부모, 교사, 범사회적 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기존보다 다원화된 개발 추진 체제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총괄 기관으로서 교육부는 기본 계획 수립과 전체 일정을 관리하며 최종 고시를 담당하였다. 이와 협력하여 국가교육회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약 10만 명 규모의 대국민 여론조사와 온라인 공개 포럼, 숙의 토론 등을 진행하여 2021년 9월 미래 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권고안을 도출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전국 수천 명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상향식 현장 의견을 수합하고 교과별 제안서를 제출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세부적인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개정추진위원회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전반의 의사결정을 총괄하였으나 구체적인 역할이 불명료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각론조정위원회는 총론의 취지를 각론에 반영하고 교과 이기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나 교육부 주도의 하향식 구조로 운영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법정 자문 기구로서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개정안 심의를 담당하였으며, 현장 교사 비율을 50퍼센트 이상으로 의무화한 교과 교육과정 연구 개발진은 실질적인 기초 연구와 시안 개발을 직접 수행하였다. 추진 일정 측면에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방향 수립 단계를 거쳐 총론 주요 사항이 발표되었고,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년여 동안 시안 개발 단계가 매우 촉급하게 진행되었다. 2022 개정 체제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제도화하여 국민 참여를 대폭 확장했다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노은희(2025)가 지적하듯, 1년여의 짧은 정책 연구 기간 동안 방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 온라인 참여 과정에서의 특정 용어 관련 정치 쟁점화, 교사와 교수의 이분화된 역할 수행 등 절차적 비민주성과 실효성 부족이라는 실무적 문제점 역시 노출하였다.



[그림 II -6]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의 추진 체제
출처: 교육부(2021b),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일반 교육과정 개발의 거버넌스 기초 위에서, 진로교육 교육과정인 ‘진로와 직업’ 과목의 개발 추진 체제는 진로교육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세분화된 구조로 작동하였다(박나실 외, 2022). 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의 총괄 아래, 진로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가 지원하는 이원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시안 개발은 전문 연구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상근 외(2021)와 정윤경 외(2021)의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차 시안 개발을 주관하며 ‘진로와 직업’ 과목이 총론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기본적인 틀을 잡았다. 이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2차 시안 및 최종안 개발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 진로전담교사 회장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안을 검토하였고, 각론조정연구팀은 진로연계교육이나 고교학점제 등 미래 지향적 총론 지침이 교육과정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내용 체계성을 조정하였다. 개발 체제는 디지털 전환 등 환경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고 기존 4개 영역을 3개 영역으로 슬림화하여 학생 주도성을 명확히 구현했다는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박나실 외, 2022). 그러나 박나실 외(2022)의 분석에 따르면, 1차 시안 연구를 인계받아 2차 최종안을 도출하기까지 실제 수정 및 보완에 주어진 시간이 불과 2개월에 그쳐,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깊이 있게 숙의하기에는 일정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또한, 상위 기관과의 의사소통이 주로 일방향적으로 진행되어 쌍방향적 의견 조율 기회가 미흡하였으며, 슬림화된 국가 단위의 문서 탓에 현장 교사들이 활용할 구체적인 교수 학습 지침과 맥락적 해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진로와 직업’ 교과 이외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이나 총론에 담겨 있는 범교과 학습, 진로연계교육 등은 일반 총론 개발팀에서 다른 영역이나 교과와 함께 논의되었다.

나. 차기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추진 체제 탐색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관련 법령들이 전면적으로 재정비되면서 차기 교육과정 개발 체제는 본질적인 구조적 재구조화를 요구받고 있다(박창언, 2020).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초중등 교육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에 따른 수직적 권한 분립의 명확화이다. 국가교육과정의 결정 권한은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되었으며, 교육부는 고시된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과서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행정적, 재정적 후속 지원을 전담하는 기능적 분업 체제가 법적으로 완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박창언(2020)은 차기 국가교육과정 개발이 4단계의 숙의적 모델로 정교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1단계는 국가교육과정 개정 발의 및 의제 설정 단계이다. 기존의 일방적인 하향식 통보에서 벗어나,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를 가동하여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한 개정의 비전과 거시적 의제를 사전에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2단계는 국가교육과정 시안 연구 및 개발 단계이다. 동법 제17조에 명시된 전문위원회 산하에 상설 소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지정된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가 중심이 되어 실질적인 문서를 개발하되 현장 교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강력히 보장해야 한다. 3단계는 교육과정 시안 심의, 의결 및 고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투명한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고 전체 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치며, 특히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2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타 부처의 범교과 학습 주제 유입을 사전에 제어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양과 질을 적정화해야 한다. 4단계는 개정 교육과정 적용, 후속 지원 및 질 관리 단계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실무적, 행정적 지원과 함께,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상시 가동하여 학교 현장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차기 개정 발의의 실증적 기초 자료로 환류하는 선순환 질 관리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노은희(2025)와 박나실 외(2022)의 연구 성과가 입증하듯, 2022 개정 일반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과정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도입과 국민 참여의 외연 확장이라는 뚜렷한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촉급한 일정, 상위 위원회의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 쌍방향 소통의 구조적 부재 등 근본적인 한계를 여실히 노출하였다. 과거의 단기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정책 관행에서 완전하게 탈피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는 개정 발의 및 의제 설정, 시안 연구 및 개발, 시안 심의 및 고시, 적용 및 질 관리 환류로 이어지는 4단계의 고도화된 숙의적 모델을 현장에 정교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종합 및 시사점

진로교육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진로교육 교육과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로교육 정책,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실태,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성과,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3가지 차원으로 도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체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26>과 같다.

첫째,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발 및 총론 측면에서 도출된 시사점이다. 그간 진로교육 정책은 법·제도적 기반 강화와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점진적으로 고도화되어 왔다. 진로교육법 제정과 진로전담교사 배치, 국가진로교육센터 설치 등은 진로교육의 제도적 정착을 이끈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진로교육법 내 교육과정에 대한 계획 수립 주체와 내용 개발 및 집행 주체 간의 역할 경계가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어,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연속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역할 재정립이 요구된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발달단계와 진로 설계 역량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진로연계교육, 학교자율시간, 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학교자율시간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신설되어 제도적 도입 취지와 운영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에서만 검토할 수 있었다. 한편,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교과목 선택 및 학업 설계를 위한 진로교육의 역할이 한층 강조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일반 교사의 협력 및 교내 지원 체계가 부족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 핵심 교육활동으로 도입된 진로연계교육이 교육과정 고시 과정에서 선택 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장의 실행 동력이 약화되고 개념 적용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운영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교과연계 진로교육 역시 개별 교사의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어 공식적 실행 체계 미비에 따른 교사 간 협업의 어려움이 보고된다. 따라서 진로전담교사와 일반교과교사 간의 공감대 형성, 교과별 운영 가이드라인 보급, 연수 지원 등 실천 기반 확충이 요구된다. 나아가 진로교육 집중학년 및 학기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운영률이 20퍼센트 미만으로 나타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가 강력히 요구된다.

각론 측면에서는 초등학교의 분산적 접근과 중학교의 절충적 접근(독립교과와 분산적 접근 병행)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이다. 초등학교는 실과의 일부 단원에서만 진로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체계적인 교육 실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학년별 진로발달단계에 맞춘 맞춤형 진로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필수적이다. 중학교의 진로와 직업 교과는 고교학점제 환경에서 과목 채택 및 편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교과의 필수화 여부, 편성 시기, 운영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제도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은 일반 교사의 진로교육 전문성 부족과 운영 방식에 따른 질적 편차가 현장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진로와 직업 교과와의 내용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 내용의 차별화와 우수 사례 및 가이드라인 공유가 절실하다.

둘째,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성과 차원이다. 현행 진로교육은 대학입시제도라는 거시적인 구조적 제약과 현장의 운영상 한계로 인해 당초 목표한 성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진로 설정 등 개인적 성취와 역량 변화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향후 진로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 전반의 진로 인식을 전환하고, 기존의 정량적 활동 만족도 중심의 평가를 넘어 학생의 개인적 성취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고도화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조대연 외, 2020).

셋째,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거버넌스 및 지역사회 연계 측면이다. 실태 분석 결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진로체험지원센터 활용률이 중학교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센터의 소극적인 태도와 지원 역량 부족으로 학교 현장과의 효과적인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학교 진로교육에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협력 기반과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내 협력 체계 측면에서는 일반 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공감도 부족으로 협업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내적 결속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 단위의 진로교육 협력 체계 지원을 강화하고, 교사 간 공감대 형성과 진로지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일반 교사 대상 진로교육 연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넷째,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체계 분석이다. 2022 개정 진로교육 교육과정은 다원화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도입하는 외형적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시안 연구부터 최종안 도출까지 일정이 촉급했고, 상위 기관과의 일방향적 소통이라는 실무적 한계를 노출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차기 교육과정은 의제 설정, 시안 개발, 심의 및 고시, 모니터링 환류의 4단계 숙의적 모델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첫째, 고시 최소 3년 전부터 진로 교과 기초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개발 기간과 예산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 둘째, 현장 교사들을 단순한 검토진이 아닌 상설 교과 소위원회의 실질적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시키는 상향식 개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학생, 학부모, 산업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수렴하여 교육과정 정책 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국가교육위원회와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이원화된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역할을 일원화하여 거버넌스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의 공식적인 고시 절차를 의무화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총론과 진로 각론 간의 이견을 투명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각론조정위원회 내 진로 전문가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고시와 동시에 현장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설서와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표 II -26〉 「진로교육법」 제정 전·후 우리나라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실태 분석 종합 및 시사점

영역	주요 내용	시사점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총론의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 교육목표, 범교과 학습주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제시됨. 「진로교육법」 내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실행체제 불분명 초등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설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교육법」 내 진로교육 교육과정 관련 역할 주체 재정립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실행체제 일원화 및 법·제도 간 정합성 확보 필요 총론 내 초등학교 진로교육 관련 지침 마련 초·중등 교과 내 진로교육 관련 성취기준 반영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률은 20% 미만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고교학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가 운영됨에 따라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 및 학업 설계를 위해 진로교육의 역할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학점제 기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 교사의 협력과 지원체계 필요 진로전담교사의 학업설계 지도 역할 강화
	진로연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 교육활동으로 강조되나, 실제 교육과정 고시 과정에서는 선택 운영으로 조항 변경 진로연계교육의 현장 실행력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연계교육의 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 실행력 약화 및 개념 적용 혼란 문제 진로연계교육 운영 지침 마련
	교과연계 진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자발성에 의한 운영으로 교사 간 공감대 미형성 시 진로전담교사와 일반교과교사의 협업 어려움 발생 교과연계 진로교육 운영을 위한 운영 매뉴얼과 공식적 실행 체계 미비로 현장 혼란 교과연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반 확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적인 교과 간 연계보다는, 일반 교과 속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형식 채택 교사 간 융합에 대한 일반교과 교사와 진로전담교사의 공감대 형성 교과연계 진로교육 운영을 위한 운영 매뉴얼과 공식적 실행 체계 확보 교과연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별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학교장 및 일반교사 대상 연수 지원
	각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는 분산적 접근을 통해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중등에서는 절충적 접근(독립교과+분산적 접근)을 통해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내용의 중복 문제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내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내용 차별화
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교과는 실과의 일부 단원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데 한계 진로교육이 교육과정 상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내용 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진로교육 운영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 초등학교 학년별 진로발달단계 맞춤형 자료 개발 및 보급 	

영역		주요 내용	시사점
	‘진로와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과 고교학점제로 인하여 ‘진로와 직업’ 채택 및 운영에 어려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와 직업’ 교과의 필수화, 편성 시기, 운영 방식에 대한 제도적 논의 필요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에 대한 일반교사의 진로교육 전문성 부족 및 운영 방식에 따른 질적 차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우수 사례, 가이드라인 공유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입학제도에 따른 진로교육 제약(대학입시제도와 진로교육의 구조적 제약)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운영상 한계로 인한 성과 미흡 진로교육 성과와 관련한 학교 전반에 걸친 진로 인식 전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 내 학생의 개인적 성취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반영 활동 만족도 외 학생의 개인적 성취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반영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성과관리 강화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	지역사회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낮은 진로체험지원센터 활용률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소극적 태도 및 지원 역량 부족으로 인하여 효과적 연계의 어려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활성화 방안 필요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진로교육 적극적 참여 방안 필요
	학교 내 협력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교육에 대한 일반 교사의 공감 부족으로 인한 협업의 어려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내 진로교육 교육과정 협력체계 지원 강화 진로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
	진로교육 운영 인력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교사의 진로교육 전문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교사 대상 진로교육 연수 강화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체계	2022 개정 개발 거버넌스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적 거버넌스는 도입되었으나, 촉급한 일정과 하향식 소통으로 현장 의견 숙의에 실무적 한계가 존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분한 개발 기간 및 예산 보장, 일반 교사가 주도하는 상설 교과 소위원회 중심의 상향식 개발 체제 제도화
	진로교육 성취기준 및 법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취기준 수립 주체(국가교육위원회)와 개발 주체(국가진로교육센터)의 이원화 및 고시 절차 부재로 대외적 구속력이 미흡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할 명문화를 통한 개발 주체 일원화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공식적 고시 절차 의무화.
	차기 교육과정 개발 지원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총론-각론 간 소통 단절로 연계가 부족하고, 문서 슬림화로 현장 교사가 참고할 구체적 지침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단계 숙의적 모델 적용, 각론조정위원회 내 진로 전문가 참여 보장 및 현장 맞춤형 해설서의 적극적 보급

Ⅲ. 사회변화 등을 고려한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 분석

1. 미래사회 및 교육 변화 분석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미래 사회변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미래사회 변화 및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개별 연구에서 제시한 미래사회 및 교육 분야의 주요 키워드와 연구의 주요 결론을 제시하면 표 3-1과 같다. 표에 수록된 연구들은 기후위기의 심화(탄소중립, 생태 지속가능성 요구),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비대면, 초연결, AI, 빅데이터 활용), 인구구조 변화(저출생, 고령화,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AI 및 자동화 기술 확산(일자리 재편, 돌봄 노동 가치 재평가) 등 미래사회 핵심 키워드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역량 중심 교육과정 통합, 교사의 변혁적 역할 재정의, 물리적 및 디지털 학습공간의 협력적 재설계, 평생 및 유연학습 생태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 방안 및 특징들을 정리해 보면, 교육을 사회공동체의 공동재로 재정립함으로써 형평성과 포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과, 전 생애에 걸친 역량 강화 로드맵을 바탕으로 커리큘럼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학습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평생 및 유연 학습망을 확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변화와 이로 인한 교육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교육과정 개편을 포함한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Ⅲ-1〉 미래 사회 변화 및 교육 선행연구 종합

출처	미래사회 및 교육 키워드	시사점
국회연구조정 협의회 (2024)	저출생 · 고령화 · AI · 디지털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양성기본법 제정으로 컨트롤타워 구축 • AI 디지털교과서 · 1인1디바이스 보급 확대 · 교원연수 강화 • 재정교부금 산정체계 개편 및 특별교부금 안정화 • 역량 중심 교육과정 · 포트폴리오 평가 도입 · 분권형 거버넌스
황준성 외 (2024)	STEEP(사회 · 기술 · 환경 · 경제 · 정치) 분석을 통한 10대 이머징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성 강화 · 맞춤형 학습 확대 · 디지털 리터러시 심화 • 교원 혁신 역량 강화 · 분권형 거버넌스 확립 • 정책 일관성 · 지속성 확보를 위한 협의체 운영 • 중장기 발전계획 지원할 다층적 진단 방법론 적용
UNESCO (2022)	기후위기 · 디지털격차 · 민주주의 위기 · AI · 자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사회계약: 교육을 공공재로 재정립하고 평생 · 유연 학습 보장 • 교육과정에 기후 · 생태 · 인권 · 시민참여 통합 • 교사협력 · 형성평가 중심으로 역할 전환 • 물리 · 디지털 학습공간 협력적 구조로 재설계
김미경 외 (2022)	글로벌 역량 중심 교육(UNESCO · OECD) · 팬데믹 · 기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 · 비판적 사고 · 디지털 · 언어 · 수리 문해력 통합 교육과정 • 교사 변혁적 전문가로 재정의 · 전문학습공동체 활성화 • 물리 · 디지털 공간 혁신 학습 환경 구축 • 메타학습 · 과정 중심 평가 확대
이강주 외 (2021)	팬데믹 · 디지털 전환 가속화 · 교육정보화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집분석 기반 4개 미래교육 군집 프로파일링 • 교사 촉진자+다원화 경험 제공 학습 시나리오 제시 • 맞춤형 학습경로 · 실시간 데이터 피드백 체계 구축 • 1학생 · 1학교 배타성 타파 · 지방분권형 거버넌스

출처	미래사회 및 교육 키워드	시사점
류방란 외 (2018)	인공지능 · IoT · 빅데이터 · V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초연결 · 초지능 · 가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공동체 중심 교육과 공공성 강화 전략 제시 • 교원 자율 · 전문성 보장, 지역 단위 탈중심 학습 생태계 구축 • 에듀테크 활용 가이드라인(인권 · 프라이버시) 마련 • 3가지 시나리오(현상 유지 · 경쟁 강화 · 공공성 강조) 기반 실천 방향
이혜진 외 (2018)	학령인구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 · 통합운영 · 캠퍼스형 학교 모델 제안 • 통 · 폐합 인센티브 폐지, 교육청 자율적 재구조화 지원 • 공동 교육과정 · 교사 · 시설 공유로 품질 유지 • 지역사회 연계 강화로 커뮤니티 활성화
조대연 외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 전생애주기별 핵심역량(문제해결 · 융합적 사고 · 디지털 리터러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 로드맵 수립 · 연속성 보장 • 델파이 · Borich · 시나리오 등 다층적 방법론 적용 • 디지털 리터러시 기반 융합 프로젝트 학습 · AI 맞춤형 평생학습 플랫폼 구현 • 국가 · 지역 교육공동체 협력체계 구축
이화진 외 (2016)	4차 산업혁명 · 저출산 · 고령화 · 다양화된 가족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 중심 교육과정 설계(융 · 복합 프로젝트) • 디지털 교과서 · AR · VR · AI 학습자료 개발 • 수행 · 포트폴리오 평가 · 교원임용 실기 강화 • 메이커스페이스 · 시민교육 등 평생 · 공동체 학습 환경 조성
이혜정 (2016)	4차 산업혁명 · 불평등 · 환경위기 · 윤리적 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 탐구 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 학교 · 학교 밖 경계 허물고 민주적 학습공동체 구축 • 성찰적 사유 · 윤리적 판단 역량 강화 • 인간존엄 교육을 교육철학의 중심에 배치

가. 미래 사회 변화

미래 사회의 변화를 논의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재편을 미래 사회를 규정하는 핵심 동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류방란 외, 2018; 이화진 외, 2016; 황준성 외, 2024; UNESCO, 2021). 첫째,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이다. 디지털 전환은 사회 전반적인 구조와 개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은 사회를 초연결성, 초지능성, 가상화의 시대로 이끌고 있다(류방란 외, 2018). 이러한 기술 혁신은 AI 디지털 교과서, 맞춤형 학습 플랫폼 등 교육 콘텐츠와 방법의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이화진 외, 2016). 그러나 동시에 기술의 오남용, 사생활 침해, 디지털 격차 심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이 형평성과 포용의 가치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제기하기도 한다(류방란 외, 2018; UNESCO, 2021). 둘째, 기후 위기와 지속가능성의 도전이다.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문제로 부상했다. 그 결과 탄소중립과 녹색 전환은 모든 사회 영역의 핵심 과제가 되었으며, 특히 청소년 세대는 기후 행동을 주도하며 교육의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UNESCO, 2021). 이러한 흐름은 교육과정에 기후 위기, 생태적 지속가능성, 윤리적 소비, 생태감수성 등을 핵심적인 학습 내용으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이화진 외, 2016). 학교는 지식 교육을 넘어 기후 행동과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학습의 장으로서 그 역할이 확장되어야 한다(UNESCO, 2021). 셋째,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적 다양성 심화이다.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변화이다. 학령인구는 204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이혜진 외, 2018), 이

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거점학교 및 통합운영학교 모델 도입 등 학교 체제의 재구조화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동시에 1인 가구 및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인구 구성의 다양성을 심화시켜, 모든 학생의 개별적 성장을 지원하는 포용적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이화진 외, 2016; 황준성 외, 2024). 넷째, 기술 발전과 노동시장의 재편이다. AI와 자동화 기술의 확산은 노동시장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기존의 많은 직무가 자동화로 대체될 위험에 처하면서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이 어려워지고, 평생 하나의 직업에 종사하는 전통적인 경력 모델이 해체되고 있다(UNESCO, 2021). 이러한 변화는 특정 직무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을 넘어,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 창의 및 융합적 사고, 협상력 등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고차원적 역량의 중요성을 극대화한다(조대연 외, 2017). 또한,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재평가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UNESCO, 2021).

나. 미래 교육의 변화

앞서 분석한 거시적 사회변화는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미래 교육은 산업 시대의 효율성 모델에서 벗어나, 학습자 개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첫째, 지식 전수에서 역량 함양으로의 변화이다. 미래 사회에서 지식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며 활용되는 역동적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무게 중심은 정해진 교과 지식을 학생의 머릿속에 채워 넣는 지식 전수에서, 새로운 상황에서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함양으로 전환해야 한다.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문제해결역량, 혁신역량, 의사소통역량, 변화적응역량, 협업역량, 디지털 문해력 등을 핵심역량으로 제시한다(이화진 외, 2016; 조대연 외, 2017). 특히,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성찰적 사유와 윤리적 판단 능력, 탐구를 통해 혁신적 지식을 생성하는 능력이 미래 교육의 핵심으로 강조된다(이혜정, 2016). 이는 교육이 단순한 지식의 소비자를 기르는 것을 넘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지식의 생산자를 길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공공재로서의 교육과 공동체 가치이다. 기술 발전이 개인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이면에는 교육 격차 심화와 사회적 고립이라는 역기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책임지고 가꾸는 공공재로 재정립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UNESCO, 2021). 이는 입시 위주의 과도한 경쟁과 서열화 구조를 지양하고, 협력과 연대, 공감과 연민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학습 공동체를 지향해야 함을 의미한다(UNESCO, 2021).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차별과 불의에 맞서는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상호문화 이해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글로벌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학교 중심에서 평생학습 생태계로의 변화이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급격한 기술 변화로 인해 학습은 더 이상 특정 시기인 학령기에 국한된 활동이 될 수 없다. 미래 교육은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학습을 언제 어디서든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학습 체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학교 밖의 경계를 허물고, 지역사회, 기업, 온라인 플랫폼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개방적인 학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이강주 외, 2021). 1학생 1학교라는 배타적 소속 체제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지리적, 제도적 제약 없이 필요한 교육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성인교육과 정보접근권을 강화하여 평생에 걸친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이강주 외, 2021; UNESCO, 2021).

다. 미래 교육에 주는 시사점

미래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은 교육과정, 교사, 학습 공간, 평가라는 구체적인 구성 요소들의 총체적인 혁신을 통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 교육이 주는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교육과정의 융합적 재설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분절된 교과목의 칸막이를 넘어서는 교육과정의 재설계가 필수적이다. 이는 실생활의 복합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과 지식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융복합 프로젝트 기반 커리큘럼의 도입을 요구한다(이화진 외, 2016). 또한 기후 위기, 생태적 지속가능성, 인권, 시민의식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교육과정의 핵심으로 배치하고, 과학, 인문, 디지털 문해력을 상호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가르쳐야 한다(UNESCO, 2021).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를 구현하기 위해 교사의 역할은 정답을 가르치는 지식 전달자에서 학생의 학습 과정을 설계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 촉진자이자 협력 전문가로 재정의된다(김미경 외, 2022; UNESCO, 2021). 교사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 개인의 학습 경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동료 교사들과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업을 혁신하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팀티칭, 동료 코칭,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 협업적 교수 모델을 활성화하고 교사 스스로 평생 학습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류방란 외, 2018). 교육 공간 역시 교실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이 결합된 온라인 플랫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협업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과 더불어, 지역사회가 담장을 넘어 확장된 혁신적 학습 환경이자 학습 허브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김미경 외, 2022; 이화진 외, 2016; UNESCO, 2021).

평가 체제 또한 결과 중심의 표준화된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의 학습 과정을 돕고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 패러다임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객관식 및 선다형 평가의 비중을 축소하고 수행평가, 서술형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를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창의성과 협업 능력, 문제해결력을 다각적으로 진단해야 한다(이화진 외, 2016). 특히 교사가 형성평가를 통해 제공하는 시의적절한 피드백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고 조절하는 평가 문화의 정착을 이끌 수 있다(김미경 외, 2022).

다만,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에서는 잠재적 긴장과 선결 과제가 수반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학습 강화 흐름은 자칫 학습의 파편화와 개인의 고립을 심화하여, 연대와 협력이라는 공동체 가치 회복의 지향점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이는 개인 중심 및 경쟁 강조 시나리오(류방란 외, 2018)와 협력적 사회계약(UNESCO, 2021)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며, 기술 활용이 공동체 내 토론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교사의 역할 전환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행정 업무 경감, 수업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실질적 시간 보장, 그리고 전문성 개발을 체계적으로 조력하는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거시적 교육 변화의 흐름은 진로교육의 방향성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래 진로교육은 단순히 특정 직업을 찾는 기술을 가르치는 차원을 넘어, 급변하는 노동시장과 다변화된 생애 경로 속에서 학생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적응해 나가는 진로개발역량 함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업이나 연구소와 연계한 융합 프로젝트 학습을 도입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생 주도적으로 경력을 관리하는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지속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혁신해야 한다. 이는 역량 중심, 평생학습 생태계, 융합적 교육과정이라는 미래 교육의 핵심 원리가 진로교육이라는 구체적 실천 맥락에서 실현되는 주요한 사례이다.

2.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분석

가.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1) 총론

가) 총론 일반

(1) 진로교육은 총론의 주요 요소들을 학교 교육과정에 뒷받침하는 역할

진로교육은 더 이상 단편적인 활동이나 보조적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되며, 창의성과 인성 등 총론의 핵심 가치와 함께 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관통하고 조직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진로교육은 교육과정 속에서 독립적인 목적을 갖는 동시에, 각 교과 간 연계를 통해 통합적 의미를 형성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구체적 프로그램과 방향 제시를 통해 체계적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진로교육은 학생 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기반한 과목 선택을 지원하고,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진로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22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이 사실은 모든 것이 진로 역량이거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 모두 다 진로의 포괄적인 건데...

(학교관리자 B)

진로교육은 창의교육, 인성교육과 함께 학교교육과정 전체를 총괄하고 조직하며 관통하는 핵심원리로 자리매김 하여야 합니다.

(일반교과교사 C)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진로 교육이 단순한 진로 탐색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체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일반교과교사 D)

(2) 교육과정 총론과 진로교육의 통합적 연계 필요성

교육과정 총론 차원에서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진로교육을 교과 및 교육활동 전반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총론 내 진로역량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교과나 진로교과와의 실질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진로교육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이 총론 문서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진로교육은 교육과정 총론이 지향하는 삶, 성장, 인간상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자기관리 역량을 비롯한 핵심 역량들과 연결된 실천적 기반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인재상 및 핵심역량이 진로교육의 방향성과 본질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진로교육이 전체 교육과정의 목표 달성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드러났다. 이는 진로교육이 단순한 직업 탐색을 넘어, 전인적 성장과 자아실현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의 통합적 실천 기반으로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총론에서 진로 역량이 들어가 있긴 한데, 다른 교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진로교과와 호응하고 있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냥 던져진 역량 같다고 해야 하나요 총론 수준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 줘야 다른 교과나 학교 전체의 교육 활동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잘 안 보여요
(학계전문가 C)

이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포용성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시킨다는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에 진로교육이 우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어떤 목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학교관리자 B)

진로교육도 삶과 성장, 인간상과 연결된 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중략) 인간상과 교육목표가 일관되게 가면서 그에 맞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길러주는 것이었어요 진로교육이 바로 그런 역량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거구요
(학계전문가 D)

(3) 교육과정 총론 내 진로교육 가이드라인의 명확한 제시 필요

진로교육이 각 교과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총론 문서 안에 진로교육의 방향성과 각 교과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제시되었다. 이는 단순한 진로 역량의 제시를 넘어, 실제 교수·학습·평가 전반에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과정 총론 문서 안에 교수·학습·평가 방향이든 어떤 영역에서 각 교과가 진로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가이드 진로 내용을 어떻게 포함시켜야 된다는 가이드를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서 체계 안에 얹히는게 가장 좋다.
(학계전문가 A)

(4) 초등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설계 필요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등에서는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운영 지침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실행하는 데에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진로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언급되고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진로교육이 창의적 체험활동 전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을 아우르는 국가 수준의 평가 가이드라인과 각론 기반의 세부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교육과정에는 진로교육이 되게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총론에서도 나오고 학교 교육 목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이런 데 다 나와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거의 안 되고 있는 거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진로교육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느냐를 보면 정말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수준인 거 같아요 말은 많은데 실행이 없는 딱 그 상태예요
(초등 진로교사 A)

수업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국가 수준 각론 형태로 진로교육 교육과정이 제시될 때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설계·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등 진로교사 B)

나) 진로교육 교육과정 제도

(1) 고교학점제

(가) 학생 진로에 기초한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와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필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진학 중심에서 학생 개별의 진로 설계와 학업 설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진로교육은 학교 교육의 핵심 기반으로 재정립되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교과를 선택하고 이를 통해 학업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진로지도 체계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1, 2학년 시기에는 학생이 자신의 희망 전공, 관심 분야, 직업군에 대해 충분히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과목 편성표 내에서 적합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지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진로지도는 이제 단순히 학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학교 운영의 방향을 결정짓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진로 설계를 통해 학교는 교육과정 수정·보완, 과목 개설 조정, 학급 운영 방식 등의 주요 정책을 설정하게 되며, 이는 진로교육이 학교 교육의 기반이자 중심축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진로를 교과 수업을 통해서 아니면 창체진로활동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과목 선택하기 전까지의 그제 자기 이해 정말 충분히 해주고 직업 탐색 충분히 해주고 그래서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는 과정까지 그 단계까지를 충분히 이해시켜 달라..

(진로전담교사 G)

고교학점제에서는 1학년 1학기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중심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진로를 파악하여 학교 교육과정도 수정 보완하며, 다양한 학교 교육활동도 계획·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역할은 학교의 근간을 이루는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교과교사 B)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진로교육은 필수적입니다. 본교의 경우 진로교육 교육과정과 전체 학교 교육과정이 유기적으로 잘 설정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교과교사 A)

(나) 고교학점제 내실화를 위한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강화와 부서 간 협업 필요성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전면 적용과 함께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학생 개별의 진로와 학업 설계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진로전담교사의 역할과 학교 내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진로전담교사는 기존의 진로상담 및 활동 운영을 넘어, 학생 맞춤형 진로·학업설계의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특히 1학년 시기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고, 이에 맞춘 과목 선택을 준비하는 시점이므로, 진로전담교사는 교육과정 운영의 핵심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로부서, 교육과정부, 학년부, 담임교사 간의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진로전담교사가 학생의 진로 목표와 관심 분야를 파악하여, 교육과정부와 함께 학교 교육과정 편제와 과목 개설을 조율하고, 담임교사와 함께 학생 개별 상담과 안내를 실시하는 협력 모델이 요구된다.

지금 학점제라는 이제 주제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교육과정부장과 진로부장의 협업 체계가 협업 체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1학년 부장이나 담임 진로부장 교육과정 부장의 협업 체계가 학점제를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담당자 A)

진로 코디네이터 역할을 이제 조금 더 선생님들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결국은 교육과정 운영상 그러지 못하는 학교가 많고...

(정책담당자 C)

1학년 1학기 때 진로 학업 설계와 연계해서 이 교과목이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학계전문가 F)

(다) 고교학점제의 진로이해 및 탐색을 위한 기회 확대

고교학점제 제도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은 과목 선택 이전 단계에서 자신의 진로 방향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와 충분한 탐색의 기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단계 진로교육의 체계적 연계와 내실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고등학생들은 실제 과목 선택 과정에서 ‘어떤 과목이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 부족’을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진로활동을 통해 하고 싶은 직업을 검증하고”, “과목 선택과 연결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받고 싶다는 의견은, 진로교육이 과목 선택과 직결된 실질적 안내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학교 단계에서도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운영 방식에 대한 사전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고교학점제 관련 설명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적성, 흥미 과목, 진로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고등학교에 진입하게 되어 혼란을 겪는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소질을 파악하고,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를 탐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학계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초·중등 단계에서의 진로교육이 선제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흥미 유발과 도전정신 함양, 중학교 단계에서는 적성 이해와 진로 탐색의 심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중학교 시기의 진로체험은 단순 활동이 아니라 깊이 있고 실질적인 탐색 경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과목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떤 과목을 들어야 내 진로에 도움이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진로교육을 통해 어떤 직업에 어떤 과목이 필요한지, 그걸 명확히 알려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고등학생 B)

자기가 커리큘럼을 짜는 거니까 어느 정도 확고한 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면은 진로활동에서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가 하고 싶은 활동하고 싶은 직업 하고 싶은 진로가 있으면 그거를 좀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생 C)

중학교에서 미리 진로나 과목 선택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방향성을 잡아야 고등학교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혼란 없이 학습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략) 중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뭔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학생 B)

고교학점제가 잘 이루어지려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단계에서의 진로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
해요 (중략) 초등학교 단계에서 지금 초등학교 진로교육이 잘 이루어지겠지만 좀 더 다양한 미래 산업 업종 기
술 직업인에 대한 어떤 흥미를 갖게 하고 도전 의식을 갖도록 하는 ... 중학교 단계에서의 진로교육 진로 체험
이 깊이가 있고 폭넓고 다양해서...

(학계전문가 F)

(라) 고교학점제 기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목 이수 체계 개선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이수하는 학업 설계의
실현에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희망 과목 개설, 인근 학교와의 네트워크 연계, 온
라인 과목 이수 등 다양한 이수 체계가 유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

실제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의 기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인력의 유무에 따라 과목 개설이 좌우되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학생들의 과목 선
택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 내부만으로는 모든 진로 관련 과목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인근 학교와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온라인 과목 이수 체계의 실
질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개설되지 않
는 과목을 접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해당 과목 수강 신청이 제한적이고
경쟁이 심해 실제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공동교육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인수 과목의 적극적 개설, 신청 시스템 개선, 지역 간
교육자원 공유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어쨌든 이것도 선생님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틀릴 것 같아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어떤 지도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이거를 참 그러니까는 그 학교에 선생님이 안 계시면 인근 학교에 인근 학교로 갈 수 있
게끔 이것도 제도적인 시스템과 이게 해주셔야 돼요 (중략) 온라인으로 다 들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거는 공
동교육과정하고 좀 연계된다고 나는 봐요

(학부모 A)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과목을 접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아이
도 어제 기대하고 있다가 한 5분 만에 평 됐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 C)

(2) 진로연계교육

(가) 진로연계교육의 다층적 기능 강화와 학교급 전환기 중심 진로 지원

진로교육은 더 이상 단편적인 진학·취업 정보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생활 적응, 학업 설
계, 발달과업 연계 등 학생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주체화 역량을 기르는 통합적 접근으로 확대
되고 있다. 정책 및 교육 전문가들은 진로연계교육이 단순한 직업 탐색을 넘어, 학생의 학업 계
획 수립, 고등학교 생활 적응, 자기주도 학습 설계까지 포괄하는 구조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한
다. 학생 개인의 발달 수준, 학습 능력, 진로 흥미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지도 체계가 필수적
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단순한 진로탐색과 설계를 넘어 고등학교 생활 적응 안내, 학업 설계, 학습 방법 및 생활 적응 등 다양하게 교육 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 맞춤형 지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정책담당자 A)

진로연계교육은 학교급 간 연계뿐만이 아니라 학년 간, 학년군을 연계하는 것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발달 단계가 단절 없이 이어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에서 중등, 중등에서 고등으로 이어질 때 아이들의 삶과 성장에 맞는 연결이 필요해요
(학계전문가 D)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진로 희망에 맞는 과목 선택, 진학 전략 수립, 취업 역량 탐색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진로연계교육이 요구된다. 특히 고교학점제에서는 1학년부터 학업 설계 능력이 강조되기 때문에, 진로교육은 단순 상담이나 체험을 넘어 구체적인 과목-전공-직업의 연계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과목의 대입 및 취업 연계 등에 대한 정보를 진로 수업을 통해 제공받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 나는 2학년이 되면 이렇게 공부하고 3학년이 돼서 이런 공부를 할 거야 그런 계획을 1학년 때 할 수 있도록 진로 교사가 그러니까 소위 진로연계교육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죠
(진로전담교사 E)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대학별 전형 정보나 지원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걸 자세히 안내해 주지 않아서 혼자 알아봐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략) 직업계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 준비를 학교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도 다양한 직업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 주지 않아서 막막하다고 들었어요
(고등학생 B)

중학교는 고교학점제 진입 전 진로 설정과 학습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며,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을 미리 경험해 보고, 자신의 흥미와 역량에 맞는 과목과 진로를 미리 파악하고 싶다는 요구를 나타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제도나 입시에 관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면 고등학교 선택이나 진학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중학생 B)

중학교 때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이나 잘할 수 있는 과목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교학점제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알려주고 어떤 과목을 들으면 나중에 어떤 직업에 도움이 되는지도 미리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생 A)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은 중학교 진학을 앞둔 시점에서 교육과정, 생활 규칙, 학습 환경 등의 변화에 대한 사전 정보와 준비 기회 제공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진로연계교육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상급학교 적응과 관련성이 높다. 학생들 또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과목 중심 수업, 평가 방식, 교과 교사 체계 등 새로운 학습문화에 대한 정보 부족과 기대 혼란을 토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 이에 대한 안내와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면 중학교 진입기 불안과 진로 관련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학년 정도 됐을 때는 중학교 들어가면 너희들이 청소년이니 이런 게 좀 많이 바뀐다는 것도 미리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고 또 초등학교 때랑 달리 중학교 들어가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폭이 조금 더 넓어져야 되니 그런 생각하는 거 중학교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학부모 A)

갑작스럽게 자유학기제 활동을 한다면 낯설기도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짜는데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 A)

(나) 진로연계교육 유형 기반의 체계적 운영과 수준별 진로활동 기준 마련 필요

진로연계교육은 단순한 진로탐색을 넘어, 학교생활 전반과의 통합적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는 진로연계교육의 유형에 따른 구조화된 실행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진로연계교육은 학교적용 연계형 진로교육, 교과 기반 학습 성장형 진로교육, 전통적 진로탐색형 교육, 상급학교 연계형 진로교육의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진로연계교육을 특정 활동으로 제한하지 않고,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는 이러한 유형 구분에 따른 진로연계활동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교사의 재량에 의존해 활동이 설계되는 경우가 있고 초등 및 중등 단계에서 학년별로 어떤 수준의 진로활동을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활동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거나 연계성이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는 학교 적응이에요.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우관계 형성이나 학교 규칙 이해 같은 걸 진로교육과 연계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교과 수업을 통한 학습 성장인데요. 세 번째는 전통적인 의미의 진로 탐색 활동이에요. 네 번째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다음 학년 진급 준비예요

(정책담당자 D)

초등학교 4학년 교사가 내가 지금 5학년 올라가기 전인데, 이 시점에 아이들에게 어떤 수준의 진로활동을 해야 하는지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구성요소에 따라 활동을 구성할 수 있거든요

(학계전문가 D)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월 달에 4일 동안 학교를 나오게 시킵니다. 원하는 학생들만 (중략) 선생님이 1시간 강의하면 2시간은 졸업생들이 와가지고 올해 졸업한 학생들이 와가지고 나름대로 나는 진로를 가기 위해서 국어는 어떻게 공부했어 (중략) 마지막 날 목요일 날은 제가 진로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올해 너희들 고등학교 오면 중학교 고등학교의 차이점이 뭔지 진로가 어떻게 돼 교육과정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어떻게 꿈을 찾아서 자기 꿈을 이루어야 된다.

(학교관리자 C)

(다) 진로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실질적 프로그램 개발 필요

진로연계교육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보급 체계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기되었다. 일부 교육청은 이를 반영하여 학교 교육계획서에 진로연계교육 항목을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교과연계 및 상급학교에 대한 진로탐색 연수를 교사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교 자율에만 의존한 개별 운영 형태가 많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진로연계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사 대상 정례적 연수와 교과별 연계 사례 공유, 연구대회 및 실천 사례 경진대회

를 통한 우수사례 확산, 전국 차원의 표준화된 진로연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대안이 제시되었다. 선도적으로 진로연계교육을 실시한 학교에서는 학년별 위계성을 고려하여 워크북을 개발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제시. 다만 해당 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로연계교육이 지금 이제 사실 확실한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 학교별로 알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진로연계교육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려면 진짜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진로전담교사 A)

전체적인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관련 연수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임. 시도 차원이 어렵다면 전국 단위의 연수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학계전문가 A)

진로연계교육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해야 한다.

(학계전문가 F)

미래형 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저희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진로연계교육을 선택해서 그 교육을 운영을 했고 그러는 바람에 조금 다른 학교들과는 차별화가 되게 (중략) 그래서 아이들마다 이렇게 워크북도 하나씩 줄 수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은 나름대로는 네 여러 명이 그래도 고민을 해서 이렇게 위계성 있게 만든다고 워크북을 좀 만들었어요

(초등 진로교사 C)

(3) 교과연계 진로교육

(가) 교과연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반 확충

일반교과교사의 실천 가능성과 참여도 제고를 위해서는 다각도의 지원 기반 확충이 필수적이다. 일반교과교사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교과에 대한 전문성은 충분하나, 해당 교과를 진로교육과 연결해 운영하는 데에는 자료, 경험, 연수 부족 등 실천 인프라의 미비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수업에 바로 활용 가능한 교과연계 진로교육 자료, 매체, 사례 등이 부족하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진로연계 특강, 전문가 컨설팅, 진로 주제 수업 운영 등 실제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단순 수업 중 언급을 넘어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진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학교장 및 정책 전문가들도 교과연계 진로교육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자료 개발과 정책 지원, 교사 연수 확대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교사들이 수업 중 진로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수준의 구조화된 자료와 학습 설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강사나 지역사회 인사들의 풀이 형성이 돼서 학생들한테 와서 좋은 이야기를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좀 많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중략) 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교과교사 A)

교과를 이용한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가 부족합니다. 중·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자신의 교과 지식에는 전문성을 가지지만 교과를 활용한 진로교육에는 그 의미와 방향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들이 활용할 충분한 수업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교과교사 A)

교육과정 편성할 때 이제 아예 교과별로 연계 수업할 수 있는 무슨 시간을 아예 짜준다든지 아니면 교사 평가나 성과지표에서 진로교육 실적을 포함시켜준다든지 (중략) 수업 자료가 이런 게 실질적인 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랑 진로랑 같이 융합할 수 있는 이런 수업 자료나 워크시트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선생님들이 이제 좀 효율적으로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이제 협력할 수 있고...

(진로전담교사 B)

교과연계 진로교육과 관련된 자료 같은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세밀하게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온다는지

(학교관리자 A)

교사 간 진로교육에 관하여 소통하는 학교 문화 조성, 교과연계진로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수업연구 시간 확보, 교과연계 진로교육을 위한 학습자료 제공, 다양한 교과의 연수 제공이 필요합니다.

(정책담당자 A)

전적으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몫이에요 다양한 현장 사례 발굴과 열심히 하시는 교사에 관한 적극적인 포상 등을 통한 확산이 필요합니다.

(학계전문가 A)

(나) 교과연계 진로교육 추진을 위한 학교장의 리더십 협력

교과연계 진로교육은 단순히 개별 교사의 자발적 실천을 넘어, 학교 교육공동체의 협의와 조직적 운영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특히 교과 간 융합과 협력이 전제되는 교과연계 진로교육의 특성상, 단위 교과의 저항이나 교사 간 이해도 차이로 인해 학교 전체 차원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학교장이 진로교육의 가치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고, 학교 전체에 명확한 방향성과 실행 체계를 제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들이 진로교육을 단순히 부가적인 과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축으로 인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조성이 요구된다.

제가 2월에 협의를 하고 교과에서는 두 시간 이상 진로연계교육을 해 달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모든 교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중략) 작년에 방학하기 전에 제가 교과연계 진로교육을 어떤 내용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는, 어떤 내용을 어느 교과 어느 과목 시간에 누가 했으면 좋겠는지를 방도에 좀 받아 냈어요 그래서 구글 시트에 받아내서...

(학교관리자 A)

학년 협의와 교과 연대 프로젝트를 선생님들이 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접근을 하면 당연히 같이 하시는 건데 지금처럼 단절돼 있는 교과 단위의 학교에서 교과연계 수업은 저는 굉장히 이상적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학교관리자 B)

학교 현장에서 사업을 구상하기에는 교육공동체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특정한 교과의 반대가 있는 경우 시행할 수 없고 그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접근한 경우 해결사가 학교장 밖에는 없습니다.

(일반교과교사 B)

진로전담교사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학교장 역할이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계전문가 E)

(다) 교사 대상 교과연계 진로교육 경험 및 연수 확대

교과연계 진로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교과교사들이 진로교육의 개념과 실천 방법을 이해하고 수업에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교과연계 진로교육을 교사 전문성 개발의 정규 연수 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특히, 교과교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인 1정 연수 과정에 진로교육 연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직무연수 외 양성 단계에서부터 교과연계 진로교육을 경험하고 관련 역량을 갖추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선생님의 역량이 안 된다거나 또는 선생님의 어떤 자기 주도성이 없다거나 아무리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제 통합 교과로 하라고 교육과정에 짜놔 봤자...

(학교관리자 B)

각 교과의 1정 연수에서 교과연계 진로교육을 실시해야 하지 않나.

(일반교과교사 B)

제대로 된 연수, 적용 사례 일반화 등이 필요합니다. (중략) 앞서 언급되었던 교과연계 진로교육의 개념, 실천 방법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연수가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일반교과교사 C)

(4) 자유학기제

(가) 자유학기제 운영 시기 조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 필요

현재 다수의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1학년 시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학생의 진로발달 수준과 학업 경로 선택 시점 간의 불일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시기의 학생들은 아직 자아정체감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진지한 진로탐색을 수행하기에는 심리적·인지적 준비도가 낮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 기능이 실제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시기를 보다 후기로 조정할 필요성 제기한다.

중1 때 대부분 자유학기제를 하거든요 애들이 너무 아직 철도 안 들고 진지하게 진로 탐색도 안 돼서 자유학기제 같은 이런 거를 중3-1학기 정도 넣으면 좋겠다. 아니면 중 2학년 2학기라도...

(진로전담교사 E)

(나)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

자유학기제는 학생의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하고자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체험의 내용이 피상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교육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체험 활동이 교과 학습이나 학생의 평가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활동의 중요성과 목적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단순한 진로체험을 넘어, 사전 탐색, 체험 실행, 사후 성찰 및 교과연계 학습으로 이어지는 구조화된 프로그램 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학생 스스로 체험의 내용을 학습 활동과 연결 지어 자기 이해와 진로 인식의 확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다양한 진로 체험을 제공하지만, 맛보기 식이라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시험과 무관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중요성을 느끼게 하지 못하고, 막연한 체험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학부모 A)

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구조

(1) 진로교육의 초중고 연계성 강화

진로교육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까지 연결되는 진로교육 체계와 연계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진로교육은 학생들에게 짧고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초등 진로교사 A는 “지금 진로교육은 애들한테 너무 짧고 단편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진로 설계라는 게 단지 직업을 하나 떠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연계성과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학년별로 단편적으로 몇 시간 하는 게 아니라, 초등부터 중등까지 연결되는 흐름이 있어야 해요.” 라고 지적하며, 진로교육이 단순한 직업 탐색을 넘어 학생의 자기 이해와 삶의 방향 설정을 위한 지속적 과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학부모 B는 “초중고가 이렇게 연계돼서 이제 아이 개인별로 이렇게 된가 진로 탐색하는 과정 교육과정이 이렇게 조금 한 번에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고 말하며, 학생의 진로 탐색 과정을 초·중·고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지금 진로교육은 애들한테 너무 짧고 단편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진로 설계라는 게 단지 직업을 하나 떠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연계성과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학년별로 단편적으로 몇 시간 하는 게 아니라, 초등부터 중등까지 연결되는 흐름이 있어야 해요.

(초등 진로교사 A)

초중고가 이렇게 연계돼서 이제 아이 개인별로 이렇게 된가 진로 탐색하는 과정, 교육과정이 이렇게 조금 한 번에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학부모 B)

(2) 진로발달단계에 기초한 차별화된 진로교육 목표 및 내용 설정 필요

진로교육 교육과정 구성 단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발달단계에 적합한 차별화된 진로교육 목표와 내용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는 학년별 자아개념 인지에서 중학교를 준비하는 성장까지의 진로교육 방향이 교육목표 및 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 저학년은 자기 인식과 사고 능력이 제한적인 시기로, 주변 환경과 사회적 관계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이 구성되어야 한다. 중학년인 3~4학년은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따라 직업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직업에 대한 초기 관심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직업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진로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고학년이 되면 가치관과 자아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보다 깊어지기 시작하며, 진지한 진로 탐색의 기반이 마련된다. 따라서 5~6학년 시기에는 자기 이해를 심화하고, 삶의 방향성과 관련된 고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이 구조화되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이러한 자기 이해와 가치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진로 탐색 및 설계 단계에서 학생들이 보다 주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초등학교 진로교육은 학년별 발달 특성을 반영한 교육적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저학년들은 어떤 비판적 사고를 하기에는 아이들이 좀 어리기 때문에 주변에 뭐가 있는지 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시기라는 생각을 해요. 3, 4학년은 조금 뭔가 직업에 대해서 직업에 한정적으로 나는 이런 직업을 내가 잘 할 것 같아라고 생각한다면 5, 6학년 때는 좀 더 진지하게 가치관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반교과교사 A)

초등학교에서 진짜 자기 이해를 잘하고 가면 이 아이들한테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의 진로 선택이나 진로 탐색을 하든 진로 설계를 하든 간에 굉장한 도움이 되겠다는 게 제 결론이었거든요.
(초등 진로교사 C)

중학교 단계의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발달 특성과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 이해와 긍정적 자아 형성, 그리고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시기의 학생들은 또래와의 사회적 비교, 학업 성취에 대한 압박, 진로 선택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자존감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발달적 특성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강점, 가치관을 탐색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경험을 통해 진로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학교 진로교육은 단순한 직업 정보 제공이나 진로 체험 활동을 넘어, 학생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의 삶과 진로를 주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과정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학교는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탐색을 시작하는 시기로, 학습과 진로 선택에 있어 자기주도성과 의사결정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직업 정보 제공을 넘어, 학생 스스로의 성향과 가치를 반영한 진로 설계 경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중학교 진로교육이 고등학교 생활을 준비하고, 구체적인 관심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진학 이후 입시 중심 교육으로 인해 진로에 대한 학습 기회가 축소된다는 현실적 제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학교 시기 진로교육의 기능적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결과적으로, 중학교 진로교육은 학생 개인의 자아 이해와 심리적 회복을 기반으로 하여,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설계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탐색과 정보 제공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첫 번째가 나의 이해 부분에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공교육에 학생들의 자존감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존감 회복 그리고 진로 설계적인 부분에서 이제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인과 소통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의 결핍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학교관리자 B)

저는 중학교 때 진로교육을 받을 때 가장 바라던 건 고등학교를 대비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직업과 관련된 정보도 얻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중략)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대학교 입시에 신경 쓰다 보니 오히려 직업에 관련된 내용을 잘 배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중학생 B)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매 학년마다 학년별 교육 목표와 내용을 차별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계전문가 F)

(3) 교육과정, 진로, 진학의 효과적인 연계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진로지도, 진학지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영역이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진로와 진학은 교육과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할 영역임에도, 실제 운영에서는 각 부서 또는 담당자의 관점

에 따라 분절적으로 접근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진로-진학 간의 효과적인 연계와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협업 구조를 명확히 하는 등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진로 발달과 학업 선택, 진학 결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 접근이 요구된다.

교육과정 부장님하고 진로 상담하시는 분하고 진학하고 계속 이렇게 조금 잘 되는 학교도 있지만은 비슷한 일을 하면서 각자가 이렇게 약간씩 이력을 가지면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담당자 B)

(4) 학교급 및 유형을 아우르는 통합적 진로교육 구축

현재 진로교육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별,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교 유형별로 분절되어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진로교육의 방향성과 내용이 서로 단절되거나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진로 탐색의 기회 또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정책 현장에서는 이러한 분절적 구조를 극복하고, 학교급 및 학교유형 간의 경계를 넘는 통합적 진로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 간의 진로교육을 별개로 운영하기보다는, 공동의 진로 체험처 활용, 연합 프로그램 운영, 상호 교류 기회의 마련 등을 통해 상호보완적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학교 급별로 뭔가 물론 일반고, 직업계고 이렇게 진로교육이 꾸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함께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중략) 체험처나 이런 교류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고 조금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꼭 직업교육에서의 진로교육과 이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꼭 이 구분되어 운영될 것이 아니라

(정책담당자 C)

2) 각론

가) 각론 일반

(1) 총론-각론 연계 강화 및 현장 중심 실천 방안 구체화 필요

진로교육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는 철학과 방향성이 각론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시되었다. 진로교육이 일방적인 목표 제시보다는 실행가능한 실천 로드맵을 현장 중심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총론이 좋아도 각론 부분에서 뒷받침이 안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어떤지 간에 미래 교육이 미래에 필요한 부분들이 체험 중심 진로교육이다. 그러면 목표는 정하지 말고 거기에 실현 방안들이 어떻게 되면 될 것인지 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해서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학교관리자 C)

(2) 진로교육 성취기준 구체화 및 교과로서의 정체성 확립 필요

현장의 수업 적용성 제고를 위해 진로교육의 성취기준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 체계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현재 ‘자기이해’, ‘진로설계 및 실천’ 등의 영역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 교사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실제

수업에서는 내용의 중첩과 개념 간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진로교과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교과로서의 전략적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며, 미니교과나 주제선택형 과목 등과 같이 학생들의 수요와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반영한 형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내용 체계가 너무 중첩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이해’와 ‘진로설계’가 따로 나뉘어 있는데, 실제로 수업에서는 그걸 분리해서 다루기가 힘들어요 개념적으로도 혼동이 생기고 현장 교사들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진로설계 및 실천’이라는 표현은 너무 넓은 개념이에요 거기에 자아탐색도 들어가고 목표 설정, 진학 정보 탐색 등 다 들어가는데...결국 선생님들이 이걸 어디까지 다루야 할지 애매해 하세요

(학계전문가 C)

진로교과가 사라지지 않으려면 교과로서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미니교과처럼 짧고 명확하게 운영한다든지, 주제선택형 과목처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학계전문가 C)

(3) 정책 실행 부서와 개발 부서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일관된 교육과정 설계 필요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정책 실행 부서와 개발 부서 간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교육과정의 일관된 설계와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진로교육의 경우, 교육과정 총론 개발자와 진로교과 담당 부서가 분리되어 운영되면서 교과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통합적인 방향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정 총론과 진로교과가 별개로 움직여요 교육과정 개발자들은 진로 관련 내용을 깊이 다루지 않고 진로는 진로 담당 부서에서 따로 진행하니까 연계가 안 되죠

(학계전문가 B)

나) 진로교육 교육과정 구성 및 편성

(1) 실과

(가) 초등학교 진로교육 교과 운영을 위한 자료 필요

초등학교에는 진로교육을 위한 교과서가 마련되어 있으나, 진로가 정규 교과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해당 교과서를 활용하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진로교육은 교육과정 속에서 선택적이거나 부차적인 활동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으며, 담당 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과 자율성에 따라 운영 여부와 수준이 달라지고 있다.

진로 교과서가 있지만 학교에서는 대부분 안 쓰잖아요, 초등은 교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초등 진로교사 A)

(나) 초등학교 진로교육 확대를 위한 전 교과적 접근 필요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 교과나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교과에 걸쳐 통합적으로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진로는 단순한 직업 정보 탐색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과정인 만큼, 모든 교과에서 자연스럽게 진로 개념이 스며드는 교육 설계가 요구된다. 특히 교육과정 자율시간, 자율과정, 성장 이음과정 등 기존의 다양한 교육정책과 연계하여 진로교육을 구성할 경우, 학생의 자기이해, 진로탐색, 목표 설정의 과정을 보다 일관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접근은 진로교육을 교과 외적 활동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

과정 전반 속에서 내재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진로교육은 전 교과에 걸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탐색하며 설정해 나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 자율시간, 자율과정, 성장이음과정 등 추구하는 정책과 상호보완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관리자 A)

(2) ‘진로와 직업’

(가)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교과 편성의 한계와 제도적 개선 필요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과 고교학점제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진학에 필수적인 교과 시수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로와 직업’ 교과의 개설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진로와 직업’ 교과를 운영할 경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로 인한 교사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해당 과목은 실무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과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고교학점제는 학기제 운영 원칙에 따라 한 학기 내에서 과목을 마쳐야 하며, 이로 인해 1년 단위로 설계된 기존 ‘진로와 직업’ 교과서와 체계적으로 연계된 수업 운영이 어렵다. 일부 학교는 이러한 제도적 제약을 극복하고자 고시 외 교과를 개발하거나 1학기·2학기 분리형 교재를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로와 직업’ 교과의 필수 과목화 또는 1학점 단위의 탄력적 운영 허용을 통해 학교의 교과 편성, 고교학점제 내 ‘진로 학업 설계’ 라는 핵심 목표와 연계한 ‘진로와 직업’ 교과의 위상 재정립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진로와 직업’ 을 편성하라 하는데 이게 법적 구속력도 없고 교과목 편성한다라는 거는 다른 교과의 수업 시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아요.

(진로전담교사 E)

작년까지는 한 단위로 해서 1, 2학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그게 안 돼서요. 학교에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단위짜리를 개설하게 되면 이제 일부 학교는 교육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교양과목 자체를 1학년에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진로전담교사 F)

예를 들어 ‘ ‘진로와 직업’ 1, 2’ 를 1학점으로 개발하여 1, 2학기가 연속되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반교과교사 B)

그래서 고시의 과목을 1학기용 2학기용을 개발을 했습니다. 1학기는 진로직업 탐구, 진로학업 설계지요.

(진로전담교사 G)

교과면은 또 세특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정원이 한 60명 정도니까 부담을 안 느끼지만 7학급 8학급 이렇게 되면은 거의 학생 수가 160명 한 200명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 또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학교관리자 A)

(나) ‘진로와 직업’ 교과 필수화에 대한 다층적 논의 필요

‘진로와 직업’ 교과의 필수화 여부는 고등학교와 중학교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로, 진로교육의 위상, 교사의 정체성, 교육과정 편성 실현 가능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 다수는 ‘진로와 직업’ 교과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목이며, 필수화가 교사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 교육 운영은 교사의 역할과 존재감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교과 형태로 편성될 때 교육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필수화가 학기제 이수 원칙과 시수 편성의 부담, 교과 간 우선순위 경쟁 등의 이유로 학교 운영에 현실적인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진로전담교사들은 필수화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일률적 강제보다는 유연한 선택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일반교과교사들은 ‘진로와 직업’ 교과의 현재 내용이 고등학생의 진로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필수화 이전에 교과 내용의 질적 개선과 체계적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교관리자들은 ‘진로와 직업’ 교과의 교육적 의미에 공감하면서도, 대규모 학교의 수업 시수 운영, 교과 세부사항 및 특기사항 작성 부담, 교과 간 충돌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진로와 직업’ 교과가 교양 교과 내에 위치할 경우, 교과 군 내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필수화 추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진로 교과가 필수로 지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를 지도할 때 진로교사들은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창체로 지도하게 될 때는 선생님들이 내가 뭐지 존재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약하고 진로 교사 입장에서는 교과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떤 신분의 안정감도 있고...

(진로전담교사 E)

저는 당연히 제가 진로 과목이라 필수로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강요 형태로 가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진로전담교사 F)

매우 찬성. 그러나 현재의 ‘진로와 직업’ 과목은 고등학교 재학생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진로역량을 포괄적으로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에 따른 자신의 진로 목표와 계획을 스스로 탐색, 설계, 적용할 수 있는 참된 진로역량을 키워주기 위하여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인 진로 교과목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일반교과교사 C)

저는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략) 우리가 삶을 생각해 보면 어떤 분과 교과적 지식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어떻게 사는가 이게 큰 맥락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그 영역 우리가 맞는 ‘진로와 직업’의 영역도 상당히 엄청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학교관리자 A)

중학교에서도 진로전담교사들은 ‘진로와 직업’ 교과의 체계적 진로교육을 위한 필수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진로교육이 선택과목에 머물러 있을 경우, 학교의 자율 운영 여부에 따라 진로교육 실천 편차가 심화되며, 진로에 대한 일반 교사들의 인식 또한 소극적으로 머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필수화는 교과 편제 내에서 진로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 교내 모든 교사가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실천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중학교 역시 교과군 내 경쟁 문제와 과목 간 시수 배분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진로 교과가 오히려 선택의 폭을 좁히거나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진로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좋지 않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교과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 저는 필수 과목도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일반 교사들도 진로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로전담교사 A)

선택 교과군에 있으면 170시간 속에 ‘진로와 직업’ 군이 선택에서 우열을 차지할 수 있는데 필수 교과군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교과학원으로 들어가더라도 국어를 1시간 더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진로를 1시간 더 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했을 때는 그게 저는 진로 교과에 그렇게 크게 유리하게 작용하리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학교관리자 B)

정책담당자와 학계 전문가들은 진로 중심 교육과정과 진로연계교육이라는 큰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가 필수가 아니고 선택과목에 머무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진로전담교사의 정체성과 진로교육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진로와 직업’ 교과의 정규 교육과정 내 확고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필수화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편제상의 별도 교과군 신설과 같은 구조적 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교양 교과의 위상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한계도 동시에 언급되었다.

진로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진로연계교육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이 들어와서 교육과정과 함께 굴러가야 된다고 하는데 정작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는 필수가 아니어서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정책담당자 B)

이게 가능하려면 교육과정 편제상 별도 영역 신설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교양 교과 위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학계전문가 A)

(다) ‘진로와 직업’ 교과의 수업 방식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이론과 체험의 조화

‘진로와 직업’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은 교과 운영 방식에 따라 그 효과성과 만족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해당 교과가 이론 중심의 강의식 수업으로 구성될 경우, 학생들의 참여도와 몰입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론과 체험이 융합된 체계적인 진로교육 필요하다. 진로 수업은 교과와 이론을 중심으로 진행하지만, 체험을 통해 수업에서 학습하는 내용을 넘어선 진로교육 필요하다.

일부 학생들은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에서 직접적인 직업체험이나 현장감 있는 활동이 부족하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였다. 강의 중심의 수업은 정보를 수동적으로 전달받는데 그치며, 실제로 직업 세계를 체험하고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일부 학생만 수업에 몰입하게 하고, 다수 학생의 흥미와 집중을 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이 이론 중심이라서 직접 체험할 기회가 없었던 건 아쉬웠어요 강의 형식으로 듣기만 하다 보니 실제로 직업을 체험하거나 느껴보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고등학생 B)

너무 좀 형식적인 느낌이 강하고 또 그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듣는 애들만 듣거든요

(고등학생 C)

이론적인 것과 실제 체험이 병합되어야 아이들이 더 와닿고 느낌을 잘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진로 수업은 교과 수업 중심이라서, 영상 자료를 보거나 교과서로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체험이 부족하고 영상 활용에도 계획이 부족해서 교육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학부모 A)

(라) ‘진로와 직업’ 교과와 적정 편성 시기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에 따라 학생의 진로 탐색과 과목 선택, 학업 설계 시기와 맞물려 이 교과와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진로와 직업’ 교과를 1학년 1학기 초기에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진로와 직업’ 교과가 학생의 과목 선택, 교육과정 편제 이해, 학업 설계 등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1학년 초기에 배치하는 것이 학생의 진로 방향 설정에 유리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주도적 진로 설계를 강조하는 구조인 만큼, 초기 진로 탐색 지원은 교육과정 전체의 출발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반면, 다양한 교과를 충분히 경험한 후 3학년 시점에 ‘진로와 직업’ 교과를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이러한 접근은 학생이 실제 교과 학습 경험과 성취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특히 3학년 시기는 노동시장 진입 또는 대학 진학이라는 현실적 진로 결정을 앞둔 시기로, ‘진로와 직업’ 교과를 통해 실질적 진로 탐색 및 준비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진로와 직업’은 1-1학기가 가장 적절하다.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1-1학기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로 많이 운영하는데 ‘진로와 직업’도 과목 선택, 교육과정 편제표 안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책담당자 A)

제가 볼 때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1학년 때 교과를 배치하고 운영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중략) 1학년이 아니고 2학년 3학년에 운영이 되었을 때는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거나 자기 진로를 설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정책담당자 B)

아이들이 충분히 교과를 이수하고 본인이 이제 진로를 교과 공부를 충분히 한 이후에 그런 아이들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3학년 때라도 3학년 때 3학년 1학기가 됐든 좀 뒤에 학기에서라도 ‘진로와 직업’ 교과가 개설되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

(정책담당자 C)

1학년 시기에는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진로 학업 설계를 해야 되니까 ‘진로와 직업’을 운영하고 3학년 시기에는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편성을 해서 한다고 하면 가능하긴 할 텐데...

(학계전문가 E)

(3)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가) 진로체험 활동 운영 시 안전 확보 및 제도적 보완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진로체험 활동은 학생의 진로 인식과 탐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교육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나, 현장 체험 중심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및 제도적 책임의 명확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학생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모든 법적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인터뷰 참여자는 “외부 진로체험 시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책임을 온전히 교사에게 지우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진로체험 운영 시 교사의 법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학부모 역시 진로체험의 교육적 효과에는 공감하면서도, 학생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진로교육이 체험 중심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책임 주체와 안전 확보 시스템의 명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적인 직업 현장 체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실 중심의 이론 수업보다 실제 체험 기반 활동에 높은 교육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예산, 시간, 인력, 안전 등의 제약으로 인해 진로체험이 제한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기관(구청, 교육청 등)과 연계한 박람회 형태의 간접 체험으로 대체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외부 진로체험 시 사고가 났을 때 그 법적 책임을 온전히 교사에게 지우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교과교사 D)

우려되는 부분은 안전이 가장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 C)

아이들은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교실에서 하는 그런 이론 수업보다는 직접 현장 체험하는 걸 제일 좋아하죠 (중략)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에서 구청과 협조해서 하는 진로 박람회가 있거든요 해마다 있는데 우리 학교는 진로 박람회를 해마다 전교생이 다 갑니다.

(진로전담교사 A)

(나) ‘진로와 직업’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내 진로활동의 차별화 및 진로체험 질 제고

진로교육의 효과성과 실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로와 직업’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내 진로활동 간의 명확한 차별화가 필요하다. ‘진로와 직업’ 교과는 이론과 탐구 중심, 창의적 체험활동은 실제 체험과 학생 주도 활동 중심으로 운영하여 각 영역의 목적을 살리는 방향이 요구된다.

고등학교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진로 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진로 탐구 및 체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능동적으로 접근하고,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단순 행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 개별 진로 목표와 연결된 활동으로 구성되도록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학교에서도 ‘진로와 직업’ 교과는 역량 개발 중심의 이론적 진로 수업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은 직업 체험, 탐방, 캠프, 교과연계 활동 등 경험 중심의 진로교육으로 인식되어 점진적인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진로체험이 ‘만들기’ 중심의 단순 활동에 그치는 경우도 많고, 직업의 구조나 역할, 사회적 연계성에 대한 설명 없이 활동 위주로 진행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은 직무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질 높은 진로체험, 그리고 학생 연령에 맞춘 체험 콘텐츠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초·중학생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경우, 체험의 수준이 실제 발달 단계에 부합하지 않아 교육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연령대별 차별화된 진로체험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체험 활동이 여전히 전통적인 직업군(의사, 경찰관 등)에 치중되어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의 관심과 현실을 반영한 직업 탐색 기회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진로활동에 학생들이 좀 우리가 ‘진로와 직업’ 시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좀 제공해 주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관리자 A)

차별이 되고 있는 점이 있거든요 이게 창체 진로하고 또 ‘진로와 직업’ 쪽에 제가 봤을 때는 진로나 직업 쪽에는 교과군이기에 때문에 진로역량을 개발하는 쪽에 포인트를 두고 수업이 전개되거든요 (중략) 창체 진로 같은 경우는 직업 체험이나 탐방 활동 캠프 행사 이런 것에 교과연계가 많이 되거든요

(학교관리자 B)

체험 자체에 몰두하다 보니 그 분야의 다양한 직업이나 역할에 대해 설명할 시간이 부족해요 단순히 만들기 활동이 아니라, 그 활동이 어떤 직업과 연결되어 있고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중략) 체험 행사가 열릴 때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연령별로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학부모 A)

창의적 체험 활동은 교과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예요 이 교육과정 하시는 분들은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아이들이 삶으로 확장하고 이해하고 적용해 보는 시수의 확보 개념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다.

(초등 진로교사 B)

유튜버를 하고 싶거나 가수를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유튜버나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직업을 하기 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전통적인 직업(의사, 경찰관 등)으로만 계속 이루어지니까 (중략) 지금도 체험활동 안에 이루어져서 일정한 시수 과목으로 제한적이어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부모 C)

(다) 진로발달과 진로활동의 연계성 및 자기주도성 강화

창의적 체험활동 내 진로활동은 학생의 진로 발달 단계에 맞추어 연계성 있게 구성되고, 학생 주도적으로 운영될 때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단편적 행사나 단기적 프로그램보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진로 성장과정을 반영한 체계적인 진로활동 계획이 진로에 대한 몰입과 지속적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대부분을 진로활동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3년간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학년별로 다른 역할과 경험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은 학생들에게 진로 설계의 흐름과 누적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진로활동은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 방향에 맞춰 활동을 설계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때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 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동아리와 유사한 형태로 진로 주제별 프로젝트 활동, 개인별 탐구 및 발표 활동 등의 사례가 확인되며, 학교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활동을 선택하여 수행함으로써 진로활동의 개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창업 아이디어 기획, 자유 주제 탐구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형식의 진로 관련 프로젝트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은, 그 과정에서 기획력과 문제해결력,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활동이 단발성으로 그칠 경우 지속적인 진로 성찰과 탐색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단계적인 프로젝트형 진로활동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창체 진로시간에는 마치 동아리처럼 아이들이 자기 진로를 찾는 전체 활동 최소한 학급 단위 내지는 학교 전체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중략) 중학교는 분명히 아이들이 직업 체험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이제 가서 직접 해보는 게 필요한데 우리 학교를 보면 고등학교는 아이들 스스로 그걸 마치 동아리처럼 구성 운영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진로전담교사 E)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진로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경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창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 기획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울 수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이어지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단발성이라 지속적인 진로 탐색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B)

저희들이 직접 그냥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고 자유롭게 탐구하고 제작을 하면서 정말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 좀 더 능률도 나왔던 것 같고 애들끼리 화합도 좋았던 것 같고...
(고등학생 C)

(라)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협업 필요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의 효과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내 여러 부서가 협력하여 공동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구성·공유하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실제 정책 및 학교 운영 사례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전담 팀(TF팀)을 구성하여 진로전담교사와 협업을 통해 전체 창의적 체험활동 내 진로활동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공유하는 방식이 긍정적인 성과를 낳았다는 경험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개별 교사의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차원의 조직적 틀 안에서 진로활동을 일관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창체 운영을 하는 TF팀처럼 이제 부서가 조직이 되고 그 부서에서 이제 진로전담교사분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뭔가 커리큘럼을 이제 짜는 거죠 전체적인 그런 창체 커리큘럼을 함께 짜고 그거를 이제 같이 공유를 하면서 모든 창체 진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같은 이렇게 커리큘럼을 따라서 함께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굉장히 조금 좋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책담당자 C)

(마) 지역사회 진로체험 접근성 확대와 실질적 연계 체계 마련

학생들의 진로교육이 학교 내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실질적 체험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진로체험 자원은 과학고, 영재고 등 특정 학교 학생들에게만 개방되는 경우가 있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동일한 기회를 누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제한적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내 다양한 교육 자원—예컨대 대학, 공기업, 공공기관, 지역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직업군 탐색형 체험 기회, 공기업 및 관공서 방문 체험 등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활동은, 단순한 진로체험을 넘어 사회적 참여와 책임 의식, 진로연계 실천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인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지역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게 하고, 자신의 진로가 공동체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체감하게 하는 중요한 교육적 계기가 된다.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제적인 평가 하나 아이들한테 도움을 준다면 그게 계속 발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예요 사소한 거지만 실제적인 게 더 애들한테는 중요하더라고요 (중략) 과학고나 영재고 애들만 방문하게 하지 우리 같이 일반고 애들은 못 오게 해요
(학부모 A)

기업을 이제 조금 탐방도 하고 이렇게 그런 이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렇게 조금 공기업 관공서 좀 그런 위주로 좀 참여를 하면...

(학부모 B)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 시장 활성화 같은 프로젝트에도 아이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있어요 (중략)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학부모 C)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가 앞으로 갈 그런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계기가 돼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F)

나.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성과

1) 진로교육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운영

가) 진로교육 교수학습

(1)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 및 교육 강화

학생들은 진로교육의 방식 중에서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에 대해 높은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상담은 학생 개인의 관심과 진로 발달 수준에 따라 세밀하게 조정된 진로정보와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진로지원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 해서 상담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중학생 A)

학생마다 진로가 다 다르니까 맞춤형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맞는 과목 조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통해 알려주면 좋겠어요

(고등학생 B)

학교에서는 보통 많은 학생들 25-30명이 학급에서 같이 수업을 받다 보니 개별화된 수업받기 어렵고...

(학부모 C)

(2) 진로교육에서 멘토링의 효과와 필요성

진로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의 관심과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실제 진로를 먼저 경험한 선배들과의 소통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선호는 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진학 및 학습 전략 등 실질적인 조언을 통해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유의미한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가 작년에도 대학생 졸업생 분들이 오셔가지고 수능 공부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려주셨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저도 많이 배운 것 같고 뭘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서 그런 거 하나쯤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 A)

실제로 고등학교 선배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를 들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중학생 B)

(3) 초등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교육 자료 개발 필요

초등학교 학생의 진로발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연령 적합성과 발달 수준에 맞는 진로교육 교재 및 자료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진로교육 현장에서는 대학생이나 중등 교육용 교재를 초등 교육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교육 효과의 저하 및 교사의 준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진로교육 교재도 대학생용인데 초등에 맞게 조정해서 쓰고 있어요 진로전담교사 준비하는 분들한테 소개했더니 반응이 좋더라고요 초등에 특화된 자료나 연수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제공되면 좋겠어요

(학계전문가 B)

나)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1)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의 중심성 강화 필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진로교육에 보다 강화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진로교육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한정되어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 진로교육의 교육과정 내 실질적 위상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진로교육이 단순한 비교과 활동이 아닌, 교과 교육과정 전반에 연계되어 구조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진로교육은 학생의 진학뿐 아니라 삶의 방향성과 실패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교육적 기제임에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진로교육이 교육과정 설계의 중심 철학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학교 진로교육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지금처럼 창체 정도 수준에서 고민되면 역할을 크게 하지 못하고 (중략) 본질적으로 저는 이게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 그 안에서 진로교육에 녹아들어가지 않으면...

(학교관리자 A)

교육과정 편제표를 짜거나 할 때 결국에는 진로와 교육과정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진로가 진행이 잘 돼야 진학이 잘 되는데 너무나 진학 위주만 강조하는게 아닌가 (중략) 교육과정의 밑바닥의 기저를 이루는 철학 기본 철학이 진로 위에 나름대로 교육과정이 나름대로 얹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학교관리자 C)

진로교육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상황에서 이 학교 운영 자체가 결국엔 진로에 기반해서 가는 게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계전문가 E)

(2) 창의적 체험활동 내 다차원적 진로활동 운영의 필요

창의적 체험활동 내 진로활동은 단독적인 영역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등과 연계하여 다차원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들이 진로 관련 경험을 보다 다양한 맥락과 방식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로탐색의 폭과 깊이를 동시에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진로활동만 머물지 않고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에서 같이 함께 연계해서 조금 진로의 저변이 넓어질 필요가 있겠다.

(학교관리자 B)

(3) 학생 주도적 진로탐색과 맞춤형 연계 진로교육의 필요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과 구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특히 충분한 시간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 학생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발전하려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학생 주도적 진로 탐색 활동은 일회성 체험을 넘어서 발표 및 실천 중심의 활동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진로활동 시수 확대와 함께 교육과정 내 제도적 반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맞춤형 진로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진로 교과와 활동이 단절되지 않고 학년별로 연계되어 운영되는 구조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아이들 대부분이 시간 확보를 하니까 그다음 단계까지 탐구를 좀 해보려고 하고 학교 교수님들을 직접 찾아가 모르는 걸 여쭙보고자 하는 등 탐색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것이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중략) 시간을 확보를 해주고 교육과정상에서 확대를 해주면 아이들은 자리를 깔아놓으면 뭐라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 C)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제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웠던 거 또 2학년 때 배웠던 거 그게 이제 계속 연계가 돼서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학부모 F)

(4) 다양한 직업 이해와 적성·전공 탐색 기회 확대의 필요성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와 전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은 단순한 직업 소개를 넘어, 실제 체험 중심의 진로학습 환경이 마련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진로정보 제공의 시의성에 대한 요구도 존재한다. AI 및 신기술 기반의 산업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적합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진로교육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작년 진로 시간에 자기 적성이나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활동이 부족했다고 느꼈어요 진로 시간에 선생님이 다양한 전공과 직업군을 소개하고 홍보해 주는 쪽으로 진행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부모 D)

직업이 한정적인 게 아니니까, 아이들에게 다양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말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학부모 A)

고등학생이니까 대학 갈 수 있는 진로 진학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부모 C)

(5) 진로교육 내실화를 전제한 시간 확대 필요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경험한 진로교육의 질과 내용에 따라 진로교육 시간 확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변화와 탐색 과정에서 진로교사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현재의 진로시간이 짧아 깊이 있는 체험과 탐색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일부 학생은 진로시간이 대입 중심 활동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의 진로 교육 성격이 유지된다면 시간 확대의 필요성은 낮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진로교육이 삶의 방향성과 진정한 진로 탐색에 초점을 둔다면 시간 확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진로교육 시간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진로교육 시간이 너무 적어서 다양한 직업을 깊이 탐구하기 어렵거든요 단순히 직업 소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탐색과 체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등학생 B)

활동들이 지금 진학을 위해서 많이 쓰입니다. 사실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격이라면 저는 더 늘어날 필요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만약에 좀 바뀐다. 정말 이 학생들이 뭘 하고 싶은 건지 좀 찾아주는 그런 성격을 띠더라고 하면은 늘어나면 늘어나면야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C)

중학교 학생들 또한 진로교육 시간 확대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진로교육의 내실화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일부 학생들은 진로수업이 본인의 관심 진로와 무관하게 구성되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한 경험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진로교육에 대한 몰입도 저하를 설명하였다.

저 같은 경우에는 늘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큰 그룹이 아니라 좀 작은 그룹 그러니까 소수의 학생들을 위한 다채로운 직업 활동이라든지 특강 같은 게 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중학생 A)

중학교 때 저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고등학교를 찾아본다든가 진로를 탐색한다든가 하는 일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라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그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진로교육의 시간이 좀 늘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생 B)

(6)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확대 필요성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정 내에서 학생의 진로 형성과 탐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부모가 진로교육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의 자기이해, 진로탐색, 진로결정 과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학부모들 교육을 통해서 학교에서 못하는 것을 좀 가정에서 할 수 있게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는 이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로전담교사 A)

2)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인력

가)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과정에서 진로전담교사의 적극적 참여의 중요성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교과교사가 교육과정위원회나 진로수업교사 TF에 참여할 때, 진로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사 간 협력과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교육과정 편성 시 교사들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학생 맞춤형 과목 선택 및 진로탐색 활동을 설계하는 구조는 진로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성과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별도의 진로교육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며, 진로 관련 내용은 교육과정위원회 논의 중 부분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진로교육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진로전담교사가 학교 교육과정 편성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중학교 단계에서도 진로교육 운영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있으나, 실질적인 기능은 제한적이며, 진로전담교사와 교육과정 담당자 간 비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진로활동이 편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구조적 논의가 부재하거나 진로전담교사의 교육과정 참여가 미흡한 경우, 창의적체험활동 내 진로활동은 단순 시수 배정에 그치는 형식적 운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학생의 진로에 합당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 중이며 학생들의 과목 선택과 개인별 진로 탐색 및 탐구에 있어서 진로교육이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년별 단계적으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일반교과교사 A)

일반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그게 교육과정위원회든 또는 학교 교과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교육 계획 수립할 때 진로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고 이게 삼입이 되는 거지 진로교육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회의를 한다. 이런 학교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걸로 좀 알고 있어요.

(학교관리자 A)

진로교육 위원회라는 게 있긴 있는데 사실 크게 형식적이지 실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제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상의를 하는 것뿐이지 (중략) 교육과정 편성은 교무부장이 일반적으로 많이 짜니까 교무부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죠.

(진로전담교사 A)

진로활동 시간은 창제 시간 중에 그러니까 보통 교무부장이 많이 교무부장하고 교감 선생님이 편성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냥 배정을 몇 시간 해버리는 거죠.

(일반교과교사 A)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협의회가 약간 학교 진로교육 협의회의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진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뭔가 증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계전문가 F)

초등학교 단계에서도 학교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진로교육의 교육과정부와의 연계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진로교육이 교육과정 부장하고 같이 함께 묶여야 학교의 어떤 교육과정이 진로교육 중심으로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학교관리자 B)

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인식 제고

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장을 비롯한 관리자들과의 인식, 의지,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이 핵심적 요소로 작용한다. 관리자의 태도와 관심은 진로전담교사의 활동 범위와 의욕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학교 진로교육 전반의 방향성과 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다.

특히 학교장이 진로교육에 대해 명확한 의지를 갖고 지원할 경우, 일반교과교사의 교육과정 참여와 협력도 자연스럽게 유도되며, 진로·진학 통합 교육과정 운영이 촉진된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진로교육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거나 학년별 프로그램을 학교장 경영방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된다. 학교 교육과정 속 진로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민주적 협의 문화 조성, 내부 협의회 구성, 교사 간 동료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관리자의 의지 문제 또는 학교 어떤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문제인 거지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 같다. (중략) 관리자가 어떠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잘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진로 교사는 그게 동력을 받아서 선생님들을 설득해서 할 수가 있어요

(진로전담교사 F)

학교 진로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는 관리자의 결정이 있었고, 학년별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에는 학년부장을 중심으로 각 학년의 담임교사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일반교과교사 A)

본교는 진로·진학 이원화 연계 교육을 학교장의 경영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교과교사 B)

학교장은 학교 진로교육도 전반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기관장으로서 이렇게 경영자로서 그런 거버넌스 구축에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라도 이제 어떤 협의회를 꾸린다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서 재조직을 한다는가 뭐 이런 거에 좀 적극 나서주고 그리고 그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실은 자리매김을 좀 해 주어야 하는데...

(정책담당자 C)

중학교에서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리자의 인식은 중요한 요인이며, 관리자의 관심 부족은 진로전담교사의 활동 위축과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

관리자가 진로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하는 분들은 상당히 진로 교사하고 관계도 좋고 또 진로에 대한 전적인 지원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로전담교사 A)

전혀 관심 없으세요 교장선생님도 교감 선생님도 계셨었어요 ... 시스템으로 지원이 안 되면 결국은 선생님이 혼자 고군분투해요

(진로전담교사 C)

학교장이 할 수 있는 진로의 지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로 교사가 교사들하고 진로교육이 모든 교육하고 함께 어울려 나갈 수 있도록 교사의 동료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로교육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학교관리자 B)

초등학교에서는 최근 교육정책에서 진로교육이 대외적으로 명시되는 빈도가 낮아짐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 역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정책 명칭에서 ‘진로’라는 단어가 잘 드러나지 않거나, 디지털, AI, 미래 역량 등의 용어에 묻히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일부 학교장은 진로교육을 과거의 교육 트렌드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학교장 같은 경우 미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그것이 진로교육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디지털 AI에 교육부의 정책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나 사업으로 그냥 하려고 하세요 (중략) 정책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뭐 진로교육 한 물 갔지 이제 트렌드가 끝났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초등 진로교사 B)

학교장의 방향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꼭 진로교육이 아니더라도 학교 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결정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일반교과교사 A)

다) 학교관리자 대상 진로교육 연수 강화

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진로교육의 비중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교관리자(교장, 교감)의 인식 개선과 주도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관리자 대상 연수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자의 진로교육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워크숍, 국외 연수, 관리자 네트워크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 기반 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하며, 진로전담교사의 역량과 교육 활동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진로교육 CEO 과정 등 관리자 또는 리더 연수 필요

(학계전문가 A)

학교에 있는 진로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역량들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주면서 할 수 있도록 (중략) 교장 선생님들 이렇게 워크숍 하고 그러면 진로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학교관리자 C)

중학교에서도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연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과거에 비해 현재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교육청 차원의 연수가 대폭 축소된 상태다.

진로교육이 처음에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는 관리자 교육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교육부에서도 있었고 이제 초창기 교육부에서 하다가 지자체로 이제 이전이 됐는데 그때는 관리자 교육이 엄청 많아가지고 어떤 트러블도 많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그런 관심도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관리자 교육이 거의 없습니다. 교육청에 얘기해 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진로전담교사 A)

일반 교과를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아예 관심이 없으신 분도 있고 아까 연수밖에 없더라고요 (중략) 체험을 같이 가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어떻게 뭔가를 이렇게 학교 생활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해를 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로전담교사 B)

라) 일반교과교사의 진로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인식 개선 필요

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반교과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과 책임 의식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교과교사들은 진로교육을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인식하거나, 행정 업무 및 성적 처리 우선순위로 인해 진로교육을 부차적인 영역으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난다.

나의 과목, 또는 나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이고, 담임교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와 책임이 너무 많아요
(일반교과교사 A)

진로교육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진로교육은 당장 지필고사를 본다거나 성적 처리를 하지 않아 중요한 순서에서 뒤로 밀리는거죠
(일반교과교사 B)

학교 자체 연수든 교육청에서도 좀 더 삶을 위한 교육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진로 기반 교과 운영에 대한 그런 교육 또는 자료 개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학교관리자 A)

중학교에서도 일반교과교사의 협조 부족, 학교장의 지지 미비, 진로교육의 수동적 참여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난다. 상당수 교사는 진로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자’ 또는 ‘보조자’ 역할로 제한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교육은 진로전담교사의 영역으로만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일반교과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적 인식을 개선하며, 진로교육 공동 책임 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자의 지지와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당수 선생님들은 진로교육에 큰 관심이 없죠
(진로전담교사 A)

제가 작년에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아예 해주고 행사도 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해줘라고 했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사실 잘 듣지 않더라고요. ... 학교 전체에 설문을 하셨습니다. 답은 뭐라고 나왔을까요?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진로전담교사 C)

진로 전공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처럼 그냥 감독 교사 정도 위치지 우리가 주체적으로 뭐를 하는 건 거의 없거든요
(일반교과교사 A)

교사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은 진로교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로교사 수업이 10시간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현장을 못 하는 거예요. (중략)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이든 자율활동이든 어떤 교사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관리자나 선생님들 모두 진로가 들어가면 다 진로교사가 해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관리자 A)

초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은 수업 시수 감소와 범교과 학습 주제 중 하나로 분류되는 구조 속에서, 많은 교사들에게 중요도가 낮게 인식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실행 여부와 질적 수준은 교사 개인의 관심과 관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영역을 담임교사가 맡는 구조상, 진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타 주제를 우선하는 교사들의 경우 진로교육이 다른 활동에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며,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 주제로 다뤄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에는 진로전담교사 제도가 부재하여, 담임교사가 창의적 체험 활동 내 진로활동까지 모두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진로교육은 준비된 교사가 아닌 경우에는 단순히 교사용 자료를 따르거나, 아예 다른 활동에 의해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진로 수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초등에서 제가 만난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완전 후순위에요 (중략) 이 범교과 안에 엄청 많아요 20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 독도교육 이런 거 있는데 진로를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초등 진로교사 A)

수많은 교육과정과 생활지도, 학생지도, 학부모 상담, 행정 등으로 인해 진로교육이 주요한 화제가 되지 못하고 일부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일반교과교사 A)

초등에서는 진로전담교사 제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담임이 창체 진로활동까지 다 맡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있고 준비된 선생님이 아니면 그냥 수업 자료 그대로 따라가거나, 경우에 따라선 진로교육이 다른 활동에 밀리는 경우도 많아요 (일반교과교사 B)

마) 일반교과교사의 참여 확대를 위한 연수·자료 지원 및 구조적 접근 필요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일반교과교사의 진로교육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진로 기반 동아리 운영, 교과연계 진로교육 실천사례 발표 및 연구대회, 활동 중심 연수 운영 등의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일반교과교사의 교과 특성과 연계 가능한 진로교육 연수의 개발 및 운영이 강조되며, 해당 연수는 단순 강의식이 아닌 활동 중심의 실습형 연수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더불어 연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확대 및 일정 부분 의무화를 고려하는 동시에, 업무 경감 및 시간 확보 등의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요구된다.

일반교과교사들도 학교에 동아리를 운영하잖아요 동아리를 그냥 걷기 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진로를 생각해서 반드시 진로에 기반한 동아리 개설, 다음은 진로교육 실천 사례발표대회 있잖아요 아니면 연구대회 등 (진로전담교사 B)

다양한 진로에서 교사의 전공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연수 제공, 교과 중심의 단순한 강의식 수업보단 진로 연계 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교사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책담당자 A)

재교육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미래 진로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많은 고민들 그리고 연수 이런 거에 대한 교육청, 교육부에서 지원이 사실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담당자 C)

과목별 진로교육 자료 및 교수학습 모형의 개발과 보급과 동시에 그에 따른 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연수에 교사들이 수월하게 참여하고 이를 활용한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업무 경감이 가능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교과교사 D)

중학교 역시 진로교육의 실천을 위해 일반교과교사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며, 창의적 체험 활동 및 자율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이러한 참여 촉진을 위해서는 일반 교사 대상 진로교육 연수의 확대 및 체계적 운영, 진로교육 자료 개발 및 플랫폼 공유 확대, 진로전담교사 외 일반교과교사의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

일반 선생님들이 진로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좀 이렇게 좀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진로전담교사 B)

저는 교육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략) 근데 그거는 이제 진로 선생님이 주로 들어가시는 거고 우리는 잘 저도 안 들어가시거든요
(일반교과교사 A)

선생님들이 진로교육을 하고 싶어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교사 연수를 받아보면, 진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사 대상 연수나 지원 자료가 체계적으로 제공돼야 해요
(초등 진로교사 A)

바)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변화와 전문성 강화 요구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 등 교육과정의 전환기에 따라 진로전담교사의 역할도 변화하고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공·학습 컨설턴트로서의 역할 강화, 학생 맞춤형 학업 설계 지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참여 등 새로운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진로전담교사의 역량 차이로 인해 진로교육의 질적 편차가 크고, 일부 교사의 경우 변화하는 역할에 대한 교육과 인식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이 곧 진로교육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만큼,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성 강화는 진로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기반이 되어야 하며, 교육과정 협의와 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요구된다.

진로 교사가 학생들 진로 학업 설계와 지도를 담당할 수 있을 만한 그 역량이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아쉬워요 진로 교사에 대한 연수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사실 그때도 교육과정에 대한 그런 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갈수록 교육과정이 진로 교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업무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진로 교사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진로전담교사 E)

국가 교육과정이 변하고 그것에 따라 진로상담 전문상담 교사의 역할도 조금은 달라지고 확장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선생님들이 이것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쪽자리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마다 간극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교과교사 B)

진로 교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제 학교에서 진로교육 진로진학 상담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좀 필요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학교에서 나름대로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10명 중에 몇 분이 되실까 그런 생각은 저도 좀 이렇게 하고요
(학교관리자 D)

현재 선생님한테 진로교육을 많이 이렇게 자료를 주거나 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건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인솔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전문 강사가 오셔서 수업해주는 거 저는 그것은 그 방식이 그래도 가장 현실에 좀 잘 맞춰진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일반교과교사 A)

사) 진로전담교사의 배치 확대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진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성 확보와 충분한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다. 특히 고교학점제와 진로 중심 교육과정의 확산에 따라 진로전담교사는 단순한 직무 담당자가 아닌, 학업설계·진로상담·교과연계의 핵심 주체로 기능

해야 한다.

진로전담교사의 진입 시 연령대를 낮춰 장기적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초기 연령대가 높을 경우 진로교육의 연속성과 전문성 축적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진로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위 학교 당 1인 배치를 넘어선 추가 배치가 필요하며, 특히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에서는 2인 이상의 배치를 통해 역할 분담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대학원의 양성 과정을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획력, 상담역량, 콘텐츠 제작 능력 등 실무 역량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과 교사 양성 단계에서도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와 역량 형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이 요구된다.

진로교육 연수를 받고 나서 10년 이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이쪽 진로교육이 그 사람들은 한참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진로 교사의 연령은 처음에 진입할 때의 연령은 좀 더 젊어야 된다.
(진로전담교사 E)

진로전담교사의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일반교과교사 D)

교육대학원에서는 수업 듣고 과제 제출하면 자격이 나오니까, 막상 학교에 배치됐을 때 어떤 콘텐츠를 기획해야 하는지, 상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말도 많이 들어요 (중략) 예전에는 교육대학원에서 논문도 써야 했고, 그걸 통해서 연구 역량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책담당자 D)

‘진로와 직업’ 교과목의 필수화 이전에 교사 양성 단계에서 교육 과목으로 필수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계전문가 F)

저희가 교대에서도 진로교육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뭔가를 배워본 적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초등 진로교사 C)

아) 진로전담교사의 정원 외 TO 전환 필요성

현재 진로전담교사는 교원 정원 내 TO로 운영되고 있어, 타 교과목의 수업시수 부담 증가 및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제약 등 운영상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진로전담교사를 정원 외 TO로 운영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진로교육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사 T.O.를 정원 외로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정말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들을 모든 선생님들한테 제공해 주고 그것을 지도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로수업하는 것도 좋지만 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교과목들의 수업 시수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담을 갖고 싫어하고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죠.
(학교관리자 B)

자) 초등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에 대한 현실적 고려와 대안적 운영 방안

초등학교 단계에서도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진로전담교사 배치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담임교사가 진로교육까지 전담하게 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교과 진도와 행정 업무 등에 밀려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중등학교처럼

초등학교에서도 별도의 진로전담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초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정규 배치하는 것은 제도적 한계와 정원 감축 등의 여건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에서 진로전담교사를 직접 배치하기 보다는, 진로전담교사를 교사들의 진로교육 설계 및 실행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하는 방안이 대안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석교사 제도를 활용해 진로교육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 역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중등처럼 초등도 진로 전담교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해요 지금은 담임이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진로교육도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교과 진도에 밀려서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적으로 준비한 사람이 있으면 훨씬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교과교사 B)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지금 하는 교육에서 뭔가 더 하라고 말하는 게 다른 학교급 선생님들에게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중략) 일반 교사들에게 추가 부담을 주기보다는 전문 교사에게 진로교육 업무를 맡겨야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학부모 B)

담임선생님은 학업에 집중하여 직업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전담교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B)

진로 전담 교사를 좀 관점을 바꿔서 직접 교육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의 어떤 그런 (진로교육) 설계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이런 진로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의미가 있겠다. (중략) 기존 제도 중에 확장할 만한 게 이제 수석교사인데 이 수석교사도 학교마다 없어요

(초등 진로교사 B)

차)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교육청 내 전문 인력 배치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청 단위에서 초등 진로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교육청에는 초등학교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장학사나 담당 인력이 부재한 경우가 많아, 정책적 연계 및 학교 현장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등 장학사님들이 하나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떨어지는 건 있어서 정말 제도적인 접근을 한다면 저는 사실은 초등에도 좀 뭔가 전문가들이 한 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등 진로교사 C)

3)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성과 및 미래

가) 진로교육 교육과정 성과

(1) 진로전담교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좌우되는 진로교육 질

진로전담교사의 배치 이후 진로교육의 체계성과 실천력이 향상되었음은 분명하나, 여전히 진로교육의 내용과 질은 담당 교사의 역량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도 지적되었다. 진로전담교사 간의 전문성, 운영 방식, 태도의 차이로 인해 학교 간 진로교육의 질적 편차가 존재하며, 이는 교육의 균등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진로 교사가 없을 때보다는 진로 교사가 배치되면서 좋아지기는 훨씬 좋아졌죠 하지만 절대로 충분하지 않고 이게 진로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학교 간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예 진로 교사 역량에 따라 편차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진로전담교사 B)

방향이라든가 기본적인 틀 자체는 저는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진로교과를 기준으로 보면 진로활동은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교육과정상 진로 과목을 선택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진로전담교사 C)

나)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

(1) 대상별 미래 진로교육 키워드의 주요 특성과 방향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개인의 기초적인 정서와 사회성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적응, 신뢰, 협력, 공동체, 긍정적 마음, 체험, 정보 등과 같이 자기이해, 사회적 관계, 기초 경험 중심의 키워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진로개발역량, 개별화, 연계성, 체계성 등의 용어를 통해 개별 맞춤형 접근과 지속가능한 진로교육 구조에 대한 필요가 강조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진로에 대한 자기탐색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탄력성, 주도성, 열정, 미래지향, 공공선, 사회통합, 윤리 등 미래사회 적응력과 시민성,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 환경 등 미래 변화 대응 역량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난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학교 진로교육의 방향을 보여준다.

고등학교에서는 가치관, 자긍심, 책임감, 진학, 로드맵, 경험, 꿈 등과 같이 정체성 확립, 진로 설계, 진학 연결성이 중심 키워드로 제시되며, 직업소양, 트렌드, 혁신, 기부 등의 키워드에서는 진로의 사회적 의미와 실천적 가치 탐색이 강조된다. 이처럼 고등학교 진로교육은 미래 설계와 사회적 실천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계 및 전문가에서는 프로젝트, 미래 역량, 회복탄력성, 학습설계, 직업적응 등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 중심 진로교육과 실천 중심 교육 설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지속적 학습, 자기관리, 몰입과 같은 키워드는 자기주도성과 전문성 강화를 중시하는 관점을 보여준다.

〈표 Ⅲ-2〉 대상별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 키워드

대상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 키워드
초등학교	적응, 도전, 신뢰, 협력, 공동체, 공진화, 창업, 지속가능성, 진로개발역량, 긍정적 마음, 학부모, 체험, 정보, 인내, 소명, 최선, 연계성, 지속성, 다양성, 개별화, 체계성
중학교	탄력성, 학부모, 주도성, 미래지향, 사회통합, 민주주의, 협동, 공공선, 평화, 재능, 열정, 4차 산업혁명, 학업, 윤리, 환경, 개발, 발전, 기술
고등학교	가치관, 자긍심, 행복, 비교금지, 합리성, 더불어, 존중, 책임감, 희생, 자기계발, 인사이트, 인성, 직업소양, 트렌드, 혁신, 진심, 돈, 기부, 진학, 로드맵, 경험, 꿈, 지식
학계 및 전문가	프로젝트, 미래 역량, 자기 관리, 몰입, 다문화 포용, 회복탄력성, 지속적 학습, 학습 설계, 직업적응

(2)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진로교사 및 현장 참여 확대 필요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편 과정에서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진로전담교사를 포함한 학교 실무자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진로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는 교사들의 경험과 관점은 실제 교육과정 설계에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현

장 의견을 단순히 형식적인 공문 발송이 아닌, 실질적인 논의와 수렴 체계를 통해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진로교육은 단순히 특정 교과가 아닌 범교과적 특성을 지닌 교육으로, 진로전담교사뿐 아니라 학부모, 일반교과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 때도 과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갖다가 얼마나 들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때 이제 시안 만들 적에 상반기에 들어갔었는데 이게 되게 이렇게 시간도 짧고 되게 급하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갖다 듣는데 되게 좀 한계가 있었다.
(진로전담교사 E)

선생님들도 이제 진로 선생님들 위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그런 의견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다른 학부모나 이런 분들도 좀 반영해 주고 그렇게 해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략) 공문으로 이렇게 한 번인가 왔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공문으로 오면 선생님들이 잘 안 보내거든요
(진로전담교사 B)

진로를 좀 목적에 두고 이 초등학교의 교사들도 좀 들어가서 의견을 많이 내서 초등학교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정말 쓸모 있는 교육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초등 진로교사 C)

현장의 교사 그리고 저는 대학생을 빼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략) 직업인들도 포함해 좋겠는데 자기들이 배웠던 그 진로교육이나 아니면 교육과정 내에 어떤 부족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맹이를 좀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정책담당자 B)

(3)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사전검토 및 피드백 필요

진로교육을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정 이전부터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한 계몽, 홍보, 시범적용 등의 사전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진로교육은 범교과적 성격을 지니는 만큼,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학교 현장의 이해도와 준비도 제고가 중요하다. 또한 차기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서는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과 검토, 현장 실천 사례에 대한 분석, 제도적·내용적 토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진로교육 틀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현장의 피드백을 수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다음번 개정 전까지 반드시 활발한 검증, 비판, 연구, 토론 등 활발한 과정을 통해서 더욱 발전된 진로교육 교육과정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과정이 매우 부진하였습니다.
(일반교과교사 C)

(새로운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을 만들 경우)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사실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로전담교사 D)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면 2025 입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을 논의하는 시점에 제도가 이루어지기 몇 년 전부터 학교현장의 계몽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교과교사 B)

교육과정을 개정하면 당연히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를 봐야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정말 취약해요 특히 진로는 교과도 그렇고 창체도 그렇고 실제 수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데이터를 확보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학계전문가 C)

(4)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한 진로교육 내용 재구성

현재 진로교육의 영역 체계는 ‘자아이해-일과 직업 이해-진로탐색 및 설계’로 보편성을 갖추고 있으나,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체계를 넘어선 다양한 가치와 미래 핵심역량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진로 관련 교과서 내용이 시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진로교육이 단지 직업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유아기부터 고등학교까지 인성과 연계된 전 생애적 진로교육 체계로 확장될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교과서가 너무 시대에 또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내용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느낌이 먼이 줄 있습니다. (중략) 보편적 가치라든가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고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내용을 좀 고민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변화시켜 가면서 좀 적응해 낼 수 있는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학교관리자 A)

(5) 진로교육 정책과 학교 현장의 괴리 및 학교 자율성 확보 필요

진로교육과 관련된 교육부 및 교육청 차원의 추진 계획이 학교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정책 적용은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더욱 실효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진로교육 정책 수립 시 교육청 및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해 자율 증감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전체 수업시간 총량제와 평가 중심 문화로 인해 진로교육에 실질적인 시간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공문은 진로교육 5개년 계획이 해마다 오거든요 말은 다 그럴듯한데 학교 현장과 괴리감이 너무 커요 계획서 자체가 보면 우리는 더 큼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학교가 많아서 더 커요 정책적인 면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좀 가지면 좋겠고 그걸 집행하는 교육청이든 뭐 관리자분들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좀 추진해 나가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학교관리자 A)

교과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20% 자율 증감이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20% 증감을 자유롭게 하더라도 결국 일반 교사들은 그 평가 때문에 초월해서 진로교육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일반교과교사 B)

학교에 교육과정 재량을 조금 더 부여해야 한다. (중략) 법정 시수의 엄격한 규정을 완화하여 학교별 특성에 맞춘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일반교과교사 A)

(6) 빠른 사회 변화에 대응한 교육과정 보완과 자료 지원의 필요성

교육과정 개정 주기가 사회 변화 속도에 비해 늦어 학교 현장에서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내용을 지도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해 주기적인 보조 자료의 개발 및 배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육부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현장의 실질적인 수업 지원을 위해 보완 자료, 가이드북, 사례집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현장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민간 기관에서 유사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으로 인해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학교 현장에서는 활용이 어렵다는 현실도 지적된다.

교육과정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한참 지난 것을 아이들한테 지도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보조 교재 형식으로 그냥 2년 짧으면 1년 이런 단위로 보조 규제 형식으로 PDF로 이런 보조 교재를 일선에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중략) 민간에서 그런 걸 주는데 돈이잖아요 전부 경제적으로 구입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진로전담교사 A)

(7) 전 생애, 학교급별 연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진로교육 교육과정 구축 필요

진로교육은 단편적이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년별로 연계되어 점진적으로 심화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학부모들은 진로교과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결과가 단발적인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교육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학생의 진로 탐색을 심화시키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로교육은 단독 과목뿐 아니라 모든 교과와 성취기준 속에 진로교육의 원리와 가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전 교과가 진로교육을 지지하는 구조 속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포괄하는 일관된 국가 차원의 진로교육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장 교사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모든 과목의 성취기준에서 진로교육의 원리와 가치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진로교육은 반드시 인성교육과 만나야 합니다. 학교급별로 모든 학생들이 필수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는 매우 체계적이고 세밀하며 구체적인 진로 교육 과목이 편성되고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교과교사 C)

1학년 때 진로 교과 안에서 적성 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지를 가지고 맞춤형 진로 연계 프로그램으로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 C)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제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웠던 거 또 2학년 때 배웠던 거 그게 이제 계속 연계가 돼서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학부모 F)

고등학교 현장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활성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전체 학교급별로 전체적인 일관성과 유기적 연계성을 갖춘 국가 차원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합니다.

(일반교과교사 C)

중장기적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보고 그런 살아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부모 B)

초등학교 1, 2학년은 진로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낮설고, 3, 4학년은 체험 중심, 5, 6학년은 그나마 직업에 대한 탐색이 가능한데, 그 사이 연결되는 내용이 없다 보니 단편적인 활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학계전문가 B)

(8) 효과적인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수 등 제도적 장치 필요

진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과연계 진로교육 등의 영역에서 진로 탐색 시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진로전담교사는 모든 교과에서 진로 연계 내용을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하고, 교과 교사와의 협업 수업이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간 확보와 구조적 설계가 필요

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진로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일정 부분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제안도 있었다. 특히 예산 편성 시 진로교육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교육청 차원에서 진로교육 편성 관련 지침을 내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로 탐색 시간을 확보해서 주당 최소 2시간 정도를 확보해 주거나 모든 교과목의 진로 연계할 수 있는 요소를 통합해서 교과목의 한 10% 정도라도 진로 연계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지거나 일반 교과하고 진로 선생님하고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수업 설계가 아예 그냥 교육과정에서 몇 시간 1시간이 주당 1시간이라도 짜여서 확보가 돼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진로전담교사 B)

개인적으로는 조금 강제성을 띄고 진로교육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도서관처럼 예산의 일정 부분을 꼭 진로교육을 위해 편성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관리자 A)

교육청에서 실질적인 교육과정 편성 의무 조항을 좀 내주면 그것을 빌미로 교장 선생님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학교관리자 B)

(9) 진로교육의 개인화 및 참여 기반 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접근

미래 진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 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진로전담교사는 학생의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여 개인 맞춤형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진로교육의 효과성과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단순한 정보 전달 중심 수업이 아닌 주체적인 참여 중심 활동이 진로 인식과 탐색에 있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진로상담하고 진학할 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AI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 있으면 그런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되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캐나다를 한번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했던 모든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가 돼가지고 한 고등학교 되니까 자기가 알아서 AI가 그 애들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진로전담교사 E)

진로교육은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미래교육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변화 추구 (중략) 진로교육 교육과정 내용은 단순한 직업보다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줬으면 합니다.

(정책담당자 A)

진로교육 자료를 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직업 소개하고, 흥미 검사하고, 포트폴리오 정리하고 뭔가 새로운 형식이나 접근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중략) 농산어촌 아이들이나 특성화고 학생들은 관심 분야도 다르고 필요한 정보도 다른데 콘텐츠는 다 똑같아요. 그런 게 참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책담당자 D)

진로 수업도 그냥 영상 보여주고 설명만 하면 아이들이 금방 지루해 하거든요. 발표하거나, 역할극 하거나, 자기 꿈을 그려보거나 그런 걸 할 때 훨씬 몰입도가 높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수업이 더 오래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일반교과교사 B)

성찰에 대해서 의미 있게 개인의 성장과 진로와 관련해서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성찰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설계한 진로를 다시 점검하고 모양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지...

(정책담당자 B)

(10) 진로교육 정책의 통합 및 조정을 통한 연계성 강화 필요

진로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자유학기제, 포트폴리오, 고교학점제 등)은 모두 진로교육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장 교사들이 체계적인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진로교육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간 통합과 조정이 필요하며,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이 요구된다.

자유학기제, 포트폴리오, 고교학점제 등 다 진로랑 연관되는데 각각 따로 가니까 교사들은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주는 구조가 필요해요

(정책담당자 D)

(11)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전 연구 및 정책 연계 강화 필요

진로교육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 개정 주기에 맞춰 개정되어야 하나, 그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기초 연구, 정책 논의, 모니터링, 협의 등이 2~3년 주기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선제적 접근을 통해 교육과정 개편에 보다 체계적이고 준비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진로교육 5개년 계획과 교육과정 개정 주기 간의 불일치 등이 정책 실행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다.

국가 교육과정 개정 시기하고 맞추되 사전에 그전에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정에 필요한 기초 연구나 논의 모니터링 협의 같은 것들은 매년 또는 2-3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게 축적되면서 전체 교과 비교과의 국가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맞춰서 진로교육 교육과정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계전문가 F)

진로교육 쪽에서는 아무래도 기본계획이랑 교육과정 개정 주기를 좀 같이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학계전문가 E)

(12) 진로교육 데이터 기반의 교육과정 개편 필요성 제기

국가진로교육센터에서는 커리어넷 플랫폼을 통해 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진로교육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접근은 교육과정 개편 시 현장 기반의 정량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수요 중심적인 진로교육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며,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커리어넷이 있고 좀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플랫폼은 그런 관련 데이터 인프라는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진로활동 혹은 '진로와 직업' 운영이라든지 이런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학계전문가 E)

(13)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모듈식 구성 제안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 유연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모듈식 구성 방식

이 제안되었다. 이는 진로교육을 하나의 단일한 교과가 아닌, 다양한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모듈화하고, 이를 교과 간 공유 가능한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우리가 다음 교육과정을 준비할 때는 그런 걸 모듈식으로 좀 하나를 큰 틀과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요소들을 먼저 준비를 하고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공유를 하면서 모양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담당자 B)

(14) 학제 개편 및 진로교과(군) 설정을 통한 진로교육 체계화

진로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교육과정 개편이 요구되는 가운데, 학제 개편을 통해 진로교육 탐색집중학년제를 도입하거나, 진로 관련 교과들을 통합하는 진로교과(군) 설정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제안은 학제 개편이라는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진로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논의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진로교과(군)의 신설은 진로교육을 독립적인 교과군으로서 위상을 갖추도록 하고, 학교급별 연계성과 교육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학생 중심의 진로 탐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진로교육 교육과정이라는 용어가 보다 의미 있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학제 개편 등을 통해 예를 들어 초 4 - 중 2 - 진로탐색 2(intermediate) - 고 4에서의 진로탐색 학년제(intermediate) 2년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계전문가 A)

국가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국어과 수학과 과학과 이렇게 얘기하듯이 진로과라는 교과(군)을 크게 하나 두고 그 안에서 필수 과목으로서 '진로와 직업' 이 있고...

(학계전문가 E)

(15) 진로교육 교육과정에서 국가교육위원회 및 국가진로교육센터 역할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편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국가진로교육센터 간의 역할을 분리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기획과 체계 마련을 담당하고, 국가진로교육센터는 진로교육 분야에 특화된 지원 및 실행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실제 교육과정 개발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전문조직 또는 국가진로교육센터가 담당하더라도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해당 기관 전문가들이 상호 참여하여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진로교육센터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올바른 「진로교육법」을 규정할 수 있게 전문위원회는 교육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교육연구센터는 사무 지원을 잘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

(정책담당자 A)

진로교육 센터에서는 뭔가 활동적인 것들을 많이 담당을 하고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관련된 연구도 많이 좀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 모셔서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교육과정을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국교위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담당자 C)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연구센터는 큰 틀에서 국가 교육과정을 기획을 한다면 진로교육과정에 한해서는 국가진로교육센터에서 개발하고...

(학계전문가 E)

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

1) 중앙 차원의 진로교육 거버넌스 부재와 부처 간 협력체계의 필요성

진로교육은 학생의 삶과 진로를 연결하는 핵심 교육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진로교육 거버넌스가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시도교육청이나 시군구 차원에서는 진로교육 협의체 구성을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 차원에서는 부처 간 조율 및 협력을 위한 공식 협의체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시도교육청이나 시군구에는 진로교육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계속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앙에는 그런 협의체가 없어요 고용부도 진로 정보 제공하고 중기부도 창업 교육하면서 진로랑 연계한다고 하고, 교육부도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따로 움직이다 보니 중복되거나 빈 구간이 생겨요

(정책담당자 D)

현재 진로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은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기획·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 간 중복, 비효율,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단편적 정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진로교육은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고용노동부나 산업부랑도 연계가 돼야 하는데 부처 간 협력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정책이 단편적으로만 나오고, 현장에서는 그걸 전혀 종합적으로 이해하거나 적용하기 힘들어요

(학계전문가 C)

2)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진로교육 협의체 구축 필요성 및 추진

학교 울타리를 넘어선 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단위 학교 차원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및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지역 내 진로교육 관련 인프라와 자원을 발굴·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요구된다.

특히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고 이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역할은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역 내 기업, 대학, 공공기관, 직업체험처 등을 연계한 진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외연을 넓히고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학교가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관련된 기관들하고 협의체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횡으로 자리를 잡아간다고 하면...

(정책담당자 B)

시군구청이나 교육지원청 여기가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교육지원청이 시청하고 같이 해서 지역에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은 높아요

(정책담당자 A)

지역사회 진로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육청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리더십 발휘가 중요하지 않나

(학계전문가 A)

지자체를 참여시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인데 사실 진로교육 측면에서도 그런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학계전문가 E)

3) 학교 진로교육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관리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진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의 중심 가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진로전담교사 중심의 접근을 넘어, 전체 학교 구성원의 공동 참여와 역할 인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진로전담교사는 일반교과교사의 진로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제공, 내부 협력 기반의 교육과정 편성,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통합적 운영 등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진로교육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 및 기관이 협의체에 참여하여 학교와 지역 간 진로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확장적 진로교육 생태계 형성이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게요 결국은 선생님들의 공감대예요

(진로전담교사 F)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 공감, 진로전담교사의 좀 더 구체적이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진로진학 업무 제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책담당자 A)

진로전담교사뿐만 아니라 전체 교사가 이 진로 중심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참여하도록 하고...

(학계전문가 F)

4) 학부모의 진로교육 참여 확대 및 개선 필요

현재 학부모의 교내 진로교육 운영에 대한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며, 학교 내 진로교육 협의체나 프로그램 기획에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례는 드물다.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학부모들도 공감하고 있으나, 진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학교 프로그램 정보의 미공유, 실질적 참여 기회 부족 등의 이유로 진로교육 참여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참여한 경험이 없고요 전혀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부모님들이 참여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략) 부모가 일단 알아야 뭔가 아이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정보도 줄 수 있고 열린 사고로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어 줄 수 있을 텐데 부모의 자체에 대한 교육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학부모 B)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서, 문자든 어떤 형태로든 프로그램 진행 결과를 공유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 C)

학생 학부모를 포함해서 이제 지역사회 자원들까지 좀 참여시키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계전문가 E)

3. 학교급별 진로교육 내용 체계 및 연계성 분석

학교급별 진로교육 내용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학교급별로 내용의 연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크게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가.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은 2012년에 개발되어 2015년과 2021년에 개정되었다. 2015년에 제정된 「진로교육법」 제8조 ②항에서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서에는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학교급별 진로교육 내용이 담겨 있어서 교육과정 분석에 앞서 이 기준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의 내용체계를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표 III-3>과 같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2년과 2015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은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할 개발, 일과 직업세계 이해, 진로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의 4개 영역이었는데, 2022 진로교육목표 및 성취기준에서는 자기 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와 실천 3개 영역이었다. 2022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에서는 기존의 일과 직업세계 이해와 진로탐색 영역을 묶어서 진로탐색으로 통합하였다.

<표 III-3>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의 세부 내용(고등학교)

2012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2015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2022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자아이해 와 사회적 역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아 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개발 	자아이해 와 사회적 역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아 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개발 	자기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심 분야 직업인의 삶과 특성을 탐구한다. 나의 진로 특성을 점검하고 보완한다. 건강한 직업윤리를 함양한다.
일과 직업세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과 직업의 세계 이해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 	일과 직업세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화하는 직업세계 이해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 	진로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한다. 직업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고 진로경로를 탐구한다. 창업과정을 이해하고 창업의 정신을 함양한다. 대학 전공 정보를 탐구한다.
진로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기회의 탐색 직업 정보의 탐색 	진로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기회의 탐색 직업 정보의 탐색 		
진로 디자인과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의사결정능력 개발 진로계획과 준비 	진로 디자인과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의사결정능력 개발 진로설계와 준비 	진로 설계와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진로와 연계한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2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목표에서 도출할 수 있는 내용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에서 목표 체계는 크게 자기 이해, 진로탐색, 진로 설계와 실천의 세 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의 세부 목표는 학교급별로 어휘의 수준, 활동의 범위 및 깊이를 달리하여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4> 2022 학교급별 진로교육 영역 및 목표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직업계고등학교
I. 자기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일과 직업인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다. • 나의 특성을 발견하고 존중한다. • 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직업인의 삶과 특성을 탐색한다. • 나의 진로 특성을 탐색하고 자존감을 기른다. • 건강한 직업의식을 형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 분야 직업인의 삶과 특성을 탐구한다. • 나의 진로 특성을 점검하고 보완한다. • 건강한 직업윤리를 함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 분야 직업인의 삶과 특성을 탐구한다. • 나의 진로 특성을 점검하고 보완한다. • 건강한 직업윤리를 함양한다.
II. 진로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사회를 알아본다. •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한다. • 창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초등학교 이후 진로정보를 알아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사회의 변화를 탐색한다. • 직업세계의 변화를 탐색한다. • 창업의 특성과 창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탐색한다. • 중학교 이후 진로정보를 탐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한다. • 직업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고 진로경로를 탐구한다. • 근로관계의 의미와 노동인권을 탐구한다. • 창업 과정을 이해하고 창업가 정신을 함양한다. • 대학과 전공 정보를 탐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한다. • 직업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고 진로경로를 탐구한다. • 근로관계의 의미와 노동인권을 탐구한다. • 창업 과정을 이해하고 창업가 정신을 함양한다. • 취업을 준비하고 교육기회를 탐구한다.
III. 진로 설계와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진로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참여한다. • 학습의 의미를 탐색한다. • 잠정적 진로목표를 세우고 준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 진로와 연계한 학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 진로와 연계한 학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첫째, 자기 이해 영역의 연계성에서 학교급별 연계성이다. 자기 이해 영역의 목표는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초등학교 단계의 호기심과 발견은 중학교에서 탐색과 자존감 형성을 거쳐,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탐구와 보완의 단계로 심화되는 계열성을 보인다. 초등학교에서 ‘다양한 일과 직업인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다’, ‘나의 특성을 발견하고 존중한다’는 목표는 진로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기본적인 인식 형성에 중점을 둔다. 활동의 동사가 ‘갖는다’, ‘발견한다’ 등으로, 자아와 직업 세계를 처음 연결하는 입문 단계의 특징을 보여준다.

중학교 목표는 ‘다양한 직업인의 삶과 특성을 탐색한다’, ‘나의 진로 특성을 탐색하고 자존감을 기른다’로 변화한다. 탐색이라는 능동적 행위를 통해 자신을 객관화하고, 직업의식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형성하며 자아 효능감을 기르는 탐색단계로 발전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관심/전공 분야 직업인의 삶과 특성을 탐구한다’, ‘나의 진로 특성을 점검하고 보완한다’ 는 목표를 제시한다. 탐구는 단순 탐색을 넘어선 깊이 있는 분석을, 점검 및 보완은 성숙한 자기 성찰과 개발을 요구한다. 특히 직업윤리 함양이라는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하는 단계로 완성된다.

둘째, 진로 탐색 영역의 연계성이다. 초등학교 단계의 ‘이해’ 에서 고등학교 ‘구조적 탐구’ 로 확장된다. 진로탐색 영역은 탐색의 대상과 범위가 개인의 주변 환경에서 사회 전체의 구조적 변화로 확장되며, 정보 활용 수준 역시 단순 습득에서 분석 및 적용으로 발전하는 계열성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미래사회를 알아본다’,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한다’ 와 같이, 주변의 직업 세계와 미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목표로 한다. ‘창업가 정신의 중요성 이해’ 역시 개념적 인식에 초점을 맞춘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탐색한다’, ‘직업세계의 변화를 탐색한다’ 는 목표를 통해 변화의 양상을 직접 찾아보는 능동적 탐색으로 나아간다. ‘창업의 특성과 중요성 탐색’ 역시 왜와 어떻게에 대한 질문으로 심화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한다’, ‘직업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고 진로경로를 탐구한다’, ‘근로관계의 의미와 노동인권을 탐구한다’ 등, 사회·경제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탐구로 확장된다. 진로경로, 노동인권, 창업 과정과 같이 복합적이고 실제적인 개념을 다루며, 일반고와 직업계고의 목표(대학과 전공 정보 탐구 vs. ‘취업 준비와 교육기회 탐구’)를 분화시켜 진로 준비의 구체성을 극대화한다.

셋째, 진로 설계와 실천 영역의 연계성 분석 결과이다. 진로 설계와 실천 영역에서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계획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단계에서 시작하여, 중학교에서는 잠정적 계획을 수립하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실천·관리하는 단계로 발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단계에서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진로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는 목표를 통해 계획의 필요성과 기초적인 개념을 인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참여한다’, ‘잠정적 진로목표를 세우고 준비한다’ 와 같이,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잠정적인 목표를 세우는 계획 수립 단계로 이행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자신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는 목표는 자기주도적 진로 실행 및 관리를 요구한다. 계획을 세우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계획을 수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고차원적인 진로관리 역량 함양을 지향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2022 개정 학교 진로교육 목표 체계는 학교급 간에 매우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영역의 세부 목표는 초등학교 진로인식, 중학교 진로탐색 그리고 고등학교 진로설계·실천이라는 명확한 진로발달 계열을 따르며, 학습 내용의 폭과 깊이를 점진적으로 심화·확장시키고 있다. ‘자기 이해’ 영역은 내적 성찰의 깊이를 더하고, ‘진로탐색’ 영역은 탐색의 범위를 사회 구조와 시스템으로 넓히며, ‘진로 설계와 실천’ 영역은 계획의 추상적 수준을 구체적 실행과 관리로 발전시킨다. 이러한 유기적이고 나선형적인 목표 구조는 학생들이 각자의 발달과업에 맞는 진로 역량을 단절 없이 함양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효과적인 교육과정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진로교육목표 및 성취 기준이 의도하는 바를 충분히 반영하여 초, 중, 고의 진로교육 교육과정이 개발된다면 학교급간 진로교육 목표와 내용 체계가 차별화되어 정종희 외(2020)가 지적하는 진로교육 내용의 중복이나 체계성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22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급별 진로교육 내용체계를 분석하여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루지고 있는 진로교육 내용(교과와 비교과)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주요 진로교육 내용별로 학교급별 연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1)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진로교육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르면, 진로교육은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 등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표 Ⅲ-5〉 참조). 이는 진로교육이 기존의 교과와 비교과 등의 특성과 구분되는 교육의 본질로 역할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교육의 관점으로 국가 교육과정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진로교육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진로교육의 계속성, 개별성, 주도성의 특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서 학습자 중심의 통합 교육, 역량 함양 교육, 미래 지향적 교육 등의 담론 내에서 진로교육의 필요성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5〉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

구분	내용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교육과정 변화의 배경	셋째,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맞는 학습을 지원해 주는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한다.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인간상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핵심역량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보다 미시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의 자리를 살펴보면, 크게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하여, 총론에서는 진로연계교육, 범교과학습,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진로·학업설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론에서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으로 구성된다. 교과(군)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별도 ‘진로와 직업’ 과목이 있으며, 초등학교에서는 슬기로운 생활(1~2학년), 사회(3~6학년), 실과(5~6학년) 등 여러 교과에서 단원, 성취기준 등으로 다루고 있다.

〈표 Ⅲ-6〉 교과 내 진로교육 관련 단원, 성취 기준

학교급	과목	내용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1~2학년)	[2슬01-02] 나를 탐색하여 나에 대해 설명한다. [2슬01-02]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흥미를 갖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자기를 이해하는 경험을 가짐으로써 진로교육의 자기 이해 부분을 다룰 수 있다.	
중학교	사회과	지리	[9사(지리)02-04] 글로벌 관점에서 아시아의 산업 특징과 변화를 파악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일반사회	[9사(일사)01-01] 사회화의 의미를 일상생활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아정체성에 대해 성찰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에 초, 중, 고별로 담겨 있는 진로교육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에서 보면 총론에서는 초중고 공통으로 진로연계교육, 범교과학습(진로교육)가 제시되어 있고, 중학교에는 자유학기제, 고등학교에는 고교학점제가 있다. 각론에서는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과(군)에서는 초등학교 실과(단원), 슬기로운 생활 등으로 독립교과 없이 여러 교과에 진로교육 내용을 반영하는 이른바 ‘분산적 접근’을 통해 진로교육 교육과정이 구성되고 있고, 중등에서는 독립교과인 ‘진로와 직업’(선택교과) 교과와 대부분의 교과에 분산적으로 반영하는 이른바 ‘절충적 접근’을 통해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7>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진로교육 교육과정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론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인간상, 핵심역량 등		
		진로연계교육		
		범교과학습(진로교육)		
		학교자유시간		
		-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진로·학업 설계)
각론	교과군	대부분의 교과		
		실과(단원) 슬기로운 생활 등	‘진로와 직업’ (선택)	‘진로와 직업’ (선택)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주 1) 볼드, 밑줄, 음영 표기는 필수에 해당함.

2)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내용 체제 및 연계성 분석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 교육과정에는 다양한 진로교육 교육과정이 있다. 여기서는 진로교육 교육과정 중에서 교과와 비교과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인 ‘진로와 직업’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의 진로활동’ 중심으로 학교급별 내용체계를 분석하고 연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 중고등학교의 ‘진로와 직업’ 교과의 내용체계와 연계성 분석

첫 번째, 중고등학교의 ‘진로와 직업’ 교과의 내용체계와 연계성 분석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와 직업’ 과목은 학생의 진로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하는 목적을 두고 있는 교과이다.

여기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내용 체계를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두 학교급 간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여기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교과의 내용영역인 진로와 나의 이해, 직업 세계와 진로 탐색, 진로 설계와 실천의 세 개 영역별로 내용 체계를 제시하고 학교급 간의 내용체계의 반복(계속성)과 심화·확장(계열성) 양상을 중심으로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진로와 나의 이해 영역이다. 진로와 나의 이해 영역은 <표 III-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신과 직업인의 특성 이해라는 핵심 내용을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공유하며 계속성을 유지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의 폭넓은 탐색에서 고등학교의 심층적 탐구로 나아가는 명확한 계열성을 보인다. 중학교에서는 다양한 직업인의 삶을 폭넓게 탐색하여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개인의 관심 분야로 범위를 좁혀 직업인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자신의 진로 특성과 비교·분석하여 점검하고 보완하는 단계로 발전한다. 또한, 바람직한 직업인의 자세(중학교)라는 기초적 이해에서 직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고등학교)이라는 보다 고차원적이고 사회적인 개념으로 확장된다. 이는 학생의 인지적 성숙에 따라 자기 이해의 범위를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넓히는 체계적 설계이다. 따라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로와 나의 이해 영역은 계속성과 계열성을 통해 연계성을 가진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III-8〉 '진로와 나의 이해' 영역 내용 체계 비교

구분	중학교 '진로와 직업'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핵심 아이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군에 따라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진로 특성이 있고, 진로 특성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개발된다. • 자신의 진로 특성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은 미래 진로를 탐색하는 데 기초가 된다. • 함께 일하고 싶은 직업인은 긍정적인 특성과 태도를 갖추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한 직업인은 해당 분야의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 자신의 진로 특성에 대한 이해와 개발은 관심 분야의 일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진로에 대한 유연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진로 경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직업인의 직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은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토대가 된다.
지식·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와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 • 다양한 직업인의 진로 특성과 삶의 모습 • 나의 진로 특성 및 긍정적 자아 개념 • 바람직한 직업인의 기본자세 • 일과 여가의 개인적·사회적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 분야 직업인의 진로 특성 및 나의 진로 특성 • 직업 가치 및 직업 윤리의 개념 • 건강한 일터의 특징 • 삶과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일, 학습, 여가의 상호 관계
과정·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직업인의 삶과 진로 특성 조사하기 •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진로 특성 분석하기 • 함께 일하고 싶은 바람직한 직업인의 특성과 자세 분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진로 특성 점검하기 • 관심 분야 직업인과 자신의 진로 특성 비교하고 개발하기 • 직업 윤리를 성찰하고 관심 분야의 직업 윤리 조사하기
가치·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과 타인의 진로 특성 존중 • 진로에 대한 자기 주도적 태도와 자신감 • 삶에서 일과 여가의 가치와 행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한 사고와 협업적 태도 • 직업 가치의 다양성 포용 • 관심 분야 직업 윤리 의식 형성 • 직업인의 사회적 책임 내면화

둘째, 직업 세계와 진로 탐색 영역이다. 〈표 III-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직업 세계와 진로 탐색 영역에서는 직업세계 이해를 토대로 진로를 탐색하는 것을 다룬다. 중학교에서는 직업 세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고등학교에서는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다룬다. 중학교에서는 직업 세계의 다양성과 가변성을 이해하고 폭넓은 정보를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에 고등학교에서는 산업 및 기술 발전에 따른 요구 역량의 변화를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진로와 평생 학습의 관점에서 정보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전략적 역량을 강조한다. 또한 중학교의 창업가 정신에 대한 이해가 고등학교에서는 실제 사회 문제 해결과 가치 창출을 다루고 호혜적인 고용 관계라는 사회경제적 개념이 추가되어 탐색의 깊이를 더한다.

〈표 Ⅲ-9〉 '직업 세계와 진로 탐색' 영역 내용 체계 비교

구분	중학교 '진로와 직업'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핵심 아이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세계는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한다. •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진로 정보와 학습이 필요하다. • 다양한 경험과 진로 활동 참여는 진로 탐색의 주도성을 높인다. • 창업가 정신은 진로 탐색에 있어 새로운 기회와 다양한 도전의 기반이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및 기술 발전에 따라 직업인에게 필요한 역량이 변화한다. • 심층적인 진로 탐색은 관심 분야 진로 설계의 토대가 된다. • 지속적인 진로 정보의 탐색과 평생 학습은 다양한 진로 기회를 제공한다. • 창업은 개인의 가치 실현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호혜적인 고용 관계는 지속 가능한 사회의 기초가 된다.
지식·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세계의 다양성과 가변성 • 직업 및 학과 정보 • 진로 경로와 교육 기회 • 창업과 창업가 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 분야의 산업 및 기술 발전과 요구 역량 • 관심 직업의 진로 경로 • 관심 분야의 진학 및 취업 정보 • 사회 문제 해결과 창업가 정신 • 고용 관계의 권리와 책임
과정·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세계와 진로 정보 탐색하기 • 다양한 진로 활동 참여하기 • 창업가 사례 조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과 산업 구조의 관계 탐색하기 • 관심 진로 정보 탐색 및 선별하여 활용하기 • 관심 분야 진학 및 취업 정보 탐색하기 • 평생 학습 기회 탐색하기 • 창업가 정신을 나의 진로 탐색에 적용하기
가치·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세계 변화에 대한 적응성 • 진로 탐색의 자기 주도적인 태도 • 창의적 발상과 도전 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탐색의 주도성 • 평생 학습에 대한 열린 자세 • 창업가 정신의 내재화

셋째, 진로 설계와 실천 영역이다. 진로 설계와 실천 영역은 의사결정과 계획 수립이라는 계속성을 바탕으로, 중학교의 기초적·잠정적 계획에서 고등학교의 구체적·순환적 관리로 계열성이 명확하게 발전한다. 중학교에서는 진로의사결정의 기본 '방법'을 배우고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잠정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는 계획 수립 과정 자체를 경험하는 데 의의가 있다.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설계를 일회성이 아닌 순환 과정이자 변화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 결과 생애 진로 경로를 고려한 장단기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학업 계획과 연계하며 실천을 위한 자기 관리를 강조하는 등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역량을 요구한다.

〈표 Ⅲ-10〉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교과와 '진로 설계와 실천 영역' 내용 체계 비교

구분	중학교 '진로와 직업'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핵심 아이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의사결정은 개인적, 환경적 특성과 요인과 관련된다. • 진로에서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 태도는 진로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준다. • 진로 준비는 자기 주도적인 진로 설계와 실천이 수반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의사결정은 개인적 특성, 환경적 요인에 따라 변화하며 완성되어 간다. • 진로와 연계한 학업 계획 및 실천은 진로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준다. • 진로 준비는 진로 탐색, 계획, 실천, 성찰의 순환 과정이다.
지식·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의사결정의 개념, 방법 및 고려사항 • 진로 경로와 학습 계획 •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의사결정의 요인과 변화 가능성 • 생애 진로 경로의 변화와 특징 • 진로 계획과 학업 설계의 연계성 • 진로 설계와 자기 관리
과정·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정적 진로의사결정하기 •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점검 및 보완하기 • 진로와 연계한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구분	중학교 '진로와 직업'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립하기 진로 계획 및 단계별 실천 방법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 진로 경로에서 발생 가능한 어려움을 예상하고 해결 방안 모색하기 생애 진로 목표 설정과 장단기 진로 계획 수립하기
가치·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의사결정의 주도성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의지 자기 주도적인 학습 실천 태도 진로 계획 실천의 중요성 내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의사결정의 주도성과 유연성 진로 계획 점검 및 보완 자세 학업과 진로에 대한 긍정적 태도

두 교육과정 모두 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통합성을 명시적으로 강조한다. 두 문서 모두 '진로와 직업'은 창의적 체험활동 및 다른 교과 등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 전반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고 기술하여, 교과 지식이 진로 설계에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22 개정 중·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은 내용 체계의 영역 구성에서 계속성을 확보하고, 각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와 세부 내용 요소를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춰 심화·확장시킴으로써 명확한 계열성을 구현하였다. 또한, 타 교육 활동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통합성을 지향한다. 중학교의 '폭넓은 탐색과 잠정적 계획'은 고등학교의 '심층적 탐구와 구체적 실천'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로 작용하며,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개발 역량을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적인 교육과정 연계 모델이라 평가할 수 있다.

나)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의 내용체계와 연계성 분석

초중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의 내용체계와 연계성 분석이다. <표 III-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중고 모두 창체 진로활동은 공통적으로 진로 탐색 활동과 진로 설계 및 실행 활동이라는 2개의 활동 영역으로 구성되지만, 학교급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목표와 내용의 깊이, 범위, 중점에서 뚜렷한 차이와 연계성을 보인다.

<표 III-11> 창의적 체험활동 내 진로활동의 내용 체계 및 연계성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괄 목표/운영 중점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 및 진로 기초 소양 함양	자아 정체성 확립 및 적극적인 진로 탐색 능력 함양	자아 정체성 확립 및 적극적인 진로 탐색 능력 함양
1. 진로 탐색 활동	자아탐색, 진로 이해, 직업 이해, 정보 탐색 활동을 통해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형성	자아 개념 강화, 일과 직업에 대한 폭넓은 가치 탐구, 실제 경험을 통한 직업 세계 이해 등 탐색 활동을 강화하고 구체화	자아탐색, 진로 및 직업 이해, 정보 탐색 활동 등을 통해 진로 성숙도를 높이고 자격·면허, 취업 기관 등 실질적 정보를 탐구
2. 진로 설계 및 실천 활동	진로 준비, 계획, 체험 활동을 통해 진로 설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초적인 계획을 수립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하고,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상급 학교 진학으로 연결 짓는 활동을 수행	진로 준비, 계획, 체험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학업 및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산업체 연계 등 심화된 체험으로 실천력을 강화

자료: 교육부(2022).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해설서.
 교육부(2022). 중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해설서.
 교육부(2022).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해설서.

첫째, 진로 탐색 활동의 연계성 분석이다. 진로 탐색 활동에서는 초등학교 단계의 진로인식에서 고등학교 단계의 진로탐구로 심화된다. 진로 탐색 활동은 자신과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 활동으로, 학교급에 따라 탐색의 깊이와 범위가 체계적으로 확장된다.

초등학교는 인식 및 기초 형성 단계로 초등학교의 진로 탐색은 긍정적인 자아 개념 형성과 일의 중요성 이해에 중점을 둔다. 세부 활동은 자아탐색, 진로 이해, 직업 이해, 정보 탐색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이는 진로에 대한 기초 소양을 다지는 입문 단계에 해당한다. 특히 1~2학년군은 자아탐색, 3~4학년군은 직업 이해, 5~6학년군은 정보 탐색 및 기초 진로계획 활동에 중점을 두어 발달 단계를 고려한 계열성을 확보하고 있다.

중학교는 진로 탐색 강화 및 구체화 단계이다.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형성된 기초를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긍정적 자아 개념 강화, 일과 직업에 대한 폭넓은 가치 탐구 등 초등학교보다 심화된 개념을 다루며, 자유학기 활동과 연계하여 실제적인 직업 세계를 경험하도록 한다. 이는 단순한 인식을 넘어 자신과 직업 세계를 비판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상급 학교 진학과 연결 짓는 구체화 단계이다.

고등학교는 심화 탐구 및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진로 탐색은 긍정적 자아 개념과 건강한 직업의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초·중학교와 동일하게 자아탐색, 진로 이해, 직업 이해, 정보 탐색 활동의 구조를 유지하지만, 그 내용은 진로 성숙도 탐색, 직업 세계의 변화 탐구, 직업 정보 및 자격(면허) 제도 탐색, 진로·진학 및 취업 유관기관 탐방 등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수준으로 심화된다.

둘째, 진로 설계 및 실천 활동의 연계성 분석이다. 진로 설계 및 실천 활동은 탐색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으로, 학교급에 따라 요구되는 실천의 수준과 자율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진다.

초등학교 단계는 진로 설계 및 실천 활동의 필요성 인식 및 기초 설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희망하는 ‘진로와 직업’의 경로를 설계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진로 목표 설정, 진로 실천 계획 수립, 진로 상담, 진로 의사결정 등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초적인 설계 과정을 경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진로 체험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을 통해 일의 중요성을 깨닫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중학교 단계는 진로 설계 및 실천 활동 과정 이해 및 진학 연계 단계라 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는 진로 탐색 활동을 진학으로의 연계라는 구체적인 목표와 연결시킨다. 진로 설계 활동은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등, 구체적인 진학 준비를 위한 과정으로 운영된다. 진로연계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다.

고등학교 단계는 구체적 진로 설계 및 주도적 실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자신의 꿈과 비전을 진로(진학·취업)와 연결하여 학업 및 진로 설계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진로 준비, 진로계획, 진로체험 활동은 동일하게 제시되나, 그 내용은 대학·산업체 연계 체험활동, 진로 인턴십 프로그램, 교과연계 진로교육 등 매우 구체적이고 심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결국 진로 설계 및 실천 활동의 연계성은 학교급별로 진로설계 및 실천 활동의 필요성 인식에서 진로설계 및 실천 활동의 주도적 실천으로의 발전되어 나가기 때문에 교육과정 상 연계성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 개정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내용 체계는 학교급 간에

연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진로 탐색 활동은 기초적 인식(초) → 가치 및 경험 탐구(중) → 구체적 정보 탐구(고)로 심화되며, 진로 설계 및 실천 활동은 필요성 인식(초) → 진학 연계 설계(중) → 주도적 실천 및 준비(고)의 단계로 발전한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의 내용체계는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갖추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4. 종합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사회변화 등을 고려한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미래사회 변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진로교육 교육과정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진로전담교사, 일반교사, 학교관리자, 초·중등학생 및 대학생, 학부모, 정책담당자, 학계 전문가 등 학교 진로교육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 분석은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념 및 성격, 진로교육 교육과정 구조, 진로교육 교육과정 구성 및 편성, 고교학점제, 진로연계교육 등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제도 운영, 진로교육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운영, 진로교육 교육과정 지원과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성과 및 미래로 구성하여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급별 진로교육 내용체계 및 연계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 미래 사회 및 교육변화 분석 종합 및 시사점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기후 위기와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요구 증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자동화 기술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전면적 재편이라는 복합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변화는 지식 전수 중심의 기존 교육 패러다임이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 사회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래 교육은 단편적인 지식의 소비자를 양성하는 것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지식을 융합하여 해결하는 자기주도적 역량 함양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은 융복합 프로젝트 기반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교사의 역할은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촉진자이자 교육과정 공동 설계자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또한, 배타적인 학교 체제를 넘어 지역사회와 산업체, 온라인 플랫폼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개방적인 평생학습 생태계로 교육 공간이 확장되어야 하며, 평가 체제 역시 과정 중심 평가로 혁신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은 진로교육의 본질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향후 진로교육은 특정 직업군의 단편적 정보 제공을 넘어서, 다변화된 생애 경로 속에서 학생 자신이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이 일회성 행사나 독립된 교과에 고립되지 않고 모든 교과의 성취기준 내에 내재화되는 범교과적 통합 접근이 요구되며, 나아가 학교의 물리적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및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 기반의 실천적 진로 탐색 경험이 교육과정 내에 체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 종합 및 시사점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에 대한 요구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는 <표 III-12>와 같다. 총론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정 총론과 진로교육의 통합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심층 인터뷰에서 총론 내 진로역량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교과나 진로 교과

와의 실질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이 총론 문서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초·중등 교과 내 진로교육 관련 성취기준이 반영될 경우 진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내실 있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주요 제도와 관련하여 고교학점제는 학기제로 운영됨에 따라 ‘진로와 직업’ 교과에 대한 과목 이수 체계 및 운영 지침 개선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로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진로전담교사 역할 강화, 진로탐색 기회 확대를 요구하였다. 진로연계교육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사항이지만,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하여 진로연계교육 유형 기반의 수준별 진로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교과연계 진로교육 또한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리더십, 교사 연수 및 경험 확대, 가이드라인 및 기반 확충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자유학기제는 운영 시기 조정 논의, 진로체험 실효성 및 제도 내실화가 요구되었다. 학교자율시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아직 현장 운영 경험과 축적된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의 초기 도입을 위한 운영 가능성만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구조에 있어서는 진로교육의 초·중·고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요구되었다. 심층 인터뷰 결과, 현재는 학교급 간 진로교육 내용과 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전 생애 진로발달을 고려한 연속적인 교육 경험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재정비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위해 진로발달단계에 기초하여 학교급 및 학년별로 차별화된 진로교육 목표 및 내용을 설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의 성장 수준에 적합한 진로탐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각론과 관련하여, 각론에서는 총론과의 연계 강화, 현장 적용 중심의 실천 방안 구체화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었다. 이를 위해 정책 실행 부서와 개발 부서 간의 연계를 통해 일관된 교육과정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론-각론의 연계를 기반으로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실과 교과 일부에만 진로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과정 전반에서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초등학교 진로교육 교과 운영을 위한 자료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며, 전 교과적 접근을 통한 진로교육 확대가 요구된다.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와 직업’ 교과가 선택과목으로 운영되어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편성 한계가 지적되었다. 따라서 ‘진로와 직업’ 교과의 필수화 여부에 대한 다층적 논의, 적정 편성 시기 설정, 이론과 체험이 조화된 수업 방식 개선, 그리고 운영 방식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내 진로활동과 ‘진로와 직업’ 교과 간 중복 문제가 학교급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으며, 진로활동 내용의 차별화, 진로체험 질 제고 및 안전 확보, 지역사회 연계 기반 강화, 자기주도성 강화, 실행 기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사되었다.

두 번째로 진로교육의 운영 및 성과 측면에서, 먼저 진로교육 교육과정 교수학습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었다. 학생의 진로발달 수준과 개인 맞춤형 접근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에 적합한 수업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학년별 맞춤형 자료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또한, 운영에 있어 창의적 체험활동 내 진로활동과 다양한 직업 이해와 적성, 전공 탐색 기회 확대가 강조됨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또한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을 확대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학생의 진로 형성과 탐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학

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전반에서 진로전담교사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관리자와 일반교사 대상으로 한 연수 및 자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이 운영되어 초등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 교육청 단위의 진로교육 전문 인력 확보가 과제로 제기되었다.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운영성과 및 미래 측면에서 진로교육은 학교 전반의 진로 인식 전환과 체계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를 보였으나, 진로전담교사 역량에 대한 과도한 의존, 대학입시 중심 구조,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교과 단절, 학교급 간 연계 부족 등 운영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성과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향후에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교사, 학습 공간, 평가 등의 교육 패러다임 요소들을 고려하여 진로교육 내용을 재구성하고, 교사의 역할을 학습 촉진자로서 재정의 하며, 정책-현장 간 괴리 해소, 학교 자율성 확보, 데이터 기반 개편, 전 생애 연계 체계 구축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진로교육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진로교육 협의체 구축, 진로체험지원센터 주도 지역 협력체계 활성화, 학부모의 진로교육 참여 확대 등 외부·내부 연결망 강화를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거버넌스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된 진로교육 운영 인력인 학교관리자와 일반교사의 진로교육 참여 확대 및 인식 개선, 교사 대상 연수 및 자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 정부 차원의 진로교육 협력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도모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표 Ⅲ-12> 사회변화 등을 고려한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 분석 종합 및 시사점

영역		주요 내용	시사점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총론)	총론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교육은 총론의 주요 요소들을 학교 교육과정에 뒷받침하는 역할 교육과정 총론과 진로교육의 통합적 연계 필요성 교육과정 총론 내 진로교육 가이드라인의 명확한 제시 필요 초등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설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론 내 초등학교 진로교육 관련 지침 마련 초·중등 교과 내 진로교육 관련 성취기준 반영
	진로교육 교육과정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교육의 초·중고 연계성 강화 진로발달단계에 기초한 차별화된 진로교육 목표 및 내용 설정 필요 교육과정, 진로, 진학의 효과적인 연계 학교급 및 유형을 아우르는 통합적 진로교육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화된 학교급/학년별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명시
	고교학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진로에 기초한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와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필요 고교학점제 내실화를 위한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강화와 부서 간 협업 필요성 고교학점제의 진로이해 및 탐색을 위한 기회 확대 고교학점제 기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목 이수 체계 개선 고교학점제의 진로이해 및 탐색을 위한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학점제 내실화를 위한 교과 운영 지침 마련 고교학점제에 따른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강화
	진로연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연계교육의 다층적 기능 강화와 학교급 전환기 중심 진로 지원 진로연계교육 유형 기반의 체계적 운영과 수준별 진로활동 기준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연계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과별 진로교육 관련 성취기준 제시 및 운영 방안(운영 시수,

영역		주요 내용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실질적 프로그램 개발 필요 	방법 등) 마련
	교과연계 진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연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반 확충 교과연계 진로교육 추진을 위한 학교장의 리더십 협력 교사 대상 교과연계 진로교육 경험 및 연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연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자유학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학기제 운영 시기 조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 필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학기제 실효성 강화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각론)	각론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론-각론 연계 강화 및 현장 중심 실천 방안 구체화 필요 진로교육 성취기준 구체화 및 교과로서의 정체성 확립 필요 정책 실행 부서와 개발 부서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일관된 교육과정 설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론-각론 연계 강화를 통한 진로교육 교육과정 일관성 제고
	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진로교육 교과 운영을 위한 자료 필요 초등학교 진로교육 확대를 위한 전 교과적 접근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진로교육 운영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
	'진로와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교과 편성의 한계와 제도적 개선 필요 '진로와 직업' 교과 필수화에 대한 다층적 논의 필요 '진로와 직업' 교과의 수업 방식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이론과 체험의 조화 '진로와 직업' 교과의 적정 편성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와 직업' 교과의 필수화, 편성 시기, 운영 방식에 대한 제도적 논의 필요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각론)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체험 활동 운영 시 안전 확보 및 제도적 보완 '진로와 직업'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내 진로활동의 차별화 및 진로체험 질 제고 진로발달과 진로활동의 연계성 및 자기주도성 강화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협업 필요 지역사회 진로체험 접근성 확대와 실질적 연계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내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내용 차별화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실행 기반 및 협력체계 강화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성과	진로교육 교수학습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 및 교육 강화 진로교육에서 멘토링의 효과와 필요성 초등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교육 자료 개발 필요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의 중심성 강화 필요 창의적 체험활동 내 다차원적 진로활동 운영의 필요 학생 주도적 진로탐색과 맞춤형 연계 진로교육의 필요 다양한 직업 이해와 적성·전공 탐색 기회 확대의 필요성 진로교육 내실화를 전제한 시간 확대 필요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확대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학년별 진로발달단계 맞춤형 자료 개발 및 보급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다양화 학부모 대상 진로지도 프로그램 확대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과정에서 진로전담교사의 적극적 참여의 중요성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인식 제고 학교관리자 대상 진로교육 연수 강화 일반교과교사의 진로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관리자, 일반교사 대상 진로교육 연수 강화 학교 교육과정 내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강화 초등학교 내

영역	주요 내용	시사점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성과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인력	<p>인식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교과교사의 참여 확대를 위한 연수·자료 지원 및 구조적 접근 필요 •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변화와 전문성 강화 요구 • 진로전담교사의 배치 확대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 진로전담교사의 정원 외 TO 전환 필요성 • 초등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에 대한 현실적 고려와 대안적 운영 방안 •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교육청 내 전문 인력 배치 	진로전담교사 배치 논의 필요
	진로교육 교육과정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전담교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좌우되는 진로교육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성과관리 강화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별 미래 진로교육 키워드의 주요 특성과 방향 •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진로교사 및 현장 참여 확대 필요 •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사전 검토 및 피드백 필요 •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한 진로교육 내용 재구성 • 진로교육 정책과 학교 현장의 괴리 및 학교 자율성 확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시 진로교육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성과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른 사회 변화에 대응한 교육과정 보완과 자료 지원의 필요성 • 전 생애, 학교급별 연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진로교육 교육과정 구축 필요 • 효과적인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수 등 제도적 장치 필요 • 진로교육의 개인화 및 참여 기반 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접근 • 진로교육 정책의 통합 및 조정을 통한 연계성 강화 필요 •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전 연구 및 정책 연계 강화 필요 • 진로교육 데이터 기반의 교육과정 개편 필요성 제기 •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모듈식 구성 제안 • 학제 개편 및 진로교과(군) 설정을 통한 진로교육 체계화 • 진로교육 교육과정에서 국가교육위원회 및 국가진로교육센터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시 진로교육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진로교육 자료 개발 •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시 진로교육 정책과의 연계 강화 • 진로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시 관련 역할 주체 재정립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진로교육 협의체 구축 필요성 및 추진 • 학교 진로교육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 • 중앙 차원의 진로교육 거버넌스 부재와 부처 간 협력체계의 필요성 • 학부모의 진로교육 참여 확대 및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에 대한 학교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 • 진로체험지원센터 주도의 지역 협력체계 강화 • 학부모의 진로교육 참여 확대

다. 학교급별 진로교육 내용 체계 및 연계성 분석 종합 및 시사점

학교급별 진로교육 내용 체계 및 연계성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1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진로교육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은 학생의 인지적 심리적 발달 단계를 고려한 나선형 구조를 취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간 체계적인 종단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은 자기 이해, 진로 탐색, 진로 설계와 실천이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은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학습 내용의 폭과 깊이를 점진적으로 심화하고 확장하는 계열성을 보여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진로교육을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과 추구하는 인간상 및 핵심역량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였다. 총론 차원에서는 진로연계교육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학교자율시간 등의 제도를 통해 진로교육의 거시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각론 차원에서는 초등학교의 분산적 접근과 중고등학교의 절충적 접근을 통해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특히 초등학교는 실과 및 통합교과를 통해 기초적 진로 탐색 경험을 제공하고 중고등학교는 진로와 직업 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도록 설계되었다.

중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교과의 내용 체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폭넓은 탐색과 잠정적 계획을 중시하는 중학교 단계에서 심층적 탐구와 구체적 실천을 요구하는 고등학교 단계로의 계열성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비교과 영역인 창의적 체험활동 내 진로활동 또한 발달 단계에 따른 명확한 위계를 지닌다. 진로 탐색 활동은 초등학교의 긍정적 자아 개념 및 기초 소양 형성에서 중학교의 폭넓은 가치 탐구 및 실제 경험을 거쳐 고등학교의 진로 성숙도 제고 및 실질적 직업 정보 탐구로 심화된다. 진로 설계 및 실천 활동은 초등학교의 진로 설계 필요성 인식에서 시작하여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연계 상급 학교 진학 준비로 구체화되며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및 산업체 연계 체험을 통한 구체적인 학업 및 진로 계획의 주도적 실천 단계로 완성된다.¹⁾

이러한 내용 체계 및 연계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문서상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나선형 교육과정의 계열성이 학교 현장의 실제 수업과 평가로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학년별 발달 수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교수학습 자료의 선제적 개발과 보급이 필수적이다. 둘째 진로와 직업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간의 엄격한 역할 구분이 요구된다. 교과 영역은 체계적인 이론 학습과 심화 탐구 중심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실천 및 경험 중심으로 그 성취기준과 활동 성격을 차별화하여 내용의 중복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상 확인된 종단적 연계성이 학생 개개인의 삶 속에서 단절 없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의 진로 심리검사 탐색 활동 이력 상담 결과 등을 디지털로 누적 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진로이수이력 관리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 학교급별 진로교육 내용 체계 및 연계성 분석 결과와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초·중·고 연계성에 대하여 현장의 요구 분석 결과가 상충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요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학교급 간 진로교육 내용과 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구조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반면에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진로와 직업’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은 학생의 인지적 및 심리적 발달 단계를 고려한 나선형 구조를 띠며 학교급 간 체계적인 종단적 연계성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충은 국가 수준에서 의도되고 설계된 공식적 문서상의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에 의해 실제로 경험되고 실행되는 교육과정 간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선형으로 정교하게 짜인 문서상의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의 구체적 실천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촘촘한 교수학습 자료 보급, 중복 없는 운영의 명확화, 데이터 기반의 이력 관리, 그리고 학교 구성원 간의 긴밀한 거버넌스라는 종합적인 실행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IV. 주요국의 진로교육 정책 및 진로교육 교육과정 분석

1. 영국의 진로교육 정책 및 진로교육 교육과정

가. 영국의 진로교육 정책

영국은 1997년 교육법 제42A조(Duty to provide careers guidance in schools in England)에 근거하여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법은 2012년 9월부터 공립학교가 9학년(만 13~14세)부터 11학년(만 15~16세)의 학습자에게 진로지도 제공을 법적 의무를 제도화하였다. 이후 2013년 9월부터 이를 8학년(만 12~13세)부터 13학년(만 17~18세)까지 확대하였으며, 2022년 3월에는 7학년(만 11~12세)과 아카데미 학교 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공립 중등학교에서 진로지도 제공을 법적 의무로 확대 적용하였다. 특히, 2022년 3월 개정된 영국의 학교 진로지도 법(The Education (Careers Guidance in Schools) Act 2022)은 국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중등학교의 모든 학생이 중등교육 과정에서 독립적인 진로지도를 받을 법적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또한, 만 16~18세 학생들에게 견습(apprenticeships) 과정을 포함하여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 또는 훈련 선택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진로지도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 1월 영국 교육부는 초등학교를 위한 새로운 진로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55개 취약 지역에 걸쳐 2,200개가 넘는 초등학교에 도입될 예정이다(Department for Education [DfE], 2023).

이와 함께 영국은 진로지도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교육부는 학교 진로지도에 대한 법적 지침(Statutory Guidance)을 마련하였고, 2017년에는 진로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담은 진로 전략(Career Strategy)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중등학교의 모든 학습자가 진로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2018년에는 교육 및 연수 제공자들을 위한 진로 지침 및 접근(Careers guidance and access for education and training providers)을 발표함으로써 학교장, 교사,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법적 지침을 공식화하였다(DfE, 2018). 해당 지침은 매년 정기적인 검토와 수정을 거쳐 공지되며, 2023년 1월 기준 법적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IV-1>과 같이 구성된다.

<표 IV-1> 교육 제공자가 진로지도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법적 지침(2023년 1월 기준)

구분	내용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7년 교육법(Education Act 1997) Section 45A & 2022년 기술 및 포스트-16 교육법(Skills and Post-16 Education Act 2022)에 근거하여 학교는 학생들에게 독립적인 진로 지도(independent careers guidance)를 제공해야 함. 진로지도란? 학생이 다양한 교육 및 훈련 선택(대학, 기술교육, 견습 과정 등)을 알 수 있도록 돕는 모든 활동을 포함 				
구성	<p>1) 진로지도 제공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7학년~13학년 <p>2) Gatsby Benchmarks 적용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Gatsby Benchmarks를 기준으로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Benchmark 1</td> <td>안정적인 진로 프로그램(A Stable Careers Programme)</td> </tr> <tr> <td>Benchmark 2</td> <td>진로 및 노동 시장 정보로부터 학습(Learning from Career and Labour Market Information)</td> </tr> </table>	Benchmark 1	안정적인 진로 프로그램(A Stable Careers Programme)	Benchmark 2	진로 및 노동 시장 정보로부터 학습(Learning from Career and Labour Market Information)
Benchmark 1	안정적인 진로 프로그램(A Stable Careers Programme)				
Benchmark 2	진로 및 노동 시장 정보로부터 학습(Learning from Career and Labour Market Information)				

구분	내용												
구성	<table border="1"> <tr> <td>Benchmark 3</td> <td>•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사항 파악하기(Addressing the Needs of Each Pupil)</td> </tr> <tr> <td>Benchmark 4</td> <td>• 교과 과정과 진로 연계(Linking Curriculum Learning to Careers)</td> </tr> <tr> <td>Benchmark 5</td> <td>• 직업인과 피고용인의 만남(Encounters with Employers and Employees)</td> </tr> <tr> <td>Benchmark 6</td> <td>• 직장 경험 기회 제공(Experiences of Workplaces)</td> </tr> <tr> <td>Benchmark 7</td> <td>• 고등교육 및 후학습 기관과의 만남(Encounters with Further and Higher Education)</td> </tr> <tr> <td>Benchmark 8</td> <td>• 개별 지도(Personal Guidance)</td> </tr> </table>	Benchmark 3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사항 파악하기(Addressing the Needs of Each Pupil)	Benchmark 4	• 교과 과정과 진로 연계(Linking Curriculum Learning to Careers)	Benchmark 5	• 직업인과 피고용인의 만남(Encounters with Employers and Employees)	Benchmark 6	• 직장 경험 기회 제공(Experiences of Workplaces)	Benchmark 7	• 고등교육 및 후학습 기관과의 만남(Encounters with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Benchmark 8	• 개별 지도(Personal Guidance)
	Benchmark 3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사항 파악하기(Addressing the Needs of Each Pupil)											
	Benchmark 4	• 교과 과정과 진로 연계(Linking Curriculum Learning to Careers)											
	Benchmark 5	• 직업인과 피고용인의 만남(Encounters with Employers and Employees)											
	Benchmark 6	• 직장 경험 기회 제공(Experiences of Workplaces)											
	Benchmark 7	• 고등교육 및 후학습 기관과의 만남(Encounters with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Benchmark 8	• 개별 지도(Personal Guidance)											
	<p>3) 기술 교육 및 견습 과정 홍보 의무 (‘베이커 조항’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교육 및 견습 과정 제공자에게 학생들과 직접 만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2023년부터는 기술교육 및 견습과정 제공자와의 접촉을 의무화(최소 6회 이상)함. *4회는 의무사항(8학년 또는 9학년 2회, 10학년 또는 11학년 2회)이며, 2회는 선택사항(12학년, 13학년) - 학교는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 경로(기술 교육, 견습 과정등)를 균형 있게 소개해야 함. 												
<p>4)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웹사이트에 진로 프로그램 및 책임자 정보(Careers Leader) 공개해야 함. -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진로 정보를 제공(노동시장 정보 포함)해야 함. - Ofsted 감사 시 진로교육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 													
<p>5) 학교 및 교육기관의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리더십 및 거버넌스 역할: 학교 경영진은 진로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계획해야 함. - 독립적인 진로지도 보장: 학교 구성원이 제공할 수 있으나,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 - 진로지도 예산 및 인력 배치: 전문적인 진로 담당자(Careers Leader) 지정 및 교육해야 함. - 학생 개별 상담 제공: 만 16세 전과 18세 이후 최소 1회 이상 개별 상담 제공해야 함. 													

출처: Department for Education. (2023). Careers Guidance and Access for Education and Training Providers.

<표 IV-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육 제공자가 진로지도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법적 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근거 및 대상이다. 1997년 교육법 제 45A조 및 2022년 기술 및 포스트-16 교육법(Skills and Post-16 Education Act 2022)에 근거하여 학교는 7학년부터 13학년 학생들에게 대학, 기술교육, 견습 과정 등 다양한 선택을 알 수 있도록 돕는 독립적인 진로 지도(independent careers guidance)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개츠비 벤치마크(Gatsby Benchmarks) 적용 의무이다. 모든 학교는 개츠비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진로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셋째, 기술 교육 및 견습 과정 홍보 의무(베이커 조항 적용)이다. 기술 교육 및 견습 과정 제공자에게 학생들과 직접 만날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2023년부터는 최소 6회 이상의 접촉을 법제화하였다. 이 중 4회는 의무사항(8학년 또는 9학년 2회, 10학년 또는 11학년 2회)이며, 2회는 선택사항(12학년, 13학년)이다. 학교는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 경로를 균형 있게 소개해야 한다. 넷째,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기준이다. 학교 웹사이트에 진로 프로그램 및 책임자(Careers Leader)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학생 및 학부모에게 노동시장 정보를 포함한 진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교육기준청(Ofsted) 감사 시 진로교육 평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 및 교육기관의 역할이다. 학교 경영진은 진로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계획해야 하며, 학교 구성원이 진로지도를 제공하되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예산 및 인력 배치 측면에서 전문적인 진로 담당자(Careers Leader)를 지정하고 교육해야 하며, 만 16세 전과 18세 이후 최소 1회 이상 학생 개별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부는 중등교육을 제공하는 모든 학교가 자체적으로 진로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개츠비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은 2018년부터 모든 학교가 학교의 진로교육과정을 전개하는 데 집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장급 교사 이상의 커리어 리더(Career

Leader)를 지정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모든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커리어 리더는 공인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교의 진로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하며, 진로 품질 표준에 따라 학교 진로 지도를 모니터링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커리어 리더 제도를 통해 영국은 모든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담보하고 있다.

나. 영국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영국의 중등 교육을 제공하는 모든 학교는 진로지도를 제공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학교가 자체적으로 진로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개츠비 벤치마크를 적용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표 IV-2> 참조).

영국의 중등 교육을 제공하는 모든 학교는 진로지도를 제공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자체적인 진로교육과정 개발 시 존 홀먼(John Holman) 경이 2014년에 개발한 8가지 벤치마크인 개츠비 벤치마크를 적용해야 한다. 이 벤치마크는 영국 진로지도 정책의 기반이자 교육기준청(Ofsted)의 학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츠비 벤치마크의 8가지 세부 구성은 다음 <표 IV-2>과 같다.

벤치마크 1은 안정적인 진로 프로그램(A Stable Careers Programme)으로 모든 학교와 대학은 학생, 학부모, 교사, 고용주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구조의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최고 경영진의 공인된 지원을 받아야 한다. 프로그램은 웹사이트에 공개되고 정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 벤치마크 2는 진로 및 노동 시장 정보로부터 학습(Learning from Career and Labour Market Information)로 만 14세까지 모든 학생은 진로 경로 및 노동 시장 정보(LMI)를 학습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학습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학부모 역시 LMI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벤치마크 3은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사항 파악하기(Addressing the Needs of Each Pupil)로, 학생의 배경, 관심사 및 능력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고정관념을 탈피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학생의 진로지도는 체계적으로 기록 및 보관되어 다음 교육 단계로 연계되어야 한다. 벤치마크 4는 교과과정과 진로연계(Linking Curriculum Learning to Careers)로, 모든 과목 교사는 교육과정과 진로를 연결해야 한다. 만 14세가 되면 모든 학생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과목이 직업 세계 진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한다. 벤치마크 5는 직업인과 피고용인의 만남(Encounters with Employers and Employees)이다. 매년 11세부터 학생들은 고용주와의 의미 있는 만남 활동에 참여하여 일과 직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 벤치마크 6은 직장 경험 기회 제공(Experiences of Workplaces)으로, 16세가 되면 모든 학생은 최소 1회 이상의 직장 경험을 해야 하며, 18세 졸업 전까지 시간제 일자리 외에 추가적인 직장 경험을 수행해야 한다. 벤치마크 7은 고등교육 및 후학습 기관과의 만남(Encounters with Further and Higher Education)으로, 16세가 되면 모든 학생은 교육 기회 제공자와 의미 있는 만남을 가져야 하며, 대학 진학을 고려하는 18세 학생은 2번 이상 대학을 방문해야 한다. 벤치마크 8은 개별 지도(Personal Guidance)로, 모든 학생은 16세가 되기 전 학교 또는 외부의 진로상담가와 최소 1회의 인터뷰를 가져야 하며, 18세 졸업 전까지 추가적인 개별 상담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DfE, 2023).

〈표 IV-2〉 영국 개츠비 벤치마크(Gatsby Benchmarks)

구분	내용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2014년 John Holman 경이 개발한 학교 및 대학의 진로지도 지침을 위한 프레임워크 특징: 8가지 벤치마크는 좋은진로지도의 모습을 정의하고, 영국의 학교 및 대학에 대한 법적 지침에 포함되며, 교육부는 진로지도 정책의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Ofsted는 학교를 평가할 때 이를 고려함. 		
구성	<p>Benchmark 1 (A Stable Careers Programme)</p>	<p>모든 학교와 대학은 학생, 학부모, 교사, 이사진, 고용주 및 기타 기관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진로교육 및 지도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학교와 대학은 명확한 구조를 가진 안정적인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이는 최고 경영진(Senior Management Team)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아야 함. 진로 프로그램은 학교 또는 대학 웹사이트에 공개되어야 하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고용주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프로그램의 효과는 학생, 학부모, 교사 및 고용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함.
	<p>Benchmark 2 (Learning from Career and Labour Market Information)</p>	<p>모든 학생과 학부모는 고품질의 노동시장 정보(LMI) 및 미래 학습 옵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4세까지 모든 학생은 진로 경로 및 노동 시장 정보에 대해 학습해야 함. 학습기간 동안 학생들은 진로와 노동 시장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향후 학습 방향을 결정해야 함. 학부모는 학생들의 학습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동 시장 정보(LMI)에 대한 접근성을 가져야 함.
	<p>Benchmark 3 (Addressing the Needs of Each Pupil)</p>	<p>모든 학교와 대학은 학생들의 배경, 필요, 관심사 및 능력에 따라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포부를 기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학교와 대학은 각 학생의 진로지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학생은 해당 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학생의 진로지도는 이전 교육 단계와 통합되어 기록되고 보관되어야 함. 학교는 학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교육, 훈련 또는 취업 목적지 등)를 수집하고 유지해야 함.
	<p>Benchmark 4 (Linking Curriculum Learning to Careers)</p>	<p>모든 과목 교사는 교육과정과 진로를 연결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학생은 14세가 되면 다양한 STEM과목이 사람들의 직업세계 진출에 어떤 도움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함. 학생들은 자신이 학습한 과목이 어떻게 직업세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
	<p>Benchmark 5 (Encounters with Employers and Employees)</p>	<p>모든 학생은 고용주로부터 일, 고용, 직장에서 가치있는 기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11세부터 학생들은 고용주와의 의미 있는 만남 활동에 참여해야 함.
	<p>Benchmark 6 (Experiences of Workplaces)</p>	<p>모든 학생은 직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직업 기회를 탐색하고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세가 되면 모든 학생은 최소 1회 이상의 직장 경험을 해야 함. 모든 학생은 18세가 되기 전 또는 졸업 전 시간제 일자리 외 적어도 1번 이상의 직장 경험을 해야 함.
	<p>Benchmark 7 (Encounters with Further and Higher Education)</p>	<p>모든 학생은 자신에게 제공되는 학습 기회를 이해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세가 되면 모든 학생은 모든 범위의 교육 기회 제공자와 의미있는 만남을 가져야 함. 18세가 되면 대학 지원을 고려하는 학생은 적어도 2번 이상 대학을 방문해야 함. 18세가 되거나 졸업 전 다음 단계에 대한 학습 및 훈련 제공자와 의미 있는 만남을 가져야 함.
	<p>Benchmark 8 (Personal Guidance)</p>	<p>모든 학생은 학교 또는 외부의 진로상담가와 인터뷰 기회를 가져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학생은 16세가 되기 전 최소한 1번의 인터뷰를 가져야 하며, 졸업 전 추가 인터뷰 기회를 가져야 함.

출처: Department for Education. (2023). Careers Guidance and Access for Education and Training Providers.

이 중 벤치마크 4에 따라 모든 교사는 교육과정 학습과 진로를 연계해야 하며, 특히 STEM 교사는 그 연계성을 강력히 보장해야 한다.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교육기준청으로부터 2015년 평가를 받은 샌드바흐(Sandbach) 중등 및 후기중등학교의 STEM 동아리 운영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학교는 여학생들의 STEM 관련 진로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교과목 일대일 및 집단 지도를 실시하고, 10~11학년 진로 수업을 통해 관련 직업군 탐색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10학년 학생 전체가 일주일간 직무 현장실습에 참여하며, 자기 계발, 진로 탐색, 진로 운영을 주제로 인터뷰 기술, 이력서 작성, 예산 편성 등의 실무 수업을 진행한다. 학부모, 유명 자동차 기업, 지역 기업체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산학 연계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다(강호원, 2018).

〈표 IV-3〉 샌드바흐 중등·후기중등학교의 STEM 동아리(club)운영 사례

방식	세부 내용
여학생들을 STEM 관련 진로로 장려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교육기준청으로부터 STEM 교과목 관련 진로교육 우수사례로 평가 받음. • STEM 교과목들에 대한 일대일 또는 집단 지도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 동기 고취 • 10~11학년 진로 수업을 통해 STEM 관련 직업군에 대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10학년의 모든 학습자는 일주일 간 진행되는 직무현장실습 참여 • 진로교육과정은 자기 계발, 진로 탐색, 진로 운영 3가 주제를 골자로 한 직무현장실습, 인터뷰 기술, 예산 편성, 이력서 작성, 만 16세 이후의 진로, 은행 이용 및 대출, 직업과 기술, 고용주들이 바라는 기술 등을 주제로 운영 • 진로 수업 완료 후 학습자와 교사의 설문조사를 통해 2년 단위로 담당자 평가 실시 • 대학교 관련 강의 참여, 작품 경진대회 참여, 프로젝트(여성 공학 참여 증진) 참여, STEM 진로 박람회 참여 등 관련 교육 및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 STEM 관련 진로 진출 촉진 동아리/대회 활발히 운영(학부모, 유명 자동차 기업, 지역 기업체 참여, 10년 넘게 지속)

출처: 강호원. (2018). 영국의 진로교육 개혁에 따른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서울교육, 해외교육, 231(여름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영국 중등학교의 약 80%가 대부분의 교과에서 진로교육을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의 약 70%가 자신의 교과에 진로교육을 내재화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 [CEC], 2020).

〈표 IV-4〉에 제시된 바와 같이 CEC(2017)는 영국의 진로교육 운영 방식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독립 과목으로서의 진로 학습(Career learning delivered as a subject)으로, 시간표에 공식 배정되어 진로 전문가가 진행하는 방식이다. 둘째, 다른 과목을 통한 진로 학습(Career learning delivered through other subjects)으로, 수학에서 재무 계획을, 영어에서 자기소개 기술을 가르치는 등 교과 학습과 진로 학습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식이다. 셋째, 공동 교육과정 활동을 통한 진로 학습(Career learning delivered through co-curricular activities)으로, 방과 후 클럽이나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STEM 클럽 등을 통해 제공되는 방식이다.

〈표 IV-4〉 영국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방식

구분	내용
독립 과목으로서의 진로 학습 (Career learning delivered as a sub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진로교육 과목이나 PSHE의 일부로 제공 • 시간표에 배정되어 교사, 진로 전문가, 외부 파트너 등이 진행 • 일부 경우 평가 및 인증도 이루어짐
다른 과목을 통한 진로 학습 (Career learning delivered through other subje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에서 개인 재무 계획 기술, 영어에서 자기소개 기술 등을 가르침. • 교과 학습과 진로 학습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이 이상적

구분	내용
공동 교육과정 활동을 통한 진로 학습 (Career learning delivered through co-curricular activ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 후 클럽, 문화 행사, 숙박 활동 등을 통해 제공 •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기회 제공(예: STEM 클럽)

출처: 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2017). Careers in the Curriculum: What works? p.3

학교 단위의 구체적 실천 사례로 우드사이드 중등학교(Woodside High School)의 학년별 운영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이 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7학년부터 11학년까지 진로교육, 정보, 조언 및 지도(Careers education, information, advice and guidance)와 직무 관련 학습(Work related learning)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학년별 공통 사항으로 점심시간 강의와 교과목 마스터 클래스가 운영된다. 7학년은 개인 지도 프로그램, 진로 주간 활동, 개인 응답 시스템을 통한 교과목 선택 지원이 이루어진다. 8학년은 진로의 날 및 진로 주간 활동, 1:1 진로 코칭이 추가된다. 9학년은 선택 과목과 연계된 진로상담이 심화되며, 10학년은 일주일간의 실질적인 직무 경험이 진행된다. 11학년은 행사 및 워크숍 참여와 더불어 진학 및 취업 정보 제공에 집중한다. 이 학교는 대학교, 자원봉사단체뿐만 아니라 골드만 삭스, 맥스 앤 스펜서 등 글로벌 기업들과 교육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에 직무 관련 학습을 강력하게 통합하고 있다(강호원, 2018).

<표 IV-5> 우드사이드 중등학교(Woodside High School) 사례

방식	세부 내용											
학교 홈페이지에 진로지도 관련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학교의 홈페이지에는 ‘진로교육, 정보, 조언 및 안내’ 를 통해 7학년부터 11학년의 모든 학습자에게 진로교육, 정보, 조언 및 지도(carres education, information, advice and guidance)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과 직무 관련 학습(work related learnin, WRL)을 제공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7학년 (중등학교 1학년)</th> <th>8학년 (중등학교 2학년)</th> <th>9학년 (중등학교 3학년)</th> <th>10학년 (중등학교 4학년)</th> <th>11학년 (중등학교 5학년)</th> </tr> </thead> <tbody> <tr> <td>진로 프로그램</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지도 프로그램 • 진로 주간 활동 참여 • 점심시간 강의 • 교과목 마스터 클래스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응답 시스템 (중등교육자격 검정시험 교과목 선택 지원) • 진로의 날, 진로주간 활동 참여 • 진로상담, 1:1 진로코칭 제공 • 점심시간 강의 • 교과목 마스터 클래스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지도 프로그램 & 개인 응답 시스템 • 진로상담, 1:1 진로코칭 제공(선택과목) • 진로 주간 활동 참여 • 점심시간 강의 • 교과목 마스터 클래스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지도 프로그램 & 개인 응답 시스템 • 직무경험(일주일) • 점심시간 강의 • 교과목 마스터 클래스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지도 프로그램 & 개인 응답 시스템 (진로정보 제공) • 행사 및 워크숍 참여 • 점심시간 강의 • 교과목 마스터 클래스 </td> </tr> </tbody> </table>	구분	7학년 (중등학교 1학년)	8학년 (중등학교 2학년)	9학년 (중등학교 3학년)	10학년 (중등학교 4학년)	11학년 (중등학교 5학년)	진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지도 프로그램 • 진로 주간 활동 참여 • 점심시간 강의 • 교과목 마스터 클래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응답 시스템 (중등교육자격 검정시험 교과목 선택 지원) • 진로의 날, 진로주간 활동 참여 • 진로상담, 1:1 진로코칭 제공 • 점심시간 강의 • 교과목 마스터 클래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지도 프로그램 & 개인 응답 시스템 • 진로상담, 1:1 진로코칭 제공(선택과목) • 진로 주간 활동 참여 • 점심시간 강의 • 교과목 마스터 클래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지도 프로그램 & 개인 응답 시스템 • 직무경험(일주일) • 점심시간 강의 • 교과목 마스터 클래스
구분	7학년 (중등학교 1학년)	8학년 (중등학교 2학년)	9학년 (중등학교 3학년)	10학년 (중등학교 4학년)	11학년 (중등학교 5학년)							
진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지도 프로그램 • 진로 주간 활동 참여 • 점심시간 강의 • 교과목 마스터 클래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응답 시스템 (중등교육자격 검정시험 교과목 선택 지원) • 진로의 날, 진로주간 활동 참여 • 진로상담, 1:1 진로코칭 제공 • 점심시간 강의 • 교과목 마스터 클래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지도 프로그램 & 개인 응답 시스템 • 진로상담, 1:1 진로코칭 제공(선택과목) • 진로 주간 활동 참여 • 점심시간 강의 • 교과목 마스터 클래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지도 프로그램 & 개인 응답 시스템 • 직무경험(일주일) • 점심시간 강의 • 교과목 마스터 클래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지도 프로그램 & 개인 응답 시스템 (진로정보 제공) • 행사 및 워크숍 참여 • 점심시간 강의 • 교과목 마스터 클래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의 진로 선택에 대하여 학부모와 긴밀히 협력, 학교 진로 관련 행사 학부모 참여 장려, 학부모 행사 홍보 • 대학교, 자원봉사단체, 기업(지역, 전국, 세계)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워크숍, 프로젝트에 학습자 참여 및 현장실습 기회 제공 • 다수의 협력 기관이 참여하는 진로 관련 행사, 염원의 날(Aspiration Day) 추진 • 직무경험 프로그램 전개를 위하여 해링게이 사업 교육 파트너십(Haringey Business Eductaion Partnership)과 협력, 교육과정에 직무 관련 학습, 특정 교과목 연계 워크숍 진행을 위해 골드만 삭스와 맥스 앤 스펜서, 노무라, 스코틀랜드 왕립 은행 등의 기업들과 협력. 											

출처: 강호원. (2018). 영국의 진로교육 개혁에 따른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서울교육, 해외교육, 231(여름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다. 영국의 진로교육 정책 및 교육과정에서의 시사점

영국은 사회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핵심 정책 도구로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진로 지도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모든 학생의 진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적 지침을 제공하여 학교 진로교육의 질을 표준화하고 학생들의 정보 접근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있다. 특히 개츠비 벤치마크는 학교 진로교육의 명확한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외부 학교 평가(Ofsted) 기준과 엄격히 연계하여 효과적인 진로교육이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도구로 작동한다.

동시에 일선 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유연성도 보장한다. 교육과정 내에서 진로교육의 편제와 시수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국가의 지침을 준수하되 학교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진로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연성이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커리어 리더(Career Leader) 제도를 통해 학교 진로교육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 기업 간 협업을 주도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개츠비 벤치마크 제4항(교과 과정과 진로 연계)을 통해 진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로 통합할 것을 요구하는 영국의 접근은, 우리나라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한 진로연계교육 및교과연계 진로교육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실행 모델과 질 관리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 캐나다의 진로교육 정책 및 진로교육 교육과정

가. 캐나다의 진로교육 정책

캐나다의 교육은 주(province) 차원의 책임으로 입법화되어 있어, 지역과 단위 학교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진로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그럼에도 캐나다의 유치원 및 초중등(K-12) 교육 시스템 내 진로교육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진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Curriculum) 내에 통합되어 제공되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합의 방식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진로 탐색을 지원하거나, 고등학교 특정 시기에 1년간 진로 및 인생 계획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Shepard & Mani, 2014) 주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개인 및 집단 진로 상담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Domene & Isenor, 2017).

최근 캐나다에서는 전국의 공립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균등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 정부 차원에서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진로교육을 학습의 중심으로 끌어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졸업 전 필수 단계로서 진로 및 전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교육부 장관 협의회(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Canada, 이하 CMEC)는 2017년 성공적인 학생 전환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Successful Student Transitions)를 승인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학생 전환 벤치마크(Student Transition Benchmark)를 개발 및 적용하였다. 해당 벤치마크를 구성하는 11가지 핵심 지표는 다음과 같다(<표 IV-6> 참조).

첫째, 안정적이고 학생 중심적인 진로 프로그램 제공(Stable and student-centred career programming)이다. 둘째, 진로 관리 역량의 적극적 개발(Career-management skills are actively developed)이다. 셋째, 진로 및 노동 시장 정보 접근성 보장과 효과적 활용 지원(Career and

labour-market Information is accessible, and its effective use is supported)이다. 넷째, 학생의 개별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Policy and programming recognize, and are tailored to, the diverse and specific needs of students)이다. 다섯째, 학습과 직업 세계 연계 강화(Learning is explicitly linked to labour-market applications)이다. 여섯째, 모든 학생을 위한 일터 통합 학습(실습 및 현장 학습) 기회 제공(All students participate in work-integrated learning opportunities)이다. 일곱째, 모든 고등교육 경로에 대한 정보 제공(Students learn about all post-secondary education pathways)이다. 여덟째, 청소년을 위한 진로 및 전환 서비스 접근성 보장>Youth have access to career and transition services)이다. 아홉째, 교육 담당자의 역량 개발을 통한 실행력, 파급력, 질 관리 담보(Implementation, impact, and quality assurance are underpinned by adequate training of providers)이다. 열째, 진로교육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평가 실시(Career education and service provision are assessed)이다. 마지막으로, 성과와 투자 대비 효과에 기반한 지속적인 개선(Continuous improvement is guided by evidence and return on investment)이다.

<표 IV-6> 캐나다 학생 전환 벤치마크(Student Transition Benchmark)

구분	내용
Benchmark 1	• 안정적이고 학생 중심적인 진로 프로그램 제공 (Stable and student-centred career programming)
Benchmark 2	• 경력 관리 역량(CMS) 개발 (Career-management skills(CMS) are actively developed)
Benchmark 3	• 진로 및 노동 시장 정보 접근성 보장 (Career and labour-market Information is accessible, and its effective use is supported)
Benchmark 4	• 학생 개별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Policy and programming recognize, and are tailored to, the diverse and specific needs of students)
Benchmark 5	• 학습과 직업 세계의 연계 강화 (Learning is explicitly linked to labour-market applications)
Benchmark 6	• 모든 학생을 위한 실습 및 현장 학습 기회 제공 (All students participate in work-integrated learning opportunities)
Benchmark 7	• 모든 고등교육(PSE) 경로에 대한 정보 제공 (Students learn about all PSE pathways)
Benchmark 8	• 청소년을 위한 진로 및 전환 서비스 제공 (Youth have access to career and transition services)
Benchmark 9	• 교육 담당자의 역량 개발 (Implementation, impact, and quality assurance are underpinned by adequate training of providers)
Benchmark 10	• 진로교육 및 서비스 평가 (Career education and service provision are assessed)
Benchmark 11	• 성과 기반의 지속적인 개선 및 투자 (Continuous improvement is guided by evidence and return on investment)

출처: CMEC. (2017). CMEC Reference Framework for Successful Student Transitions

이와 함께 CMEC는 학생 전환 벤치마크를 현장에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평가 및 실행 계획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 전환 벤치마크 자체 평가 도구(Self-Assessment Tool)는 현재 학교의 전환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을 평가하도록 안내하며, 강점과 격차를 파악하여 학생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조치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한다. 예를 들어, 지표 5인 학습과 직업 세계 연계 강

화를 평가하기 위해, 학생이 여러 과목에서 개발된 기술이 실제 진로 경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배울 기회가 있는지, 교육자가 교과 영역 학습과 노동 시장의 실제적 요구를 명확히 연결하고 있는지 등을 미착수, 진행 중, 성과 달성, 해당 없음의 척도로 진단한다. 또한, 실행 계획 템플릿은 이러한 평가 결과를 실제적인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표 IV-7> 참조).

<표 IV-7> 캐나다 학생 전환 벤치마크(Student Transition Benchmark) 자체 평가 도구(Self-Assessment Tool): 예시

Benchmark	Indicators of good practice	Not started	Under way	Achieving results	Not applicable
학습은 노동 시장 적용 프로그램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다.	• (a) 학생들은 여러 과목에서 개발된 기술이 다양한 진로 경로에 진입하고 발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진다.				
	• (b) 교육자들은 과목 영역 학습과 노동시장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명확한 연결고리를 만든다.				
	• (c) 교육자들은 학급 내 학습과 직장 내 업무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교실/과정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고용주, 부모/보호자, 동문/동문)을 찾고 협력하는 것이 권장된다.				
	• (d) 모든 교육자는 진로교육 및 개발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습에 접근할 기회를 갖는다.				
	• (e) 커리큘럼 전반에 걸친 결과 기술에는 학습과 진로 선택지 간의 연계가 포함된다.				

출처: CMEC. (2017). Student Transition Benchmark Self-Assessment Tool

온타리오 주는 2013년에 새로운 진로 개발 정책인 ‘성공으로 가는 경로 만들기(Creating Pathways to Success)’를 제시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개인의 목표를 성취하고, 유능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교육 및 진로/인생 계획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지침이다(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13). 이 정책의 핵심 비전은 모든 학생이 졸업 후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변화하는 세계와 자신의 삶 속에서 수립한 계획을 실행, 수정, 조정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교육과정 정책 문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과목이나 분야 별로 4가지 학습 영역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의 개발을 지원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이하 BC) 주는 교육 시스템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학생들의 진로 개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학교 정책 내에 진로 개발 정책(Career Development Policy)을 두어, 교육위원회와 독립 학교 당국이 학생의 진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육부의 절차를 안내한다. BC 주는 학생들이 유치원 및 초중등(K-12) 교육을 마칠 때 세 가지 핵심 역량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첫째는 자신의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량이며, 둘째는 다양한 진로 선택지에 대한 지식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천 계획 수립 능력이고, 셋째는 일터에서 효과적이고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 가능성 기술(employability skills)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독립 학교 당국은 자체적인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청 승인 과목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고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기관(WorkSafeB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기반 학습과 지역사회 기반 진로 탐색 경험이 통합되며,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 이력은 성적 증명서에 공식적으로 기록된다.

나. 캐나다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1) 캐나다 온타리오 주

온타리오 주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에게 교육 및 진로/인생 계획(Education and career/life planning)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의 교육, 직업, 삶에 있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의 목표와 관심사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여 원활한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다음의 4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개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표 IV-8> 참조).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일까요? (자신을 아는 것)이다. 학생들은 관심사, 강점, 업적, 기술 등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고유한 특성을 파악한다. 두 번째 질문은 나에게 어떤 기회가 있나요? (기회 탐구)이다. 학생들은 기회라는 개념과 자신의 선택이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지 탐구한다. 학교와 지역사회 기반의 기회가 기술 및 관계 형성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고, 다양한 직업과 업무 분야를 연구한다. 또한, 지역 및 글로벌 트렌드가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의사 결정 및 목표 설정)이다. 학생들은 탐구한 기회의 요구 사항, 보상, 특징 등을 자신의 개인적 자질과 연결하여 성찰한다. 이후 체계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활용하여 교육 및 진로/인생의 목표를 설정한다. 네 번째 질문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 계획은 무엇인가요? (목표 달성 및 전환)이다. 학생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원을 파악한다. 더불어 직면할 수 있는 장애물과 과제를 예측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낸다.

<표 IV-8> 캐나다 온타리오 주 '교육 및 경력 계획(Education and career/life planning)' 내용

주요 질문	영역	세부 내용
나는 누구일까요?	자신을 아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특성을 파악한다. • 여기에는 관심사, 강점, 업적 및 기술이 포함된다.
나에게 어떤 기회가 있나요?	기회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기회”라는 개념과 그들이 내리는 선택이 어떻게 그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지 탐구한다. • 학교와 지역 사회 기반 기회가 기술과 관계를 개발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다양한 직업과 업무 분야에 대해 연구합니다. 또한 • 지역 및 글로벌 트렌드가 기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식별하고 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의사 결정 및 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탐구한 기회의 요구 사항, 보상 및 기타 특징을 파악한다. 학생들 이것이 자신의 개인적 자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한다. 학생들은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교육 및 경력/인생 목표를 결정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 계획은 무엇인가요?	목표 달성 및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리소스를 파악한다. 또한 직면할 수 있는 장애물과 과제를 발견하고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다.

출처: 온타리오주 홈페이지. <https://www.ontario.ca/page/education-and-career-planning>.

온타리오 주의 10학년은 ‘진로 연구(Career Studies)’ 과목을 필수(Open/Compulsory)로 이수해야 한다. 이 과목의 목표는 미래의 학습, 직업,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다(<표 IV-9> 참조). 세부적으로 첫째,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 전략 및 습관 개발 영역에서는 변화 적응, 도전 극복, 일과 삶의 균형 유지 방법을 배운다. 스트레스 징후 인식과 정신 건강 지원 활용법, 소셜 미디어 사용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 단기 및 장기 목표 설정과 수정 방법 등을 다룬다. 둘째, 일의 세계 탐구 및 준비 영역에서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진로를 포함하여 지역의 고성장 산업 등 미래 취업 기회를 조사한다. 학교에서 배운 기술이 직장에서 요구되는 소통, 협업, 비판적 사고 등의 기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학습한다. 셋째, 고등교육 진학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과 재정 관리 영역에서는 이력서 작성 실무와 더불어, 예산 책정, 신용의 책임 있는 사용, 고등교육 학비 마련 등 개인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학습한다.

<표 IV-9> 캐나다 온타리오 주 ‘진로 연구 Case Study’ 내용

영역	내용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 전략 및 습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 도전을 극복하는 방법, 건강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운다. •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를 인식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정신 건강 지원 내용을 알고, 정신 건강 문제가 있을 때 지원을 받는 방법을 다룬다. • 학생들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자신의 결정이 미래의 기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운다. • 또한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 이러한 목표를 수정하는 방법도 배운다.
일의 세계를 탐구하고 준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미래의 취업 기회에 대해 배운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경력과 관련된 기회를 포함하여 지역과 지방의 고성장 산업을 조사한다. • 또한 학교에서 배운 기술과 직업세계에서 사용하는 기술(예: 직장에서의 의사소통 기술, 협업, 비판적 사고) 간의 연결을 만드는 방법을 배운다.
중등교육 이후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및 재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미래의 일자리와 경력에 맞춰 다양한 이력서 유형을 작성하고, 예산 책정, 청구서 지불, 신용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의 가치, 중등교육 이후 교육 비용 지불 옵션 등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배운다.

출처: 온타리오주 홈페이지. <https://www.dcp.edu.gov.on.ca/en/glc20-guide>

이 밖에도 <표 IV-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온타리오 주는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맞춘 다양한 진로교육 선택과목(Open)을 제공하고 있다. 9학년 학습 전략(Learning Strategies) 과목은 독립적인 학습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중등학교 이후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를 부여한다. 10학년 직장 탐색(Discovering the Workplace) 과목은 취업에 필요한 직장 필수 기술과 업무 습관을 개발하며, 직장 방문, 직무 체험(Job Shadowing), 모의 창업 프로젝트 등 경험적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11학년 미래 디자인(Designing Your Future) 과목은 개인의 기술과 관심사에 기반한 대학 진학 옵션을 조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포트폴리오 및 행동 계획을 수립하게 한다. 11학년 리더십 및 동료 지원(Leadership and Peer Support) 과목은 학교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기획력과 의사소통, 갈등 관리 기술을 기른다. 12학년 직장 내비게이션(Navigating the Workplace) 과목은 실제 직장 경험에 참여하여 관심 직무를 깊이 탐구하며, 12학년 고급 학습 전략(Advanced Learning Strategies) 과목은 고등교육 및 직장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최고 수준의 개인 관리 및 학업 기술을 훈련한다.

<표 IV-10>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 교육과정

등급	과목명	유형	내용
9	학습 전략 (Learning Strategies)	Op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더 나은, 더 독립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돕는 학습 전략에 초점 • 학생들이 중등학교와 그 이후의 성공 기회를 추구하기 위한 자신감과 동기 향상
10	진로 연구 (Career Studies)	Open (compuls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에게 교육과 진로/인생 계획에 도움이 되는 기술, 지식, 습관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목표를 설정하고 졸업 후에 대한 계획 세우기, 개인 재정 관리, 졸업 후 처해를 위한 예산 개발
10	직장을 발견하다 (Discovering the Workplace)	Op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취업에 필요한 직장 필수 기술과 업무 습관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경험적 학습 기회(예: 직장 방문, 잡 채도잉, 업무 경험, 시뮬레이션 및 기업가적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 있는 직업 조사
11	미래를 디자인하다 (Designing Your Future)	Op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기술, 관심사, 개인적 특성에 따라 특정 대학 옵션을 조사하면서 대학 진학지로의 성공적인 전환 준비 • 목표 목적지에 초점을 맞춰 포트폴리오를 개발하고 미래의 성공을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
11	리더십 및 동료 지원 (Leadership and Peer Support)	Op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과정은 학생들이 리더십 및 동료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준비 • 학교 및/또는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 설계 및 실행, 의사소통, 대인 관계, 팀워크 및 갈등 관리 기술 개발
12	직장 탐색 (Navigating the Workplace)	Op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모든 유형의 직장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직장 필수 기술과 작업 습관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실제 직장 경험에 참여하여 관심 있는 직업과 경력을 탐구
12	고급 학습 전략 (Advanced Learning Strategies)	Op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과정은 학생들의 학습 및 개인 관리 기술을 향상시켜 직장, 훈련 및/또는 고등 교육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준비 • 학습 능력을 평가하고 읽기, 쓰기, 산수 및 연구 기술과 개인 관리 기술을 사용하여 학습을 극대화

출처: 온타리오주 홈페이지. (n.d). 홈페이지. <https://www.dcp.edu.gov.on.ca/en/glc2o-guide>

특히 온타리오 주의 7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모든 학생은 디지털 개인 경로 계획(Individual Pathways Plan, 이하 IPP)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한다. 학생들은 IPP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학습을 기록 및 성찰하고, 학습과 진로 전략을 누적 관리하여 졸업 후의 삶을 준비한다. IPP에는 졸업 직후 대학 진학이나 취업, 훈련 등 주된 진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초기 진로 목표와, 이를 위해 이수해야 할 필수 교과과정 및 실무 경험에 대한 세부 계획을 기록한다. 또한 졸업 후 주된 학업이나 취업 외에도 아르바이트, 자원봉사, 취미 등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는 사회 활동 계획을 기록하고, 이러한 계획들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예상되는 장애물 극복 방안과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과 지원 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기록한다.

2)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의 진로교육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교육과정에 전면 통합되어 학생들이 관심사와 능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주도적으로 준비하도록 설계되었다.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는 학습을 통해 강점을 발견하고 지역사회 기여 방법을 배우며, 6학년부터 9학년까지는 실습 중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직업을 이해하고 멘토와의 관계를 구축한다.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은 졸업 필수 요건으로 ‘진로-삶 교육(Career-Life Education,

이하 CLE)’ 및 ‘진로-삶 연계(Career-Life Connections, 이하 CLC)’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CLE의 핵심 아이디어는 진로와 삶에 대한 선택이 계획, 성찰, 적응, 결정의 순환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내적 요인(흥미, 능력)과 외적 요인(글로벌 트렌드)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관계망 형성, 일과 삶의 균형, 평생 학습의 가치를 배운다. CLC는 CLE의 이론적 바탕 위에 네트워크 참여, 목표 의식, 적극적 시민성 실천을 핵심으로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학생들은 최소 30시간 이상의 진로 탐색 활동(유급 노동 또는 자원봉사)을 의무적으로 수행하여 실제적인 경험을 쌓는다(〈표 IV-11〉 참조).

〈표 IV-11〉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진로관련 교과 핵심 아이디어

영역	핵심 아이디어
진로-삶 교육 (Career-Life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와 삶에 대한 선택은 계획, 성찰, 적응, 결정의 순환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 진로와 삶에 대한 결정은 내부적 요인(개인의 흥미, 능력 등)과 외부적 요인(지역 및 글로벌 트렌드 등)의 영향을 받는다. • 관계망과 상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진로-삶에 대한 인식과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 개인 생활과 직업 생활의 균형은 웰빙을 증진한다. • 평생 학습은 진로와 삶의 기회를 확장한다.
진로-삶 연계 (Career-Life Connections: CL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와 상호적 관계에 참여하는 것은 진로-삶에 대한 인식과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 목표의식과 진로-삶의 균형은 웰빙을 지원한다. • 평생학습과 적극적 시민성은 개인과 공동체의 진로-삶 기회를 증진한다.

출처: 브리티시 주 콜롬비아 홈페이지. (n.d.). B.C' s curriculum. https://curriculum.gov.bc.ca/sites/curriculum.gov.bc.ca/files/curriculum/career-education/en_career-education_k-12_career-life-education.

또한 10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추어 지역 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직업 기술 탐색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Youth Explore Trades Skills 10-12’ 과목은 BC 주와 기술인 증기관(SkilledTradesBC)이 공동 개발한 것으로, 모듈당 25~30시간의 기술 분야 직업 경험을 통해 졸업 학점을 취득하게 한다. ‘Youth Explore Trades Sampler’ 는 12학점짜리 심층 과정으로 최대 5개의 기술 분야를 탐구하도록 돕는다. ‘Work Experience 12A/12B’ 는 실제 업무 환경에서의 경험을 학점화하며, ‘Youth Train in Trades’ 과목은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지원 하에 기술 교육 이수과 졸업 학점, 국가 공인 자격(Red Seal) 획득을 동시에 준비하게 한다. ‘Youth Work in Trades’ 는 청소년 견습생으로 정식 등록하여 실제 산업 현장에서 기술을 연마하는 실무 밀착형 과정이다.

BC 주는 교사들이 이러한 진로 탐색 활동을 일반 교과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연계 진로 탐색 지침(Linking Careers Exploration to the Curriculum)’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는 교과별 학습 내용이 실제 직업 세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교수 전략과 활동안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체계적인 진로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다. 캐나다의 진로교육 정책 및 교육과정에서의 시사점

캐나다의 사례는 진로교육을 단일 과목이나 일회성 활동에 한정하지 않고, 정규 교육과정 전반에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진로 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다양한 교과 학습의 맥락 속에서 진로에 대한 이해를 끊임없이 확장해 나간다.

무엇보다 캐나다 진로교육은 철저한 과정 중심(process-oriented) 접근을 취하고 있다. 학생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나의 기회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일련의 성찰적 과정을 반복 수행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자기주도성, 의사 결정 능력, 목표 관리 역량을 핵심 역량으로 중요시하고 있다.

둘째, 국가 및 주 정부 차원의 명확한 질 관리 기제와 데이터 기반 학생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교육부 장관 협의회(CMEC)의 학생 전환 벤치마크는 진로교육 정책의 질적 기준과 성과 지표를 학교 현장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자가 진단 도구를 통해 학교의 책무성을 높인다. 특히 온타리오 주의 디지털 개인 경로 계획(IPP)은 학생의 진로 설계와 학습 경험을 누적하여 데이터화함으로써, 학생 개인에게는 자기 성찰의 도구로, 교사에게는 맞춤형 지도의 강력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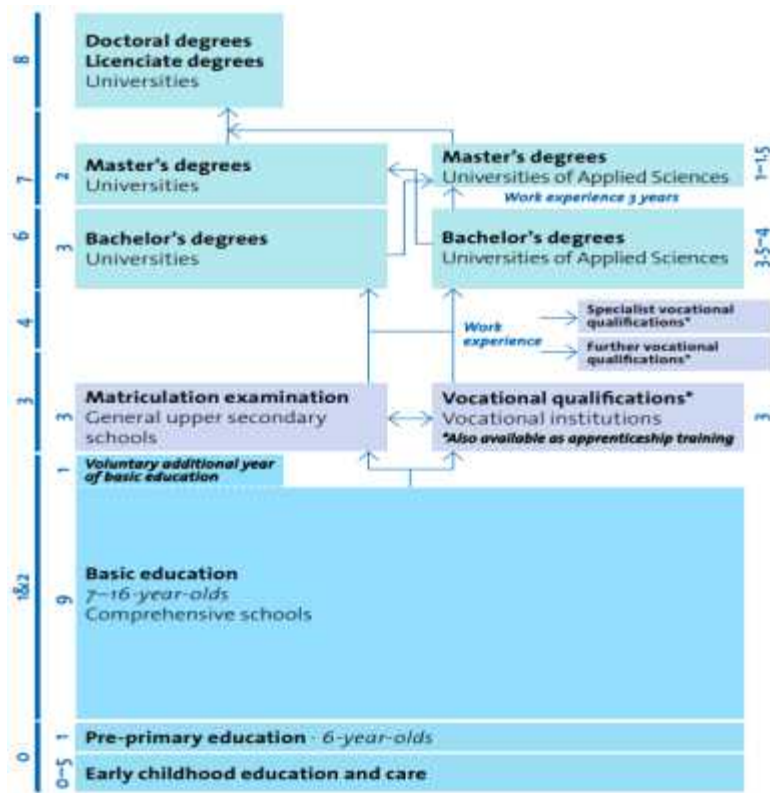
셋째, 학교, 지역사회, 산업체 간의 긴밀한 연계를 기반으로 한 실천적 경험 중심 진로교육이 제도화되어 있다. BC 주의 의무적인 30시간 진로 탐색 활동이나 다양한 직업 기술 인증 과목(Youth Explore Trades 등)의 운영 사례처럼, 모든 학생에게 실습 및 현장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청 승인 과목 제도를 통해 학생의 흥미와 지역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다채로운 과목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진로 선택의 실질적 폭을 획기적으로 넓혀주고 있다. 이러한 캐나다의 통합적 프레임워크와 디지털 이력 관리, 경험 기반 교육과정 운영 모델은 우리나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연계교육 및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 데 매우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캐나다의 진로교육 정책과 진로교육 교육과정은 진로교육을 교육과정에 통합하는 방식,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전략, 그리고 경험 기반 진로교육의 운영 방식에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3. 핀란드의 진로교육 정책 및 진로교육 교육과정

가. 핀란드의 교육 제도

핀란드의 교육 제도는 취학 이전의 유아교육, 취학 직전 1년의 예비교육(6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해당하는 9년간의 기본교육(7에서 16세), 3년의 고등학교 교육(17에서 19세), 그리고 전문대학 및 대학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 2025). 핀란드 교육문화부에서 교육 정책을 총괄하며,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핀란드 교육문화부, 2025).



[그림 IV-1] 핀란드의 학제

출처: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4). The National Curriculum of Basic Education. NIED.

핀란드의 교육 제도는 취학 이전의 유아교육, 취학 직전 1년의 예비교육(6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해당하는 9년간의 기본교육(7에서 16세), 3년의 고등학교 교육(17에서 19세), 그리고 전문대학 및 대학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 2025). 핀란드 교육문화부에서 교육 정책을 총괄하며,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핀란드 교육문화부, 2025).

기본교육은 핀란드어로 페루스코울루(Peruskoulu)라고 명명하며, 명칭상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구분되어 있으나 원칙적으로 하나의 통합된 교육 단계로 운영된다. 이는 이후의 고등학교 과정과는 구조적으로 분리되는 경향을 보인다(김성훈, 2018). 고등학교 과정은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고등학교와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이후에는 일정 기간의 직업 체험(Work experience)을 거쳐 응용과학대학에 진출할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4).

교육 거버넌스와 예산 측면을 살펴보면, 지방정부가 1학년에서 9학년에 해당하는 기본교육 운영의 책임을 지는 반면, 고등학교 교육에 해당하는 일반 고등학교와 직업학교는 중앙정부인 교육부가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1학년에서 6학년만 존재하는 학교, 7학년에서 9학년만 존재하는 학교, 1학년에서 9학년이 모두 포함된 학교 등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법령과 지방정부 지침에 따라 행정 및 회계가 운영된다. 기본교육 예산은 각 지방정부가 75퍼센트, 중앙정부가 25퍼센트 가량의 비율로 분담한다(Eurydice, n.d.). OECD 조사(2018)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핀란드 1학년에서 6학년 학생 1명당 연간 교육비용은 약 9,000달러(약 1,016만 원)이며, 7학년에서 9학년 학생 1명당 비용은 약 1만 4,000달러(약 1,580만 원)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1인당 지출 비용의 차이는 학교급 사이에서 학교 운영에 관한 실제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과정 제정 및 개정 측면에서 핀란드의 교육과정 개편은 법률에 따라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Finnish National Agency of Education)²⁾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의 독립 행정기관으로, 교육부 장관이 이끄는 정치적, 정책적 기구인 교육부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 위원회는 핀란드 중앙정부 산하 독립 기관으로서 주로 교육 개발과 기획, 국가 수준 핵심 교육과정의 제정을 담당한다. 핀란드의 교육과정 개정은 일반적으로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6년에 이루어졌다. 2024년 시점에서는 여전히 2016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다가오는 2026년 적용을 목표로 새로운 교육과정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핀란드 교육과정의 특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모든 지자체와 학교가 자체적인 하위 교육과정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자체는 관할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공통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도 있고, 방향만 제시한 채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자율성을 허용하기도 한다. 아울러, 지자체 교육 담당 공무원과 각 학교의 교장은 교육활동이 교육법과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막중한 책임을 지닌다(이르멜리 할리넨, 2020).

나. 핀란드의 진로교육 정책

핀란드의 모든 교육은 관련 법령에 기반하여 이행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교육에 대해서는 기본교육법(1998년 제정)에 의해 기본교육 및 의무교육, 유치원교육, 보충교육, 기초교육 준비교육, 오전 및 오후 활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초교육령(1998년 제정)에서 교육 및 근무 시간, 평가, 법적 보호 및 교육 제공 허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관련 하위 정부 명령으로는 ‘기초교육법에 언급된 교육의 국가적 목표와 기본교육의 시간 분배에 관한 정부령(2012년 제정)’에 교육과 교육 시간의 분배에 관한 일반적인 국가 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무교육법(2020년 제정)’이 있고,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등·중등교육법(1998년 제정 후 2018년 개정)’, ‘고등·중등 교육에 대한 정부령(2018년 제정)’ 등에 적용을 받고, 그 외에도 대학입학시험에 관한 법령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핀란드 교육문화부, 2025).

기본교육법(Perusopetuslaki, 1998년 제정, 최신 적용 법령) 제2조에 따르면 교육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삶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은 사회에서 평등을 증진해야 하며, 학생들이 평생 동안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교육은 전국적으로 충분한 평등을 보장해야 하며,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법령 제11조는 기본교육의 교육 내용을 모국어와 문학, 제2 국어, 외국어, 환경 연구, 건강 교육, 종교 또는 인생 철학, 역사, 사회 연구,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리, 체육, 음악, 시각예술, 수공예 및 가정경제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1조a항은 학생들이 진로지도 포괄한 학생지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8학년과 9학년에는 보다 강화된 개인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13조에 따르면 모든 학생에게 종교와 인생철학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으며, 종교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생활철학 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핀란드의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기본교육 단계의 교육과정 교과목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과목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특히 진로상담(guidance counseling)의 내용이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는 영문 명칭이 기존에는 ‘The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이었지만, 지금은 ‘The Finnish National Agency of Education’ 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음.

과목의 목표와 내용은 오늘날 사회와 미래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각 학년 별 과목에 명시된 시간대로 수업을 운영하며, 각 과목에 대하여 매 학년 평가가 이루어진다. 2016 개정된 교육과정은 일부 과목의 교육이 변경되었는데, 예를 들어 사회 연구와 제2 국어가 더 이른 학년에 시작하도록 변경되었다. 예술 및 실용 과목에서 선택 수업을 택할 수 있는 자유가 하위 학년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모든 과목에서 ICT 기술, 웰빙 및 일상생활 관리에 더욱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25).

기본교육법에 근거한 국가교육목표 및 기초시간 배분에 관한 정부령 제6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기본교육 기관에서는 학년별 필수 과목과 시수를 규정하고 있다. 진로교육과 관련성이 높은 과목으로는 종교 및 인생철학(1학년 2시수, 4학년 5시수, 8학년 3시수), 실과 및 수공예(1학년 4시수, 4학년 5시수), 가정과학(8학년 3시수), 그리고 학생 지도(8학년 2시수)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예술 및 공예 선택과목, 전체 선택과목 등을 통해 진로교육에 관한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표 IV-12> 참조).

<표 IV-12> 기본교육법에 따른 초·중학교 기본교육 최소 시간 배분 기준(필수 과목과 시수)

과목 학년 수준	1	2	3	4	5	6	7	8	9	계
모국어와 문학	15			19				10		44
A1 언어 ₁	2			9				7		18
B1 언어	●	●	●	●	●	2	2	3		7
수학	7			15				11		33
환경 연구	4			10						
생물학 및 지리학 ₂			7							
물리와 화학 ₂			7							
건강정보 ₂			3							
환경 및 자연교육 과목 총계			14					17		31
종교/인생철학	2			5				3		10
역사 및 사회 연구 ₃	●	●	●	●	5			7		12
음악	2			4				2		8
시각 예술	2			5				2		9
실과	4			5				2		11
체육	4			9				7		20
가정과학	●	●	●	●	●	●		3		3
예술 및 공예 선택 과목			6					5		11
총 예술 및 공예 과목						62				
학생 지도	●	●	●	●	●	●		2		2
선택 과목					9					9
최소 총 시간						228				
(선택 A2 언어) ₄	●	●				(12)				(12)
(선택 B2 언어) ₄	●	●	●	●	●	●		(4)		(4)

- 주 1) A1 언어 교육은 1학년 봄학기부터 주당 최소 0.5시간으로 시작
- 2) 1~6학년에서 통합적인 방식으로 환경 연구의 일부로 진행
- 3) 사회 과목은 4~6학년에서는 주당 최소 2시간, 7~9학년에서는 주당 최소 3시간 동안 진행
- 4) 언어에 따라 선택과목으로 A2 언어 선택 가능, B1 언어 대신 공통과목 선택 가능. 또한, 선택 과목인 A2 및 B2 언어는 기본 교육 시간표에서 정한 최소 시간을 초과하여 교육 가능(이 경우 모든 선택 과목이나 본 섹션에 명시된 B1 언어에 공통된 최소 시간을 사용하여 교육 구성 불가능, A2어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 최소 수업 시간을 초과하는 총 수업 시간은 주당 최소 240시간이며, B2 어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 주당 최소 232시간, 기초교육 기간 중 A2, B2 언어를 모두 공부하는 경우 최소 수업 시간을 초과하는 총 수업 시간은 주당 최소 244시간 (2024년 5월 30일 / 286))
- 5) ●: 해당 학년 과목 교육 가능
- 6) 표시된 숫자는 해당 학년도에 각 과목 또는 과목 그룹별로 주당 수업 시간(=38수업)으로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교육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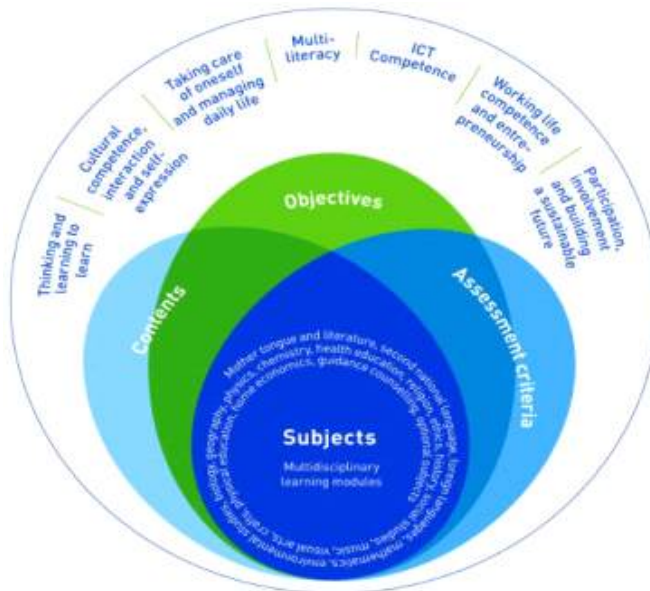
출처: 기본교육법에 명시된 국가교육목표 및 기초교육 시간 배분에 관한 정부령(2012.7.4.제정) 제6조 의무교육을 위한 기초교육의 시간 배분

핀란드의 기본교육 교육과정은 모든 교과목에서 횡단적 역량(Transversal competences)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횡단적 기술과 역량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7가지 핵심 역량을 각 과목에 반영하도록 설계하였다. 첫째는 사고와 학습 역량이다. 둘째는 문화적 역량, 상호작용 및 자기 표현이다. 셋째는 자기 관리 및 일상생활 관리이다. 넷째는 다중 문해력이다. 다섯째는 ICT 역량이다. 여섯째는 직업 생활 역량과 기업가정신이다. 일곱째는 참여, 관여 및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이다. 이 중 직업 생활 역량과 기업가정신, 그리고 자기 관리 영역은 진로교육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다.(<표 IV-13>과 [그림 IV-2] 참조).

<표 IV-13> 핀란드 초·중등 기본교육의 7가지 횡단적 역량(Transversal competences)

구분	초등학교
• thinking and learning to learn	• 사고와 학습
• cultural competence, interaction and self-expression	• 문화적 역량, 상호작용 및 자기 표현
• taking care of oneself and managing daily life	• 자기 관리 및 일상 생활 관리
• multiliteracy	• 다중 문해력
• ICT competence	• ICT 역량
• working life competence and entrepreneurship	• 직업 생활 역량과 기업가정신
• participation, involvement and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	• 참여, 관여 및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

주) 진로교육과 보다 관련성 높은 항목에 진한 글씨 표기



[그림 IV-2] 핀란드 초·중등 기본교육의 7가지 횡단적 역량과 교과목 교육의 관계

핀란드의 일반 고등학교 교육은 ‘고등학교법(Lukiolaki, 2018. 8. 15일 제정)’에 의해 규정된다. 법령 제2조에 따르면, 일반 고등학교 교육은 학생에게 대학이나 응용과학대학에서 고등교육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학업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이를 위한 일반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은 첫째, 학생이 훌륭하고 균형 잡히고 문명화된 사람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직업 생활, 취임, 다양한 성격 개발에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학생에게 평생학습과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법령 제10조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육은 3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으로 별도로 편성 운영된다. 청소년 대상은 모두 전일제이며, 성인은 반일제 학습으로 설계된다. 고등학교 과정은 청소년 대상 총 150 학점, 성인 대상은 88학점으로 구성된다. 법령 제11조의 교육 내용은 모국어 및 문학, 제2 핀란드어 및 외국어, 수학 및 자연 과학 연구, 인문학 및 사회 연구, 종교 또는 인생철학 연구, 기술 및 예술 과목 연구, 학습 지도가 포함된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광범위한 역량을 개발하는 ‘주제별 연구’가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시간 배당에 대해서는 정부령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령으로 규정된 과목 외에도 교육 목적에 적합하다면 설정할 수 있다.

법령 제25조의 교육 및 학습지도 받을 권리에 따르면, 학생은 학업 및 추가 학업 지원과 관련한 정기적인 개인 지도 및 기타 지도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고등학교 교육을 마쳤으나 학위 취득을 위한 추가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해의 다음 해에 학업 지원 및 진로 계획에 대한 지침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교육과정이 완료된 교육 기관의 교육 제공자가 감독 책임을 진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법령 제26조에는 개인 학습 계획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고등학교 이후 진학과 추가 학업 및 직장 생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완료하는 학생은 학습 계획, 대학 입학 시험 계획, 추가 학업 및 진로 계획이 포함된 개인 학습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학습이 시작할 때부터 교육기관의 교사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며,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표 IV-14> 핀란드 고등학교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과목 및 학점 배당 기준

교과(군)	과목	학점별 필수 과목	국가 선택 과목 수
모국어와 문학, 제2 핀란드어와 외국어 연구	모국어와 문학	12	6
	언어	12	4
	B1 언어	10	4
	B2 및 B3 언어		16+16
수학 및 과학 연구	수학 공통과목	2	
	단기 수학 과목	10	4
	장기 수학 과목	18	6
	생물학	4	6
	지리학	2	6
	물리학	2	12
	화학	2	8
인문학 및 사회학	철학	4	4
	심리학	2	8
	역사	6	6
	사회학	6	2
	종교 또는 인생철학	4	8
	보건 과학	2	4
기술 및 예술 과목 연구	체육	4	6
	음악 및 시각예술 종합	6	
	음악	2 또는 4	4
	시각예술	2 또는 4	4
학업 지도 및 상담(Opinto-ohjaus)	-	4	
주제별 연구	-		6
총 의무 학습 과목		94 또는 102	
최소한의 국가 선택 과목		20	
총 학점 수(최소 기준)		150	

출처: 핀란드의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정부령(Valtioneuvoston asetus lukiokoulutuksesta)의 부록1 청소년 대상 고등학교 교육과정 과목

핀란드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 진로교육 기본 골격은 1) 필수 또는 선택과목에 의한 진로교육, 2) 일반 교과에서 횡단적 역량을 반영하는 교과연계 진로교육, 3) 비교과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체험 등으로 이루어진다. 초등학교에서는 별도의 필수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을 하지는 않지만, 3학년부터 비교과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는 활동이 있다. 중학교(7~9학년)에서는 진로지도를 담당하는 전문 교사에 의해 주당 0.5~1시간의 필수 교과로 가르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비교과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직업 체험 활동이 이루어진다. 고등학교는 필수 교과와 선택 교과(주제별 6학년 선택과목)를 비롯하여 비교과 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정윤경 외, 2021).

핀란드의 진로교육은 학교급에 따라 책임 주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담임교사가 중심이 되어 진로교육을 수행한다. 담임교사는 관련 전문가와 협력하여, 교과 및 비교과 활동 전반에서 진로교육을 운영한다. 중학교는 진로담당교사가 진로관련 과목을 담당하며, 진로지도를 필수 교과로 지정하여 일과 직업세계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간(TET: työelämään tutustumisjaksoilla)을 제공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교사의 지위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역할이 요구되는데, 교장, 진로/학업 상담교사, 그룹별 학습(과목주임) 지도교사, 특수교사, 일반 교과목 교사 등이 전문적인 역할에 따라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정윤경 외, 2021).

〈표 IV-15〉 핀란드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수준과 생애주기에 따른 학생 진로교육 방식 체계

구분	초등학교(3~6학년)	중학교(7~9학년)	고등학교(일반/특성화, 1~3학년)
필수 교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지도상담(Oppilaanohjaus 7-9) - 7-8학년 총 교과목 수업 주당 29시간 중 0.5시간 (7학년 0.5시간, 8학년 0.5시간) - 9학년 총 교과목 수업 주당 30시간 중 1시간(진로지도교사 수업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지도 과목 최소 4학점(OP1/OP2) 이수 • OP3 일터생활기술 2학점 • OP4 개인지도 2학점 • OP5 진로활동 1학점 • OP6 진로활동 1학점 • OP7 진로활동 1학점 • OP8 진로활동 1학점
선택 교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별 학습 6학점(단위학교 교육과정 안에 명시) • 학습자가 본인의 관심에 따라 포괄적인 역량을 계발함. • T01~10 각 1학점
비교과	주변 지역의 직업 및 비즈니스 생활과 관련된 ‘방문학습’을 통해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학생의 전문적 관심과 기업가정신을 키움.	지자체 산업별(온라인) 코칭과 단위학교별 창의, 창작, 일터 체험활동	지자체 산업별 (온라인) 코칭과 단위학교별 창의, 창작, 일터 체험활동

주 1) 1학점 = 19× 45분 수업/ 1학점 = 11.4 × 75분 수업 (대부분의 지자체는 2021 학점제 방식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75분 수업 채택)

2) 진로/학업상담교사(opinto-ohjaaja)가 다른 교사와 함께 진로지도 교과목 담당

출처: 정윤경 외. (2021).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대응한 학교 진로교육과정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pp. 129-130 재인용

다. 핀란드의 진로교육 교육과정³⁾

핀란드의 기본교육 전 과정에 걸쳐 운영되는 학생 진로지도 및 상담 교과목은 학생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학교와 사회 전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진로지도는 기본교육 기간 내내 연속성을 유지하며 교육 이후의 삶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생활과 학업 성취도 향상, 나아가 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

이 교과목의 핵심 목표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여, 개별 학생이 학습 및 사회적 기술을 개발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도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 가치관, 출발점 및 관심사에 기반하여 학업, 진학,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한 주도적인 결정과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계획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식하게 하며, 교육과 진로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자신의 강점에 맞춘 선택을 하도록 장려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학부모 및 보호자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다.

학교의 진로지도 계획에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 절차, 업무 및 책임의 분담, 그리고 다학제적 전문가 네트워크가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이 계획은 가정과 학교 간의 협력, 학교와 직업 세계와의 연계, 그리고 학생이 직업 세계로 원활히 진입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포괄한다. 학교는 지도 계획의 목표 달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며, 학생이 초등교육에서 상급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학업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교사, 진로상담교사, 관련 전문가 간의 다학제적 협력을 촉진한다. 아울러 교사는 진학, 직장 생활, 직업 구조의 변화에 대한 최신 정보를 교육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학생 진로지도는 궁극적으로 학교와 사회, 그리고 직업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는 사회적 정의, 평등, 형평성, 포용성을 증진하고 교육 및 취업 소외를 방지하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한다. 나아가 지도를 통해 개발된 지식과 기술은 국가 차원의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미래 직업 세계의 기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핀란드의 학생 진로지도는 발달 단계에 따라 세 가지 학년군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1~2학년의 학생 지도는 다른 수업 및 학교 활동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담임 교사는 다른 교사들과 함께 학생 지도를 담당한다. 학생 지도는 학생들이 학습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고 학교 과제와 자신의 과제 및 소지품에 대한 책임감이 점차 커지도록 지원한다. 학생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대한 격려와 지도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학습 기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생 지도의 목표는 학생이 학습자 및 그룹 구성원으로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작업 방법과 피드백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상호 작용 기술을 연습하고 그룹으로 작업하도록 지도받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지역 환경에 참여하도록 권장된다. 초등 초기 단계에서는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여 학생 지도를 위한 기반을 형성한다. 이 시기의 지도는 학생과 학부모가 처음으로 교육적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향후 학업 경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직업과 직업 세계에 대한 소개는 학생의 일상 환경에 가까운 학교 내 활동이나 주변 직업군에 대한 탐색을 통해 시작된다.

초등학교 중고학년인 3~6학년 학생에 대한 지도는 주로 교과 수업 및 기타 학교 활동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교육과정의 결정에 따라 학생 지도를 위한 수업 시간이 별도로 편성되기도 하

3) 이 절에서는 주로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2014)의 기본교육 교육과정 기본 사항 - 핀란드 초·중학교 기본교육의 학생지도상 담 교육 목표 체계 (Oppilaanohjauksen opetuksen tavoitteet vuosiluokilla 7-9, pp. 442-445)을 이용하여 논의하였음.

며, 담임교사는 다른 교사들과 협력하여 이를 공동으로 담당한다. 학습 환경에는 학교 공동체와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 및 기타 외부 파트너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지도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전략을 인식하고 개발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작업, 통합 및 자기관리 기술을 습득하고, 교과목의 특성을 이해하며, 각 과목에 적합한 학습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사회성 및 협업 능력 향상 또한 학생 지도 과정에서 중요한 목표로 강조된다. 학생 지도는 학생들이 생활 기술을 개발하고, 학습자로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강점, 재능, 기술뿐 아니라 타인의 역량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게 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삶, 학습, 선택,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공동체의 적극적인 구성원으로서 기여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장려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 공동체와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회적 역량에 대한 감각을 키우기 시작한다. 또한, 지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지역 사회의 직업, 직장, 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넓히게 된다. 현장학습이나 기관 방문은 직업 세계와 기업가 정신,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체험적 소개를 제공하며, 이는 학생들의 진로 관심을 자극하는 데 기여한다. 지도는 학생과 보호자가 적절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업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습이나 학교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에 대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중학교에 해당하는 7~9학년의 학생지도는 학생들이 7~9학년의 학습 환경과 학습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7~9학년 동안 각 학생은 학생 지도를 통해 학습 기술과 학습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자신의 선택이 학업과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받는다. 이는 교육 및 진로 선택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학생의 주체성과 주도권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학생 지도는 다른 과목과 함께 학습한 과목과 추가 학습 및 업무 기술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직장 생활, 직업, 기업가 정신 및 미래 기술 요구 사항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넓히며, 학생지도의 역할은 변화하는 생활 상황, 학업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의 전환, 진로 전환에 대처할 수 있는 학생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이러한 지도의 주된 책임은 지도 카운슬러에게 있으나, 주최 기관 및 학부모와 협력하여 고등교육 및 훈련 옵션에 대한 정보와 접근성을 제공한다. 학생 지도는 학업 이수를 촉진하고 공동 선택 계획을 통해 의무교육 이후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우리나라 중학교에 해당하는 7~9학년 학생(진로)지도의 목표와 내용 체계는 일반적인 진로교육 목표를 포함하고,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역량, 학습에 대한 기술, 다문화주의와 국제주의에 대한 내용까지도 포괄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진로교육에서 포괄하는 범위에 비해 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제시된 10가지 진로교육 목표(T1 ~ T10)와 5개의 핵심 내용(S1~S5), 그리고 이러한 진로교육을 통해 함양하고자 하는 포괄적 역량을 7개(L1~L7)로 제시하여 ‘교육목표-핵심내용-역량’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표 IV-16> 참조).

<표 IV-16> 핀란드 7~9학년 학생(진로)지도상담 교육의 목표 체계

교육 목표 (Opetuksen tavoitteet)	교육 목표와 관련된 내용 영역 (Tavoitteisiin liittyvät sisältöalueet)	교차 역량 (Laaja-alainen osaamin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과 능동적 시민권(Osallisuus ja aktiivinen toiminta) - T1 학생들이 7~9학년의 학습 환경과 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이러한 환경과 다양한 그룹에서 기능하는 능력을 개발하며,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학습과 선택에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1 학습과 공부 • S2 자기 인식과 평생진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3 자기관리와 일상생활 역량 • L7 참여, 영향,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 목표 (Opetuksen tavoitteet)	교육 목표와 관련된 내용 영역 (Tavoitteisiin liittyvät sisältöalueet)	교차 역량 (Laaja-alainen osaaminen)
을 질 수 있도록 지원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하기(Oppimaan oppimisen taidot) - T2 학생들이 학습과 학습 기술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1 학습과 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1 배우려는 생각과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 학습(Elinikäinen oppiminen) - T3 학생들이 학습하고 싶어하는 조건을 조성합니다, 지식을 평가하고, 자신의 기술과 강점을 파악하고 활용하며, 학습 목표를 식별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필요할 때 계획과 접근 방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1 학습과 공부 • S2 자기 인식과 평생진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1 배우려는 생각과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인식 (Itsetuntemus) - T4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능력과 연관시키도록 안내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2 자기 인식과 평생진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3 자기관리와 일상생활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설정 (Tavoitteiden asettaminen) - T5 학생들이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계획하고, 성취도를 평가하도록 돕기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2 자기 인식과 평생진로 계획 • S5 후속 학습과 그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1 배우려는 생각과 학습 • L3 자기관리와 일상생활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세계를 위한 학습 (Työelämään suuntautuva oppiminen) - T6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서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공부한 과목과 미래의 학업 및 일과 고용에 필요한 기술의 관련성을 식별하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기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2 자기 인식과 평생진로 계획 • S3 학업과 일터생활에 필요한 기술 • S5 후속학습과 그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6 일터생활 역량과 기업가정신 • L7 참여, 영향,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세계를 위한 학습 (Työelämään suuntautuva oppiminen) - T7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평가하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기 위해,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기술, 적합한 직업 분야를 파악하고 기본 교육 후 필요한 기술 습득에 대한 정보 검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2 자기 인식과 평생진로 계획 • S3 학업과 일터생활에 필요한 기술 • S4 일터생활 알아보기 • S5 후속학습과 그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4 다중 작업 • L5 정보와 의사소통기술 능력 • L6 일터생활 역량과 기업가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진로 계획에 교육 및 직장 생활에 대한 정보 활용 (Koulutus- ja työelämä tiedon hyödyntäminen omassa urasuunnittelussa) - T8 학생과 보호자에게 핀란드 교육 시스템의 주요 특징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핀란드 및 해외에서 교육 및 직장 생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학생의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4 일터생활 알아보기 • S5 후속학습과 그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4 다중 작업 • L5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진로 계획에 교육 및 직장 생활에 대한 정보 활용 (Koulutus- ja työelämä tiedon hyödyntäminen omassa urasuunnittelussa) - T9 학생에게 다중 채널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도구 사용법을 안내하기 위해, 지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로 계획 관점에서 다양한 정보 출처를 통해 얻은 정보의 신뢰성과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2 자기 인식과 평생진로 계획 • S3 학업과 일터생활에 필요한 기술 • S5 후속학습과 그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4 다중 작업 • L5 정보와 의사소통기술 능력 • L6 일터생활 역량과 기업가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주의와 국제주의 (Monikulttuurisuus ja kansainvälisyys) - T10 학생의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는 능력과 문화 간 만남 및 협력 상황에서 행동하는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들이 다국적 근무 환경 및 해외에서 학습 및 취업 기회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동화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4 일터생활 알아보기 • S5 후속학습과 그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2 문화적 역량과 상호작용 및 표현 능력

출처: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2014). 기본교육 교육과정 기본 사항 - 핀란드 초·중학교 기본교육의 학생지도상담 교육 목표 체계 (Oppilaanohjauksen opetuksen tavoitteet vuosiluokilla 7-9, pp. 442-445).

이러한 목표와 결합되는 5가지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S1 학습과 공부 영역에서는 학교 공동체 일하기, 평생 학습 기술을 배운다. 둘째, S2 자기 인식과 평생진로 계획 영역에서는 자기 평가, 의사 결정, 문제 해결 기술, 진로 관리 및 동기 부여 기술을 연습한다. 셋째, S3 학업과 일터생활에 필요한 기술 영역에서는 상호작용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개발한다. 넷째, S4 일터생활 알아보기 영역에서는 직장 생활 및 다양한 직업을 학습하고 직장 체험(TET)을 통해 실제 기술을 연습한다. 다섯째, S5 후속 학습과 그에 대한 지원 영역에서는 진학 기회를 탐색하고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힌다.

7~9학년 학생 지도는 학생 개인 및 그룹의 필요와 능력을 고려하여 개별 지도, 소그룹 지도 및 학습 지도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그룹은 지도 내용과 또래 지원의 기회를 고려하여 유연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개별 상담에서 학생들은 학업, 교육 및 직업 선택, 생활 상황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기회를 갖는다. 소그룹 상담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공통적이거나 그룹 내 각 학생에게 개인적인 문제이며 다른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룹으로 작업하는 방법을 배운다. 학생 지도는 모든 학년 수준에서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지도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때로는 학부모에게 교사, 지도 카운슬러, 학생, 학부모 간의 회의에서 학생의 학업 및 선택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학습 환경은 학교 및 온라인 환경과 함께 지역 환경과 직업 세계를 기반으로 한다. 7~9학년 기본 교육 기간 동안 학생들은 교육 및 직업 선택의 기초를 다지고 일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직장 체험(TET) 기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학생들은 실제 근무 환경에서 직장 생활과 직업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직장 생활 소개에는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수반되어야 한다. 직장 생활 소개는 다른 과목과 연계하여 해당 과목의 내용과 작업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된다.

7~9학년 학생 지도의 차별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학생 지도는 각 학생의 개인적인 목표, 경험, 취미, 관심사, 기술 및 생활 환경을 고려한다. 학습의 전환 및 이행 단계에서 학생 지도에 있어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학업 지속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와 여러 행정기관의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추가 교육에 대한 안내가 제공된다. 추가 교육 계획은 학생, 학생의 보호자, 적절한 경우 호스트 기관과 종합 학교의 대표자가 협력하여 수행하며, 학생의 개인 선호도, 지원 필요성 및 교육이 제공하는 취업 전망을 고려한다. 종합 교육 이후 학생과 보호자에게는 지속적인 지원 가능성과 기타 형태의 지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7~9학년의 학생지도 과목은 다양한 지도 활동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며, 평가 역시 자기 평가, 대화형 피드백, 안내 및 격려 중심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학생은 교사와 함께 자신의 역량, 지식과 기술, 기능 활용도, 기관 및 자원 이용 능력, 지도 및 지원에 대한 요구 정도, 팀워크 및 상호작용 기술 등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성할 수 있는지를 학습한다. 또한, 학생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 신념, 주변의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받는다. 교육 및 직업 관련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정보 활용 능력과 ICT 기술을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며, 다양한 정보 출처의 신뢰성과 관련성을 구별하는 능력도 함께 기르게 된다. 더불어, 다양한 자기 평가 도구의 특성과 그 활용 배경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진로 계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지원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와 사회 내 다양한 지원·상담 서비스의 유형을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도움을 찾는 역량을 기르는 방법을 배운다.

라. 핀란드의 정책 및 교육과정에서의 시사점

핀란드의 진로교육은 학생의 법적 권리 보장을 바탕으로 필수 및 선택 교과, 범교과 횡단 역량, 비교과 체험 활동 등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핀란드의 진로교육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핀란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기본교육법에 학생의 학생진로지도 권리를 제시하고, 기본교육법에 따른 정부령에 학생진로지도 필수 과목으로 시간을 할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핀란드 기본교육법은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1~9학년 기본교육 기간에 학생의 진로지도 포함 학생지도권을 받을 권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8~9학년에는 보다 강화된 개인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1조a). 또한, 종교 또는 인생철학을 필수로 가르치도록 하고 있는데, 종교가 없는 학생은 인생철학 과목을 통해 삶과 인생에 대한 방향과 설계를 학습할 수 있다. 또한, 기본교육법에 근거한 국가교육목표 및 기초시간 배분에 대한 정부령에는 기본교육 기간 동안 최소한의 과목 편성과 시수를 안내하고 있다. 학생진로지도 과목은 중학교 단계인 8학년에 주당 2시간 이상 다루도록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선택과목을 통해서도 학습할 수 있다. 법령에서는 초등학교 단계에 해당하는 1~6학년 동안에는 학생진로지도가 필수 과목은 아니지만,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따르면 1~2학년, 3~6학년, 그리고 7~9학년 각각에 대하여 학생진로지도에 대한 방향과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에 가면 고등학교법 제26조에 따라 학생이 ‘개인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누적 관리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학업, 진학, 직업 전환 등 학업 및 진로 계획을 준비하고 교사의 지원을 받아 작성하며 정기적으로 갱신해 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다른 시사점은 핀란드의 진로교육은 필수 교과뿐 아니라 선택 과목의 형태로도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핀란드의 초중학교 기본교육 단계에서는 예술 및 공예 선택과목(3학년 6시수, 8학년 5시수), 전체 선택과목(5학년 9시수)의 시간을 통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개설하는 선택과목의 형태로도 진로교육에 관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초중학교 기본교육은 각 지자체가 관할이므로 지자체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고등학교 교육의 경우에는 주제별 연구라는 선택과목을 국가 수준에서도 6과목 제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각 교과별로 선택과목을 제시하고 있어 필요에 따라 학생이 선택하여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원하는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유연성을 통해 선택과목을 통한 학생 진로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시사점은 핀란드의 진로교육은 범교과 주제(횡단적 역량)로 진로교육을 포함하여 각 일반교과에 반영된 진로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핀란드 초중학교 기본교육 단계의 교육과정은 그 기반에 모든 교과목을 관통하는 횡단적 역량(transversal competences)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 교과 교육과정 개발에서 반드시 연관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역량 가운데 ‘자기 관리 및 일상 생활 관리’, ‘직업 생활 역량과 기업가정신’ 등의 진로교육과 깊게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범교과 주제와 같은 역량의 횡단적 역량을 통해 각 일반교과에 연계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이러한 범교과 주제가 보다 직접적으로 해당 관련 교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목 교육 목표, 내용, 평가 기준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범교과 주제가 단순히 해당 교과나 교사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가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는 점이 유의미하다.

마지막 시사점은 핀란드의 진로교육은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이 이루

어진다는 점이다. 핀란드의 진로교육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보다 직접적인 진로체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확장되는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한 진로교육이 설계되고 있다. 초등 시기에는 학교나 주변 지역의 직업과 사업 생활을 살펴보고 방문해 보는 활동, 중학교에는 지역의 산업별 코칭과 단위학교에 따라 창의활동, 창작활동 및 일터체험활동 등 다양한 탐색 및 실습 활동이 이루어진다. 고등학교에는 중학교에 이어서 보다 실제적인 직업체험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를 학점으로 연결하고 있다.

4. 종합 및 시사점

진로교육 정책 및 교육과정에 대한 주요국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영국, 캐나다, 핀란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표 IV-17〉 참조). 진로교육 정책과 교육과정 운영을 비교한 결과, 세 나라 모두 법령에 근거한 진로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영국은 「1997년 교육법」과 「2022년 진로지도법(Education (Careers Guidance in Schools) Act 2022)」에 따라 학교의 진로교육 제공 의무를 명문화하였고, 캐나다는 주(Province) 정부 차원의 법령과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데, 대표적으로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는 「학교법(School Act)」과 '진로개발 정책(Career Development Policy)'을 근거로 진로교육을 유치원부터 12학년 전반에 걸친 정규 교육과정 및 필수 졸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는 「기본교육법」 및 「고등학교법」을 통해 학생이 진로지도 받을 권리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적 근거를 통한 정책 지속성과 실행력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정책 주체와 운영 체계에 있어서는 정책 주체 및 운영 체계의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영국은 중앙정부인 교육부가 주도하되, 학교별로 진로교육을 총괄하는 'Careers Leader'를 지정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캐나다는 주정부 중심 체제로, 학교 및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공동 프레임워크를 운영하고 있었다. 핀란드는 교육문화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을 분리하고, 학교급별로 관할기관을 구분하여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이는 중앙-지방 간 협력 및 학교급별 특성에 따른 역할 분담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진로교육 정책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진로교육법」을 바탕으로 법령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진로교육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주체를 구분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핵심 정책 및 전략 측면에서는 진로교육의 핵심 정책과 전략은 명확한 표준화와 평가 연계성을 통해 강화되고 있었다. 영국은 Career Strategy(2017)와 Gatsby Benchmarks를 통해 학교 진로교육의 표준을 제시하고, 법적 의무와 평가 연계를 명확히 설정하였다. 캐나다는 Student Transition Benchmark를 통해 정책 기준과 성과지표를 제시하며, 이를 학교 현장에서 자가진단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핀란드는 법령을 통해 진로지도 과목의 구성과 이수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 권리 보장과 진로지도의 연계성을 법제화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진로교육의 내용과 질을 평가 및 성과관리 체계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하여, 세 국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연계 진로교육과 연관된 '교과와 진로교육 간의 연계' 운영을 중시하고 있었다. 특히 모두 모든 과목에서 진로요소를 반영하고 이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고 있었다. 영국은 모든 교사에게 교과에 있어 진로연계를 요구하고 진로교육 전담자 배치를 의무화하며, 핀란드는 일반 교과 내 횡단적 역량(예: 자기관리, 기업가정신 등)을 통해 진로요소를 통합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연계 진로교육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를 실행할 전담 교원의 역할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교육의 교과 전반과의 통합 운영이 되기 위한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진로교육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각론과 관련하여서 세 국가는 모두 진로교육을 정규 교육과정 또는 비교과 활동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영국은 독립 과목뿐 아니라 교과 간 연계를 강화하고 비교과 활동도 병행하며, Careers Leader가 이를 총괄 운영한다. 캐나다는 진로 과목의 필수화와 더불어 선택과목, 비교과, IPP(개인진로계획) 등을 통해 누적적 학습을 유도한다. 핀란드는 필수 과목뿐 아니라 국가·지자체 선택과목을 통한 진로교육도 활성화하고, 초·중고 단계별 진로체험을 정규 교육과정과 병행 운영한다. 이처럼 국가별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단일 과목 중심 진로교육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내 다양한 연계 구조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성과 측면에서 영국과 캐나다는 표준화된 기준에 기반한 자율 평가와 피드백 체계를 통해 관리하고 있었다. 영국은 Gatsby Benchmarks를 활용한 Compass 자가 평가, 외부 평가(OFSTED)와 연계된 공개 자료 기반의 진로교육 질 관리를 수행하고 있었다. 캐나다는 Benchmark 기반의 자기 평가와 실행 계획 템플릿을 운영하여, 각 학교의 정책 이행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돕는다. 핀란드는 정규 성적 평가보다는 과정 중심 피드백과 지도 중심 평가를 활용하여 학생 성장에 초점을 맞춘 진로교육 운영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진로교육에 있어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진로교육에 대한 양적 운영 실적에 대한 단순 평가를 넘어서 질적 성과와 자기주도성 중심의 평가로의 전환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영국은 고용주와의 만남, 직장 경험, 고등교육기관 방문 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었다. 캐나다는 지역 맞춤형 실습 프로그램과 산업체 협력을 기반으로 실천 중심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었으며, 학교-기업 간 협업, 실습·경험 중심 운영, 학생과 지역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제공에 강점을 보였다. 핀란드는 현장 견학, 멘토링 등 비교과 진로체험을 초·중고 전 과정에서 제공하여 단계별 진로체험 활동과 지자체 중심 창의체험을 통해 일-교육 연결을 체계화하고 있었다. 이는 지역사회와 산업체 연계를 통한 경험 기반 진로교육의 정착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운영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기반 진로 체험처 확충 또는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지역 기반의 다양한 진로 활동을 운영하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IV-17〉 주요국의 진로교육 정책 및 진로교육 교육과정 분석 종합 및 시사점

구분	영국	캐나다	핀란드	시사점
진로교육 추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7년 교육법 제42조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Province) 단위 교육법과 정책, CMEC의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교육법 및 관련 법령 고등학교법 및 관련 법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법령에 기반한 진로교육 운영
정책 주체 및 운영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 주도 학교별 Careers Leader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정부 중심, 학교 및 주 단위 자율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문화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 구분 학교급별 관할기관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 교육부 주도 진로교육 정책 운영 (핀) 학교급별 진로교육 관할기관 세분화
핵심 정책/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 학교에 대한 법적 의무와 운영 지침(Career Strategy(2017))을 규정 Gatsby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전환 벤치마크(Student Transition Benchmark)를 통해 진로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의 질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진로)지도 법적 근거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본법 11조 - 고등학교법 25조, 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법적 의무와 운영 지침 또는 표준 설정 (영) 진로교육 표준과 학교

구분	영국	캐나다	핀란드	시사점
	Benchmarks 제시 - 학교 진로교육의 표준 설정	기준과 성과지표 제시		평가 기준의 연계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과목에서 진로연계 강조 진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 통합적 진로교육 운영을 주도할 담당자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과목에서 진로연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과목에서 진로연계 강조 일반교과 내 횡단적 역량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교과와 통합된 진로교육 운영 (영) 통합적 진로교육 운영을 주도하는 담당자(교원) 배치
	각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 과목으로서 진로 교과 운영 다른 과목을 통한 진로교육 연계 비교과 활동 등을 통한 진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련의 과정 중심 진로교육 강조 정규 교육과정 내 통합 필수 교과목으로 진로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 교과목으로 진로교육 운영 국가 및 지자체에서 개설하는 선택 과목으로 운영 일반교과 내 범교과 주제 반영 비교과 학교급 단계별 진로체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핀) 다양한 형태로 학교급별 진로교육 체계화 (핀) 학교급 단계별 진로체험 활동 제공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츠비 벤치마크 기반 자율 평가(Compass 도구 활용) 외부(Ofsted)평가 연동, 프로그램 웹공개 등 커리어 리더를 통해 학교 진로교육의 전문성과 지속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치마크 기반 자율 평가 및 개선 - Student Transition Benchmark(학생 전환 벤치마크)를 실행할 수 있는 평가 및 실행계획 도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평가의 일환으로 진행 - 단, 진로교육 과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적평가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 캐) 성과지표를 통한 평가 실시 (영, 캐) 표준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학교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프레임워크 제공 (영) 커리어 리더를 통해 학교 진로교육의 전문성과 지속성 보장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주 만남, 일 경험, 고등교육기관 방문 등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지역사회-산업체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한 경험 중심 진로교육 운영 모든 학생 대상 실습 및 현장 학습기회 제공 학생의 흥미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실습, 경험 중심 프로그램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한 초, 중, 고 단계별 진로체험 - 현장견학, 일터체험, 멘토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캐) 적극적인 학교와 기업 간의 협업 추진 및 지원 (캐) 실습·경험 중심 진로교육 제공 (캐) 지역·학생 맞춤형 유연성 강조

V.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1.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

가. 내부 연구진 회의

각 장별 시사점을 바탕으로 내부 연구진 회의를 통해 도출한 진로교육 교육과정 발전 방향 초안은 <표 V-1>과 같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발전 방향 초안은 총론, 각론 등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성과,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네 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의 총론 내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관련 제도인 고교학점제, 진로연계 교육, 교과연계 진로교육,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등의 발전 방향을 포함하였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하여, 먼저 총론 영역에서는 진로교육을 교과와 연계하여 교육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강조되었다. 초·중등 교과 내 진로 관련 성취기준을 명시하고, 고교학점제 운영 지침에 진로교육 요소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자유학기제, 범교과 학습주제, 집중학년·학기제 등을 통해 진로교육의 다양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총론 수준에서 설정된 방향이 실제 각론 개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교차 검증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각론에서는 ‘진로와 직업’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내 진로활동 간의 차별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발달단계에 맞는 성취기준 마련과 맞춤형 자료 보급이 강조되었다. 이는 학년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접근을 통해 진로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성과와 관련하여서는 진로교육의 성과지표 마련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등 진로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학교 차원의 진로교육 협의체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와 「진로교육법」 개정이 핵심이다. 먼저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과 같은 정책 추진 체계와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연계, 진로전담교사의 배치 확대, 진로교육 협의회의 구성·운영, 진로체험 지원센터의 전문성 제고 등 진로교육 실행력 강화를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함에 따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장과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강화 및 교사 양성과정에 진로발달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진로교육법」과 관련하여 진로교육 교육과정 역할 주체 및 성취기준 개발 시기 등의 근거 규정 명시 등의 발전 방향 초안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진로교육 교육과정 발전 방향 초안은 진로교육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 워크숍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연구진이 제시한 발전 방향 항목들 중 <표 V-1>에서 쟁점 사항으로 꼽힌 발전 방향은 워크숍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예를 들어, 초·중등 교과 내 진로교육 성취기준 반영, 고교학점제 내실화를 위한 교과 운영지침 마련,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확대 및 배치 논의, 학교 진로교육 거버넌스 강화, 지역사회 연계 강화,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등은 교육 현장의 실제 적용 가능성과 제도적 연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는 진로교육 정책이 총론부터 현장 실행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이다.

〈표 V-1〉 진로교육 교육과정 발전 방향(안)

영역		진로교육 교육과정 발전 방향(안)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교과 내 진로교육 관련 성취기준 반영* • 고교학점제 내실화를 위한 교과 운영 지침 마련* • 진로연계교육과 교과연계 진로교육의 관계* • 자유학기제를 통한 진로교육 실효성 강화*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확대* •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시 진로교육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 총론 수준의 논의가 각론 개발 과정에 반영되었는지 교차 검증 필요 • 초등학교의 학년별 특성(진로발달단계)을 고려하여 성취 기준 마련 •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급, 학년별(저/중/고학년)로 목표 및 성취기준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기준 명시
	각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내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내용 차별화* • 초등학교 학년별 진로발달단계 맞춤형 자료 개발 및 보급*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 성과지표 마련* • 학교급별 연속성 있는 진로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 단위 학교의 진로교육 자율성 확대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 일반교사 대상 진로교육 연수 강화* • 「진로교육법」 내 진로교육 교육과정 관련 역할 주체 재정립* • 「진로교육법」에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에 대한 개발 시기 등의 근거 제시* • 초등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논의 • 교사 양성 과정에서 진로발달단계 등 진로교육 관련 내용 추가 •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교육과정의 연계성 강화 • 연속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역 내 초·중등학교급 간 교사협의회 운영 •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 • 학교 단위 교육과정 협의회 내 진로전담교사 참여 강화 • 학교 진로교육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필요 • 진로체험지원센터 중심의 협의회 활성화 • 진로체험지원센터 담당자 전문성 확보

주) * 표시: 워크숍 쟁점으로 제시된 진로교육 교육과정 발전 방향(안)

나. 전문가 워크숍

진로교육 교육과정 발전 방향 초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참석한 전문가는 진로교육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그리고 현장 진로교육 전문가였다. 워크숍을 통해,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실질적 효과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다. 핵심 쟁점에 따른 워크숍 의견은 〈표 V-2〉와 같으며, 핵심 쟁점의 주요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총론 측면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진로교육 성취기준이 대부분의 교과에 포함되어 있으나, 진로연계교육 등 다양한 지침과 제도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교과별로 진로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고교학점제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진로 과목의 2학점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서 1학기 중심의 미니과목 형태로 운영하거나 고시 외 과목으로 구성하는 대안이 제안되었다. 또한 진로연계교육과 교과연계 진로교육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어, 진로연계교육이 상위개념임을 분명히 하여 개념적 논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자유학기제의 실효성과 관련하여서는 적정 운영 시기를 1학년 1학기yo 설정하며, 중학교 전체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진로상담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과 진학지도까지 포함한 진로전담교사의 포괄적 역할 수행이 요구되며, 이에 맞는 직무 정의와 양성과정 내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학업설계 지원을 명확히 포함하는 방향으로 직무 규정이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진로전담교사 양성과정에서 관련 역량 강화를 포함해야 하며, 행정적 업무와의 구분 또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시에는 진로전담교사, 산업체 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안되었다.

아울러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의 각론과 관련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내에서의 진로활동은 진로교과와 주제, 내용, 방법 측면에서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시수 감소로 인해 단회성 체험활동에 그치는 경향이 있어 방법론적 차별화를 통해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초등학교 학년별 진로발달단계 맞춤형 자료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진로교육 명칭을 ‘진로와 삶’ 과 같이 포괄적인 표현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진로교육 운영 가이드가 부족하므로, 발달단계에 따른 구체적 자료와 실천 방안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강조되었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성과 측면에서는 진로교육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교 평가나 학교알리미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진로교육 필수 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반영하는 성과지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학교장과 일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연수도 강화되어야 하며, 교사들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학부모의 공감대 형성도 진로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강조되었다. 「진로교육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진로목표와 성취기준의 개발 시기와 역할 주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에 더해 워크숍 추가 의견으로 진로교육 관련 제도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일관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진로교육 관련 교육 내용의 위계와 역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청사진이나 시각 자료를 제공하여 체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표 V-2〉 진로교육 교육과정 발전 방향(안)별 워크숍 주요 의견

발전 방향(안)		워크숍 주요 의견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총론)	초·중등 교과 내 진로교육 관련 성취기준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는 진로교육이 반영되어 있으며, 초·중·고 대부분의 과목에 최소 하나 이상의 관련 성취기준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됨. • 학교에서 구현해야 할 성취기준에 진로교육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진로연계교육 등 다양한 지침 및 제도에서 성취기준을 일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어려움. • 학교 현장에서 진로교육을 교과별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는 지침이 제시되면 좋을 것 같음. 교과 자체에 진로교육 성취기준을 넣는 것은 요즘 시대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고교학점제 내실화를 위한 교과 운영 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년 과목이 수능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요 과목 단위 수를 줄이는 것이 부담스러움. 또한, 고교학점제나 과목 선택으로 진로 학점을 이수하는 상황에서 상대평가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시로 대학에 많이 진학하는 현실에서 진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반대 의견도 존재함. •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모든 과목을 한 학기 내에 끝내야 하는 상

발전 방향(안)	워크숍 주요 의견
고교학점제 내실화를 위한 교과 운영 지침 마련	<p>황에서 ‘진로와 직업’ 을 2학점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에 미니과목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최근 고시 외 과목을 개발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으며, 고시 외 과목을 없애고 1학점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방식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와 직업’ 과 같은 교양 과목을 2학점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하지만, 2학기에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상황이므로, 1학기 동안 진로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제언사항에 미니 과목(고시 외 과목)에 대한 내용을 추가 필요, 2학점짜리는 1학기 운영하고, 2학기는 운영 안하게 됨. 2학기보다는 1학기에 운영하여 미니 과목으로 운영하는 방안 제언에 제시해주었으면 함.
진로연계교육과 교과연계 진로교육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연계교육과 교과연계 진로교육의 개념 및 범위 혼동 존재 • 진로연계교육은 ‘교과연계 진로교육’ 을 포함하는 개념임.
자유학기제를 통한 진로교육 실효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운영 시기) 비교적 입시에 적은 영향을 주며, 자유학기제를 통해 앞으로의 진로 방향을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1학년 1학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함. • (실효성 제고 방안) 학기제로 전환되면서 예산이 축소되어 학교 내에서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동일한 진로체험처를 반복 방문하면서 유사한 체험만 이루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지역과 학교별로 자유학기제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음. 자유학기제 활동이 2학년과 3학년 활동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적음. 이에 자유학기제 내용을 다른 학년과 어떻게 연계할지, 중학교 전반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관련 청사진이 필요함.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진로전담교사는 진로상담에만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교육과정이나 진학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경우가 있음. 그러나 진로전담교사에게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진학지도 역할도 요구됨. 이러한 필요성은 한 학교에 최소 한 명 이상의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뒷받침함. • 많은 학교에서 고3 부장이 진학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진로전담교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진로전담교사의 양성과정에서 관련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 • 학업설계 업무를 수행하려면 대입 및 진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진로전담교사가 학업설계는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진로전담교사의 직무에 “학업설계 지원”이라는 표현을 명확히 포함하고, 학생 중심의 관점을 반영하여 이를 “학업설계 지도 지원”으로 표현할 수 있음. 이때,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학업설계와 관련된 행정업무는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시 진로교육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정 시, 현장(진로전담교사, 직업인, 미래전문가, 산업체 관계자 등)의 의견 반영이 필요함.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각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와 직업’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주체의 구분) ‘진로와 직업’ 과목은 진로전담교사가 담당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은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담임교사가 학업지도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해 진로활동을 지도함. • (‘진로와 직업’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구분)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필요한 역량을 다룰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제시하되, 각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진로교육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은 이미 차별화되어 있다고 느껴짐. • (‘진로와 직업’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방법의 구분) 창의적 체험활동의 실제 운영 시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자유학기제와 필수 운영 영역의 영향으로 1학기 당 창의적 체험활동의 실제 운영 시

발전 방향(안)		워크숍 주요 의견
		간이 약 4시간에 불과한 상황임. 이로 인해 체험활동이 단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방법론적 측면에서 차별성을 강조하여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초등학교 학년별 진로발달단계 맞춤형 자료 개발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의 경우 '진로와 삶' 과 같이 보다 포괄적인 표현으로 교육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초등학교에서는 진로교육 운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부재하여, 무엇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다룰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함.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성과	진로교육 성과지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평가나 학교알리미에 최소로 갖춰야할 진로교육 요소를 기록하게 하는 등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성과지표 마련 방향 제시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	학교장, 일반교사 대상 진로교육 연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사례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차별점은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접근하려는 체계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임. 교사들 모두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활동을 진로교육과 연계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음. 특히, 지난 4-5년 동안 꾸준한 역량 강화를 통해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해왔음. 자사고의 특성상 교사 변경이 적어 이러한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했음. 또한, 진로전담교사가 교육과정을 총괄하며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주요 성공 요인 중 하나임. 교사의 연수는 물론, 학부모의 공감 없이는 진로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도 중요한 요소임.
	「진로교육법」 내 진로교육 교육과정 관련 역할 주체 재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에서 국가진로교육센터 업무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정책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음.
	「진로교육법」에 목표 및 성취기준에 대한 개발 시기 등의 근거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교육법」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나, 진로목표와 성취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훈령 수준이 아닌 「진로교육법」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됨.
추가 의견	진로교육 교육과정 관련 제도의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로 제시되는 것은 편제표가 있고,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만큼 필수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필수와 선택의 영역에서 혼란이 존재함. 특히, 관련 자료가 여러 기관에서 별도로 제공되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 혼동이 발생함. 따라서 진로교육 관련 교육 내용의 위계와 역할을 명확히 나타내는 한 장짜리 청사진이나 시각 자료가 필요함. 진로교육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뿌리를 가지고, 각각의 기관에서 발송되는 공문이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진로교육의 전체적인 맥락과 일관된 시각 자료를 통해 체계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주)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의 경우 주요 의견 도출되지 않았음.

내부 연구진 회의를 통해 워크숍에 제시된 의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진로교육 교육과정 발전 방향(안)의 틀을 재구조화하고, 발전 방향과 발전방안을 수정·보완하였다. 재구조화한 진로교육 교육과정 발전 방향 틀은 <표 V-3>과 같이,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기존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성과' 영역을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으로 보완하여, 진로교육 교육과정 성과측정 및 관리를 위한 방향과 진로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주체인 학교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표 V-3〉 워크숍 이후 진로교육 교육과정 발전 방향(안)

영역		발전 방향(안)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고 교과 내에서 학교급, 학년별 목표 및 성취기준 차별화 기준 명시 총론 수준의 논의가 각론 개발 과정에 반영되었는지 교차 검증 필요 	
	진로연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연계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과별 진로교육 관련 성취기준 제시 및 운영방안 마련 	
	자유학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학기제 실효성 강화 	
	고교학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학점제 내실화를 위한 교과 운영 지침 마련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교과연계 진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연계교육과 교과연계 진로교육의 명칭 명확화 교과연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각론	초등 진로교육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년별 진로발달단계에 따른 진로교육 운영 내실화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내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내용 차별화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학교 이해관계자 대상 진로교육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이해관계자 대상 진로교육 연수 강화 학교 교육과정 협의회 내 진로전담교사 참여 강화 초등학교 학년별 진로발달단계 맞춤형 자료 개발 및 보급 	
	진로전담교사 역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교육과정 협의회 내 진로전담교사 참여 강화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교육 성과지표 마련 학교급별 연속성 있는 진로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협력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속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진로체험지원센터 주도의 지역 협력체계 강화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교육과정의 연계성 강화 학교 진로교육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필요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시 진로교육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진로교육법」 개정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교육법」 내 진로교육 교육과정 관련 역할 주체 재정립 「진로교육법」에 목표 및 성취기준에 대한 개발 시기 등의 근거 제시 「진로교육법」 내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확대 	

다. 학술세미나

진로교육 교육과정 발전 방향(안)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 이후, 초안의 타당도와 실행 가능성을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고, 정책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참석 전문가는 진로교육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그리고 현장 진로교육 전문가였다. 학술세미나는 앞서 내부 연구진 회의를 통해 도출한 진로교육 교육과정 발전 방향(안)의 세 가지 영역의 큰 틀에서 쟁점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의견은 <표 V-4>와 같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진로교육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 방식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먼저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의 총론과 관련하여, 성취기준의 구체화와 학교급 간 역할 분담의 명확화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진로교육의 성취기준을 범교과 차원에서 제시할 것인지, 혹은 정규 교과의 일부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 설정이 요구되었다. 특히 초·중·고 간 중복 방지와 체계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였다. 그리고 진로연계교육은 학교 교사 및 관리자 대상의 인식 전환과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기반을 강화해야 하며, 학생의 진로 특성과 검사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진로이수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교과연계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사범대 및 교대 내 필수 진로교육 교육과

정 도입, 영국의 Career Leader 모델을 활용한 전담교사 양성, 교사·관리자 통합 연수 등이 핵심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Action Learning 방식의 학교 문제해결 중심 연수는 실행 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또한,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제도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체계화할 필요도 제기되었다. 학교자율시간의 경우 초등학교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진로와 직업’ 과목 및 교과서 개발과 더불어, 교사 대상 연수 및 자료 배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시간을 활용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전면화 역시 제안되었다. 자유학기제 편성과 관련해서는 1학년 자유학기제-2학년 진로 교과-3학년 진로연계교육으로 이어지는 시스템화가 논의되었으며, 자기이해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3학년 1학기 개설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되었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전담교사의 학업설계 지원 역할 강화, 학생 맞춤형 진로트랙 운영, 유연한 인력 배치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 중심의 진로설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고교학점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진로전담교사가 단순한 운영자가 아닌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학생들의 진로 요구를 파악해 이를 기반으로 진로교과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서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인근 학교와 연계해 공동으로 진로교과군을 운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현재 각 학교에 1명씩 배치되는 진로전담교사의 수가 역할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복수 배치를 허용하는 제도적 유연성 확보와 외부 지원 전문 인력의 활용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었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는 운영이 형식화되고 실효성이 약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더불어서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의 각론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에서는 실과 교과를 포함한 다양한 교과 안에서의 통합 진로교육이 강조되었으며, STEM 교과에서 진로교육 연계도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등학교의 ‘진로와 직업’ 교과는 2학점 편성 기준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시 외 과목 개발이나 1학점 필수화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었고, 교사의 내용 선택과 집중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한 운영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는 진로교육 이해관계자 및 학교 밖 전문가 참여 확대, 모든 교사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 예비교원 양성과정 내 진로교육 필수화, 그리고 기초-심화-전문화로 구성된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성과와 관련하여서는 진로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성과 측정 및 피드백 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단위학교 수준에서 실질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개인별 평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며, Gatsby Benchmarks 기반 평가 도입이 효과적인 피드백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진로교육 성과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표 체계 및 현황 진단 도구의 마련도 요청되었으며, 법령 차원에서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의 개정 주기와 개발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합의적 의사결정 구조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요구되었다.

마지막으로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도출되었다. 다양한 제도의 병행 운영으로 인한 현장의 피로감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진로전담교사 중심의 안정적인 운영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지역사회 연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학교 밖 민간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고용서비스 기관의 직업상담사와 함께 진로교육을 설계·운영하는 체계가 제안되었다. 특히 예산 지원과 검증된 프로그램의 도입이 진로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진로교육법」의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을 통한 5년 주기의 미래지향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표 V-4> 진로교육 교육과정 발전 방향(안)별 학습세미나 주요 의견

구분	쟁점	주요 의견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초·중·고 교과에 진로교육 관련 성취기준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간 진로교육의 중복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급별 성취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범교과학습에서 진로교육을 제시하는 것, 교육과정으로서 진로교육의 성취기준을 제시하는 것 등 여러 관점 중 명확한 관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진로연계교육, 어떻게 내실화 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사와 관리자 대상의 인식 전환과 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함. • 학생의 개인 진로 특성 및 검사 결과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진로이수이력 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됨. • 창의적 체험활동 및 학교급별 중점 제도와 연계하여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상급학교 진학에 대비한 적응 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기존의 진로교육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교과연계 진로교육 내실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대, 사범대에서 필수적인 진로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 • 교과형 진로교육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영국의 Career leader 모델을 참고한 진로전담교사 양성 및 역량 강화 • 실행-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Action-Learning 중심의 교사와 관리자 통합 연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 관리자가 함께 참여하는 팀 기반 연수 - 학기당 1회(연 2회) 심화 워크숍 진행 및 월 1회 온라인 후속 모임 - 실제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중심 운영
	자유학기제,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년 자유학기제, 2학년 ‘진로와 직업’ 교과 교육, 3학년 진로연계교육으로 시스템화 • 충분한 자기이해 및 진로 고민을 거쳐 자유학기제를 통한 의미 있는 진로방향 탐색이 되도록 3학년 1학기 개설 제안 • 운영 학기를 명문화함으로써 진로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타 교과의 부실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고교학점제, 어떻게 내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 (고교학점제에서 진로전담교사의 학업설계 업무 수행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과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함. •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수가 요구됨. • 학생의 적절한 과목 선택을 돕기 위해 교사, 학교 및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담임교사와 진로전담교사는 촉진자이자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성공적인 고교학점제를 위한 진로전담교사의 리더 역할 필요 • 진로전담교사 주축으로 학생들의 진로 트랙별 요구조사를 기초하여 진로교과군을 개설(주변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공통 진로교과군 개설) • 진로 변경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학교당 1명 배치되는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확대를 고려하여, 학교장 재량에 따른 다수 배치의 유동적 제도 운영 필요(지원전문인력 활용)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강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의 운영이 형식화되고 실효성이 약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함.
총론	학교자유시간, 어떻게 진로교육과 연결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자유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초등 ‘진로와 직업’ 과목 및 교과서 개발 필요 • 학교 자유시간 내 진로교육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구성과 관련하여 교사 대상 연수 운영 및 자료 배포가 필요함. • 학교자유시간(학기별 1주 수업시간) 활용하여 모든 학교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구분		쟁점	주요 의견
	각론	실과를 통한 진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과 외 모든 교과 혹은 STEM 교과 내 교과연계 진로교육 필요
		‘진로와 직업’,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1학기 최소 2학점 편성이 요구되면서, 학교 현장에 부담이 가중됨. • ‘진로와 직업’ 1학점 필수화, 1학점은 고시외 과목으로 학생소사를 기반한 진로교과군에서 운영 필요 •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교사들이 내용의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재량을 보장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함.
		창의적 체험활동,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창의적 체험활동을 ‘창의로운 진로활동’ 이라 명명하고 하위 활동을 전달 방식(동아리/봉사/자율)으로 차별화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진로교육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교사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 필요 • 예비교원양성기관의 진로교육 필수화 • 기초-심화-전문화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실현 • 진로교육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학교 밖 전문가의 참여 확대 필요 	
	진로교육 운영성과, 어떻게 측정하고 피드백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평가 시스템 마련 시급 • Gatsby Benchmarks 기준에 의한 학교 평가-피드백 순환구조를 통한 단위 학교의 진로교육 질 향상 •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 및 틀 마련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지원 필요 • Gatsby Benchmarks 기준에 의한 검증된 민단 프로그램의 학교 진로서비스 개입 • 지역의 노동시장 정보, 기업의 요구 역량 등은 교사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지역 공공 고용서비스의 직업상담사와 협력하여 학교 진로교육을 계획·운영하는 체계가 필요 	
	「진로교육법」의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을 통한 5년 주기의 미래지향적 개정 필요 	

2. 진로교육 교육과정 기본 개선 방향

이 연구는 「진로교육법」 제정 이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디지털 대전환 및 인구 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혁신 방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문헌 분석, 심층 인터뷰(FGI), 국외 사례 연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삶과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자기 주도적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핵심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5대 기본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진로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메타 담론으로서 진로교육 교육과정 유형의 개념을 정의하고, 분류하고 위계를 정립하여 통합적 이해 방안을 마련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과 함께 고교 학점제, 진로연계교육, 학교자율시간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용어와 제도가 혼재됨에 따라 발생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진로교육 교육과정 유형에 대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이수방법과 학습제공방식에 따른 2x3 매트릭스를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층위를 ‘체제(system: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편성 영역(area: ‘진로와 직업’, 창체 진로활동)’, ‘운영 기제(method: 진로연계교육, 범교과 학습 등)’로 명확히 구조화한다. 이러한 분류 체계 정립은 진로교육이 단순한 체험 활동을 넘어 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운영 원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개념적 토대가 될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 총론 내 진로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유연한 운영 체제 구축 방안을 탐색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실현하기 위해, '진로연계교육'과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지침을 명료화하여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한다. 특히 진로연계교육을 학교급 전환기(초6, 중3, 고1) 학생들의 상급 학교 적응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필수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침으로 격상하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아우르는 통합적 편성을 유도한다. 아울러 범교과 학습 주제로서의 진로교육이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고 각 교과 교육과정의 설계 원리로 작동하도록 총론 차원의 근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셋째, 학교급별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 각론 내 진로교육 내용 체계를 계열화하고 내실화 방안을 탐색한다. 초등학교의 진로 인식, 중학교의 진로 탐색, 고등학교의 진로 설계 및 실천으로 이어지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 '진로와 직업'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실과를 비롯하여 교과 내 진로 요소를 강화하여 조기 진로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중·고등학교 간 내용 중복을 해소하여 고교 단계에서는 심화된 진로 학업 설계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재구조화한다. 이는 활동 중심의 흥미 유발을 넘어 실질적인 진로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넷째, 데이터 기반의 성과 관리 및 환류 시스템 중심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개선 방안을 탐색한다. 진로교육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단순 만족도 조사를 넘어 학생의 진로 활동 이력을 초등부터 고등까지 누적 관리하는 진로이수이력 관리 시스템(IPP)을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영국의 개츠비 벤치마크(Gatsby Benchmarks)와 같은 학교 진로교육 성과 지표를 개발하여 단위 학교가 스스로 진로교육의 질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한다. 아울러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양성 및 연수 과정을 개편하여 모든 교사가 진로 멘토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다섯째, 국가-지역-학교를 잇는 협력적 진로교육 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진로교육의 기획과 운영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및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 협력 하에 이루어지도록 법적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한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의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고시 권한을 실질화하고,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진로교육 생태계를 조성 방안을 탐구한다. 학교 내에서는 진로전담교사를 중심으로 교과 교사와 담임 교사가 협력하는 진로교육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탐구한다.

3.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여기서는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진로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메타 담론을 통해 진로교육 교육과정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가진 함의와 방향을 고찰하였다. 이후 진로교육 교육과정에서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세부방안을 총론 및 각론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 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념체계 및 운영 위계의 재구조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진로연계교육의 도입,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 학교자율시간의 신설 등을 통해 진로교육의 외연을 종전보다 크게 확장하였다. 실제로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는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진로와 직업」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학교자율시간, 진로연계교육, 교과연계 진로교육, 범교과학습주제(진로교육) 등 다양한 유형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유형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요소는 동일한 수준의 개념이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 제도, 공식 편성 영역, 운영 기제 및 교수·학습 방식 등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작동하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 유형의 성격을 비교·분석하고, 그 위에서 상호 관계와 위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진로교육 유형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진로교육 교육과정 관련 용어의 범주, 핵심 목표, 법적 근거, 운영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각 유형의 성격 차이를 확인한다. 둘째, 진로교육 교육과정 유형을 학생의 이수방법과 학교의 학습운영방식의 관점에서 재배치하여, 진로교육이 실제로 어떤 형식으로 제공되는지를 유형화한다. 셋째, 이러한 비교와 유형화를 바탕으로 9가지 진로교육 교육과정 유형을 ‘교육과정 운영 제도-교육과정 내 공식 편성 영역-운영 기제 및 방법’의 위계로 재구조화한다. 이와 같은 전개는 단순한 용어 정리에 그치지 않고, 관련 요소를 어느 수준에서 다루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이후 총론 및 각론의 개선, 운영 지원, 성과관리, 거버넌스 정비를 위한 개념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진로교육 유형은 그 범주와 운영 특징에 따라 성격이 서로 다르다. 고교학점제와 자유학기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교육 체제로 이해될 수 있고,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는 특정 시기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에 해당한다. 반면 「진로와 직업」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학교자율시간은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비교적 명시적으로 편성되는 공식 영역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진로연계교육, 교과연계 진로교육, 범교과학습주제는 교육과정 요소를 연결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운영 기제 또는 교수·학습 원리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진로연계교육은 전환기 적응과 학습 연속성 지원이라는 목적을 가진 상위의 운영 기제로 이해될 수 있으며, 교과연계 진로교육은 그 하위에서 개별 교과 수업 속에 진로교육 요소를 통합하는 구체적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연계 진로교육이 진로연계교육의 하위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이전 시기까지 독자적인 진로교육 교육과정 유형으로 논의되어 온 맥락이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비교가 필요한 이유는 진로교육 관련 용어들이 같은 수준의 개념처럼 병렬적으로

제시될 경우, 총론 차원의 운영 원리와 학교 교육과정의 공식 편성 영역, 그리고 수업 실행 방식이 서로 혼재되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진로연계교육은 전환기 학생 지원과 학습 연속성 확보를 위한 운영 기제이지만, 이를 독립 교과나 별도 편성 영역처럼 이해하면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와 편성, 실행 간의 관계를 혼동할 수 있다. 반대로 교과연계 진로교육은 개별 교과 수업 안에서 진로 요소를 실현하는 하위의 실행 방식에 가깝는데, 이를 총론 수준의 운영 원리와 동일한 수준에서 이해하면 그 기능과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표 V-5>는 각 용어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그리고 어느 수준의 요소인지를 분명히 해 주는 설명적 출발점으로 기능한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시된 9가지 유형의 성격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는 데 있다.

<표 V-5>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진로교육 교육과정 용어 비교 분석

용어	범주	핵심 목표	법적 근거	운영 특징
고교학점제	거시적 교육 체제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인화	초·중등교육법	학생의 과목 선택 및 학점 누적 기반 졸업
자유학기제	거시적 교육 체제	시험 부담 완화, 참여형 수업 및 진로 탐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중학교 한 학기 집중 운영, 과정 중심 평가
진로교육 집중학년 · 학기제	특정 목적의 체제	특정 시기 진로교육 활동 집중 실시	「진로교육법」	기존 교육과정 요소(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 활용
‘진로와 직업’ 교과	교육과정 내 공식 편성 영역	체계적 진로 지식 및 기능 제공	국가 교육과정 각론	중·고등학교 선택과목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교육과정 내 공식 편성 영역	자기 이해 기반 진로 설계 및 준비 역량 함양	국가 교육과정 각론	초·중·고 의무 편성, 교과 외 활동 시간
학교자율시간	교육과정 내 공식 편성 영역	학교 자율성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국가 교육과정 총론	초(3-6), 중학교 도입, 학교가 내용 구성
진로연계교육	특정 목적의 정책	상급학교 전환기 적응 및 학습 연속성 지원	국가 교육과정 총론	초6, 중3, 고3 2학기 등 전환기 집중 운영
(교과연계 진로교육) ⁴⁾	교수학습 방법론	교과 학습과 진로 탐색의 통합	국가 교육과정 총론	정규 교과 수업 내에서 교사의 재구성으로 실현
범교과학습 주제 (진로교육)	교수학습 방법론	주제 중심의 교과 간 통합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교육 법 시행령 국가 교육과정 총론 	특정 주제에 국한되지 않는 상위의 교수학습 원리

이 연구의 실태조사나 요구조사 결과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진로교육 관련 용어와 제도가 혼재되어 운영상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각 요소 간의 역할 중복이나 연계 부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진로와 직업’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학교자율시간, 진로연계교육, 교과연계 진로교육, 범교과 학습주제 등 총 9가지의 주요 진로교육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이들을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는(MECE: 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 체계로 편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를 평면적으로 나열하기보다 매트릭스 구조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4)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연계 진로교육은 진로연계교육의 하위 요소이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 전까지 독자적인 진로교육 교육과정으로 논의되어 왔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맥락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진로연계교육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논의하기도 함.

다양한 진로교육 교육과정 유형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수방법과 학습제공 방식 등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다양한 유형들을 이수 방법과 학습제공 방식에 따라 2x3 매트릭스 분석을 시도한 결과는 <표 V-6>과 같다.

<표 V-6>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이수방법과 학습운영방식에 따른 2x3 매트릭스

구분	교과	혼합	비교과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학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교과학습주제(진로교육) 자유학기제 학교자율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 활동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와 직업’ 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연계교육(교과연계 진로교육)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

<표 V-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이수방법과 학습운영방식에 따른 2x3 매트릭스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이수방법은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고, 학습 운영 방식은 교과, 비교과 그리고 혼합(교과 + 비교과)로 설정하여 매트릭스를 작성해 본 것이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유형들은 고교학점제처럼 필수로 이수되는 유형이 있고 ‘진로와 직업’ 처럼 선택으로 이수되는 유형도 있다. 또한 ‘진로와 직업’ 처럼 교과 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창체 진로활동처럼 비교과로 운영되는 유형도 있다. 그리고 진로연계교육처럼 교과와 비교과 어느 형태로든 운영되는 유형도 있다.

<표 V-6>은 이와 같이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이수방법과 학습운영방식에 따라 매트릭스를 작성해 본 것이다. 그림의 좌상단의 ‘필수·교과 영역’에는 고교학점제가 있고, 좌하단의 ‘선택·교과 영역’에는 중고등학교에 선택으로 개설 되어 있는 ‘진로와 직업’ 교과가 있다. 우상단의 ‘필수·비교과 영역’에는 창체의 진로활동이 있다. 가장 많은 것은 교과와 비교과 모두를 포함하는 진로교육 교육과정 유형이다. 중상단의 ‘필수·혼합 영역’에는 범교과학습주제(진로교육), 자유학기제 및 학교자율시간이 있고, 중하단의 ‘선택·혼합 영역’에는 진로연계교육,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가 있다.

필수교과인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교육과정 이수의 전제가 되는 필수적 운영체계이자 학점(교과)을 단위로 하므로 필수적으로 이수되어야 하는 교과로 분류할 수 있다. 필수이면서 혼합(교과 + 비교과)인 자유학기제와 학교자율시간은 교과 수업이나 비교과 활동으로 이루어지거나 둘이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필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자율시간은 교과와 창체를 융합하여 구성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자율시간을 이용하여 중등의 ‘진로와 직업’의 축소판인 초등용 ‘진로와 직업’ 교과를 개발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선택이면서 혼합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유형은 진로연계교육이다. 진로연계교육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되었으나 진로연계교육의 하위 요소로 볼 수 있는 교과연계 진로교육은 교과형식으로 운영될 수 있고, 학교급 연계를 위한 활동은 비교과 형식의 체험활동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진로교육 교육과정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냐 아니면 선택적으로 해야 하는냐 그리고 이수해야 할 내용이 교과이냐 아니면 비교과냐 또는 교과와 비교과를 통해 이수하거나 교과와 비교과 모두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진로교육 교육과정을 적용할 때는 진로교육 내용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단위학교나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미리 기획한 후에 실행할 필요가 있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유형에 대한 비교와 유형화를 바탕으로, <표 V-7>에서는 진로교육 교육과정 유형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9개 유형을 평면적으로 분류하기보다 위계적 구조로 재구조화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각 유형을 성격에 따라 단순 병렬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상위의 운영 체제를 형성하고, 무엇이 학교 교육과정 안의 공식 편성 영역을 이루며, 무엇이 이를 실제로 연결하고 구현하는 운영 기제와 방법으로 기능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유형들은 교육과정 편제상 위계에 따라 분류해 보면,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교육과정 전체를 규정하는 ‘거시적 제도(system)’으로 분류할 수 있는 유형, 구체적인 ‘교육과정 편성 영역(area)’으로 분류할 수 있는 유형, 그리고 실제로 연결하고 구현하는 ‘운영 방법(method)’으로 분류할 수 있는 유형이 있다. 이들 진로교육 교육과정 유형들을 위계에 따라 분류해 본 결과는 다음 <표 V-7>과 같다.

<표 V-7> 진로교육 교육과정 위계에 따른 분류

구분	해당 용어	설명
제1층위: 교육과정 운영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틀 또는 특정 기간의 집중 운영을 규정하는 정책 교육 활동이 일어나는 ‘환경’ 또는 ‘규칙’을 설정함.
제2층위: 교육과정 내 공식 편성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와 직업’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학교자율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되어 학교 시간표에 공식적으로 배정되는 교과 또는 활동 시간 진로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제공함.
제3층위: 교육과정 운영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연계교육(교과연계 진로교육) 범교과학습주제 중 진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시간이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과정의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하여 특정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 또는 ‘접근법’

제1층위는 교육과정 운영 제도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유형은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이다. 이들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환경과 시간 구조, 학생 경험의 제도적 틀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가장 상위 수준에 놓인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과 학점 누적을 기반으로 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체제이고,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참여형 수업과 진로 탐색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적 장치이며,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는 특정 학년 또는 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제도이다. 이들은 진로교육 내용을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진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어떤 구조 속에 놓일 것 인지를 규정하는 상위의 조건을 형성한다. 따라서 이 수준에서의 과제는 제도 간 정합성 확보, 적용 범위의 명확화, 학교급별 운영 원리의 조정에 있다.

제2층위는 교육과정 내 공식 편성 영역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유형은 「진로와 직업」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학교자율시간이다. 이들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직접 경험하는 명시적 편성 단위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진로와 직업」은 진로 관련 개념과 탐색, 설계와 실천을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이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은 체험과 참여, 탐색 중심의 활동 영역이다. 학교자율시간은 학교가 학생과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공식 편성 영역으로, 필요에 따라 진로교육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이 된다. 이 수준의 핵심 과제는 각 영역의 역할을 중복 없이 분화하고, 학교급별 발달 단계에 맞게 구조화하며, 필수성과 선택성의 균형을 조정하는 데 있다. 특히 「진로와 직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학교자율시간은 모두 공식 편성 영역이지만 교육적 목적과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상호 대체가 아니라 역할 분담과 연계를 원칙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두 번째 영역은 교육과정 내 공식 편성 영역이다. ‘진로와 직업’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학교자유시간은 학교 시간표에서 공식적으로 배정되는 교과 또는 활동시간으로 진로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세 번째 영역은 교육과정 운영 방법이다. 교과 연계 진로교육을 포함한 진로연계교육이나 범교과 학습주제 중 진로교육은 교육과정 운영 방법론으로 교사가 교과 수업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 모든 교육 활동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이다. 이처럼 진로교육 교육과정을 제도, 편성 영역, 운영 방법으로 구분하면 복잡한 진로교육 교육과정 유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갖게 된다.

제3층위는 운영 기제 및 방법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유형은 진로연계교육, 교과연계 진로교육, 범교과학습주제이다. 이들은 독립된 제도나 공식 편성 영역이라기보다, 제1층위와 제2층위에서 마련된 구조를 실제로 연결하고 구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하위 수준에 위치한다. 진로연계교육은 학교급 전환기 적응과 학습 연속성 확보를 위한 상위의 운영 기제로서, 학교 교육과정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소를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연계하고 재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교과연계 진로교육은 그 하위에서 개별 교과 수업에 진로교육 요소를 통합하여 실현하는 실행 방식으로 기능한다. 범교과학습주제(진로교육)는 특정 교과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교과와 활동을 통해 진로교육을 확산·통합하는 교수·학습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수준의 핵심 과제는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방향이 실제 수업과 활동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운영 지침, 교원 연수, 지원 자료, 학교 협의 구조를 정비하는 데 있다. 특히 진로연계교육과 교과연계 진로교육의 관계를 상위 기제와 하위 실행 방식의 관계로 이해할 때, 두 유형을 중복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보다 정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위계화는 9가지 유형을 단순히 서열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유형이 진로교육 교육과정 안에서 어떤 수준의 기능을 담당하는지를 구분함으로써, 이후 개선방안을 보다 적절한 수준에서 설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1층위의 문제는 범·제도와 총론 수준의 정비를 통해 접근해야 하고, 제2층위의 문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비교과 구조 재설계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제3층위의 문제는 운영 지침, 수업 설계, 교원 지원과 같은 실행 조건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위계 구분이 있을 때, 진로교육 관련 요소를 동일한 수준에서 병렬적으로 다루는 혼선을 줄일 수 있으며, 각 개선과제가 어느 수준의 정책적 개입을 요구하는지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와 같이 진로교육 교육과정 유형의 개념적 성격 비교, 매트릭스 분석 및 위계 분석은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논리적 흐름을 구성한다. 9가지 진로교육 교육과정 유형의 개념적 성격 비교는 현행 용어의 지형을 설명하는 단계이고, 매트릭스 분석은 이들 유형이 학생의 이수방법과 학교의 학습운영방식 속에서 어떤 조합으로 작동하는지를 분석하는 단계이며, 위계 분석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9가지 유형을 교육과정 운영 제도, 공식 편성 영역, 운영 기제 및 방법의 위계로 재구조화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3단계 접근은 단순 중복 분석이 아니라, 개념 비교에서 유형 분석으로, 다시 정책 설계 수준의 위계 정립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진로교육 개념 체계와 운영 위계의 재정립하는 과제는 이후 총론 및 각론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운영 지원, 성과관리,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보다 정합적이고 실행 가능하게 설계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볼 수 있다.

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방안

1) 교육과정 총론 일반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방안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가 운영해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것이다(교육부, 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는 (1) 교육과정의 성격, (2)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3)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4)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 (5) 학교 교육과정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맞는 학습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및 교육과정 자율화 및 분권화 요구를 배경으로 하며, 교육의 기본 설계도이자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적 기준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교육과정의 핵심 비전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육성하는 것으로, 추구하는 인간상 중 첫 번째가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이며, 이는 자기관리 역량(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는 능력 포함)을 핵심 요소로 하여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함양하도록 설계되었다.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있으며, 이는 학교 교육과정의 개념을 단순한 교과목을 넘어선 학습 경험의 종합적인 설계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교사에게 교육과정의 개발자 및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학교 교육과정 설계의 기본 원칙은 학생 실태와 요구, 학교 여건, 학부모 의견 및 지역사회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교수·학습에서는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한 학습 활동의 다양화와 정보통신기술(ICT) 및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 및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탐구 질문 활용 수업, 삶과 연계된 실생활 맥락에서의 학습 기회 확대를 강조하고, 평가는 학습의 결과만이 아니라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학습 과정을 확인하고 환류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며 자기 성찰 및 개선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함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급별 진로교육 편성에서는 진로교육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명시하였다.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데 중점을 두며, 보통교과의 선택과목을 진로 선택과목(교과별 심화 학습 및 진로 관련 과목)과 융합 선택과목(주제 융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으로 세분화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력단위를 토대로 전공 실무 과목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전문 교과 과목은 필요시 진로 선택과목 또는 융합 선택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또한, 학교는 학교급 전환 시기(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및 졸업 직전 3학년 2학기 등)에 학교생활 적응, 교과 학습 연계,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연계교육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과정 총론의 실효성 확보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진로교육의 핵심 목표인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가 입시 중심의 현실과 충돌할 경우, 진로 선택과목의 본래 취지보다는 대학입시의 유불리에 따른 도구적 선택으로 전략할 위험이 상존한다. 둘째, 진로연계교육의 운영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자율적 운영에 의존하면서, 교육 활동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학교급 간 진로교육의 체계적인 연계성 및 강제성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교원 수급, 시설 확보, 유연한 학습 공간 조성,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되었으나, 농산어촌 학교나 소규모 학교와 같이 인적·물적 자원이 제한된 학교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고 강제적이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진로 선택 기회에 교육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진로교육 요소의 제도적 위상을 강화하고, 모든 학교급과 지역에서 학생들의 진로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 지원의 충분성 및 의무화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지원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기적인 평가와 질 관리 노력을 지속하고, 교원들의 교육과정 설계 및 교수·학습, 평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교육 내실화 방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기제인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교육 체제의 전환은 진로교육이 단순한 상담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토대가 됨을 시사한다. 여기서는 고교학점제 하에서의 진로교육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 실행 전략 및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 고교학점제와 연계된 진로교육은 여러 구조적 한계와 현장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 입시 제도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해 학생 중심의 진로 설계라는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진정한 흥미나 적성을 탐구하기보다 대입 전형에서의 유리함을 따져 전략적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등학교 진로교육은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본연의 기능보다 진학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전략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면에서도 현실적 제약이 뚜렷하다. ‘진로와 직업’ 교과는 학점제 환경에서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대입 필수 교과 시수 확보 경쟁에 밀려 편성이 축소되거나 기피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기 단위 운영 원칙(학기당 2학점 이수)은 기존의 1년 단위 교과서 체제와 불일치하여 현장의 수업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교사 수급 문제로 인해 학생이 희망하는 소인수 과목 개설이 어렵고, 공동 교육과정 역시 수강 신청 경쟁이 심화되어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인적 자원 및 조직적 측면에서도 개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전담교사에게 단순한 상담을 넘어 학생의 학업 경로를 관리하는 ‘학업 설계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요구하지만, 현재 이들의 직무는 행정 업무에 치중되어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다. 진로전담교사가 교원 정원 내(TO)로 운영되면서 타 교과의 수업 시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도 지적된다. 아울러 진로부와 교육과정부, 학년부 간의 협력이 비정기적이거나 개인 역량에 의존하고 있어 학생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실행 전략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유연화와 체계화이다. 먼저 ‘진로와 직업’ 교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거나 별도의 진로 교과군을 신설하여 정규 교육과정 내 확고한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학기제 원칙에 맞추어 1학점 단위의 ‘미니 과목’ (예: 1학기 진로와 학업 설계, 2학기 ‘진로와

직업’ 탐구)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1학년 초기부터 체계적인 학업 설계를 지원하면서 학교의 편성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또한 핀란드의 ‘횡단적 역량’이나 영국의 ‘개츠비 벤치마크’ 사례를 참고하여 모든 일반 교과 성취기준 내에 진로 요소를 내재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국어, 수학 등 일반 교과 수업 속에서 학업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진로와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교과별 진로 연계 가이드라인과 교수·학습 자료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두 번째 전략은 전문 인력의 역할 재정립과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이다.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을 기존의 활동 운영자에서 학교 진로 전략을 총괄하는 ‘교육과정 코디네이터’ 및 영국의 ‘커리어 리더(Career Leader)’ 모델로 격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진로전담교사의 직무 규정에 ‘학업 설계 지도’를 명문화하고, 이들이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진로 요구를 실제 과목 개설에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진로전담교사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전문적 지도를 보장하기 위해 대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인력을 추가 배치하거나 정원 외(TO)로 운영하는 인사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학교 내에서는 진로·교육과정·진학 담당자가 참여하는 ‘(가칭)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을 제도화하여 유기적인 협업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위한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의 역할 예시는 <표 V-8>과 같다.

<표 V-8>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위한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 역할 예시

구분	역할	세부 내용
교육과정부장 연구부장 교과부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선택 지원 학생 및 교사 연수 컨설팅 요청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택과목 및 수강 신청 안내 자료 제작 학교 외 강좌 이수 경로 안내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 교육과정 전문성 향상 교사 연수 기획·운영
진로전담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 선택 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학업 관련 심리검사 실시 진로·학업 상담을 위한 각종 연수 및 정보 지원 진로 및 학습 문제 심층 상담 학업 계획 수립 및 진로 연계 교과목 선택 제안
학년부장 담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학업 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진로상담 및 과목 선택 기초 상담과 지도 학업 계획 수립 및 실천 지도
상담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정서적 심리 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의 대인 관계 향상 자문 학생 개인 심화 상담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서. 교육부.

세 번째 전략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원 시스템인 진로이수이력 관리 시스템(IPP, Individual Pathways Plan)의 구축이다. 학생의 적성, 심리검사 결과, 학업 이력, 진로 활동 등을 초·중·고 전 과정에 걸쳐 누적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AI 기반 플랫폼이 시급하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IPP 사례처럼 학생 개인이 자신의 학습 경험을 데이터화하고 성찰하도록 하여 맞춤형 과목 추천 및 상담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이는 교사의 상담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면서도 학생 스스로 주도적인 학업 경로를 구축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거시적 정책 제언이다. 첫째, 정책 결정자는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진로연계교육 등을 ‘자기주도적 진로 역량 함양’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 관리하는 상위 정책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한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의 진로 탐색 과정과 과목 이수 이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입 제도 개편 논의를 지속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본질적 회복을 꾀해야 한다. 셋째, 지역 대학의 RISE 사업 및 지역 산

업체와 연계한 개방형 진로교육 생태계를 조성하여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실질적인 직업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이러한 다층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결합될 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자기주도적인 인재 양성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3) 자유학기제를 통한 진로교육 강화 방안

자유학기제는 2013년 예비 시행을 거쳐 2016년 전면 도입된 이래,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과정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역량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며, 중학교 단계의 ‘자유학기제’를 그 비전을 구현하는 핵심 제도로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2022).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참여형 수업과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함양하도록 설계되었다(교육부, 2016). 특히 2025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중학교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진로 탐색 경험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3년 중 한 학기 동안 운영되며, 주로 1학년에 편중되어 실시된다⁵⁾. 운영 영역은 주제선택 활동과 진로탐색 활동의 2개 영역이 있으며, 주제선택 활동은 학생들이 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과학 실험, 창의적 글쓰기, 사회 이슈 토론 등 학생 흥미에 맞춘 다양한 주제가 개설된다. 진로탐색 활동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미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으로, 진로 관련 검사, 직업 체험, 전문가 특강, 진로 포트폴리오 작성 등 실질적인 진로 준비 경험이 포함된다.

그러나 자유학기제는 도입 이후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축소되는 등 변화를 겪으며, 현장의 긍정적 반응 이면에 구조적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운영 시기와 학생들의 발달 단계 부조화 문제이다. 자유학기제는 대부분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운영되나, 이는 학생의 발달 단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한 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는 “중1 때 대부분 자유학기제를 하는데, 애들이 너무 아직 철도 안 들고 진지하게 진로 탐색도 안 된다. 자유학기제 같은 것은 중3, 1학기 정도에 넣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중학교 1학년은 자아정체성을 막 형성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깊이 있는 진로 성찰을 수행하기에는 인지적·심리적 준비가 부족하여 제도의 교육적 효과를 온전히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진로체험 활동의 피상성 문제이다. 운영 시기의 부적절성은 필연적으로 진로체험 활동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 많은 활동이 일회성 행사로 그쳐 학생들의 실질적인 진로 역량 함양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험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는 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동기 유발에 한계를 보인다. 한 학부모는 “시험과 무관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중요성을 느끼게 하지 못하고, 막연한 체험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자유학기제는 ‘학업 공백기’라는 부정적 인식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타 교육정책과의 연계성 부족 문제이다. 자유학기제는 고교학점제, 진로연계교육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각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5)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1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중 선택하도록 고시하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중학교 적응 지원을 위해 1학년 1학기로 고정 운영하고 있고, 대구시는 1학년 2학기에 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1학기나 2학기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2025학년도 각 시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추진계획 참조). 참고로 서울, 경기, 대전, 경남은 자유학기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 정책담당자는 “자유학기제, 포트폴리오, 고교학점제 등 다 진로랑 연관되는데 각각 따로 가니까 교사들은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현장의 혼란을 전했다. 중학교 단계의 진로 탐색 경험이 고등학교의 과목 선택과 학업 설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단절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진로 개발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시스템적 실패로 귀결된다.

자유학기제가 직면한 문제점들은 상호 연결된 시스템적 과제이므로, 해결 방안 역시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반영할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자유학기제를 포함하여 중학교 진로교육의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1학년에 집중된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3년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세미나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1학년 자유학기제(진로 인식 및 흥미 탐색) → 2학년 ‘진로와 직업’ 교과(심화 탐색) → 3학년 진로연계교육(진로 설계 및 준비)’으로 이어지는 시스템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는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점진적이고 심화된 진로 탐색을 가능하게 하여, 시기 부적절성과 내용 피상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표 V-9> 중학교 진로교육 시스템화 개선 방안

학년	핵심 교육과정	교육 목표	주요 활동
1학년	자유학기제	진로 인식 및 흥미 탐색	다양성 중심의 폭넓은 체험활동, 자기 이해 기초 활동(흥미·강점 발견)
2학년	‘진로와 직업’ 교과	진로 심화 탐색 및 가치관 형성	직업 세계 심층 분석, 교과연계 진로 탐구, 진로 가치관 정립 활동
3학년	진로연계교육	고교학점제 연계 진로 설계 및 준비	개인별 진로 포트폴리오 완성, 고등학교 과목 선택 컨설팅, 진학·진로 계획 수립

주) 학술세미나 참여 전문가가 제안한 중학교 진로교육 시스템화 개선 방안임.

둘째, 교육과정 운영 차원의 방안이다. 무엇보다 학교급 간 연계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의 성과가 고교학점제와 단절되지 않도록 초-중-고를 잇는 진로교육 연계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캐나다의 ‘교육 및 진로/인생 계획’ 프로그램처럼, 학생의 진로 탐색 과정을 누가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포트폴리오를 자유학기제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교과연계 진로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자유학기 활동이 교과 학습과 분리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모든 교과에서 진로 요소를 반영하고 이를 수업에 통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자료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 주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진로체험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형 활동을 확대하여,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 역량을 실질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자유학기제에서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별, 학년별 맞춤형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을 강화하여, 상급학교 진학 및 다양한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진로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등 상급학교 진학 전에는 진로연계 학기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희망 진로를 구체화하고 고교 선택과목 설계 등 실질적인 진로설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및 학교 특색을 반영하여 학교 자율권 확대에 따라 지역사회 연계, 학교 특성에 맞는 진로 프로그램(특강, 직업체험, 진로캠프 등)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에서는 특히 진로체험의 실효성 제고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체험 기회 부족하기 때문에 일회성 진로체험에서 다회기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

하거나, 학교 밖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진로체험 네트워크 구축하여 안전사고 시 인솔교사 책임에 대한 면책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셋째, 거버넌스 차원이다. 먼저, 중앙 단위 거버넌스 명료화가 요구된다. 「진로교육법」 내 교육과정 계획 수립 주체(국가교육위원회)와 내용 개발 및 집행 주체(교육부) 간의 역할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자유학기제를 포함한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발, 실행, 평가에 대한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현장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학교 단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제가 진로전담교사 개인의 업무가 아닌 학교 전체의 과제가 되도록, 학교장이 중심이 되어 진로상담부, 교육과정부, 학년부가 협력하는 ‘(가칭) 학교 진로교육 운영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협의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학교 울타리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산업체가 참여하는 지역 단위 진로교육 협의체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진로체험처를 발굴·관리하여 자유학기제에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가와 피드백 문제이다. 무엇보다 성과 관리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 자유학기제 운영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영국의 ‘개츠비 벤치마크(Gatsby Benchmarks)’와 같은 성과 관리 모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진단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정 중심 평가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는 지필고사를 시행하지 않는 만큼, 학생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과정 중심 평가의 내실화가 중요하다. 학생의 활동 참여도, 자기 성찰 내용, 프로젝트 결과물 등을 포트폴리오로 축적하고, 이를 상급학교 진학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환류 시스템(가령, 경기도교육청의 ‘꿈잇다’ 정보망)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활동 데이터와 요구 분석 결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차기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계획에 반영하는 데이터 기반 환류(feedback)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강화 방안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는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시 「진로교육법」 제13조에 특정학년이나 학기를 정해 진로교육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제도는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낮은 인지도와 운영률, 타 제도와의 중복성 문제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제도의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학교 급별, 지역별 운영의 편차가 크고 전반적인 실행 동력이 약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초등학교의 운영률은 18.0퍼센트, 고등학교는 21.7퍼센트에 불과하여 제도가 학교 현장에 보편적으로 안착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중학교의 경우 운영률이 59.5퍼센트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만의 독자적인 운영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운영 시기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중학교 1학년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등 상급 학교 진학 전후의 전환기에 집중되어 있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진로연계교육과 운영 시기 및 내용이 중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현장에서 두 제도 간의 개념적 혼란을 야기하고, 교사들에

계는 유사한 업무의 중복으로 인식되어 제도의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진로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입시 위주의 학사 운영으로 인해 진로 집중 학기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일회성 행사 위주로 축소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학교 현장 전문가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인터뷰에 참여한 교사들은 제도의 모호성과 행정적 부담을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한 중학교 교사는 자유학기제, 진로연계교육,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등 진로와 관련된 용어와 제도가 너무 많아 교사들조차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결국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활동을 반복하게 된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는 진로전담교사가 보직교사 형태로 운영되어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고,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 매년 운영 여부가 달라지는 등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 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1학년 1학기에 진로 집중 학기를 운영하고자 했으나,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 진도 확보를 우선시하는 학교 분위기와 학부모들의 입시 불안감으로 인해 교과 시간을 할애하여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가 교육과정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기존 입시 중심 교육과정의 틈새를 메우는 부가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현황과 문제점을 극복하고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운영 모델을 고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학교급 전환기 진로연계교육의 핵심 운영 기제로 통합 및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진로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전환기 학년을 진로교육 집중 학년으로 지정하고 이를 필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영국의 개츠비 벤치마크(Gatsby Benchmarks)와 같이 국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모든 학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진로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책무성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된 진로연계교육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활용하도록 하여, 제도의 명칭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실행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연계 진로교육 모델의 확산과 이를 지원하는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일회성 체험이나 특강 위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핀란드의 횡단적 역량(transversal competences) 교육과 같이 일반 교과 수업 내에서 진로 요소를 다루는 교과연계형 모델을 주류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어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진로 독서를, 사회 시간에는 직업 세계의 변화와 노동 인권을, 과학 시간에는 신산업 기술 체험을 다루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국가진로교육센터는 교과별 성취기준과 연계된 표준화된 진로교육 모듈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사들이 이를 수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1학년 1학기에 ‘진로와 직업’ 교과를 필수 이수하도록 하고, 해당 교과 시간이나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 로드맵을 설계하고 과목 선택 계획을 수립하는 진로 학업 설계 집중 과정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체험 인프라의 확충이 요구된다. 단위 학교의 자원만으로는 다양해지는 학생들의 진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캐나다의 경우 지역사회가 학교 교육과정에 깊이 관여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도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대학이 참여하는 지역 진로교육 협의체를 구성하

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경우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진로 체험 버스나 원격 영상 멘토링 등을 확대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진로이수이력 관리 시스템(IPP)을 도입하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집중 학기 활동 이력을 누적 관리하고, 이를 상급 학교 진학 시 연계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의 강화는 단순히 체험 활동 시간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원리를 진로 중심으로 재편하는 혁신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교과 수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지역사회의 풍부한 자원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5) 범교과 학습주제를 통한 진로교육 강화 방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진로교육을 포함한 10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를 제시하며, 이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명시하였다. 특히 이전 교육과정과의 차별점은 범교과 학습 주제를 각 교과의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교과 내 학습 요소로 내재화하도록 개선한 점이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초기 및 졸업 전, 중학교 자유학기, 고등학교 과목 선택 시기 등 전환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연계교육’이 도입되어 학습과 진로 설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진로교육을 단편적 활동이 아닌, 학생의 학업 및 성장 과정과 유기적으로 통합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반영한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로서 진로교육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우선순위의 저하 문제이다. 진로교육이 중등에 독립된 교과로 편제되어 있음에서 불구하고 범교과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인성교육 등 다른 범교과 영역과 달리 명확한 시수 기준이나 운영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우며, 이는 학교와 교사들이 교육계획에 진로교육을 형식적으로만 반영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교사 인식 및 전문성 부족 문제이다. 다수의 일반 교사들은 진로교육을 자신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지 않거나, 과도한 행정 업무 및 생활지도 부담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초등학교는 진로전담교사 제도가 진로교육 행정업무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담임교사가 진로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담임 교사의 관심과 준비 부족 시 진로교육이 다른 활동으로 대체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교과 교육과의 실질적 연계가 미흡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 성취기준과의 연계를 강조했음에도, 현장에서는 교과 진도 부담 등으로 인해 진로교육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별도로 운영되는 등 교과 교육과 분리되는 현상이 여전하다. 이는 진로교육이 학생의 학업 및 일상과 동떨어진 별개의 활동으로 인식되어 학습 동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넷째, 대입 중심의 교육 구조가 진로교육의 본질을 왜곡한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유지되는 한,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진학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진로교육의 본질적 목표인 ‘삶의 방향 탐색’과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는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 캐나다, 핀란드 등 주요국들은 진로교육을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모든 교과에 통합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범교과 진로교육 내실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국은 모든 중등학교에 진로지도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개츠

비 벤치마크(Gatsby Benchmarks)’ 라는 국가 수준의 표준을 통해 학교 진로교육의 질을 관리한다. 특히 벤치마크 4는 ‘교육과정 학습과 진로 연계’ 를 명시하여 모든 교사가 자신의 교과 내용을 진로와 연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중등학교의 약 80%가 교과 통합 진로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주(province) 정부 책임 하에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공통적으로 진로교육을 커리큘럼 전반에 통합하여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학생 전환 벤치마크(Student Transition Benchmark)’ 는 학습이 노동시장과 명확히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범교과적 접근을 지원한다. 핀란드는 국가교육과정에서 ‘횡단적 역량(transversal competences)’ 개념을 도입하여 ‘직업 생활 역량과 기업가정신’ 등을 모든 교과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 가장 큰 시사점은 이러한 횡단적 역량을 각 교과의 교육 목표, 핵심 내용, 평가 기준에 직접적으로 명시하여 교육과정 내 구체적인 실행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범교과 진로교육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명확한 실행 기준 제시, 모든 교과 교육과정 내 구체적인 반영,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교과 학습 주제로서 진로교육이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전환이 요구된다. 첫 번째, 범교과 진로교육의 위상 강화 및 교육과정 체계화이다. 교육과정 총론에 진로교육이 모든 교과를 관통하는 핵심역량임을 명시하고, ‘진로집중학년·학기제’ 와 같은 제도를 총론에서 언급하여 운영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유아기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전 생애적 진로교육 로드맵을 구축하고, 핀란드의 ‘횡단적 역량’ 사례처럼 진로교육의 핵심 내용을 각 교과의 성취기준, 내용 체계, 교수·학습 및 평가 항목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과 내재화를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정책들을 진로교육을 중심축으로 통합·조정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정책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중앙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두 번째, 교사 역량 강화 및 협력적 지원 시스템 구축이다. 모든 교사가 진로교육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사 양성 과정(교·사대) 및 현직 연수에 교과연계 진로교육 관련 내용을 필수 과목으로 포함해야 한다. 또한 진로전담교사를 단순 활동 운영자를 넘어, 교과 교사와의 협력 수업을 기획하고 학생의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는 ‘교육과정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원 외 교사로 전환하여 수업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관리자의 리더십 하에 일반 교사와 진로전담교사가 협력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수업 및 활동을 위한 협의 시간을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확보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경험 중심 진로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 생태계 조성이다. 일회성·행사성 체험을 지양하고, ‘사전 탐색 - 체험 - 사후 성찰 및 교과연계’ 로 이어지는 구조화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교사의 행정적·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지역 내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인프라를 연계하는 지역 기반 진로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흥미와 진로를 탐색하고 장기적인 학습 계획을 설계하는 프로젝트형 과목을 도입하여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서 범교과학습주제의 운영 방안이다. 학교급별 ‘진로와 직업’ 교과를 중심으로 한 진로교육, 교과-창체 연계한 범교과 학습주제로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진로전담교사를 중심으로 한 학교 내, 학교 간 학습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PLC)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 범교과 학습주제로서의 진로교육도 가능하다.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 선택을 설계해야 하는 1학년 1학기 Pre-course로서 ‘진로와 직업’ 을 필

수 이수하며, 이를 중심으로 교과 간, 교과-창체 간 연계 진로교육도 가능할 것이다. 이 때의 Pre-course는 대학에서의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 대학 프로그램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대학에서의 성공적인 생활을 위해 입학 전 혹은 입학 초기 대학생활에 대한 이해, 대학에서의 진로 설계 등을 배우는 과정이다.

6) 진로연계교육 개선 방안

여기서는 진로연계교육의 개선방안은 진로연계교육 일반의 개선에 대하여 논의한 후에, 교과연계 진로교육의 개선방안은 별도로 논의하고자 한다.

가) 진로연계교육 일반의 개선방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체제를 지향한다.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상급학교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로연계교육’이 핵심 정책 과제로 도입되었다. 진로연계교육은 학교급이 전환되는 시기의 학생들이 겪는 학업 및 생활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부합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분석과 요구분석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로연계교육은 정책적 위상 약화, 개념적 모호성, 유사 제도와의 중복, 구체적 운영 모델 부재, 학교급 간 연계 단절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연계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정책 형성 과정에서 실행 동력을 상실한 측면이 있다. 당초 진로연계교육은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논의되었으나, 최종 고시 단계에서 학교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의도로 ‘실시할 수 있다’는 선택 조항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위상의 약화는 학교 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었고, 이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요한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이 정작 실행의 강제성을 잃어버리면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개념적 모호성과 유사 제도와의 중복성 문제가 있다. 많은 교사들이 ‘진로연계교육’과 기존의 ‘교과연계 진로교육’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로연계교육은 교과연계를 포함하여 학교생활 적응, 학업 설계, 생활 지도 등 학생의 총체적 성장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상위개념이지만, 이러한 개념적 위계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아 기존 활동과 차별성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등 유사한 목표를 지닌 여러 제도가 체계적인 조정 없이 도입되면서 현장에서는 유사한 제도의 범람으로 인한 피로감과 혼란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는 결국 ‘이름만 다른 유사 체험활동의 중복’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급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구체적인 운영 모델 및 지원 시스템 부재 문제도 해결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위상의 모호함과 개념적 혼란은 구체적인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교육 당국으로부터 명확한 실행 모델이나 대표적인 운영 사례,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서 교사들은 ‘무엇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진로연계교육의 실행은 개별 교사의 자발성과 역량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어 학교 간, 교사 간 운영 편차가 심

화되고 있다. 다만, 2023년부터 24년까지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3자가 협력하여 개발한 정책연구보고서 및 가이드북이 6건 개발이 되었다. 정운경 외(2024)가 초·중·고 진로연계교육 설계를 위한 디딤돌 안내서를 개발하였고 방혜진 외(2024)가 진로연계교육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재열 외(2024)가 초등 진로연계 교과교육 가이드라인 저학년용과 중학년용을 개발한 바가 있다. 이처럼 초등의 경우에는 5건의 안내서와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었지만 중등은 각각 1개 건의 안내서가 개발된 상황이다. 특히 중학생에게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와 과목 선택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고등학생에게는 자신의 진로 희망에 맞는 구체적인 ‘과목-전공-직업’ 연계 정보 및 진학·취업 전략 수립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이를 지원할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자료(예: 학년별 위계성을 고려한 워크북)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급 간 연계 부족 및 종단적 지원체계 미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진로연계교육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학교급 간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초·중·고를 관통하는 체계적인 연계와 데이터 기반의 지원 인프라가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진로활동은 각 학교급별로 단절되어 단편적인 정보만 나열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의 진로 탐색 이력, 상담 기록, 활동 결과 등이 상급학교로 연계되지 않아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심층적이고 개인화된 지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방식의 지도는 학생의 성장 과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적하고 지원하는 종단적(longitudinal) 접근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세미나에서도 제안이 되었지만, 학생의 진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즉 진로이수이력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이라고 할 수 있다.⁶⁾

진로연계교육이 중·고등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학생들의 미래 역량 함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처방을 넘어 정책, 제도, 현장 지원을 아우르는 다층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정책 및 법률 차원에서 견고한 기반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진로연계교육의 정책적 위상 강화해야 한다. 차기 교육과정 시에는 진로연계교육의 위상을 ‘권장’에서 ‘필수’로 재정립해야 한다. 특히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는 진로·학업설계 지도의 핵심 기제로서 그 실행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또한 유사 정책을 교통정리할 공식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도 및 운영 차원에서 학교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캐나다의 학생 전환 벤치마크(Student Transition Benchmark)나 영국의 개츠비 벤치마크(Gatsby Benchmarks)를 참고하여, 국가 수준의 진로연계교육 운영 가이드라인과 성과 관리 체계(자기평가 도구 포함)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적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자료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중학생에게는 고교학점제 이해 및 과목 선택 가이드, 고등학생에게는 ‘과목-전공-직업’ 연계 심화 탐색 및 진학·취업 포트폴리오 설계 등 학교급별 요구에 맞춘 표준화된 프로그램과 워크북 형태의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현장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세 번째, 시스템 및 인프라 차원에서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이다. 학생의 진로활동 이력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하여 누적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가칭) 진로이수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디지털 개인 경로 계획(IPP)처럼, 이 시스템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교사에게는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지

6)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AI 기반 ‘꿈있다’ 플랫폼은 초5~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진로진학 지원 시스템으로, 학생·교사·지역의 진로자원을 디지털로 연결해 개별화된 진로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인프라로 운영되고 있다. 학생의 흥미·적성·학업 이력과 진로·진학 관련 활동 데이터를 축적해 맞춤형 전공·직업 추천, 진학 경로, 온라인 모의 면접 등을 제공하며, 초·중·고에 걸친 개인 진로정보가 하나의 플랫폼에 누적되므로, 상급학년·상급학교에서도 이전 학교급의 진로 활동 결과를 연속적으로 조회·활용할 수 있다.

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연계교육 관련 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급학교 교육과정을 이해시키는 학교급 간 상호 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연계 지도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AI 기반 교과-진로 연계 콘텐츠 추천, 온라인 체험처 매칭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진로연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의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실제적인 직업 세계를 경험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 교과연계 진로교육 내실화 방안

현재 진로연계교육의 한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교과연계 진로교육은 교과연계 진로교육이란, 별도의 진로교육 시간이나 활동을 통해서만 진로 탐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각각의 교과 수업 내에서 교육과정의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을 진로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교육적 접근방법을 말한다(교육부, 2020).

교과연계 진로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교과연계 진로교육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와 진로교육을 연계하여 위한 노력은 2000년대 후반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송인섭 외(2006)이 교과와 진로지도를 통합하려는 시도(교과 통합형 진로지도 모형 개발과 적용)가 이루어졌고, 이지연 외(2007)가 비로소 ‘교과 통합형 진로교육(초·중등학교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을 위한 학년·교과별 진로교육 요목 계열화 연구)’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과통합진로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08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모델 구축(I)」(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진로교육을 국어·수학·사회 등 교과교육의 핵심 목표와 내용 속에 구조적으로 통합하는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2009~2010년 연구(II·III)를 통해 교과별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연구학교에 시범 적용하였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그러나 교과목표와 진로역량을 동시에 재구성해야 하는 높은 설계 난이도와 교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현장 실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교과연계진로교육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과 「학교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개발로 국가수준 진로교육 성취기준과 각 교과 내용을 매칭하는 접근이 체계화되었다. 201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현황 분석 연구와 2019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초·고등학교 교과연계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은 기존 단원에 진로 요소를 연계하는 실행 친화적 자료를 보급하여 전국 학교 확산을 뒷받침하였다(김진숙, 2018;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19a, 2019b).

교과연계 진로교육은 다양한 교과 및 수업활동에서 진로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진로교육 현장에서 관심을 가져왔다. 진로교육현황조사(문찬주 외, 2023)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94.1%, 중학교 78%, 고등학교 65.9%로 교과연계 진로교육이 높은 비율로 실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로 진로교육의 다양한 영역을 교과와 연계하거나 교과에서 직업을 탐색 또는 체험하는 방식이 활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현장 인터뷰를 통해 다수의 학교 현장에서 교과의 내용 영역, 성취기준을 연계한 교과연계 진로교육은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일반교사에게 교과연계 진로교육은 ‘추가적인 업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일부 진로전담교사는 교과 교사와 협업 부족, 진로교육은 진로부서에 국한된 업무라는 학내 인식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교과 간 융합과 협력을 전제로 하는 교과연계 진로교육이 개별 교사의 자율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수, 자료, 제도 등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초등학교는 교과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들은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데 한계

가 있었으며, 고등학교는 대학입시 등을 고려하여 수업 진도 및 시험 일정 등의 이유로 교과연계 진로교육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일반교과에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성취기준에 반영하도록 권장되었지만, 일부 과목을 제외하면 진로교육의 내용적 측면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진로교육을 교과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과 성취 기준 반영을 통한 자연스러운 교과연계 진로교육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해외 사례를 보면, 핀란드는 교과 내 역량과 진로요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캐나다는 주요 교과에 진로교육 요소를 공통적으로 반영하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강화하였다. 진로연계교육 개념이 부각됨에 따라 교과연계 진로교육이 진로연계교육의 하위 개념으로 포함되어 상위 학교에 대한 적응 활동 등과 동일한 하위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포괄성 및 모호성은 학교 현장에서 교과연계 진로교육의 역할과 필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상위 학교 준비 활동이 진로연계교육의 영역을 과도하게 차지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캐나다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통합 기반의 분권형 거버넌스라는 특징을 갖는다. 캐나다는 주 정부가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분권형 체제를 바탕으로, 진로교육을 별도의 교과가 아닌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 통합하는 접근을 취한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의 '교육 및 경력/삶 계획(Education and career/life planning)' 정책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진로 목표와 연계하여 계획하도록 안내하며, 이는 특정 교과가 아닌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캐나다의 접근 방식은 모든 교사가 진로교육의 주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며, 진로교육 거버넌스가 특정 교사나 부서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과 교사의 역할 속에 분산되고 내재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교과연계 진로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연수나 자료 보급을 넘어, 교육과정 자체에 모든 교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책무를 부여하는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과연계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 및 명칭의 명확화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별개 개념으로 사용하던 교과연계 진로교육이 진로연계교육의 하위 유형으로 포함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진로연계교육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단순히 상급학교 진학 및 적응 준비활동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교과연계 진로교육은 교과별 성취기준 또는 내용 영역을 연계해야 하며, 교사 간 협력 활동이 강조되는 만큼 이를 위한 시간과 노력이 더 요구된다. 따라서 진로연계교육의 이름 속에서 교과연계 진로교육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교과연계 진로교육과 상급학교 적응을 위한 활동은 구분되어 다뤄질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 교과의 성취기준 내 진로교육 내용 요소들의 반영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일반 교과의 성취기준 내 진로 관련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지만, 교과에 따라 그 수준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 별도의 교과별 연계 과정을 통해 교과연계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지원 및 확산될 필요가 있지만, 수업별 학습량 및 교사 협력 등의 한계가 존재하는 학교에서는 일반 교과의 성취기준에 진로 관련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이를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STEM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진로 관련 내용 요소를 반영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일반 교과 학습 속에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해당 방안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성취기준 개발 단계에서 일반 교과 개발진과 진로 전문가가 일부 협력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성취기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등학교는 별도의 진로 수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 교과 속에서 진로탐색 및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일반교과교사의 진로교육 전문성 강화 및 연수

확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과연계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과 교사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하며, 일반 교사 대상 진로교육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 교과연계 진로교육을 교사 전문성 개발 정규 연수 체계에 포함하고, 각 교과목의 1정 연수에 진로교육 연계를 필수화하는 방안과 함께, 양성 단계부터 교과연계 진로교육 역량을 갖추도록 사범대학교나 교육대학교에서 진로교육을 필수과정으로 개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자료 개발 및 지원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 교과별 진로교육 관련 성취기준 제시 및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사례 개발이 필요하며, 일반교과교사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수업 자료(워크시트 등) 개발 및 제공, 그리고 교과연계 진로교육 자료와 사례 공유 시스템(플랫폼) 구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자율시간을 활용한 교과연계 진로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관련 예산 확보를 검토해 볼 수 있다.

7) 학교자율시간 개선 방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강화를 핵심 기조로 삼고 있으며, ‘학교자율시간’은 이러한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학교자율시간은 학기별 주당 1시간의 수업 시수를 확보하여 운영된다. 또한, 편성된 과목이나 활동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육청은 내용의 편향성을 방지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질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가 지역의 여건,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자율적으로 증감하거나,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교육부, 2022). 이는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수 증감 제도보다 활용 범위가 확대되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조치로 평가된다. 학교는 이 시간을 활용해 교과(군)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거나, 시의성을 고려한 주제 학습나 범교과 학습 주제 등 국가 교육과정이 고시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할 수 있다.

학교자율시간은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점과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제도의 모호성과 콘텐츠 부재 문제이다. 많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자율시간의 성격과 내용이 아직 모호하여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체계적인 진로교육 자료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하여, 많은 학교가 기존에 운영하던 특색 사업을 단순히 학교자율시간의 틀로 옮기거나 교과 보충 학습 시간으로 활용하는 등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운영을 지원할 가이드라인, 매뉴얼, 우수 사례 등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문제로, 결국 학교자율시간이 형식적인 문서 작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둘째, 교사의 부담 가중과 역량 격차 문제이다.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사들은 직접 보조 교재를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으나, 전문가가 개발한 자료에 비해 질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며 학년 간 내용 중복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학교자율시간의 성공 여부가 학교와 교사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게 되면서, 혁신 역량을 갖춘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 간의 교육의 질적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자율성을 제약하는 경직된 운영 구조이다. 학교자율시간은 ‘자율’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정보 교육 시수 확보가 의무 규정으로 제시되는 등 ‘강제된 자율’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가 진로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과목이나 활동을 자율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축소되는 측면이 있

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일부 교과에서 성취기준이 과도하게 상세하게 진술되어 있어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제약하고 다양한 수업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넷째, 기존 진로교육 정책과의 연계성 부족 문제이다. 현재 학교 현장에는 자유학기제, 진로연계교육,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진로교육 정책들이 중첩적으로 운영되면서 파편화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자율시간이 기존 정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또 하나의 분절된 프로그램으로 추가된다면, 이는 현장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앞서 분석한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차기 교육과정에서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진로교과 신설 및 교과서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세미나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학교자율시간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인 ‘콘텐츠 부재’와 ‘교사의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은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교자율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미니 교과인 ‘(가칭) 진로와 삶’ 또는 ‘(가칭) ‘진로와 직업’ 과목을 신설하고,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교과서를 개발·보급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과서가 갖는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는 교사들의 수업 준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진로교육을 체계화하며, 학교 간, 교사 간 진로교육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해당 교과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흥미를 발견하고, 일과 직업 세계를 탐색하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놀이와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중등의 경우도 ‘진로와 직업’ 교과(미니교과)를 신설하거나 별도의 진로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요청된다. 또한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 초등의 경우 학교자율시간에 시행하는 진로교육을 학년군별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한, 교과융합형 진로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등학교급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 진로탐색, 설계 프로젝트 학습 등을 권장할 수 있고 진로 포트폴리오 만들기, 졸업한 선배와의 멘토링, 교사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진로 워크숍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 자율시간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진로 체험 센터, 지역사회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직업군에 대한 체험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학생 맞춤형 ‘진로상담’ 시간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학생들은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교자율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모든 학생이 정기적으로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진로교육법」에 명시된 진로상담의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진로전담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흥미, 적성, 진로 고민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담 결과는 학생의 진로 포트폴리오나 진로이력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상급학교 진학 및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을 위한 실질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모든 학교급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상담을 할 경우는 학교 자체 인력으로 힘들므로 외부(타학교 진로교사 등)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지역 연계형 모듈형 프로그램 및 콘텐츠 플랫폼 구축 방안이다. 모든 학교가 새로운 교과를 개설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 및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자율시간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모듈형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교수·학습 자료 패키지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이는 교과연계 프로젝트, 지역사회 연계 활동, 미래 신산업 탐구 등 다양한 주제를 12시간, 36시간 등 다양한 시수 모듈로 개발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어 교사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학교의 개발 부담은 줄여주되 자율성은 보장

하는 효과적인 지원 전략이 될 것이다. 넷째, 교사 역량 강화 및 ‘교육과정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 재정립 방안이다. 학교자율시간의 성공은 교사의 전문성에 달려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학교자율시간을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상담 기법 중심 연수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설계, 교과 간 융합 프로젝트 개발, 학생 학업 설계 컨설팅 등 변화하는 역할에 필요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더 나아가,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을 기존의 진로상담 및 체험활동 운영자에서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전체를 기획하고 교과 교사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교육과정 코디네이터’로서 재정립하고, ‘학업설계 지원’ 등의 직무를 공식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진로전담교사가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진로교육의 관점이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자율성을 존중하는 질 관리 및 컨설팅 체계 구축 방안이다.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운영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지원적 성격의 질 관리 및 컨설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영국의 개츠비 벤치마크(Gatsby Benchmarks) 사례처럼,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 진로교육의 질적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 이는 획일적인 평가가 아니라, 학교가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돕는 자기진단 도구 및 컨설팅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자율시간 운영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발굴된 우수 사례를 확산하여 학교 간 동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방안

1) 초등학교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 운영 및 편성 방안

각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각 교과의 생활 및 진로 측면에서 필요성을 이해하고 교과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와 진로에 대한 준비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진로교육 성취기준을 각 교과의 관련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교과통합 및 교과융합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각 교과 성취기준 개발시 진로교육이 연계되는 성취기준 및 고려사항을 만들어 제시하는 방안이고, 나아가서는 교수·학습 방법에 권장 사항으로 제시하여 각 교사들이 활용하는 방안이다. 또한, 교과 중에서 초등의 ‘실과’와 중등의 ‘기술·가정’ 교과의 경우 전통적으로 교과 내용 자체에 진로교육이 일부 포함된다는 점에서 타 교과와의 접근 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다.

초등 실과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에는 교과목으로서 진로교육이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실과’에서의 진로교육 내용은 초등 전반에서 교과에서의 진로교육의 중심이 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과 연계를 통해 상호 발전을 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초등 ‘실과’에서는 진로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이 담겨야 하며, 이를 통해 타 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에서 다룰 수 없는 진로교육 고유의 내용이 담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진로와 직업’의 개념과 중요성, 진로검사 기본 개념과 원리,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의 원리와 실천 등이 있다. 또한, 실과 내 다양한 직업 및 기술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주제와 관련한 아이디어부터 제작 및 적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일(작업) 경험을 프로젝트나 문제해결 과정 방식으로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실과 내 타 주제들에 진로교육을 연계하여 전체적인 일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주제중심 실과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과 교과 주제 연계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목적이나 용도에 맞는 원예 식물을 고르고 학습하여 기르고 수확하여 식생활을 경험하는 일련의 농업 푸드 체인 전체 과정을 프로젝트로 운영, 학교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이에 필요한 재료를 검토하여 제품을 설계하고 실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제해결 경험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중등 기술·가정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중등학교의 기술·가정 교과는 초등의 실과와 연계하여 진로교육을 다루는 핵심 교과이기는 하지만, 중등에는 ‘진로와 직업’이라는 별도의 선택과목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로교육에 관한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기술·가정의 다양한 주제들에 진로교육을 연계하여 전체적인 일(작업)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하는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그 외에 타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은 진로교육이 주가 되지는 않지만, 각 교과 교육이 보다 의미를 갖기 위하여 삶이나 직업 활동에서 해당 교과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학습한 내용이 어떤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교과연계 진로교육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서 제시한 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연계교육에서 추구하는 바와 같이 각 교과의 성취기준이나 교수·학습 방법에 진로와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을 적시함으로써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 ‘진로와 직업’ 교과 편성 및 운영 방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가 본격화되며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과 관련 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 ‘진로와 직업’ 과목의 선택률과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고등학교에서 1학기 최소 2학점 편성이 요구되면서, 학교 현장에 ‘진로와 직업’ 과목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담당 교사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로와 직업’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을 중등학교 학교급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중학교 ‘진로와 직업’ 교과 운영 방안에서, ‘진로와 직업’은 중학교 선택과목으로, 학교 상황에 따라 1~3학년 중 한 학년에 34차시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학기 단위로도 운영 가능하며, 학교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는 1학년 2학기(또는 1학기)에 집중 운영하고, ‘진로와 직업’ 교과는 자유학기외 중복되지 않는 2, 3학년 또는 자유학기 외 학기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학년 2학기에는 진로연계교육(진로연계학기)을 집중 운영하여, 상급학교 진학 준비와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 구체적인 진로설계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교과 운영 방안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는 고교학점제의 학기제 운영 원칙(학기당 2학점 이수)으로 향후 교과서 채택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진로와 직업’ 교과는 1학년 1, 2학기에 각 1학점씩 ‘진로와 학업설계’ (1학기), ‘진로와 직업 탐구’ (2학기) 등 미니교과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기존처럼 1학년 1, 2학기에 각 1시간(1학점)씩 배치하면 학생의 진로·학업설계 역량을 단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으며, 학기제와 학점제 모두에 부합한다. ‘진로와 학업설계’는 자기이해, 학업계획, 고교생활 설계에 중점, ‘진로와 직업 탐구’는 직업세계 탐색, 진로 정보 활용, 진로설계 실천에 중점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춰 학생 개별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진로·학업설계 상담 등과 연계하여 교과를 설계해야 하며, 1학년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를 미니교과로 운영하면 진로탐구, 학업설계 등 다양한 진로교육 요소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각 학교급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를 운영함에 있어 창의적 체험활동과 운영에 차별을 뒤야 한다. ‘진로와 직업’ 교과는 학생의 자기이해, 직업 세계 탐색, 진로설계 등 체계적이고 심화된 진로교육을 담당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은 자기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 등 비교과적·체험적 활동 중심으로, 교과와 중복되지 않도록 실천적·자율적 활동(동아리, 상담, 체험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은 ‘진로와 직업’ 교과에서 다루지 않는 실습, 현장체험, 동아리, 상담 등 학생 개별·집단별 진로체험과 실천 중심으로 운영하여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진로연계교육과 운영함에 있어서도 3학년 2학기 진로연계학기는 상급학교 전환, 고교학점제 안내, 진로·학업설계, 진학·취업 정보 제공 등 실질적 진로설계와 학교급 연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편성 및 운영 방안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체 3개 영역 가운데 하나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체 4개 영역 가운데 하나에 비해 표면적인 비중은 확대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진로활동의 실제적인 편성·운영 시수가 부족하고, 학년 간의 차별성도 부족하며, 각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교과연계 진로교육 내용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진로활동 간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학년(군)별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내용의 차별화 강화를 위해 1~2학년(군)은 초등학교 생활 적응, 자아개념과 공동체 역할, 다양한 일(직업)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 3~4학년(군)은 학습 태도와 호기심, 기본 생활습관 및 기초학습 능력, 다양한 직업 분야별 능력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6학년(군): 생활 소비 방식 이해 및 실천, 상급학교 체험 및 준비, 진로설계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진로연계교육과 연계하여 1-1학기 초등학교 생활 적응과 연계, 6-2학기 상급학교 준비로 연계할 수 있다.

중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편성 및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는 학년별 연간 34시간씩 운영해야 한다. 즉, 1학년, 2학년, 3학년 각각 연간 34시간, 총 102시간이 기본이다. 진로활동 시수 역시 창의적 체험활동 내에 포함되어 연간 34시간 내에서 편성·운영되며 별도로 진로활동만의 시수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진로활동은 학년별로 분산 편성하며,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편중하지 않도록 하여 다양한 운영 형태(정일제, 격주제, 집중제 등)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학교 여건에 따라 시수와 운영 방법이 다양하며, 진로활동 시수가 여러 이유로 부족한 실정이기도 하다.

이에 학년별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내용을 차별화해야 한다. 1학년은 자기 이해, 소질·적성 탐색, 기초 진로 인식 활동(예: 진로검사, 자기성장 일기 등)을 할 수 있으며, 2학년은 다양한 직업 세계 탐색, 직업인 인터뷰, 현장 체험, 진로 정보 탐색 활동 강화할 수 있다. 3학년은 진로설계, 진로 포트폴리오 작성, 고교 진학 및 진로 결정 지원, 진로계획서 작성 등 실질적 진로설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로와 직업’ 교과에서 체계적 이론 및 정보 제공, 자기이해·진로탐색·진로설계 등 교과중심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은 체험·실천 중심, 지역사회 자원 활용, 현장 체험, 직업인 만남, 프로젝트 활동 등 실생활 연계 및 경험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즉 교과는 지식·정보 습득,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은 경험·실천 및 자기주도적 진로설계에 중점을 두어 중복되지 않도록 활동 주제, 방법, 평가 기준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학년 간 진로활동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운영 시 유의할 점은 학생의 발달 단계, 흥미, 소질, 학교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활동 전·후 안전교육 및 체험활동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교내외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지역 인사 활용 등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학교 밖 진로체험 시 안전사고에 대해 인솔교사에게 면책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교과

교사, 진로전담교사, 지역 전문가 등과 협업 체계 구축, 활동 결과 학생부에 충실히 기록하는 등의 국가, 지역 및 단위학교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을 시수가 부족한 교사에게 맡기므로 생기는 문제점 극복해야 한다.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편성 및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은 2025년 1학년의 경우 전체 3년 동안 실제 운영 수업 횟수의 2/3 이상을 출석하면 진로활동 포함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학점(18학점)을 충족하게 된다. 시수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나 여러 이유로 진로활동 시수가 적게 배정되며, 운영 방식 분산형, 집중형, 혼합형 등이 있으나, 분산형의 경우 수업시수가 부족한 교사가 맡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한다.

고등학교에서 학년별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내용의 차별화 확보를 위해 1학년은 자기 이해, 고교 생활 적응, 다양한 진로탐색, 진로검사, 고교-대학-직업 연계 정보 탐색을 제공할 수 있다. 2학년은 진로 심화 탐색, 전공·직업군별 체험, 대학 및 산업 현장 방문, 진로캠프 등 실질적 체험 확대해야 하며, 3학년은 진로설계 및 실천, 진학·취업 준비,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진로포트폴리오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학년별로 학생 주도성 강화, 진로목표 구체화 지원이 필요하다.

‘진로와 직업’ 교과와 창체 진로활동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진로와 직업’ 교과의 경우 진로이론, 직업정보, 진로설계 등 체계적 이론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은 현장체험, 직업인 특강, 실무 프로젝트, 동아리 연계 진로탐색 등 실천·경험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즉 교과는 지식·이론, 창의적 체험활동은 경험·실천 및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강조되어야 하고, 활동 내용, 방법, 평가에서 명확히 차별화되어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운영 시 유의할 점은 학생의 진로 희망, 전공 적합성, 학교 및 지역 자원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학생부종합전형 등 대입과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 진로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교육 및 활동 전후 관리 철저, 체험활동 시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더해 학생 주도적 기획·실행 기회 제공, 교사·외부 전문가 협업 체계 구축, 활동 결과 체계적 기록, 학생별 성장 및 진로설계 지원 등이 필요하다.

라.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개선 방안

우리나라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면, 제도적 인프라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실행력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태분석 및 요구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진로교육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원 전문성의 편차와 역할 갈등, 그리고 성과 관리 체계의 부실함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진로교육 담당 인력, 특히 진로전담교사와 일반교과교사의 역할 정립과 전문성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실태 분석에 의하면, 진로전담교사는 학교 진로교육의 기획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행정 업무와 모호한 직무 규정으로 인해 본연의 임무인 진로 수업과 상담, 프로그램 기획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과 학업 설계를 지원해야 할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이 급증했으나, 현장의 교사들은 진학 상담 위주의 기존 관행과 새로운 교육과정 설계 요구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교과교사들의 경우, 진로교육을 자신의 교과와 무관한 별개의 업무로 인식하거나, 교과연계 진로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교수학습 전문성이 부족하여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진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관

통하는 범교과적 학습 주제로 통합되지 못하고, 특정 교사나 특정 시기의 일회성 행사로 고립되는 분절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학교 현장 전문가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에서 한 중학교 진로전담교사는 진로 수업 외에도 고교학점제 준비, 체험처 발굴, 진학 상담 등 쏟아지는 업무로 인해 정작 학생 한 명 한 명을 깊이 있게 상담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한 고등학교 일반 교사는 교과연계 진로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진도를 나가기도 힘든 상황에서 구체적인 연계 방법이나 자료가 없어 막막하며 결국 진로교육을 추가적인 업무 부담으로 느끼게 된다고 토로하였다. 학교관리자 역시 입시 성과가 학교 평가의 주요 척도가 되는 현실에서 진로교육을 강조하기가 쉽지 않으며, 학부모들은 진로 탐색보다는 당장의 성적 관리에 더 관심이 많아 진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딜레마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는 진로교육이 교육과정의 본질적 목표가 아닌 입시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진로교육 운영 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하는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도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이다. 실태분석과 요구분석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의 진로교육 평가는 주로 학생이나 교사의 단순 만족도 조사나 프로그램 운영 횟수와 같은 정량적 실적 집계에 머물러 있다. 이는 진로교육이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이나 학업 성취, 학교생활 적응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못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근거 기반(Evidence-based) 정책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의 진로 발달 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시스템의 부재는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진로 지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발전 및 내실화를 위해서는 진로교육의 운영 성과에 대한 측정과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는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뷰 및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진로교육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교 단위에서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진로교육 측면에서 학교 알리미, 학교 평가 등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거나 공개하는 경우가 적어 구성원들의 진로교육 인식 및 교육과정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운영 상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진로교육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과 진로교육 운영성과 측정 및 피드백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⁷⁾

1) 진로교육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진로교육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재정립, 일반교과교사의 전문성 제고, 그리고 학교관리자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첫째,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전문화 및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해 진로전담교사는 단순 진로 상담가를 넘어, 학생들의 과목 선택, 학업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학업 및 진로설계 코디네이터로 역할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워크숍 및 세미나에서는 진로전담교사의 직무 정의에 '학업 설계 지원'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영국의 커리어 리더(Career Leader)처럼, 진로전담교사가 학교 진로교육 전략을 총괄하는 전략적 리더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 진로전담교사들은 자신의

7) 구체적인 진로교육 교육과정(예,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진로와 직업', 창체 진로활동 등)별 운영방안은 앞 절에서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생략한다.

확장된 역할에 필요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전문 연수가 부족하며, 역량에 따른 질적 편차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진로전담교사 양성 과정 및 심화 연수에서 진로교육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역량, 학업 및 진로설계 지원 역량, 데이터 기반 상담 역량 등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진로전담교사가 타 부서 업무에 치여 핵심 역할 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수업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원 외(TO)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또한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일반 교사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진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내재화되기 위해서는 일반교과교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결되어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의 94.1%, 중학교의 78.0%, 고등학교의 65.9%가 교과연계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의 질은 교사 개인의 태도나 관심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는 교사들이 교과연계를 위한 자료, 경험, 연수 등의 실천 인프라가 부족함을 호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 양성 및 재교육 과정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일반교과교사의 진로교육 역량을 구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교사 양성 단계부터 진로교육 관련 내용을 필수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초등학교 교사 양성기관(교육대학교)에서 진로교육에 대해 깊이 있게 배워본 적이 없어 초등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 교사의 지적은 이러한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또한,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1급 정교사 연수 등) 과정에 교과연계 진로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교과 학습이 진로와 연결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숙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술 세미나에서도 교과연계 진로교육을 교사 전문성 개발 정규 연수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범교과적 통합을 위한 실행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진로교육을 범교과 학습 주제로서 학교 교육 전반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핀란드의 횡단적 역량(Transversal Competences)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핀란드는 '직업 생활 역량과 기업가정신' 등을 모든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평가 기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진로교육이 단순한 권장 사항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하였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이 일반 교과의 성취기준 개발 단계부터 진로 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로 관련 요소를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현장에서 '제일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나아가, 일반 교사들이 수업 중 진로교육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수업 자료 개발 및 지원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교과별 진로교육 연계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한 워크시트, 우수 사례 및 학습 자료를 국가 수준에서 개발하여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의 자료 개발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실천을 유도해야 한다.

셋째, 학교 진로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관리자의 리더십 강화가 요구된다. 학교장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과 리더십은 교원 협력 체계 구축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이다. 학교관리자가 진로교육을 학교 경영의 중심 철학으로 설정하고, 교사들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할 때, 비로소 진로교육이 학교 전체 교육과정에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교관리자(교장, 교감)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 리더십 연수 및 인식 제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일부 관리자는 진로교육을 디지털이나 AI와 같은 최근의 교육 트렌드에 밀린 '과거의 교육'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인식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워크숍, 국외 연수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가장 실질적인 협력 체계 구축 방안으로는, 학교장이 주도하여 진로-교육과정-진학 담당 교사 간의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진로 관련 논의

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진로와 진학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 협의체를 통해 학생의 진로 목표와 학업 선택, 그리고 고교학점제 이수 경로(예: 3개년 학업 설계 지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체계는 진로전담교사에게 교육과정부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2) 진로교육 운영성과 측정 및 피드백 방안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출한 진로교육 성과 측정 및 피드백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및 시도교육청 단위의 진로교육 성과평가를 위한 표준 지표를 개발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만족도 중심의 진로교육 성과 체계를 탈피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진로교육 성과 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 사례처럼 표준 성과지표와 환류 체계 마련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커리어넷 등 기존 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를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하는 데이터 기반 개편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보다 명확히 재구성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커리어넷에 있는 학생들의 진로심리검사 자료, 진로교육 활동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 지향적인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내용을 도출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 진로교육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진로교육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정에 환류할 수 있도록 지침 및 안내가 필요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진로 개발이 강조되는 만큼 진로교육 성과관리 및 환류 체계 구축을 학교 평가의 주요 요소로 제시하고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또는 진로교육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를 실시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알리미 등에 진로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차원에서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마.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 개선 방안

진로교육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의 혁신을 넘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는 교육과정의 기획, 개발, 실행, 평가 및 환류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 책임 그리고 협력 관계를 규정하는 총체적 시스템을 의미한다.

진로교육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도교육청)-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교육지원청)-학교 단위에 이르는 다층적인 지원 조직 및 사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 진로교육 거버넌스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을 국가 수준, 지역 수준(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 통합) 그리고 학교 수준으로 나누어 다각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1)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 강화 방안

본 절에서는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정책의 일관성과 현장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의 정비, 범부처 추진 체계의 구축, 데이터 기반의 진로이수이력 관리(IPP) 도입,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생태계 조성을 포함한 4대 핵심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진로교육 교육과정 정책 추진 체계의 개선 방안

진로교육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여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부처가 연계된 복합적인 정책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괄하는 통합적 추진 체계가 미비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현장 체감도가 저하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 개발과 정책 수립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와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은 진로교육의 중복 투자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정책과 교육과정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 체계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논의할 과제는 진로교육 정책 수립과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실행 체계 간의 소통 부재의 문제이다. 진로교육이 범교과적으로 구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는 총론(국가 교육과정 전체 틀) 개발과 각론(진로 교과 및 활동) 개발이 서로 다른 트랙으로 분리되어 진행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 B는 “교육과정 총론과 진로 교과가 별개로 움직여 총론 개발자들은 진로 내용을 깊이 다루지 않고, 진로 담당 부서는 별도로 진행하여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발 부서 간의 소통 부재와 칸막이 행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진로 연계’가 실제로 국어, 수학 등 일반 교과로 통합되지 못하고, ‘진로와 직업’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특정 영역에만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요구된다. 첫째, 교육과정 개발 거버넌스의 통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총론과 각론의 개발 주체가 분리되어 소통이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적·절차적 연결 고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진로교육 전문가의 총론 및 일반 교과 개발 참여 의무화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교육과정 각론 조정위원회 내에 진로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각 교과 성취기준에 진로 요소가 반영되었는지 심의하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이 도입되어야 진로교육이 총론의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고 각론의 구체적 내용으로 구현될 수 있다. 둘째,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내재화 전략이 필요하다. 진로교육을 별도의 시수나 활동으로 부가하는 방식은 현장에 부담을 주므로, 교육과정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일반 교과 성취기준 내 진로 요소를 명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된 진로연계교육의 취지를 살려, 각 교과의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방법에 진로 탐색 요소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재화 전략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의 ‘횡단적 역량’이나 영국의 ‘개츠비 벤치마크 4(교육과정 학습과 진로 연계)’ 사례처럼, 교과 지식이 직업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성취기준 수준에서 규정하여 교사가 수업 중 자연스럽게 진로교육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국가 진로교육 정책 주기와 교육과정 개정 주기의 시차 및 불일치 문제이다. 교육부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교육부, 2023)과 같은 중장기 진로교육 정책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주도하는 교육과정 개정 시점과 맞물리지 않아 정책의 적시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한 학계 전문가는 “진로교육 기본계획과 국가 교육과정 개정 주기가 서로 달라 정책 방향이 교육과정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진로교육 비전이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실행 도구에 유기적으로 탑재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현장의 교사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일관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진로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시점을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과정 개정 주기와 일치시키거나, 진로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차기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정책의 적시성

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진로교육정책 수립 부서(기초학력진로교육과)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과정정책과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한편, 범부처 통합 거버넌스 부재 문제이다. 현재 진로교육 관련 정책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정책 간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한 정책담당자가 “중앙에는 그런 협의체가 없어요... 따로 움직이다 보니 중복되거나 빈 구간이 생겨요”라고 지적했듯, 정책을 총괄·조정할 중앙 단위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학생들에게 일관된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한다. 따라서 범부처 ‘(가칭) 국가진로교육협의회의’ 설치 필요하다. 「진로교육법」에서 시도에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누락되어 있다(서우석, 2016). 따라서 국무총리실 또는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 국가진로교육협의회’를 설치하여 분절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협의회를 통해 정책의 중복을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일관된 진로교육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진로교육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개선 방안

국가 차원에서 진로교육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진로교육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거나 학교 현장에서 진로교육을 실시할 때 기준이 되는 법적 문서는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이다. 그러나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관련 쟁점 분석을 종합해 보면, 현행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은 거버넌스의 불일치와 법적 효력의 공백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법적 권한의 이원화와 절차적 정당성 결여 문제이다.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을 둘러싼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수립 주체와 개발 주체의 불일치, 그리고 이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이다. 「진로교육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권한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있다. 이는 진로교육의 기준이 국가 교육과정의 거시적 틀 안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동법 제15조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사훈(2025)은 이러한 법적 구조가 교육과정의 기준을 설정하는 결정 주체인 국가교육위원회와 실제 내용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실행 주체인 교육부 산하 센터 간의 이원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상위 의결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기준을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발은 교육부의 위탁을 받은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수행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저해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센터 지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어,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과정 수립 권한이 실무 단계에서 제한될 소지가 있다.

또한, 고시(告示) 절차 부재로 인한 법적 효력의 공백 문제이다. 현행 「진로교육법」 제8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고시 절차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다. 행정법적 관점에서 볼 때, 법령에서 정한다는 문언은 행정청에게 실체적 내용을 확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고시라는 절차적 공표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정사언·남상택, 2013). 그러나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 맞춰 한상근 등(2021)에 의해 개발된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은 연구 보고서 형태로만 존재할 뿐,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2 ‘진로와 직업’ 교과의 교육과정은 한상근 등(2021)에 의해 개발된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을 반영하여 개발된 반면에 시도 교육청에서는 진로교육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발

할 때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2022 기준을 사용하지 못하고 2015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 기준을 사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어떤 버전을 사용해야 할지 학교마다 교사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표출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법적 구속력 확보를 위한 고시 의무화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이 실질적인 교육과정의 기준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를 위해 「진로교육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하여 ‘국가교육위원회는...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내부적 결정에 머물러 있는 성취기준을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법규 명령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조치이다. 법률 개정과 더불어,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재 연구보고서 형태로 존재하는 한상근 외(2021)가 개발한 2022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안)을 신속히 검토하여 고시하거나 새롭게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진로교육 자료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의 명확한 법적 준거를 제공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수립 주체와 개발 주체의 통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을 정하는 주체와 개발하는 주체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김사훈(2025)이 제안한 바와 같이,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의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 권한을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하거나, 최소한 교육부장관이 센터를 지정할 때 국가교육위원회의 요청이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절차적 고리를 「진로교육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내에 진로교육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성취기준 개발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와 검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취기준 개발이 단순한 연구 용역 수준을 넘어, 국가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정합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의 개정 시기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5년과 2021년에 추진된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개정은 모두 진로교육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개발 이전에 확정·고시되지 못하여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2015년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2016.10.31. 인쇄)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2015.9.23.) 이후에 마련되어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 충분히 반영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2021년에 개발된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2021.10.31. 인쇄)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고시(2022.12.22.) 이전에 개발되었으나 공식적으로 확정·고시되지 못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사례는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이 교육과정 개정 일정보다 앞서 개발되고 고시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정책적 기준으로 활용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을 진로교육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을 차기 국가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개정 일정에 선행하여 개정하고, 이를 사전에 확정·고시하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체제 개선 방안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면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주관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된다. 따라서 진로교육 교육과정도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으로 개발하게 되므로 박창언(2020)이 제시한 4단계 추진 체제를 바탕으로 향후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체계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단계인 발의 및 의제 설정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학문적 시안 개발에 앞서 평생 진로교육의 강조나 진로 탄력성 함양과 같은 진로교육의 거시적 목표에 대해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한 대국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때 맹목적인 대규모 의견 수합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정치 쟁점화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국민이 합의해야 할 철학적 의제와 교과 전문가가 결정할 미시적 의제를 명확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

제2단계인 시안 연구 및 개발 단계에서는 2022 개정 당시 진로 교과가 겪었던 심각한 시간 부족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고시 최소 3년에서 4년 전부터 진로 교과에 대한 사전 기초 연구를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충분한 개발 기간과 예산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간의 유기적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공식화하고, 일반 교사 및 진로전담교사를 단순 검토진이 아닌 상설 교과 소위원회의 핵심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시키는 상향식 개발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3단계인 심의 및 고시 단계에서는 과거 총론의 일방향적 하달 방식을 극복하기 위해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필수적 사전 검토 절차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총론과 진로 각론 간의 잠재적 이견을 투명하게 조율하고 소수 관료 및 전문가의 밀실 결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제4단계인 적용 및 환류 단계에서는 2022 개정에서 지적된 극도로 슬림화된 국가 문서의 현장 적용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교육과정 고시와 동시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주축이 되어 교사들이 오해 없이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상세한 해설서 및 진로 교수학습 지원 매뉴얼 등을 즉각 보급하는 촘촘한 행정적 후속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상설 모니터링단을 통해 학생의 진로 역량 변화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속 환류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진로교육법 및 국가교육위원회법 등 관련 법령 분석에 따르면, 차기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시 국가교육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법적 역할은 세 가지 차원으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진로교육의 궁극적 목표 및 성취기준 수립을 토대로 진로교육 관련 교육과정의 최종적인 고시 권한의 책임 있는 행사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은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직접 정하여 고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진로와 직업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뿐만 아니라 교과연계교육, 범교과 주제 학습의 진로교육, 학교자율시간 등 진로교육 영역 전반의 도달 기준을 확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국가교육위원회임을 법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위원회는 단순 행정 기구를 넘어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진로교육의 거시적 지향점을 주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둘째, 모니터링단 및 전문위원회를 통한 필수적 사전 의견 수렴 절차의 엄격한 법적 이행이다.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3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을 새롭게 수립하거나 기존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 현장 교원, 학생,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과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러한 법적 의무 장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과거의 하향식 소통의 한계를 벗어나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요구를 교육과정에 온전히 담아내고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확고히 확보해야 한다. 셋째, 타 행정 부처의 무분별한 법정교육 의무 부과에 대한 사전 협의 및 교육과정 통제담 역할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2 제1항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무적인 특수 법정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려 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업 교육, 노동 인권 교육, 산업 안전 교육 등 외부의 정책적 요구가 집중적으로 맞물리기 쉬운 진로교육 영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법적 협의 권한을 강력히 발동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 부담을 비합리

적으로 가중시키는 잉여 학습 주제의 유입을 철저히 방어하고, 진로교육과정 본연의 내적 일관성과 체계성을 엄격히 수호해야 한다.

2022 개정 일반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단기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정책 관행에서 완전하게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개정 발의 및 의제 설정, 시안 연구 및 개발, 시안 심의 및 고시, 적용 및 질 관리 환류로 이어지는 4단계의 고도화된 숙의적 모델을 정교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라) 진로이수이력 관리 시스템(IPP) 구축 방안

현재 학교 진로교육 현장은 학생의 진로 정보가 학교급 전환 과정에서 단절되고 유실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진로 심리검사 결과, 상담 이력,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 등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단계에서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상급 학교 진학 시 학생의 과거 진로 탐색 이력을 연계하여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입력되는 진로 정보가 매우 단편적이어서 실질적인 진로 이력 관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데이터의 분절성은 학생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방해하고, 진로 지도가 학생의 발달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채 매 학년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또한, 진로교육의 성과 관리가 단순한 만족도 조사나 양적 실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의 실질적인 역량 성장을 추적하거나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 기반(evidence-based) 데이터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연구에 참여한 교육 주체들의 인터뷰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인터뷰에서 한 고등학교 학부모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되어 아이의 개인별 진로 탐색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진로연계교육이나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지도 시 학생의 이전 진로 활동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학계 전문가 역시 현재 커리어넷 등에 축적된 방대한 진로 데이터가 교육과정 개편이나 정책 수립에 체계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데이터 기반의 환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현재의 칸막이식 행정과 데이터 관리 부재로 인하여 교사의 전문적 지도를 제약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설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진로이수이력 관리 시스템(IPP)’ 구축이 시급히 요청된다. IPP는 학생의 진로 심리검사 결과, 상담 기록, 교과 및 비교과 활동 이력, 진로 체험 활동 등을 디지털 플랫폼에 누적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의 성장 과정을 성찰하며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고, 교사는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 및 학업 설계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사례는 IPP 구축의 구체적인 모델을 제공한다. 온타리오주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이어지는 ‘교육 및 진로/인생 계획(Education and Career/Life Planning)’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학생이 디지털 IPP를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나의 기회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답하며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교사와 학부모는 이를 공유하며 학생의 진로 결정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AI 기술을 접목한 IPP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생에게는 맞춤형 진로 경로와 과목 선택 정보를 추천하고, 교사에게는 데이터 기반의 상담 솔루션을 제공하는 고도화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IPP 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재정립과 거버넌스의 혁신이 병

행되어야 한다. 진로전담교사가 단순한 상담자나 행정가를 넘어, IPP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를 총괄 지원하는 ‘교육과정 코디네이터(Curriculum Coordinator)’ 또는 ‘커리어 리더(Careers Leader)’로서의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영국의 커리어 리더와 같이, 학교 내 진로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교과 교사들과 협력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진로 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원의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강화 연수가 필수적이다. 또한, 데이터의 수집과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하는 ‘(가칭)국가진로교육협의회’를 설치하여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하고 통합적인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진로이수이력 관리 시스템(IPP)이 체계적으로 구축된다면 파편화된 진로교육을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성장 지원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학생에게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나침반을 제공하고, 교사에게는 학생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지도하는 지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시 진로교육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방안

진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개발 단계부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진로교육은 그 특성상 학교 내부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산업체, 학부모 등 다양한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행 중심의 교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은 소수의 전문가와 행정가 주도의 하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개발된 교육과정이 실제 현장의 요구 및 급변하는 직업 세계의 흐름과 괴리를 보인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현장 교사들은 의견 수렴 과정이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공문 방식의 의견 수렴으로는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학교 현장에서 일반 교사들은 진로교육을 성적 처리나 지필고사와 직결되지 않는 업무로 인식하여 협업에 소극적이며, 학부모는 진로교육 관련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자녀 지원에 한계를 느낀다. 정책 차원에서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부처에 걸쳐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총괄 조정 기능이 부재하여 정책 간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거버넌스가 폐쇄적·분절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실태 분석, 현장 인터뷰, 주요 국 사례, 전문가 논의를 종합하여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장 교사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 교육과정 개정 과정은 개정추진위원회 구성, 대국민 의견 조사,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현장 교사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심층 인터뷰에서 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는 현장 의견 수렴이 시간적 제약 속에서 급하게 진행되어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였고, 중학교 진로전담교사는 공문 방식의 의견 수렴이 교사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는 절차의 부재가 아니라 절차의 실질성 부재가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기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 시 현장 교사가 포함된 ‘(가칭) 교육과정 개발 실무단’의 구성을 의무화해야 한다. 실무단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최종 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하되, 그 역할을 단순 자문이 아닌 실질적 심의로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급별 현장 전문가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교육과정 초안에 대해서는 최소 10 개교 이상에서 시범 운영하는 파일럿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참여 교사로부터 구조화된 피드백을

수집하여 최종안에 반영하는 절차를 규정화해야 한다. 수렴된 의견이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혹은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환류 체계를 갖추으로써 교사의 신뢰와 지속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두 번째, 학교 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진로교육의 공통책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진로교육이 진로전담교사 개인의 과업으로 귀결되는 현실은 교육과정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다. 현장 인터뷰에서 일반교과교사들은 진로교육이 성적 처리나 지필고사와 직결되지 않아 업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토로하였고, 진로전담교사들은 교과연계 진로교육이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에 머물러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교과 통합형 진로교육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영국의 개츠비 벤치마크(Gatsby Benchmarks)는 이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국은 모든 교과 교사가 교육과정 학습과 진로를 연계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학교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실행력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개발 단계에서 일반교과교사들이 진로교육 전문가와 협업하여 교과별 진로 연계 성취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교수·학습 자료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학교 내 교육과정 협의회에 진로전담교사의 참여를 필수화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 전반에 진로교육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계 및 지역사회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교육과정의 현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래 직업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학교 교육과정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오래된 문제다. 현장 인터뷰에서 학교장은 교과서 내용이 시대 변화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내용 재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정책담당자는 직업인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실질적인 직업 세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캐나다의 학생 전환 벤치마크(Student Transition Benchmark)는 지역사회 구성원, 고용주, 동문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학습 내용이 노동 시장의 요구와 연결되도록 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핀란드 역시 지자체 중심의 협력 구조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을 정규 교육과정 내에 체계적으로 편입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가칭) 산학관 연계 교육과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업계 수요를 교육과정 목표와 내용에 반영하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친환경 산업 등 신산업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별도로 보장하여 미래 진로 경로에 대한 정보가 교육과정에 선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전문가와의 협력 구조는 협약 형태로 명문화하여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학생·학부모 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설계가 요구된다. 교육과정의 실질적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개발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수렴되지 않으면, 완성된 교육과정이 현실의 필요와 괴리를 보이는 것은 불가피하다. 현장 인터뷰에서 학부모는 진로교육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자녀 지원에 한계를 느낀다고 밝혔으며, 학생들은 이론 중심의 수업보다 직접적인 체험과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발 초기 단계에서 학생·학부모 대상 광범위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학생·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개발 중인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학부모 대상으로는 학생 발달 단계별 진로지도 방법, 변화하는 직업 세계 및 진학 정보 등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내용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의 진로 발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진로이수이력 관리 시스템(IPP)'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교육과정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환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 구축하여 정책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확보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진로교육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교육과정 개발과 진로교육 정책 수립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부처에 걸쳐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총괄 조정 기능의 부재로 인해 부처별 정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학교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의 수립 주체(국가교육위원회)와 개발 주체(국가진로교육센터) 간의 역할 불일치가 교육과정 개발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김사훈, 2025).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가칭)국가진로교육협의회'를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분기별 정례 회의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 협의회를 통해 국가 차원의 진로교육 중장기 계획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일치시키고, 학교 밖 진로체험 자원을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조정·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진로교육법」을 개정하여 국가교육위원회와 국가진로교육센터 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교육과정 개발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상의 다섯 가지 방안은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상호 연계된 하나의 거버넌스 체계로 통합될 때 실효성이 극대화된다. 범부처 협의회가 정책 방향을 조정하고, 산학관 연계 심의위원회가 내용의 현장성을 담보하며, 현장 교사 실무단이 개발 과정의 현실 적합성을 검토하고, 학생·학부모 모니터링단이 수요자 관점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구조가 갖추어질 때 비로소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자체 수준의 거버넌스 강화 방안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진로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러한 외형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실질적인 협력 거버넌스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내 진로교육 자원의 불균형, 학교급별 연계의 단절, 그리고 지원 센터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는 지역 단위 진로교육의 질적 도약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먼저 지자체 수준 진로교육 거버넌스의 현황을 살펴보면,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활용도와 지원 역량에서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난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활용률은 자유학기제가 운영되는 중학교의 경우 80.2%로 높게 나타난 반면, 초등학교는 31.3%, 고등학교는 50.8%에 그쳐 학교급 간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지원이 특정 시기의 체험처 제공에 편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원의 질적 수준과 소통의 부재이다. 심층 인터뷰에서 한 초등 진로교사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인력이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체험 활동이 단순한 사업 실적 위주로 진행되거나,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하고 체험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들은 지역사회 기관들이 학교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실적을 위한 행정적 절차로 인식하거나, 학교를 업무 대상으로만 여기는 등 협력적 파트너십이 결여되어 있음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학교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부재로 이어져 거버넌스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의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한 학교장은 농어촌 지역 학교의 경우 인력풀과 예산의 제한으로 인해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어려우며, 전문가 섭외나 다양한 직업군 체험에 있어 도시 지역 학교와 큰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학부모 인터뷰에서도 일반고 학생들이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에 비해 지역 내 연구소나 공공기관 방문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현재

의 지자체 수준 거버넌스가 지역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연결하는 허브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행정적인 측면에서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이 모호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조정할 컨트롤 타워의 리더십이 부족하여 단위 학교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지역 자원을 발굴해야 하는 업무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지자체 수준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진로체험지원센터의 기능을 단순 체험처 매칭에서 학교 교육과정 지원의 핵심 허브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학교의 진로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하는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센터에 교육과정 전문가를 배치하거나 센터 담당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여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영국의 사례는 이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국은 기업 어드바이저 네트워크(Enterprise Adviser Network)를 통해 기업의 고위 관리자가 학교 경영진과 직접 소통하며 학교의 진로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 단위의 허브(Hub)를 통해 학교와 고용주를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센터가 학교와 지역사회를 교육적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을 재편하고,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실질적인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가동하고 협력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부재한 지역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장과 지자체장이 공동 의장이 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 예산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인터뷰에 응한 정책담당자들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시군구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주체가 되어 지역 내 전문가를 확보하고 연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협의회는 지역의 특화 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의 자원을 총망라한 지역 진로교육 자원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정과 매칭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핀란드의 경우 지자체가 교육의 조직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내 기업 및 외부 파트너를 학습 환경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자체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교육생태계 조성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풍성하게 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하여 대학의 인프라를 초·중·고 진로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 멘토링, 전공 체험, 교수 특강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심화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가 중학생들을 위한 직업 체험 거점 학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지역 단위의 진로교육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경험 학습(Experiential Learning)을 강조하며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통해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지역 자원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위해 소외 지역 학교를 위한 찾아가는 진로체험 버스나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을 진로교육의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개방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뷰에서 학부모들은 진로 정보 부족을 호소하며 자녀 지원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따라서 지자체는 평생학습관이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활용하여 학부모 대상의 진로 코칭 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학부모가 지역사회의 직업인으로서 학교 진로교육에 기부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 진로지원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와 가정이 학생의 진로 발달을 위해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꿈을 함께 키우는 교육적 토양을 만

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자체 수준의 진로교육 거버넌스 강화는 단순히 지원 조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학생의 성장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3) 학교 진로교육 거버넌스 강화 방안

이 연구의 실태분석과 요구분석을 통해 확인된 학교 진로교육 거버넌스의 핵심 문제는 학교 진로교육 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이해관계자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실태 분석 결과,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진로교육을 위한 별도의 운영위원회나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으며, 관련 논의가 교육과정위원회 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거나 진로전담교사 개인의 판단에 일임되는 경향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실제 심층 인터뷰에서 한 중학교 진로전담교사는 학교 내 진로교육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이며,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교무부장과 개인의 상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토로하였다. 이는 진로교육이 학교 전체의 과제가 아닌 특정 교사나 부서의 업무로 국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일반교과교사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과 비협조적인 태도 역시 거버넌스 구축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일반교과교사들은 진로교육을 자신들의 주된 업무가 아닌 부가적인 부담으로 인식하거나, 당장의 지필고사나 성적 처리에 밀려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한 일반교과교사는 인터뷰에서 진로 전공이 아닌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은 주체적인 역할보다는 감독 교사 정도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교과와 진로의 유기적인 결합을 방해하고, 진로교육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일회성 행사로 전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저에는 학교관리자의 리더십 편차와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모호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인터뷰 결과, 학교장의 의지가 진로교육 활성화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대상의 연수 축소 등으로 인해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는 관리자의 의지가 교사들을 설득하고 진로교육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관리자의 지원이 부족한 경우 진로전담교사는 학교 내에서 고립되어 고군분투하게 되며, 이는 진로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진로전담교사에게 교육과정 설계 및 이수 지도라는 확장된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단순 상담이나 행정 업무 처리에 치중되어 있어 전문성 발휘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학교 진로교육 거버넌스는 지역사회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학교, 체험처, 진로교육 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강화되어야 하지만, 현재 센터의 소극적 태도와 지원 역량 부족으로 효과적인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센터 수가 적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참여 기회 자체가 제한되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이처럼, 효과적인 진로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학교 내부의 협력체계 강화와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연계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현황과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교 진로교육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학교 내 공식적인 진로교육 협의체의 구성을 제도화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담보해야 한다. 진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장이 주관하고 진로전담교사, 교육과정부장, 학년부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진로교육 계획 수립부터 교육과정 편성, 프로그램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공식적으로 논의함으로써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력적 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특히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국은 ‘개츠비 벤치마크(Gatsby Benchmarks)’를 통해 학교 진로교육의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학교 평가와 연계하여 거버넌스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단위 학교의 진로교육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자체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미래 사회의 진로교육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학생의 생애 설계를 지원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요구한다. 영국의 ‘커리어 리더(Careers Leader)’ 모델을 참조하여, 진로전담교사가 학교 진로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며, 교내외 자원을 연결하는 전략적 리더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진로전담교사의 직무에 학업 설계 지원을 명문화하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사례처럼 학생들의 진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IPP)을 구축하고, 진로전담교사가 이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수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일반교과교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핀란드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에서 ‘횡단적 역량’을 설정하여 모든 교과 수업 내에서 진로 관련 역량을 함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과 수업과 진로교육이 분리되지 않도록 각 교과의 성취기준에 진로 요소를 명시하고, 일반 교사들이 수업 중에 이를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자료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일반 교사 대상의 연수를 확대하고 교과연계 진로교육의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교사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개방형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인터뷰 결과, 학부모들은 진로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을 호소하며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학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 아카데미나 연수를 정례화하고, 학부모가 진로 멘토나 지원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 지역사회 구성원, 고용주, 동문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직업 세계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자체, 기업 등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학생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학교 진로교육 거버넌스의 강화는 진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의 본질적 가치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진로교육의 주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할 때, 학생들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VI. 요약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 확대된 진로교육 관련 정책과 교육과정 요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실태와 한계를 진단하며, 사회변화와 교육환경 전환에 따른 개선 요구 및 주요국 사례를 종합하여 차기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는 제2장의 실태 분석, 제3장의 개선 요구 분석, 제4장의 주요국 사례 분석, 제5장의 개선 방향 및 방안 탐색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분석,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자료 분석, 심층인터뷰, 전문가 워크숍, 학술세미나 등의 연구방법이 활용되었다.

제2장의 실태 분석은 우리나라 진로교육이 지난 30여 년간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음을 보여준다. 고등학교 「진로·직업」 교과 신설, 중학교 「진로와 직업」 교과 도입, 진로진담교사 배치,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마련, 「진로교육법」 제정, 국가진로교육센터 설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진로연계교육 도입 등은 진로교육이 점차 국가교육정책의 핵심 의제로 제도화되어 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이러한 제도적 확장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 실행력으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정책 주체의 역할이 충분히 명료하지 않고, 진로교육 운영 시수와 방식에 한계가 존재하며, 초등학교 단계의 구조적 취약성, 학교 내·외 협력의 부족, 정량적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 방식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진로연계교육, 교과연계 진로교육, 범교과학습 주제, 학교자율시간 등 유사한 정책 용어와 운영 기제가 병존함에 따라 총론의 방향과 현장 실행 간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진로교육이 확대의 단계에서 정합화와 구조화의 단계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진로교육이 범교과적 요소로 분산되어 있어 자기이해와 진로발달의 기초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진로와 직업」 과 창의적 체험활동 내 진로활동 간 역할 중복과 운영상 혼선 문제가 확인되었다. 결국 제2장에서는 현행 진로교육 교육과정이 법·제도적 외형은 확장되었으나, 학교급별 구조, 운영 원리, 역할 분담, 지원 체계,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3장의 개선 요구 분석은 진로교육의 향후 개편 방향이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라 정교화와 재구조화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 장은 미래사회 변화와 교육환경 전환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와 더불어, 진로진담교사, 일반교과교사, 학교관리자, 학생, 학부모, 정책담당자,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다층적으로 도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총론과 각론 간 구조적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현장에서는 진로연계교육, 교과연계 진로교육, 학교자율시간, 고교학점제와 같은 총론 수준의 운영 기제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충분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초등 단계에서는 범교과적 구조화와 적합한 자료 개발을 통해 진로교육의 기초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인되었다. 셋째,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진로와 직업」 교과의 필수화 또는 실질적 내실화를 통해 진로교육의 교과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넷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질적 제고와 더불어 진로진담교사의 역할을 상담 중심에서 학업설계와 진로경로 설계 지원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확인되었다. 나아가 학교급별 목표와 내

용 체계, 교과 내 진로 관련 단원과 성취기준, 교과와 비교과 간 역할과 연계성을 강조했다. 이는, 현장의 요구가 단순히 더 많은 시간과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학교급별 위계와 발달 단계, 교과와 비교과의 역할 정합성, 그리고 연속적인 내용 체계를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3장은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편의 중심 과제가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 정교화에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제4장의 주요국 사례 분석은 차기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편이 국내 제도 논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질 관리, 전담 인력의 전문성, 데이터 기반 지원, 학교급 간 연계, 지역사회 협력과 같은 체제적 요소를 함께 갖추어야 함을 보여준다. 영국은 개츠비 벤치마크와 커리어 리더 제도를 통해 학교 진로교육의 질 관리와 책무성을 제도화하고 있었으며, 캐나다는 학생 전환 벤치마크와 개인 교육 및 경력 계획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이를 디지털 방식으로 축적·관리하는 구조를 발전시키고 있었다. 핀란드는 횡단적 역량과 학생지도 체계를 통해 진로교육을 특정 교과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과정 전반에 내재화하였으며, 학교급 간 연계성과 생애주기적 접근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 진로교육이 교과를 확대하거나 체험처를 확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국가 차원의 질 기준, 전담 인력 전문성, 데이터 기반 관리, 범교과적 운영 원리, 지역사회 연계라는 체제적 조건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시사점은 제도의 단순 이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학교 현실에 맞는 선택적 재구성의 방식으로 수용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장의 핵심은 진로교육을 특정 교과나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을 관통하는 체제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3 매트릭스와 ‘체제-편성-방법’의 위계화를 통해 진로교육 교육과정 유형별 성격과 위계를 정립하였다. 또한 총론 수준의 운영 기제와 각론 수준의 실행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학교급별 발달 단계를 고려한 내용 체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운영 측면에서는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확대, 학교 수준 협의체 강화,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와 환류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다층적 협력 구조를 제안하였다. 이는 제2장에서 확인된 제도화와 실행 간 간극, 제3장에서 도출된 현장의 구조 개선 요구, 제4장에서 확인된 해외 사례의 체제적 시사점을 실제 정책 설계의 수준으로 전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제5장은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편이 부분적 보완이나 단일 영역의 개선이 아니라, 기준-구조-운영-평가-거버넌스를 포괄하는 총체적 재설계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차기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편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 과제는 다섯 가지 횡단적 차원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제도 정합성 차원에서는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의 위상, 관련 기관 간 역할 분담, 정책 주기와 교육과정 개정 주기 간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 체계성 차원에서는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구조적 취약성과 중·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진로와 직업」,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연계 진로교육 간 역할 중복 및 연계 미흡이 드러난다. 셋째, 실행 가능성 차원에서는 진로연계 교육, 학교자율시간, 고교학점제 등이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료, 인력, 연수, 협의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 정책 성과와 형평성 차원에서는 제도적 정착과 체험 기회 확대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가 여전히 만족도와 참여 실적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지역, 학교급, 학교 유형 간 격차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미흡하다. 다섯째, 정책 추진 및 환류 차원에서

는 국가 수준 질 기준, 전담 인력, 데이터 기반 관리, 지역사회 연계, 상시적 환류 메커니즘이 결합된 종합적 체제 구축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진로교육 교육과정은 단순한 내용 추가나 프로그램 확대가 아니라, 제도 정합성, 체계성, 실행 가능성, 효과성과 형평성, 거버넌스와 환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구조화는 진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의 주변적 활동이 아니라 학생의 삶과 학습, 학업설계와 진로설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교육과정 체제로 정착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2. 제언

가. 정책 제언

첫째, 제도적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수준 진로교육 기준을 재정립하고 이를 총론·각론·법·정책 문서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로교육 관련 정책은 「진로교육법」에 근거한 국가수준 목표와 성취기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진로 관련 요소, 고교학점제, 진로연계교육, 학교자율시간, 교과연계 진로교육 등으로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 요소의 법적 위상과 상호 관계, 정책적 우선순위가 국가수준 문서상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학교 현장에서는 유사 개념의 중첩과 역할 혼선이 발생하고, 개별 정책이 교육과정 체계 내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차기 진로교육 교육과정을 개편할 때에는 국가수준 진로교육 기준을 재정립하여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의 위상을 명료히 하고, 총론의 운영 기제와 각론의 실행 영역을 정합적으로 연결하며, 교육과정 개정 주기와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비롯한 진로교육 정책 주기를 연계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진로교육 개편의 출발점이자 이후 논의되는 구조 재설계와 운영 개선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 체계성 강화를 위하여 학교급별 진로교육 구조와 내용 위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자기이해, 관계 이해, 일과 삶에 대한 기초 인식, 미래 상상과 탐색 경험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의 기초를 범교과적으로 체계화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와 운영 지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자기이해와 진로탐색을 바탕으로 진로의사결정과 학업설계의 기초를 강화하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과목 선택, 학업설계, 진로설계와 실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내용 체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진로와 직업」은 교육과정 기반의 학습 요소로, 창의적 체험활동 내 진로활동은 체험과 실천 중심의 활동 요소로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나아가 교과연계 진로교육은 개별 교사의 자발적 실천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교과의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지침에 진로 관련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구조화는 진로교육을 특정 교과나 행사의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반영하는 핵심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실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운영 지원체계를 실질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로연계교육, 학교자율시간, 고교학점제 등은 정책적으로는 중요성이 크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운영 모델의 불명확성, 제도 간 중첩, 교사의 업무 부담, 지원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 실행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차기 진로교육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에는 교육과정 문서의 정비와 병행하여 학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 조건, 적용 모형, 교수·학습 자료, 협의체 운영 지침, 교원 연수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로전담교사는 기존의 진로 수업과 진로 상담 중심 역할에서 나아가 학생의 과목 선택, 학업설계, 진로이수 경로 설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간 연계,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코디네이터로 직무가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일반교과교사 역시 교과연계 진로교육의 핵심 실행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예비교원 양성과 현직교원 연수 과정에 진로교육 관련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장 주관의 공식 협의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편성, 교과 운영, 상담, 체험활동, 지역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진로교육이 특정 담당자의 개별 업무가 아니라 학교 전체의 공동 책무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책 성과와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진로교육은 체험 기회의 확대와 제도적 기반의 정착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 방식은 여전히 만족도와 참여 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의 진로심리검사 결과, 상담 이력, 진로체험, 교과 및 비교과 활동 이력을 종단적으로 축적·활용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학생 맞춤형 지원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야기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학생의 자기이해, 진로탐색, 학업설계, 진로의사결정, 전환기 적응, 진로체험의 질 등을 반영하는 국가수준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진로 관련 경험과 지원 이력을 누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록의 활용 범위, 학교 간 이관, 기존 학생 기록 체계와의 연계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학교급, 학교 유형별 진로교육 기회의 편차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취약지역과 저활용 학교급에 대한 차등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형평성의 관점에서 진로교육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진로교육을 단순한 운영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성장 지원과 교육기회 보장의 문제로 전환하는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국가-지역-학교를 연결하는 정책 추진 및 환류 체계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 분석 결과, 진로교육은 국가 수준의 질 관리 기준, 전담 인력의 전문성 확보, 학교급 간 연계 체계, 디지털 기반 진로이력 관리 시스템, 지역사회 협력 구조 등이 결합될 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제로 운영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국가진로교육센터, 관계 부처가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면서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상설 협력 구조를 마련해야 하며, 지역 수준에서는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학교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 수준에서는 진로교육 협의체를 기반으로 교사 협업, 학부모 참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국가수준 성과지표와 현장 운영 결과를 정기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차기 교육과정 개정과 정책 조정에 반영하는 상시 환류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가 마련될 때 비로소 진로교육 교육과정은 일회적 개정의 대상이 아니라 운영, 점검, 개선이 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정책 체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 제언

추후 연구는 이 연구가 제시한 정책 방향을 보다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정책 집행 및 제도 운영 수준에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우선 교과별 진로교육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가 요구되며, 학교급 간 종단적 내용 체계의 연계성과 발달 적합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진로전담교사의 직무와 전문성 모델을 보다 구체화하고, 교육과정 코

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 기준과 양성·연수 체계를 정립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더불어 국가수준 표준 성과지표 체계와 학생 수준의 진로이수이력 관리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후속 연구도 요구된다. 지역 진로교육 생태계의 운영 모형, 학교-지역사회 연계 거버넌스의 효과성, 학교급별 지원 모델의 차별화 전략 역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단순히 이 연구를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이 연구가 제시한 구조적 방향을 정책 설계와 제도 운영의 수준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향후 차기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편의 실증적 근거를 축적하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

차기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편은 국가 수준 기준의 정비, 학교급별 구조 재설계, 학교 운영 지원체계의 구체화, 데이터 기반 성과 및 형평성 관리, 다층적 거버넌스와 환류 체계 구축을 하나의 정책 체제로 통합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진로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의 주변적 활동이 아니라 학생의 삶과 학습, 과목 선택과 학업설계, 진로설계와 전환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교육과정 체제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가 제시하는 정책제언과 연구제언은 차기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편과 국가수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핵심 과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생성형 AI 활용 선언(Declaration of Generative AI)

연구자는 이 연구의 원고 작성 과정에서 문장의 가독성 향상, 표현 정리, 문법 및 문체 교정을 위하여 생성형 AI 도구인 Google Gemini 1.5 Pro, Google NotebookLM(Gemini 1.5 Pro 기반), OpenAI ChatGPT(GPT-4 버전)를 제한적으로 활용하였다. 다만, 이러한 도구는 초안의 문장 수정, 표현 개선 등의 보조적인 편집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으며, 연구의 설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결과 해석, 최종 결론 도출은 전적으로 연구자의 독립적인 판단과 비판적 검토 하에 수행되었다. 또한 본 보고서에 제시된 사실관계, 해석, 인용문헌의 적절성과 정확성은 연구자가 직접 확인하였으며, 보고서의 최종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참고문헌

- 강호원. (2018). 영국의 진로교육 개혁에 따른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서울 교육, 해외교육, 231(여름호)**. 서울특별시교육청.
- 경상남도교육청. (2023). **2022 개정 교육과정 대비 진로연계교육 도움자료**. 경상남도교육청.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교육부.
- 교육부. (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인적자원부 (1997).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부. (2022).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확정·발표**. 학교교육지원관 2022교육과정개정지원팀, 국립교육특수원 교육과정정책팀.
- 교육부. (2022). **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4])**. 교육부.
- 교육부. (2022). **중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3])**. 교육부.
- 교육부. (202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 교육부.
- 교육부. (2022). **초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2])**. 교육부.
- 교육부. (2023). **2022 개정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진로연계교육 운영 모형 연구학교 운영 계획**. 교육부.
-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서**. 교육부.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4). **2024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4). **4시간 똑딱! 신산업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가이드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국가교육위원회. (2023). **2022~2023 국가교육위원회 백서**.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2). 법률 제18298호.
- 국회연구조정협의회. (2024). **미래인재양성의 과제와 국내·외 교육개혁 동향**. 국회연구조정협의회.
- 김민경, 방혜진, 박나실, 안유진, 권효원, 김나라. (2021).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2021)**.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김민경, 권효원, 문찬주, 박나실, 방혜진, 황승록. (2022).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2022)**.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김미경, 김경희, 김현미, 이수정. (2022). **미래교육 전망: UNESCO 교육의 미래와 OECD 교육 2030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사훈. (2025).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자문서**. 한국외국어대학교.
- 김인숙. (2016).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집문당.
- 노은희. (2025).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의 의견 수렴에 대한 반성적 고찰: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28(2)**, 33-66.
- 류방란, 김경애, 이상은, 한효정, 이윤미, 이종태, 최항섭, 이지미. (2018). **제4차 산업혁**

- 명 시대의 교육:학교의 미래. 한국교육개발원.
- 문찬주, 김민경, 최광성, 황승록, 방혜진, 김민석. (2023).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2023) 결과보고서**.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박나실, 정윤경, 정지은, 안중석, 이승희, 박정희, 이진희, 이정림. (2022). **2022 개정 진로와 직업과 교육과정 시안(최종안)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박나실, 정지은. (2023). 2022 개정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향후 과제. **진로교육연구**, 36(1), 95-118.
- 박창언. (2020). **국가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체제 재구조화 방안 연구**. 국가교육회의.
- 방혜진, 정윤경, 김나라, 김가연, 류지은, 박화춘, 전유정, 정지은, 황경서, 황승록. (2024). **진로연계교육 설계 프로그램 개발(수탁사업 2024-06-01)**.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서우석. (2016). 초등 진로전담교사의 역할과 과제.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33-58.
- 서우석. (2016). 「진로교육법」, 진로교육의 새 지평을 연다. **THE HRD REVIEW**, 18(4), 2-7.
- 서우석. (2018). 한·일 초등학교 진로교육 비교 연구. **실과교육연구**, 24(1), 195-218.
- 서우석. (2024). **2022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발전 방향**.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 기조강연.
- 서유정, 김민경, 류지영, 박나실, 김나라, 안유진, 안중석. (2020).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2020): 기초통계표**.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손응령. (2014). **진로진학 상담교사 제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이강주, 권순형, 양채원, 계보경, 김기현, 김은설, 남창우, 박선화, 송선영, 심한식, 양정승, 임완철, 진민주. (2021).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학습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동섭·Hansen S.(2021 출간 예정?). **북유럽 국가의 학습 진로지도 시스템 비교연구: 핀란드와 덴마크 중심으로**. Tampere: Tampere University Press.=>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
- 이르멜리 할리넨. (2020, 3월 18일). **핀란드 교육과정, 이런 절차로 개정된다.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https://21erick.org/column/2521/>
- 이재열, 정윤경, 박화춘, 김나라, 안중석, 김가연 (2024). **초등 진로연계 교과교육 가이드라인 저학년용 (1-2학년)(연구자료 2024-XX)**.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이재열, 정윤경, 박화춘, 김나라, 안중석, 김가연, 박봉남, 전유정, & 황경서. (2024). **2024년 초등 진로교육 가이드라인 개발(수탁사업 2024-06-02)**.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이지연.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진로교육정책과 진로교육의 방향**. **THE HRD REVIEW**, 20-28.
- 이혜정. (2016). 미래사회, 어떤 교육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교육비평**, (39), 369-385.
- 이혜진. (2024).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학교 교육정책의 방향 및 새로운 교육모델 탐색. **교육비평**, 2024년 겨울(56), 8-36.
- 이화진, 조용기, 이창훈, 이미경, 이명애, 오상철, 조지민, 박소영, 이용상, 김진구, 양윤정, 정영근, 권점례, 박진용, 주형미, 김수진, 노은희, 박인용, 김태은, 홍선주, 이미숙, 구자옥, 박영수, 정은주, 조보경, 김혜숙. (2016). **미래사회 변화 및 학령기 인구 감소 대비 학교교육 진단과 교육방향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장현진, 민숙원, 김민경, 류지영, 김재희. (2017).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17)**.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라북도교육청.
- 장현진, 윤형한, 김민경, 류지영, 이지은, 유미애. (2016). **진로교육 현황조사(2016)**. 교육부, 전라북도교육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전라북도교육청. (2024). **초등 교과중심 진로교육 가이드라인 중학년용(3~4학년)**. 전라북도교육청.
- 정사언, 남상택. (2013). 고시의 법적 성격에 관한 재고찰: 판례를 중심으로. **국가법연구**, 9(1), 211-237.
- 정윤경, 박나실, 김나라, 이윤진, 허유진, 김종훈. (2021).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대응한 학교 진로교육과정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정윤경, 정지은, 황승록, 김나라, 박화춘. (2024). **진로연계교육 설계를 위한 디딤돌 안내서 : 고등학교(연구자료 2024-52)**.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정윤경, 정지은, 황승록, 김나라, 박화춘. (2024). **진로연계교육 설계를 위한 디딤돌 안내서 : 중학교(연구자료 2024-51)**.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정윤경, 정지은, 황승록, 김나라, 박화춘. (2024). **진로연계교육 설계를 위한 디딤돌 안내서 : 초등학교(연구자료 2024-48)**.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정은진, 정윤경, 김나라, 류지영, 김재희, 장현진. (2018).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18): 기초통계표**.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종희, 강찬성, 김재호, 장현진. (2020). **학교급별 진로교육과정에 대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경기도교육연구원.
- 정철영, 정진철, 서우석, 이승엽, 강민지, 김기민. (2023). 대학에서의 진로교육 운영에 관한 이슈 탐색 질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5(1), 103-132
- 조대연, 류성창, 박기범, 신혁석, 오석영, 현영섭, 정홍인, 강현주. (2017). **4차 산업혁명시대 생애단계별 역량분석 및 미래사회 교육방향**. 교육부, 고려대학교HRD정책연구소.
- 조영아. (202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진로교육연구」 연구동향 분석: 진로교육정책 주요 시기별 비교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4(3), 43-66.
- 「진로교육법」. (2022). 법률 제18298호.
- 「진로교육법 시행령」. (2025). 대통령령 제35382호.
- 「초중등교육법」. (2024). 법률 제19740호.
-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 (2014). **기본교육 교육과정 기본 사항 - 핀란드 초·중학교 기본교육의 학생지도상당 교육 목표 체계 (Oppilaanohjauksen opetuksen tavoitteet vuosiluokilla)**, 7-9, 442-445.
- 한상근, 김민경, 안유진, 안중석. (2019). **진로교육 현황조사: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19)**.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상근, 정윤경, 정지은, 안중석. (2021).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홍후조. (2018). **알기 쉬운 교육과정(2판)**. 학지사.
- 화봉고등학교. (2024). **고교학점제 기반 성장형 진로연계교육 운영 모델 개발(연구학교 보고서)**.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황준성, 이쌍철, 이진권, 한효정, 선빈, 김경희, 김훈호, 여영준, 김인숙. (2024). *미래 교육 환경 변화 전망과 한국 교육 진단*. 한국교육개발원.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Braun, V., & Clarke V. (2012). Thematic analysis. In H. Cooper (Ed.), *APA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psychology. Vol. 2, research design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Canada. (2017). *CMEC reference framework for successful student transitions*.

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Canada. (2017). *Student Transition Benchmark Self-Assessment Tool*.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2012). *National careers service: The right advice at the right time*. London, UK: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Careers Guidance and Access for Education and Training Providers Statutory Guidance for Governing Bodies, School Leaders and School Staff*.

Domene, J. F., & Isenor, J. (2017). Career service provision in Canada: Deep roots and diverse practices. *International practices of career services, credentials, and training*, 1(9), 32-48.

Education (Careers Guidance in Schools) Act 2022, c. 13. (U.K.). Retrieved May 9, 2025, from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2/13/contents>

Einarsdottir, S., Thomsen, R., Hansen, J. D., Berg, E., Ruusuvirta-Uuksulainen, O., Jensen, I., & Kjærgaard, R. (2023). Career education in the Nordic countries: A comparison of national legislation and compulsory school curricula. *Nordic Journal of Transitions, Careers and Guidance*, 4(1), 97-112.

Finnish National Board for Education. (2016).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basic education 2014*.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Government of Ontario. (n.d.). *Government of Ontario*. Ontario.ca. Retrieved May 9, 2025, from <https://www.ontario.ca/page/government-ontario>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n.d.).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Retrieved May 9, 2025, from <https://www.ubc.ca/>

Long, R., Lewis, J. (2024). *Careers guidance in schools, colleges and universities (England)*. House of Commons Library.

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 (2016). *State Division Handbook. OK: 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

OECD. (2004). *OECD review of career guidance policies: Bridging the Gap*. Paris: OECD.

-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n.d.). *Education and training*. Government of Ontario.
-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13). *Creating pathways to success*. Toronto, ON: Queen' s Printer for Ontario.
- Opetushallitus. (2025). *Opetushallitus*. Retrieved May 25, 2025, from <https://www.oph.fi/fi>
- OPH. (2014). *Perusopetuksen opetussuunnitelman perusteet: Määräykset ja ohjeet*. OPH
- Shepard, B. C., & Mani, P. S. (2014). Career development for students: Elementary to high school. In B. C. Shepard & P. S. Mani (Eds.), *Career development practice in Canada: Perspectives, principles, and professionalism* (pp. 35-51). Toronto, ON: Canadia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ssociation.
- Skolverket. (2022). *Läroplan för grundskolan, förskoleklassen och fritidshemmet – Lgr 22* [Curriculum for primary schools, preschools, and after-school centers]. Skolverket.
- 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 (2020). *Careers education in England' s schools and colleges 2020: Working together for young people' s futures*. London: The Careers & Enterprise Company.
- The Gatsby Charitable Foundation. (2014). *Good Career Guidance*. The Gatsby Charitable Foundation.
- Undervisningsministeriet. (2017). *Bekendtgørelse om uddannelsesparathedsvurdering, uddannelsesplaner og procedurer ved valg af ungdomsuddannelse* [Executive Order on Legislation in the Public School Law].
- Undervisningsministeriet. (2019). *Bekendtgørelse av lov om kommunal indsats for unge under 25 år* [Consolidation Act on Municipality Action for Young People Under the Age of 25]
- UNESCO. (2021).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UNESCO.
- Utdanningsdirektoratet. (2020). *Læreplan for utdanningsvalg på ungdomstrinnet* [Curriculum for Educational Choices for Young People]. Oslo, Norway: Utdanningsdirektoratet.
- Valtioneuvosto. (2018). *Valtioneuvoston asetus lukiokoulutuksesta 810/2018* [Government Decree on Upper Secondary Education 810/2018]. Finlex. Retrieved May 3, 2025, from <https://www.finlex.fi/fi/laki/ajantasa/2018/20180810>

【부록】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분석 인터뷰지

【부록 1】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분석 인터뷰지(초중등 진로전담교사)	199
【부록 2】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분석 인터뷰지(초중등 일반교과교사)	219
【부록 3】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분석 인터뷰지(초중등 학교관리자)	239
【부록 4】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분석 인터뷰지(정책담당자 및 학계전문가) ..	254
【부록 5】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분석 인터뷰지(학부모)	260
【부록 6】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분석 인터뷰지(학생)	271

【부록 1】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분석 인터뷰지(초·중·등 진로전담교사)

1. 초등학교 진로담당교사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 인터뷰: 초등학교 진로담당교사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관계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발전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교육과정 운영과 인식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뷰 참여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으며, 인터뷰 내용은 녹취되어 분석에 활용됩니다. 인터뷰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다시 한번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문의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1) 현재 재직하고 계신 학교의 진로교육 교육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년군별 진로교육 편성 및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편성 및 운영
 - 그 외 진로연계교육 등

- 2) 초등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서 주안점은 무엇입니까?
 - 진로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과정에서 및 학교장, 일반교사 등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 3) 2022개정 교육과정의 본격적인 적용과 관련하여 중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에서 주안점(중점 고려 사항)과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경험하는 이슈 및 지원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영역별 이슈 및 요구

- 1) (학년급별 진로교육) 초등학교의 학년급별 진로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과 차별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년급별 진로교육의 방향 및 역할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년급별 진로교육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2)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이 실과 등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수업과 가지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차별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초등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적절한 운영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진로연계교육) 진로연계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어떻게 배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로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4) (교과연계진로교육) 교과연계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교과연계진로교육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어떤 교과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교과연계진로교육 편성 및 운영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과연계진로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과연계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교과연계진로교육을 운영하기 적합한 일반 교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진로교육 교육과정 역할 및 성과

1) 현재까지 진로교육이 초등학교 진로교육 목표를 충실히 달성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2015 교육과정 기준 초등학교 진로교육목표

자신과 일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가치를 형성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과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찾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기초를 배양한다.

2)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위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초등학교의 맥락에서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떠합니까?

- 중·고등학교처럼 별도의 진로전담교사 배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진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제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

1) 초등학교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진로교육에 대해 어떤 태도 및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 운영을 위해 교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초등학교 교사들의 진로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사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 학교와 지역사회(진로체험지원센터 포함)가 연계된 진로교육이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서 지역사회 역할과 어떤 연계가 적절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 방향

1) 미래 진로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대표적인 키워드 5가지 이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진로교육이 추구해야 할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미래 학교 진로교육이 더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편성 및 운영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정 시기
-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정 절차
- 진로교육 교육과정 내용
- 의견 수렴 등

5) 이 외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중학교 진로전담교사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 인터뷰: 중학교 진로전담교사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관계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발전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교육과정 운영과 인식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뷰 참여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으며, 인터뷰 내용은 녹취되어 분석에 활용됩니다. 인터뷰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다시 한번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문의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1) 현재 재직하고 계신 학교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로와 직업' 교과 편성 및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편성 및 운영
 - 진로연계교육
 - 자유학기제 등

- 2) 재직하고 계신 학교에서 진로교육 교육과정이 어떤 과정(절차)을 통해 편성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서 주안점은 무엇입니까?
 - 진로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과정에서 및 학교장, 일반교사 등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 3) 2022개정 교육과정의 본격적인 적용과 관련하여 중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에서 주안점(중점 고려 사항)과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준비과정에서 경험하는 이슈 및 지원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영역별 이슈 및 요구

- 1) ('진로와 직업')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로와 직업' 교과를 선택/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진로와 직업' 교과의 필수 과목 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이 '진로와 직업' 교과와 가지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차별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과 '진로와 직업' 교과의 적절한 구성 및 배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적절한 시수 및 운영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진로연계교육) 진로연계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어떻게 배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자유학기/학년제와 비교하여 진로연계교육의 도입이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로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4) (교과연계진로교육) 교과연계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교과연계진로교육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어떤 교과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교과연계진로교육 편성 및 운영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과연계진로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과연계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동료교사 참여, 시수 등)
- 교과연계진로교육을 운영하기 적합한 일반 교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진로교육 교육과정 역할 및 성과

1) 현재까지 진로교육이 중학교 진로교육 목표를 충실히 달성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2015 교육과정 기준 중학교 진로교육목표

초등학교에서 함양한 진로개발역량의 기초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직업세계와 교육기회를 탐색하여 중학교 생활 및 이후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한다.

2) 진로교육이 전체 학교 교육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위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진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제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

1) 일반교과교사들은 진로교육에 대해 어떤 태도 및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일반교과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반교과교사들의 진로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반교과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연계진로교육 등 일반교사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학교와 지역사회(진로체험지원센터 포함)가 연계된 진로교육이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서 지역사회 역할과 어떤 연계가 적절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 방향

- 1) 미래 진로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대표적인 키워드 5가지 이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미래 진로교육이 추구해야 할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미래 학교 진로교육이 더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편성 및 운영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진로전담교사로서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정 시기
 -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정 절차
 - 진로교육 교육과정 내용
 - 의견 수렴 등
- 5) 이 외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 인터뷰: 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관계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발전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교육과정 운영과 인식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뷰 참여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으며, 인터뷰 내용은 녹취되어 분석에 활용됩니다. 인터뷰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다시 한번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문의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1) 현재 재직하고 계신 학교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로와 직업' 교과 편성 및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편성 및 운영
 - 고교학점제
 - 진로연계교육 등

- 2) 재직하고 계신 학교에서 진로교육 교육과정이 어떤 과정(절차)을 통해 편성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서 주안점은 무엇입니까?
 - 진로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과정에서 및 학교장, 일반교사 등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 3) 2022개정 교육과정의 본격적인 적용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서 주안점(중점 고려 사항)과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경험하는 이슈 및 지원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영역별 이슈 및 요구

- 1) ('진로와 직업')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로와 직업' 교과를 선택/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진로와 직업' 교과의 필수 과목 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이 '진로와 직업' 교과와 가지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차별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과 '진로와 직업' 교과의 적절한 구성 및 배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적절한 시수 및 운영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진로연계교육) 진로연계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어떻게 배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학교와 고등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연계 과정에서 고등학교의 진로연계교육이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진로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4) (교과연계진로교육) 교과연계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교과연계진로교육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어떤 교과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교과연계진로교육 편성 및 운영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과연계진로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과연계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동료교사 참여, 시수 등)
- 교과연계진로교육을 운영하기 적합한 일반 교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진로교육 교육과정 역할 및 성과

1) 현재까지 진로교육이 고등학교 진로교육 목표를 충실히 달성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5 교육과정 일반고등학교 진로교육목표]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정보 탐색을 통해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한다.

[2015 교육과정 특성화고등학교 진로교육목표]

산업수요와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정보 탐색을 통해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한다.

- 2) 진로교육이 전체 학교 교육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위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3) 진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제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

- 1) 일반교과교사들은 진로교육에 대해 어떤 태도 및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일반교과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반교과교사들의 진로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반교과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연계진로교육 등 일반교사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2) 학교와 지역사회(진로체험지원센터 포함)가 연계된 진로교육이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서 지역사회 역할과 어떤 연계가 적절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 방향

- 1) 미래 진로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대표적인 키워드 5가지 이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미래 진로교육이 추구해야 할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미래 학교 진로교육이 더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편제 및 운영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진로전담교사로서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정 시기
 -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정 절차
 - 진로교육 교육과정 내용
 - 의견 수렴 등
- 5) 이 외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 인터뷰: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관계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발전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교육과정 운영과 인식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뷰 참여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으며, 인터뷰 내용은 녹취되어 분석에 활용됩니다. 인터뷰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다시 한번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문의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1) 현재 재직하고 계신 특수학교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로와 직업' 교과 편성 및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편성 및 운영
 - 진로연계교육
 - 고교학점제 등

- 2) 재직하고 계신 특수학교에서 진로교육 교육과정이 어떤 과정(절차)을 통해 편성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서 주안점은 무엇입니까?
 - 진로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과정에서 및 학교장, 일반교사 등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 3) 2022개정 교육과정의 본격적인 적용과 관련하여 특수학교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에서 주안점(중점 고려 사항)과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준비과정에서 경험하는 이슈 및 지원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영역별 이슈 및 요구

- 1) ('진로와 직업') 특수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로와 직업' 교과를 선택/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진로와 직업' 교과의 필수 과목 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이 '진로와 직업' 교과와 가지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차별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과 '진로와 직업' 교과의 적절한 구성 및 배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적절한 시수 및 운영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진로연계교육) 진로연계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어떻게 배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자유학기/학년제와 비교하여 진로연계교육의 도입이 학교 진로교육과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로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4) (교과연계진로교육) 교과연계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교과연계진로교육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어떤 교과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교과연계진로교육 편성 및 운영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과연계진로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과연계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동료교사 참여, 시수 등)
- 교과연계진로교육을 운영하기 적합한 일반 교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진로교육 교육과정 역할 및 성과

1) 현재까지 진로교육이 특수학교가 추구해야 할 진로교육 목표를 충실히 달성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진로교육이 전체 특수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위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진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제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

1) 특수학교 일반교과교사들은 진로교육에 대해 어떤 태도 및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일반교과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반 교사 교사들의 진로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반교과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연계진로교육 등 일반교과교사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학교와 지역사회(진로체험지원센터 포함)가 연계된 진로교육이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서 지역사회 역할과 어떤 연계가 적절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 방향

1) 미래 진로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대표적인 키워드 5가지 이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미래 진로교육이 추구해야 할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미래 학교 진로교육이 더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편제 및 운영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진로전담교사로서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정 시기
- 진로교육 교육과정 내용
-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정 절차 및 의견 수렴 등

5) 이 외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분석 인터뷰지(초·중·등 일반교과교사)

1. 초등학교 일반교과교사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 인터뷰: 초등학교 일반교과교사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관계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발전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교육과정 운영과 인식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뷰 참여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으며, 인터뷰 내용은 녹취되어 분석에 활용됩니다. 인터뷰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다시 한번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문의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1) 현재 재직하고 계신 학교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또는 진로교육 운영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학교 진로교육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교과교사로 진로교육 교육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더라도 대략적인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이해 및 관심 수준 파악)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편성 및 운영
- 진로연계교육 등

2)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참여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관련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일반교과교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서 학교장, 동료교사, 학부모 등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진로교육 교육과정과 전체 학교 교육과정의 관계 설정 등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 2022개정 교육과정의 본격적인 적용과 관련하여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과 관련하여 재직하고 계신 학교에서 진로교육 교육과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진로교육 교육과정 영역별 이슈 및 요구

- 1) (학년급별 진로교육) 초등학교의 학년급별 진로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과 차별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년급별 진로교육의 방향 및 역할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년급별 진로교육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2)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이 실과 등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수업과 가지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차별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초등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적절한 운영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진로연계교육) 진로연계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어떻게 배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교과교사는 진로연계교육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진로연계교육에서 일반교과교사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진로연계교육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일반교과교사가 인식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질문)
 - 진로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4) (교과연계진로교육) 교과연계 진로교육에 참여해보셨다면, 그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과연계진로교육을 어떤 교과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교과연계진로교육 편성 및 운영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과연계진로교육 운영 과정에서 느끼신 부분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 교과연계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교사 참여, 시수 등)
 - 교과연계진로교육을 운영하기 적합한 일반 교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5) (교과연계진로교육) 교과연계 진로교육에 참여해본 적이 없으시다면, 향후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교과연계진로교육의 참여/미참여 의향이 있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과연계진로교육이 전체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로교육 교육과정 역할 및 성과

1) 현재까지 진로교육이 초등학교 진로교육 목표를 충실히 달성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2015 교육과정 기준 초등학교 진로교육목표

자신과 일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가치를 형성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과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찾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기초를 배양한다.

2) 초등학교 진로교육이 전체 학교 교육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위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진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제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

1) 일반교과교사로서 진로교육에 대해 어떤 태도 및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일반교과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반교과교사들의 진로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반교과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연계진로교육 등 일반교과교사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 방향

- 1) 미래 진로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대표적인 키워드 5가지 이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진로교육이 추구해야 할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미래 학교 진로교육이 더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편성 및 운영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이 외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중학교 일반교과교사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 인터뷰: 중학교 일반교과교사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관계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발전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교육과정 운영과 인식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뷰 참여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으며, 인터뷰 내용은 녹취되어 분석에 활용됩니다. 인터뷰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다시 한번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문의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1) 현재 재직하고 계신 학교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또는 진로교육 운영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학교 진로교육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교과교사로 진로교육 교육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더라도 대략적인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이해 및 관심 수준 파악)
 - '진로와 직업' 교과 편성 및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편성 및 운영
 - 자유학기제/진로연계교육 등

- 2)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참여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관련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일반교과교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과정에서 학교장, 동료교사, 학부모 등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진로교육 교육과정과 전체 학교 교육과정의 관계 설정 등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3) 2022개정 교육과정의 본격적인 적용과 관련하여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과 관련하여 재직하고 계신 학교에서 진로교육 교육과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진로교육 교육과정 영역별 이슈 및 요구

- 1)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이 '진로와 직업' 교과와 가지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차별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적절한 시수 및 운영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교과교사가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담당 시 어려운 부분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2) (진로연계교육) 진로연계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어떻게 배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교과교사는 진로연계교육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진로연계교육에서 일반교과교사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진로연계교육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일반교과교사가 인식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질문)
 - 기존 자유학기/학년제와 비교하여 진로연계교육의 도입이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로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3) (교과연계진로교육) 교과연계 진로교육에 참여해보셨다면, 그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과연계진로교육을 어떤 교과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교과연계진로교육 편성 및 운영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과연계진로교육 운영 과정에서 느끼신 부분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 교과연계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교사 참여, 시수 등)
 - 교과연계진로교육을 운영하기 적합한 일반 교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4) (교과연계진로교육) 교과연계 진로교육에 참여해본 적이 없으시다면, 향후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교과연계진로교육의 참여/미참여 의향이 있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과연계진로교육이 전체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로교육 교육과정 역할 및 성과

1) 현재까지 진로교육이 중학교 진로교육 목표를 충실히 달성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2015 교육과정 기준 중학교 진로교육목표

초등학교에서 함양한 진로개발역량의 기초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직업세계와 교육기회를 탐색하여 중학교 생활 및 이후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한다.

2) 진로교육이 전체 학교 교육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위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진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제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

1) 일반교과교사로서 진로교육에 대해 어떤 태도 및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일반교과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반교과교사들의 진로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반교과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연계진로교육 등 일반교과교사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 방향

- 1) 미래 진로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대표적인 키워드 5가지 이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진로교육이 추구해야 할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미래 학교 진로교육이 더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편제 및 운영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이 외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고등학교 일반교과교사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 인터뷰: 고등학교 일반교과교사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관계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발전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교육과정 운영과 인식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뷰 참여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으며, 인터뷰 내용은 녹취되어 분석에 활용됩니다. 인터뷰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다시 한번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문의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1) 현재 재직하고 계신 학교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또는 진로교육 운영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학교 진로교육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교과교사로 진로교육 교육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더라도 대략적인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이해 및 관심 수준 파악)

- '진로와 직업' 교과 편성 및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편성 및 운영
- 고교학점제
- 진로연계교육 등

2)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참여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관련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일반 교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서 학교장, 동료교사, 학부모 등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진로교육 교육과정과 전체 학교 교육과정의 관계 설정 등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 2022개정 교육과정의 본격적인 적용과 관련하여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과 관련하여 재직하고 계신 학교에서 진로교육 교육과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진로교육 교육과정 영역별 이슈 및 요구

- 1)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교 전체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교과교사가 고교학점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 2)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이 '진로와 직업' 교과목과 가지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차별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적절한 시수 및 운영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교과교사가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담당 시 어려운 부분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3) (진로연계교육) 진로연계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어떻게 배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교과교사는 진로연계교육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진로연계교육에서 일반교과교사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진로연계교육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일반교과교사가 인식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질문)
 - 진로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4) (교과연계진로교육) 교과연계진로교육에 참여해보셨다면, 그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과연계진로교육을 어떤 교과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교과연계진로교육 편성 및 운영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과연계진로교육 운영 과정에서 느끼신 부분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 교과연계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교사 참여, 시수 등)
- 교과연계진로교육을 운영하기 적합한 일반 교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5) (교과연계진로교육) 교과연계 진로교육에 참여해본 적이 없으시다면, 향후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교과연계진로교육의 참여/미참여 의향이 있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과연계진로교육이 전체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로교육 교육과정 역할 및 성과

1) 현재까지 진로교육이 고등학교 진로교육 목표를 충실히 달성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5 교육과정 일반고등학교 진로교육목표]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정보 탐색을 통해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한다.

[2015 교육과정 특성화고등학교 진로교육목표]

산업수요와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정보 탐색을 통해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한다.

2) 진로교육이 전체 학교 교육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위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진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제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

- 1) 일반교과교사로서 진로교육에 대해 어떤 태도 및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일반교과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반교과교사들의 진로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반교과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연계진로교육 등 일반교과교사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 방향

- 1) 미래 진로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대표적인 키워드 5가지 이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진로교육이 추구해야 할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미래 학교 진로교육이 더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편성 및 운영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이 외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특수학교 일반교과교사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 인터뷰: 특수학교 일반교사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관계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발전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교육과정 운영과 인식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뷰 참여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으며, 인터뷰 내용은 녹취되어 분석에 활용됩니다. 인터뷰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다시 한번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문의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1) 현재 재직하고 계신 특수학교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또는 진로교육 운영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학교 진로교육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교과교사로 진로교육 교육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더라도 대략적인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이해 및 관심 수준 파악)
 - '진로와 직업' 교과 편성 및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편성 및 운영
 - 자유학기제/진로연계교육 등

- 2) 특수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참여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관련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일반교과교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과정에서 학교장, 동료교사, 학부모 등의 참여가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 진로교육 교육과정과 전체 학교 교육과정의 관계 설정 등이 잘 되었습니까?

- 3) 2022개정 교육과정의 본격적인 적용과 관련하여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과 관련하여 재직하고 계신 학교에서 진로교육 교육과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진로교육 교육과정 영역별 이슈 및 요구

- 1) (창의적 체험활동) 특수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이 '진로와 직업' 교과가 가지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차별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적절한 시수 및 운영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교과교사가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담당 시 어려운 부분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 (진로연계교육) 진로연계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어떻게 배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교과교사는 진로연계교육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진로연계교육에서 일반교과교사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진로연계교육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일반교과교사가 인식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질문)
- 기존 자유학기/학년제와 비교하여 진로연계교육의 도입이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로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3) (교과연계진로교육) 교과연계 진로교육에 참여해보셨다면, 그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과연계진로교육을 어떤 교과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교과연계진로교육 편성 및 운영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과연계진로교육 운영 과정에서 느끼신 부분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 교과연계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교사 참여, 시수 등)
- 교과연계진로교육을 운영하기 적합한 일반 교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4) (교과연계진로교육) 교과연계 진로교육에 참여해본적이 없으시다면, 향후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교과연계진로교육의 참여/미참여 의향이 있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과연계진로교육이 전체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로교육 교육과정 역할 및 성과

- 1) 현재까지 특수학교 진로교육이 중학교 진로교육 목표를 충실히 달성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진로교육이 전체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위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3) 진로교육이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제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

- 1) 일반교과교사로서 진로교육에 대해 어떤 태도 및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일반교과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반교과교사들의 진로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반교과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연계진로교육 등 일반교과교사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 방향

- 1) 미래 진로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대표적인 키워드 5가지 이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진로교육이 추구해야 할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미래 학교 진로교육이 더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편제 및 운영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이 외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분석 인터뷰지(초·중·등 학교관리자)

1. 초등학교관리자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 인터뷰: 초등학교관리자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관계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발전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교육과정 운영과 인식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뷰 참여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으며, 인터뷰 내용은 녹취되어 분석에 활용됩니다. 인터뷰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다시 한번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문의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1) 현재 재직하고 계신 학교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또는 진로교육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관리자로 진로교육 교육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더라도 대략적인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이해 및 관심 수준 파악)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편성 및 운영
 - 진로연계교육 등

- 2) 초등학교관리자로서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어떻게 참여하고 계십니까?
 -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관련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초등학교관리자로서 진로교육이 전체 학교 교육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4) 2022개정 교육과정의 본격적인 적용과 관련하여 진로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과 관련하여 재직하고 계신 학교에서 진로교육 교육과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진로교육 교육과정 영역별 이슈 및 요구

- 1) (학년급별 진로교육) 초등학교의 학년급별 진로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과 차별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년급별 진로교육의 방향 및 역할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년급별 진로교육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2)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적절한 시수 및 운영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운영 시 어려운 부분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3) (진로연계교육) 진로연계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어떻게 배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로연계교육의 도입이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로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5) (교과연계진로교육) 교과연계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교과연계진로교육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어떤 교과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교과연계진로교육 편성 및 운영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과연계진로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과연계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교사 참여, 시수 등)

진로교육 교육과정 역할 및 성과

- 1) 현재까지 진로교육이 초등학교 진로교육 목표를 충실히 달성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2015 교육과정 기준 초등학교 진로교육목표
자신과 일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가치를 형성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과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찾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기초를 배양한다.
- 2) 진로교육이 전체 학교 교육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위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3) 진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제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

- 1) 학교관리자로서 진로교육에 대해 어떤 태도 및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장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반교과교사들의 진로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 방향

- 1) 미래 진로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대표적인 키워드 5가지 이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진로교육이 추구해야 할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미래 학교 진로교육이 더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편성 및 운영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이 외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중학교관리자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 인터뷰: 중학교관리자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관계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발전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교육과정 운영과 인식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뷰 참여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으며, 인터뷰 내용은 녹취되어 분석에 활용됩니다. 인터뷰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다시 한번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문의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1) 현재 재직하고 계신 학교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또는 진로교육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관리자로 진로교육 교육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더라도 대략적인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이해 및 관심 수준 파악)
 - '진로와 직업' 교과 편성 및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편성 및 운영
 - 그 외 진로연계교육 등

- 2) 중학교관리자로서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어떻게 참여하고 계십니까?
 -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관련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중학교관리자로서 진로교육이 전체 학교 교육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4) 2022개정 교육과정의 본격적인 적용과 관련하여 진로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과 관련하여 재직하고 계신 학교에서 진로교육 교육과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진로교육 교육과정 영역별 이슈 및 요구

- 1) ('진로와 직업') 재직하고 계신 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와 '진로와 직업' 교과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로와 직업' 교과목을 선택/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진로와 직업' 교과의 필수 과목 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이 '진로와 직업' 교과와 가지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차별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적절한 시수 및 운영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운영 시 어려운 부분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3) (진로연계교육) 진로연계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어떻게 배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자유학기/학년제와 비교하여 진로연계교육의 도입이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로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5) (교과연계진로교육) 교과연계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교과연계진로교육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어떤 교과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교과연계진로교육 편성 및 운영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과연계진로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과연계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교사 참여, 시수 등)

진로교육 교육과정 역할 및 성과

- 1) 현재까지 진로교육이 중학교 진로교육 목표를 충실히 달성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2015 교육과정 기준 중학교 진로교육목표
초등학교에서 함양한 진로개발역량의 기초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직업세계와 교육기회를 탐색하여 중학교 생활 및 이후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한다.
- 2) 진로교육이 전체 학교 교육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위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3) 진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제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

- 1) 학교관리자로서 진로교육에 대해 어떤 태도 및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장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반교과교사들의 진로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 방향

- 1) 미래 진로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대표적인 키워드 5가지 이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진로교육이 추구해야 할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미래 학교 진로교육이 더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편성 및 운영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이 외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고등학교관리자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 인터뷰: 고등학교관리자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관계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발전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교육과정 운영과 인식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뷰 참여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으며, 인터뷰 내용은 녹취되어 분석에 활용됩니다. 인터뷰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다시 한번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문의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1) 현재 재직하고 계신 학교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또는 진로교육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관리자로 진로교육 교육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더라도 대략적인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이해 및 관심 수준 파악)
 - '진로와 직업' 교과 편성 및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편성 및 운영
 - 고교학점제, 진로연계교육 등

- 2) 고등학교관리자로서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어떻게 참여하고 계십니까?
 -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관련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고등학교관리자로서 진로교육이 전체 학교 교육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4) 2022개정 교육과정의 본격적인 적용과 관련하여 진로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과 관련하여 재직하고 계신 학교에서 진로교육 교육과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진로교육 교육과정 영역별 이슈 및 요구

- 1) ('진로와 직업') 재직하고 계신 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와 '진로와 직업' 교과목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로와 직업' 교과목을 선택/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진로와 직업' 교과목의 필수 과목 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진로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이 '진로와 직업' 교과와 가지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차별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적절한 시수 및 운영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운영 시 어려운 부분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3) (진로연계교육) 진로연계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어떻게 배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자유학기/학년제와 비교하여 진로연계교육의 도입이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로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5) (교과연계진로교육) 교과연계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교과연계진로교육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어떤 교과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교과연계진로교육 편성 및 운영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과연계진로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과연계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교사 참여, 시수 등)

진로교육 교육과정 역할 및 성과

- 1) 현재까지 진로교육이 고등학교 진로교육 목표를 충실히 달성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5 교육과정 일반고등학교 진로교육목표]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정보 탐색을 통해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한다.

[2015 교육과정 특성화고등학교 진로교육목표]

산업수요와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정보 탐색을 통해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한다.

- 2) 진로교육이 전체 학교 교육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위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3) 진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제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

- 1) 학교관리자로서 진로교육에 대해 어떤 태도 및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장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반교과교사들의 진로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 방향

- 1) 미래 진로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대표적인 키워드 5가지 이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진로교육이 추구해야 할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미래 학교 진로교육이 더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편성 및 운영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이 외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분석 인터뷰지(정책담당자 및 학계전문가)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 인터뷰: 정책담당자 및 학계전문가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관계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발전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교육과정 운영과 인식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뷰 참여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으며, 인터뷰 내용은 녹취되어 분석에 활용됩니다. 인터뷰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다시 한번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문의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1)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편성 및 운영 이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참여자께서 생각하시는 진로교육 교육과정 관련 주요 이슈 4가지를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의 적절한 운영 방안, 시기 등
- 학교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적절한 운영 방안 등
- '진로와 직업'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역할, 관계 및 차별점
- '진로와 직업' 교과의 필수 교과화

2) 2022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로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교학점제에서 진로교육의 역할 및 위치
- 진로연계교육 편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교과연계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일반교사 참여 촉진, 제도 및 정책, 교과연계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습자료 등)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

- 1) 진로교육이 학교 전체 교육과정에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학교 거버넌스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진로 중심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진로전담교사 부장 보직 부여 및 진로진학상담부 부서 운영
 - 학교 진로교육 협의회 운영 등

- 2)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반교과교사 및 학교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반교과교사의 진로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지원 및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교장의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어떤 지원 및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3)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 방향

- 1) 미래 진로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대표적인 키워드 5가지 이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진로교육이 추구해야 할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미래 학교 진로교육이 더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편성 및 운영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정 시기
- 진로교육 교육과정 내용
-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정 절차 및 의견 수렴 등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의 역할 등

5) 진로교육과정 개발(목표 및 성취기준)과 관련하여 「진로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진로교육센터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연구센터 및 전문위원회의 적절한 관계 및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법」]

제8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학생의 발달 단계 및 학교의 종류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②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이하 “국가진로교육센터”라 한다)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3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같은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전문위원회)

-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 및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연구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 1. 법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사무에 관한 자문이나 사전검토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
 - 2.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무에 관한 자문이나 사전검토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
-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의 각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구센터(이하 “교육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4.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인 연구기관
- ② 교육연구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의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 2.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3. 교육연구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
-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 ④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연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연구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이 외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분석 인터뷰지(학부모)

1. 초등학생 학부모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 인터뷰: 초등학생 학부모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관계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발전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교육과정 운영과 인식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뷰 참여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으며, 인터뷰 내용은 녹취되어 분석에 활용됩니다. 인터뷰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다시 한번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문의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1) 학부모님께서서는 초등학교 진로교육을 통해 자녀의 어떤 점이 성장/변화하기를 기대하십니까?

- 2)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3) 학교 진로교육의 아래 활동 중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진로교육 활동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로수업,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진로체험, 진로진학정보제공 등)

- 4) 진로교육이 여러 교과 속에서 연계 또는 통합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과학 교과에서 과학 내용과 함께 관련 진로에 대한 내용을 포함. 또는 과학 교과의 일부 단원과 실과의 일부 진로 단원을 연계하여 운영)

- 5)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대비하여 초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어떤 지도 및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십니까?

- 6) (진로연계교육) 학생들이 중학교에 원활히 진학하도록 초등학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기대하십니까?

- 7) 초등학교에도 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

- 1)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님께서 직접 참여하시거나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참여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를 통한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느낌, 생각 등
 - 참여하신 경험이 없다면,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학부모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식의 참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 학교 진로교육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 또는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직업에 대한 진로체험 실시 등)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 방향

- 1) 미래 진로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대표적인 키워드 5가지 이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진로교육이 추구해야 할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미래 학교 진로교육이 더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이 외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중학생 학부모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 인터뷰: 중학생 학부모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관계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발전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교육과정 운영과 인식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뷰 참여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으며, 인터뷰 내용은 녹취되어 분석에 활용됩니다. 인터뷰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다시 한번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문의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1) 학부모님께서서는 중학교 진로교육을 통해 자녀의 어떤 점이 성장/변화하기를 기대하십니까?

- 2) 현재 중학교에서는 ‘진로와 직업’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을 통해 진로와 관련한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3) 학교 진로교육의 아래 활동 중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진로교육 활동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로수업,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진로체험, 진로진학정보 제공 등)

- 4) 진로교육이 여러 교과 속에서 연계 또는 통합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과학 교과에서 과학 내용과 함께 관련 진로에 대한 내용을 포함. 또는 과학 교과의 일부 단원과 ‘진로와 직업’ 교과의 일부 단원을 연계하여 운영)

5) 고등학교 고교학점제를 대비하여 진로교육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십니까?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어떤 지도 및 교육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하십니까?

6) (진로연계교육)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학교 진로교육을 통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기대하십니까?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

1)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님께서 직접 참여하시거나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참여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를 통한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느낌, 생각 등
- 참여하신 경험이 없다면,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학부모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식의 참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학교 진로교육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 또는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직업에 대한 진로체험 실시 등)

3. 고등학생 학부모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 인터뷰: 고등학생 학부모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관계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발전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교육과정 운영과 인식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뷰 참여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으며, 인터뷰 내용은 녹취되어 분석에 활용됩니다. 인터뷰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다시 한번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문의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1) 학부모님께서서는 고등학교 진로교육을 통해 자녀의 어떤 점이 성장/변화하기를 기대하십니까?

- 2)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와 직업'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을 통해 진로와 관련한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3) 학교 진로교육의 아래 활동 중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진로교육 활동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로수업,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진로체험, 진로진학정보 제공 등)

- 4) 진로교육이 여러 교과 속에서 연계 또는 통합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과학 교과에서 과학 내용과 함께 관련 진로에 대한 내용을 포함. 또는 과학 교과의 일부 단원과 '진로와 직업' 교과의 일부 단원을 연계하여 운영)

5) 고교학점제에서 진로교육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십니까?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어떤 지도 및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십니까?

6) (진로연계교육) 학생들의 대학교 진학 또는 원활한 취업(직업계고)을 위해 학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기대하십니까?

진로교육 교육과정 거버넌스

1)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님께서 직접 참여하시거나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참여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를 통한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느낌, 생각 등
- 참여하신 경험이 없다면,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학부모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식의 참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학교 진로교육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 또는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직업에 대한 진로체험 실시 등)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 방향

- 1) 미래 진로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대표적인 키워드 5가지 이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진로교육이 추구해야 할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미래 학교 진로교육이 더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이 외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요구분석 인터뷰지(학생)

1. 초등학생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 인터뷰: 초등학생 -

안녕하십니까?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인터뷰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진로교육이 어떠한지, 미래에는 어떤 진로교육에 참여하고 싶은지를 여쭙보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 나이, 성별 등 개인적인 정보는 일체 공개되지 않고 보호됩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문의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1) 여러분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을 통해 어떤 것을 학습하거나 자신이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여러분이 학교에서 참여한 진로교육 수업 또는 활동 중 가장 즐거웠던 활동과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은 각각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로수업,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진로체험, 진로진학정보제공 등)

- 3) 여러 교과목을 학습할 때 진로교육을 함께 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별도의 진로교육 교과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과학 교과에서 과학 내용과 함께 관련 진로에 대한 내용을 포함. 또는 과학 교과의 일부 단원과 실과의 일부 진로 단원을 연계하여 운영)

- 4) 여러분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대비해서 초등학교 진로교육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학생들이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일반교과 중심의 시험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하는 교육과정)

- 5) (진로연계교육) 여러분은 중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기대하십니까?

- 6) 여러분은 학교에서 진로교육 시간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전반적으로 학교 진로교육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8) 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에도 초등학교 여러분의 진로교육만을 담당하는 진로전담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 진로교육 방향

1) ‘미래 진로’ 하면 떠오르는 단어 5가지 이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미래 진로와 관련하여 더 참여하고 싶은 또는 새롭게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2. 중학생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 인터뷰: 중학생 -

안녕하십니까?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인터뷰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진로교육이 어떠한지, 미래에는 어떤 진로교육에 참여하고 싶은지를 여쭙보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 나이, 성별 등 개인적인 정보는 일체 공개되지 않고 보호됩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문의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1) 여러분은 중학교 진로교육을 통해 어떤 것을 학습하거나 자신이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여러분은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에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 3) 여러분은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에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 '진로와 직업' 교과와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 4) 학교 진로교육의 아래 활동 중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진로교육 활동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로수업,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진로체험, 진로진학정보 제공 등)

- 5) 진로교육이 일반 교과 속에서 또는 연계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과학 교과에서 과학 내용과 함께 관련 진로에 대한 내용을 포함. 또는 과학 교과의 일부 단원과 '진로와 직업' 교과의 일부 진로 단원을 연계하여 운영)

6) 여러분은 고등학교 고교학점제를 대비하여 중학교에서 받는 진로교육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7) (진로연계교육) 여러분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중학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기대하십니까?

8) 여러분은 학교에서 진로교육 시간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9)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전반적으로 학교 진로교육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미래 진로교육 방향

1) '미래 진로' 하면 떠오르는 단어 5가지 이상을 자유롭게 이야기 해 주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미래 진로와 관련하여 더 참여하고 싶은 또는 새롭게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3. 고등학생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 인터뷰: 고등학생 -

안녕하십니까?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인터뷰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진로교육이 어떠한지, 미래에는 어떤 진로교육에 참여하고 싶은지를 여쭙보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 나이, 성별 등 개인적인 정보는 일체 공개되지 않고 보호됩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문의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1) 여러분은 고등학교 진로교육을 통해 어떤 것을 학습하거나 자신이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여러분은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에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 3) 여러분은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에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 '진로와 직업' 교과와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 4) 학교 진로교육의 아래 활동 중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진로교육 활동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로수업,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진로체험, 진로진학정보 제공 등)

- 5) 진로교육이 일반 교과 속에서 또는 연계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과학 교과에서 과학 내용과 함께 관련 진로에 대한 내용을 포함. 또는 과학 교과의 일부 단원과 '진로와 직업' 교과의 일부 진로 단원을 연계하여 운영)

- 6) 여러분은 고교학점제에서 진로교육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7) (진로연계교육) 여러분은 대학교 진학 또는 취업(직업계고)을 위해 고등학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기대하십니까?
- 8) 여러분은 학교에서 진로교육 시간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9)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전반적으로 학교 진로교육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미래 진로교육 방향

- 1) ‘미래 진로’ 하면 떠오르는 단어 5가지 이상을 자유롭게 이야기 해 주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미래 진로와 관련하여 더 참여하고 싶은 또는 새롭게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4. 대학생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 인터뷰: 대학생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관계자(학생)의 인식을 확인하고 미래 진로교육 교육과정의 발전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교육과정 운영과 인식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뷰 참여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으며, 인터뷰 내용은 녹취되어 분석에 활용됩니다. 인터뷰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다시 한번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문의 :

진로교육 경험과 의미

- 1) 여러분은 중·고등학교 시기 아래와 같은 진로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자유학기제/학년제, 진로 진학상담, 진로체험 등

- 2) 여러분은 진로 선택(예. 대학교 진학, 취업 등) 과정에서 학교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왜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여러분은 중·고등학교 진로교육이 학교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4) 중·고등학교 진로교육에서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 진로교육 방향

- 1) 여러분의 현재 관점에서 '미래 진로' 하면 떠오르는 단어 5가지 이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중·고등학교 시기를 되돌아보았을 때 이러한 진로교육을 받았다면 더 좋았을텐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3) 현재 대학생할 또는 취업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진로활동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중·고등학교 진로활동을 개선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중·고등학교 진로교육이 미래에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